

면지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안(試案) 개발

- 경찰대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

《研究陣》

연구 위원 : 박 경 현 (경찰대학 교수)

연구 원 : 류 진 형 (경찰대학 학생지도부)

연구 관 : 정 초 영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연구 조 원 : 이 아 영 (경찰대학 학생지도부)

면지



治 安 研 究 所

목 차

I. 서 언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	12
II.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13
1. 인성교육의 필요성	13
2. 인성교육의 대전제	15
3. 인성 변화의 전략	17
4.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	19
III. 인성 교육의 보편 덕목	24
1. 동양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덕목	24
2. 서양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덕목	25
3. 최근 인성교육의 덕목	26
4. 선진 시민사회의 인성교육 덕목	30
5. 제2의 건국 운동의 덕목	30
6.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성	33
IV. 경찰관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	35
1. 덕목 설정을 위한 자료	35

1) 여러 나라의 경찰윤리현장에 나타난 경찰상	35
2) 경찰학 연구자들의 설정 덕목	36
3) 국가공무원법	38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38
5) 공무원 윤리현장	38
6) 경찰 현장	38
7) 경찰서비스현장	39
8)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39
9) 경찰대학 학훈	39
10) 경찰대학 설치법	39
11) 경찰대학 교과과정에 관한 규칙	40
12) 경찰대학 학칙	40
13) 경찰대학 교가	40
14) 경찰대학생 생활규범	40
15) 경찰대학생 과외활동지침	41
16) 경찰대학 재학생이 바라는 덕목	41
17) 경찰대학생의 사고방식	42
2. 주요 덕목의 의미와 구현 방안	44
(1) 봉 사(奉仕)	44
(2) 예 의(禮儀)	50
(3) 충 성(忠誠)	56
(4) 국가관(國家觀)	62
(5) 정 의(正義)	66
(6) 정 직(正直)	76
(7) 공 정(公正)	83
(8) 성 실(誠實)	87
(9) 신뢰(信賴)	92

발 간 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여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안으로는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재도약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기치 아래 다가올 월드컵 행사 등 당면한 국정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는 경찰의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치안시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면서 주요 치안정책 결정을 위한 풍부한 관련자료와 시책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번 『치안논총 제17집』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의 이론과 경찰 연구관의 실무경험을 접합, 공동 연구한 여러 연구과제들 중에서 이론적 뒷받침과 시책활용이 기대되는 보고서들을 모아 발간하였습니다.

(10) 관 용(寬容)	97
(11) 협 동(協同)	101
(12) 명 예(名譽)	109
(13) 모 범(模範)	113
(14) 복 종(服從)	116
(15) 인 내(忍耐)	119
(16) 자 율(自律)	122
(17) 효(孝)	126
(18) 존 중(尊重)	129
(19) 창 의(創意)	136
(20) 책 임(責任)	139
(21) 겸 손(謙遜)	145
(22) 절 제(節制)	148
(23) 기 타	151

V.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157

1.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158
(1) 교과목	159
(2) 특 강	162
(3) 독 서	165
(4) 토 론	166
(5) 전문 인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활용	167
2. 각종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	168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74
4.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176
5.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176

논총에 수록된 연구보고서들이 경찰개혁과 조직문화발전에 밑거름이 됨은 물론 경찰관련업무 종사자와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훌륭한 논문을 제출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 등 연구진과 논총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안연구소장 이근문

(1) 대면 상담	177
(2) 사이버 상담	177
6.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80
(1) 심성수련의 목적	181
(2) 심성수련의 특징	182
(3) 기대되는 효과	183
(4) 프로그램 진행 요령	183
(5) 진행자의 자세	184
(6) 참가자의 자세	186
(7) 프로그램 진행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게임들	187
(8)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	196
(9) 프로그램의 종류	197

VI.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안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198
①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198
1.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198
2. 나 이렇게 변했어요	203
3. 적응방법 연습	204
4. 대학생활 계획	205
5. 적응력 역할 놀이	208
6. 내가 나에게	211
7. 신입생으로서의 내 모습	212
8. 촛불 명상	213
② 자기성장 프로그램	213
1. 자기성장을 위한 안내	213

총 목 차

- ◆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안(試案) 개발 1

- ◆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423

- ◆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579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 개선방안 691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223
3.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226
4. 인생관과 생활 자세	229
5. 삶의 의미 찾기	237
6.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239
7. 자기 선서(Self-Affirmation)	241
8. 내가 나에게	243
9. 자기성장을 한 내 모습	244
10. 촛불 명상	246
③ 가치관의 명료화 프로그램	246
1. 가치관에 대한 안내	246
2. 가치관의 명료화	249
3. 누구를 태울까	251
4. 탈출자 뽑기	253
5. 가치관 경매	255
6. 생애 도표 그리기와 상장 수여식	258
7. 바람직한 청람인상(靑籃人像)	260
8. 타임 머신(Time Machine)	262
9. 가치관 역할놀이	264
10. 내가 나에게	265
11. 가치관이 분명한 내 모습	266
12. 촛불 명상	267
④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68
1. 스트레스에 대한 안내	268
2. 학업스트레스 극복	274
3. 스트레스 원인 및 해소	278
4. 스트레스 대처 실습	281

5. 시간 관리	286
6. 스트레스 역할놀이	290
7. 스트레스를 이겨낸 내 모습	292
8. 내가 나에게	293
9. 촛불 명상	294
⑤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294
1. 갈등에 대한 안내	295
2. 갈등 해결하기	297
3. 성격유형 파악하기	298
4. 대인관계 분석	306
5. 이성 교제	312
6. 대인관계 역할 놀이	322
7. 대인관계가 향상된 내 모습	326
8. 내가 나에게	328
9. 촛불 명상	329
⑥ 예절 지키기 프로그램	330
1. 예절에 대한 안내	330
2. 에티켓과 매너의 이해	332
3. 인사예절	332
4. 자기소개 바르게 하기, 접대 및 응대 예절	333
5. 언어 사용 예절	333
6.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과 자신의 모습 바로 보기	333
7. 행동 예절(행동과학적 태도 개선)	333
8. 테이블 매너(table manner)	333
9. 가정생활 예절	333
10. 직장예절	334
11. Global Etiquette	334

12. 경찰 예절 교육의 기본방향	335
13. 내가 나에게	335
14. 예절인으로서의 내 모습	336
15. 촛불 명상	338
7]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338
1. 의사소통법 이해하기	339
2. 피드백(feedback) 주고받기	352
3. '나' 전달법(I-message)	354
4. 감정 확인과 보고	358
5. 경청하기	362
6.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 AT)	369
7. '3분 스피치' 연습	371
8. 내가 나에게	374
9.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내 모습	375
10. 촛불 명상	376
8] 친절 서비스 프로그램	376
1. 친절에 대한 안내	377
2. 스마일(smile)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실습	383
3. 전화 바르게 걸고 받기	384
4. 학교 방문자 친절 안내	389
5. 1일 1소(笑) 운동	391
6. 토론('친절한 경찰'이 되려면)	393
7. 내가 나에게	395
8. 친절한 내 모습	396
9. 촛불 명상	397
9] 리더십 개발 훈련 프로그램	398

1. 리더십에 대한 안내	398
2. 리더십과 폴로워십에 대한 토론	409
3. '경찰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리더' 선정 및 초청	410
4. 나의 자화상	411
5. 로봇(robot)되어 보기	412
6. 리더십 진단 및 개발	413
7. 리더십 역할 놀이	415
8. 리더로서의 내 모습	416
9. 내가 나에게	417
10. 촛불 명상	418
VII. 결어 및 제언	419
참 고 문 헌	421

I. 서 언

1. 연구의 필요성

바람직한 교육은 ‘지(知)·덕(德)·체(體)’를 조화롭게 고루 갖춘 전인교육(全人教育)을 하는 것이다. ‘덕’에 관한 교육을 흔히 ‘인성(人性)¹⁾의 교육이라고 부른다.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적(知的)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도덕적인 발달을 두루 망라하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모든 기본적인 자질과 특성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적·신체적인 발달보다는 사회적·정서적·도덕적 발달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을 흔히 ‘인성교육’²⁾이라고 한다.

경찰관은 그 자신이 시민들의 규범이며 법이어야 한다. 실정법이 문서상의 법이라면 경찰관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법적·도덕적 생활규범 그 자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인성을 바람직하게 개발·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경찰관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
- 1) ‘인성’의 정의는 인성론(人性論) 연구자의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성’이란 정범모(鄭範謨)가 ‘personality’를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학에서 인성을 대체로 ‘여러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독특하게 반응하는 구조적이며 역동적인 특징’, ‘인간 개개인이 갖는 됴됨이의 독특한 기질로 행동의 질서와 적합성을 가지고 개인이 사회 생활면에 적응을 조절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종합적인 행동 유형’이라고 뜻매김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인성’이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인간이 지니는 특징적인 반응양식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격’, ‘인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 2) 인성교육을 ‘윤리교육, 도덕교육, 도의교육, 가치관교육, 인간교육, 품성교육, 덕성교육, 정신교육, 자아실현교육, 심성(心性)교육, 정의(情意)교육, 덕교육(德教育), 지·덕·체·기 겸비(知·德·體·技 兼備) 교육, personality 교육, 미래지향교육’등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용어들은 학자에 따라 다소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 편중이나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의욕과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영문으로는 흔히 ‘personality edu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영어권 학자들은 이 용어보다는 ‘character edu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연구의 목적

종래의 경찰관 양성교육은 전문지식이나 기능, 무도 등 ‘지’와 ‘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여 왔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덕’에 대한 교육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우선 경찰간부가 될 경찰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추어야 할 ‘덕’의 영역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본고에서는 우선 제3 단계까지만 착수하기로 한다.

- 제1 단계 : 이론적 배경 정립
- 제2 단계 : 자료 수집 및 분석
- 제3 단계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안 개발
- 제4 단계 :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작성
- 제5 단계 : 진행 지도자 지침서 제작
- 제6 단계 :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 교육
- 제7 단계 : 프로그램 실험 및 분석(1-4차)
- 제8 단계 : 프로그램 확정
- 제9 단계 : video tape 제작

제1 단계에서는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 보고, 제2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인성교육의 덕목을 수집·정리해 보고, 경찰관 인성교육에 필요한 주요 덕목을 추출해 본다. 그리고 제3 단계에서는 총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인성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도덕성 위기는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인간의 비인간화, 지나친 이기주의와 고독한 인간관계, 사회적 불균형에서 오는 좌절과 불안, 반목, 비정하고 냉혹한 인간상, 인정과 의리의 부재, 인명 경시, 인류 타락, 책임감 결여, 배금주의와 한탕주의 의식, 불신 풍조, 폭력과 파괴, 시험 부정,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응의 결여, 가혹 행위, 저속 언어 유행, 성적 문란, 자기중심주의, 집단이기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결여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양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잘못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거짓말 안 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나”, “언제 나한테 보태준 것 있어”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도덕적·법적 아노미(anomie)현상은 공동체적 삶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도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 교육이다. 인성교육으로 다소나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가정교육은 물론 유아·초·중·고·대학과 평생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이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도덕성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마지막 교육과정인 대학교육은 더욱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은 지식편중이나 기능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함”에 있다.³⁾ 따라서 주로 인격의 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현행의 대학 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교육은 도덕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

3) 고등교육법 제28조, 개정 1999·8·31 법률제6006호.

육이 되어야 한다.

경찰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⁴⁾

- (1) 1978년의 ‘경찰교육의 질’이라는 경찰협회의 보고서에서 경찰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찰교육 프로그램은 그 커리큘럼 안에 가치 선택과 경찰업무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철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⁵⁾
- (2) 빌리어(Peter Villiers)는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도덕적 활동(moral activity)”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찰의 바람직한 모습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⁶⁾
- (3) 현재 미국에서는 형사법학이나 경찰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경찰윤리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경찰윤리에 대한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고, 경찰윤리에 관한 전문서적들이 상당수 나와 있다.⁷⁾
- (4) 독일 주(州)경찰학교의 순경급 신규임용 기본교육에 ‘직업윤리’, ‘인격형성에 관한 세미나, 인지론, 갈등 해결-스트레스, 의사 소통, 집단 토의’ 등이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일 경찰 및 대학원에서도 ‘직업윤리’ 교과 또는 ‘직업윤리담당’(Berufsethik) 교직원을 두고 있다.⁸⁾
- (5) 일반시민들이 경찰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를 실무교육(47.2%), 인성교육(42.8%), 이론 교육(10.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⁹⁾

4) 경찰 인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20세 이상 성년이 된 청년들이 선발되어 경찰 교육을 받는 경우, 소위 인성교육을 통해서 개별 경찰관의 인격과 품성이 개선되리라고 믿는 것은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 소양 및 인성문제는 선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경찰교육 방향은 전문가로서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관희·임준태,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1999.12)

5)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 1쪽.

6) 위의 책, 1쪽.

7) 같은 책

8) 이관희·임준태, 앞의 논문.

9) 김재훈 외, 경찰교육 프로그램 적정화 연구, 연구보고서 98-01, 치안연구소, 1998.

- (6) 경찰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경찰관은 누구든지 그 사회에서 노출되어 있다. 유리창과 같은 수족관에서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어쩌면 사생활은 자기 집 안방에서나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찰관이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찰도 사람인데 왜 사생활이 없느냐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폭행, 폭언 등 참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는 집단 시위 현장에서 성직자나 수도승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도 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전과자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없다. 오히려 다른 공무원보다 더 깨끗하고 올바른 정직성, 즉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¹⁰⁾
- (7)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국가권력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가지는 건전한 상식(common sense)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경찰 활동이 건전한 국민 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민주 사회에서 경찰은 국민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구체적 공권력 행사도 단지 사회의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주된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그들의 권한 행사에서 ‘경찰은 정직하고 절제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리라.’는 시민의 상식적 바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¹¹⁾

2. 인성교육의 대전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가능하다.¹²⁾

- (1) 인성은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격이란 타고난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버릇이나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

10) 김형진, 경찰공무원의 자격, 치안정책연구, 1999.12

11)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

12) 박성수, 인성의 교육,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교육위원회, 1979.

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된다. 예컨대, 공익과 질서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태도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된 것은 아니다.

인성은 후천적으로 습득될 뿐 아니라 병리적 인성을 바람직한 인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곧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관심이나 태도 등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학습될 수 있고 가치관·인성 같은 것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학습된 것은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좀처럼 변하기 힘들다.

인간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거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라는 이념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 인성이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특정한 입장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정·학교·사회 단체·기업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 (2) 인성의 성장과 발달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특징이 작용한다. 인성의 성장 발달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신체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 사회 계층, 가족의 특징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인성은 그 사람이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 억압된 감정의 내용이나 그 감정이 지니고 있는 강약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표현되는 행동이 달라진다. 불일치(不一致)된 감정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불일치된 감정이 어떤 내용의 것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인성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상·신념·가치 등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고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나 행위는 사고 과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성은 그 사

람이 지니고 있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인성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같은 정서나 사고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표현하는 행위가 실제로 다르다고 하면 이는 인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의 감정과 사고가 신체적으로 표현되느냐 언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은 실제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성 변화의 전략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어떤 권위나 힘을 이용하여 명령하고 지시하여 사람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법률을 제정하여 어떤 행동을 규제하거나 학교에서는 교칙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도 일종의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험, 지식, 권위 등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특정한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의 행동은 부모나 교사가 일상 생활에서 하는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권위와 명령에 의한 행동의 변화에서는 힘을 가진 자의 필요와 판단을 위주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감정이 존중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명령과 지시를 주로 하여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려고 할 경우 현실적 사건이나 심리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반작용 내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자들은 명령과 지시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금기시(禁忌視)하는 경향이 있다.

(2) 설명이나 설득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명이나 설득은 명령과 지시보다 훨씬 인도주의적인 방법이다. 설명이나 설득은 인성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변화의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 행동이 왜 나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며 또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이며 좋은 행동을 왜 하여야 되느냐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설명이나 설득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인성교육 담당자들은 지적 설명이나 해석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확하더라도 그 설명이나 해석만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설명이나 설득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설명이나 설득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명령, 지시, 설명, 설득과 같은 행동 변화의 방법은 상식적인 신념과 전통적인 습관에서 나온 것이며 과학적이며 봉건적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식과 습관에 근거한 행동변화의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적은 것에도 문제가 있으나 더 큰 문제는 편견과 독선을 교육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객관성을 잃은 아집, 편견, 독선이 과학적 이론이나 실증적 교육 방법에 앞설 때에 교육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행동의 변화는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상담은 대화에 앞서서 인간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사람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

하게 된다. 상담은 인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전략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담은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변화와 의사의 결정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고 또 활용되어야 할 전략이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의 변화는 프로그램화된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의 행동특징이 집단교육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인성의 변화가 집단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은 20세기 후반기에 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나 감수성 훈련 등과 같은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험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강제적 요구나 압력으로 인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생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에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점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나 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성의 변화를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서 이룩한다는 것은 학생 자신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인성 특징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내용을 제공하여 선택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1) 인성 변화의 최종 열쇠는 학생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

인성 교육은 학생의 목인이나 동기가 있을 때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행동의 변화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선택과 자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간주되는 포로수용소의 세뇌 공작 과정을 분석하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동기유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2) 인성교육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과학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결과가 아닌 종래의 도덕적 당위나 윤리적 규범을 근거로 이루어질 때 독단과 오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인성교육은 도덕교육과 별개의 것이다. 인성교육은 인성의 발달과 변화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성교육은 인성의 하위 구성요인을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이어야 된다.

인성교육은 사고·태도·가치 등의 인지(認知) 변화와 애증(愛憎)·호오(好惡) 등의 정서적 변화 그리고 그러한 인지와 정서의 실제적 표현인 몸과 마음의 변화가 다같이 긍정적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된다.

- (4)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 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교육적 노력은 그만큼 낭비가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상세화(詳細化)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인성교육 담당자 자신이나 학생이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에서는 목표의 설정이나 경험 내용의 설정에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 효과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

- (5)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에서 시작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담 활동을 통해서 인성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할 때 학생들이 불안·긴장·갈등을 느끼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심리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는 많은 경우에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 상담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습득하기 원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행동 특징을 육성하고자 할 때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서적이나 이론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어떤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 (6) 인성교육에서 인성교육 담당자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생이 인성교육 담당자의 인격이나 교육 능력을 믿고 있을 경우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수용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교육 담당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도덕관에서 볼 때,

학생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그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행동을 재교육하여 바르게 하라는 것이 인성교육의 취지이기도 하다. 인성교육은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내면 심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성교육은 일치의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 관계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거짓된 꾸밈이나 꾸며진 술책 같은 것으로 인간 관계를 이루면 인성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7) 인성교육 담당자는 인성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좋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대와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영역의 교육에서보다도 인성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행동 특징은 오래 지속되고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행동 특징을 본인이 변화시키기를 원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은 단속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며 장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의 변화를 생각할 때 인성의 지속성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성 변화에 대한 저항은 다음과 같은 경향에서 나타난다. 사람은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행동 특징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을 그대로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일단 습득되어 견고하게 된 다음에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개인이 심리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도 현재의 행동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① 인성 변화는 학생 자신이 하는 것이며 담당자는 다만 그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② 인성교육이 학생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곧 부모, 형제, 친구, 선배, 지역 사회 등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지원을 받을 때, 그만큼 그에 대한 반대나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 ③ 인성을 변화시키면 불안이나 갈등을 감소되고 긍정적 행동 특징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인성교육에 대한 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
- ④ 인성교육에서 의도하는 변화가 학생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그만큼 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
- ⑤ 인성교육의 실제적 활동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 내용을 선택할 때 저항은 감소될 수 있다.
- ⑥ 인성의 변화에서 설정한 긍정적 변화와 대립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현실적 검토와 논의가 이해와 관용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긍정적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

Ⅲ. 인성 교육의 보편 덕목

인성교육에서 가장 먼저 선행하여야 할 작업은 덕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교육 대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덕목과 경찰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경찰대학 학생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덕을 선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1. 동양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덕목

동양의 인성교육 덕목은 주로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에서 그 윤리적 전통성을 찾을 수 있다. 공자는 특히 인(仁) 사상에 근거한 다음 덕목을 강조하였다.

- (1) 효(孝) (2) 제(悌) (3) 충(忠) (4)신(信)

맹자는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인간 본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심정을 중시하였다.

- (1) 인 : 측은(惻隱) (2) 의 : 수오(羞惡) (3) 예 : 사양(辭讓) (4) 지 : 시비(是非)

전통 윤리는 그 요체로 오륜(五倫)을 천명하였다.

- (1) 친(親) (2) 의(義) (3) 별(別) (4)서(序) (5)신(信)

한대(漢代) 이후에는 다음을 기본으로 하는 삼강(三綱)의 명분을 중시하였다.

- (1) 충(忠) (2) 효(孝) (3) 열(烈)

그밖에 여러 종교에서 다음과 같은 덕목을 중시하였다.

- (1) 불교 : 자비(慈悲), 보은(報恩)
- (2) 도가(道家) : 검소, 겸양

이러한 동양 윤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에 열거한 보편 덕목과 함께 다음 덕목을 최고의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생존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1) 충효(忠孝) 정신 (2) 의리(義理) 정신

2. 서양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덕목

서양에서 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그의 다음 4주덕(主德)은 서양 윤리학에서 덕목의 표준이 된다.

- (1) 지혜 (2) 용기 (3) 절제 (4) 정의

그 밖의 여러 학파, 종교, 학자는 다음과 같은 덕목을 제시하였다.¹³⁾

- (1) 견유학파 : 박애(博愛)
- (2) 로마시대 : 애국, 준법, 균형, 공정
- (3) 기독교 : ‘믿음, 소망, 사랑’의 세 덕을 근간으로 한 자신의 희생으로 공동선을 추구
- (4) 근대 자본주의 사회 : 근면, 검소
- (5) 피터스(R. S. Peters) : 공정, 타인의 이익의 고려, 자유, 인간 존중

13) 김정오 외, 지성·덕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 프랑케나(K. Frankena) : 선행, 정의

(7) 콜버그(Lawrence Kohlberg) : 평등, 공정 분배, 정의, 인간의 공정한 대우, 사랑

(8) 기타 : 겸손, 복종, 인내, 순결, 의무, 완성

3. 최근 인성교육의 덕목

근래에 들어 ‘도덕의 르네상스’를 맞아 많이 읽히는 교훈 서적들에 제시된 덕목들을 살펴본다.

코비(Stephen R.Covey)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개인이나 조직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

① 주도적이 되라.(개인 비전의 원칙)

②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개인 리더십의 원칙)

③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개인 관리의 원칙)

④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win-win)’ 사고방식을 가지라.

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⑥ 시너지(synergy)를 활용하라.(생산적 협조의 원칙)

상호 의존성은 독립성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⑦ 심신을 단련하라.(균형적인 자기 쇄신의 원칙)

아나 야스오(1995),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¹⁵⁾

14) 스티븐 코비, 김경섭·김원석 옮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1989.

15) 아나 야스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1995.

① 반드시 잘 되리라 확신하라.

- ‘하면 된다’는 습관
- 우유부단하지 않는 습관
-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습관
- ‘자신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 습관
- 자기암시를 주는 습관
- 계속 노력하는 습관
- ‘자신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
- ‘어차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
- 성공의 각본을 쓰는 습관
-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보는 습관
- 플러스 면으로 눈을 돌리는 습관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습관
- ‘반드시 잘 되리라’ 확신하는 습관

②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는 습관
-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두는 습관
-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습관
-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 어려울 때 안달하지 않는 습관
- 성공을 거듭해 나가는 습관
-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습관
- 유머와 위트를 생활화하는 습관
- 모든 일에 전념하는 습관
- 작은 인연도 소중히 생각하는 습관
-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습관
- 뒷정리를 잘 하는 습관
- 시간을 소중히 하는 습관
-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습관
- 작은 일에도 연구심을 발휘하는 습관
- 적극적으로 자기평가를 하려는 습관

③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습관
- ‘처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 일을 만들어 가는 습관
-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습관
-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
- 목표를 설정하여 감동체험을 공유하는 습관
- ‘스스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
- 마감 일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습관
- 소망을 실현시키는 습관
- 재산을 증식시키는 습관
- 신념을 갖는 습관
-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습관
- 변화에 대응하는 습관
-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습관

④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 가끔은 유머를 던질 수 있는 여유있는 습관
- 밝게 사고하는 습관
- 기쁜 표정, 밝은 미소의 습관
- 마음속에서 병을 만들지 않는 습관
- 인생을 달관하는 습관
-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하는 습관
- 건강을 가꾸는 습관
- 위기를 찬스로 바꾸는 습관
- 대화에 유머를 넣어 긴장을 푸는 습관

⑤ 자신을 통제(control)하라.

- 자신에게 엄격히 하는 습관
-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
-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습관
- 화를 내지 않는 습관
- 전환점을 생각하는 습관
- 배수의 진으로 임하는 습관
- 자신을 기대하는 습관
- 자신을 분석하는 습관
-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습관
- 사색하는 습관
- 좋은 결과를 그려보는 습관
-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
- 자신 있는 일을 하는 습관
- 조바심을 버리는 습관
- 자신을 알고자 하는 습관
- 자신을 존경하는 습관
- 자신을 신뢰하는 습관

⑥ 기본을 소중히 하라.

-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 상사에게 신속·정확·정중하게 하는 습관
- 속담이나 명언을 활용하는 습관
- 매일 한 시간씩 독서하는 습관
- 스승을 닮아 가는 습관
- 자신의 희망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습관
- '성실한(인사, 전화, 방문)'의 습관
- 인사하는 습관
- 글씨를 분명하게 쓰는 습관
- 예의 바른 습관
- 대자연과 접하는 습관
- 약속시간을 지키는 습관

⑦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 문제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습관
- 적극적인 인간과 교제하는 습관
-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하는 습관
- 주의해서 말하는 습관
- 베풀 줄 아는 습관
- 친절을 베푸는 습관
- 적당하게 응수하는 습관
-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습관

⑧ 능률적으로 일하라.

- 일을 집중하여 처리하는 습관
- 남보다 노력하는 습관
- 변명하지 않는 습관
- ‘진체’를 보는 습관
- 중요한 용건을 복창하는 습관
- 문제점을 메모하는 습관
- 타인과 의논하는 습관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
- 문제에서 잠시 떠나보는 습관
- 일에 대해 흥미를 돋우어 내는 습관
- 장점을 살리는 습관
- 몸소 익히는 습관
- 중요한 일은 베스트 타임에 처리하는 습관
- 우물쭈물 하지 않는 습관
- 프로이면서 생활인의 감각으로 활동하는 습관
- 배우고 익히는 정신을 갖는 습관
- 직감력과 판단력을 갖는 습관
- 정보를 활용하는 습관
-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습관
- 시대의 변화를 즐기는 습관
-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습관
- 시대를 느끼는 습관
- 미래의 변화를 앞질러 생각하는 습관

⑨ 인간적인 매력을 가꾸라.

- 상대를 칭찬하는 습관
- 미소를 띠는 습관
- 마음을 비우는 습관
- 인간적인 매력을 가꾸는 습관
- 행복해지도록 자기 연출을 하는 습관
- 편안한 마음을 갖는 습관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습관
-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습관
- 의견 충돌을 피하는 습관
- 상대의 애로 사항을 이해하는 습관
- 계산을 초월하여 만남을 유지하는 습관
-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는 습관
-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습관

4. 선진 시민사회의 인성교육 덕목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에서 시민 사회의 덕목을 함양시키는 교육,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의 문명사적인 가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덕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¹⁶⁾

- | | | |
|------------|----------------|-----------------|
| (1) 인권 | (2) 복지 | (3) 양성 평등(兩性平等) |
| (4) 정의 | (5) 평화 | (6) 생명 및 환경 |
| (7) 고상한 인격 | (8) 정직 | (9) 의무 |
| (10) 자기희생 | (11) 명예 | (12) 봉사 |
| (13) 자기규율 | (14) 관용 | (15) 존경 |
| (16) 자기향상 | (17) 신뢰 | (18) 품위 |
| (19) 의연함 | (20) 성실성 | (21) 근면 |
| (22) 애국심 | (23) 타인에 대한 배려 | (24) 근검 절약 |
| (25) 공정 | | |

5. 제2의 건국 운동의 덕목

제2의 건국 운동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부정 부패 추방 운동, 국민 화합 운동, 신지식인(新知識人) 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 시민 운동 등을 통해 의식 및 생활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그 3대 원리로 다음을 들고 있다.

- | | | |
|--------|--------|--------|
| (1) 자유 | (2) 정의 | (3) 효율 |
|--------|--------|--------|

16) 김성재, 지식사회와 뉴밀레니엄의 가치,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부정부패 추방 운동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뿌리 박혀 있는 부패 관행을 근본적으로 척결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다. 국민화합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고질적인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적 편견이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화합과 협력에 기초한 진정한 국민 통합을 달성하려는 범국민적 화합 운동이다. 신지식인 운동은 모든 분야에서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정 직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이 되자는 운동이다. 신지식 공무원의 필수 요건은 정신 자세(mind-set), 습관(habit-set), 기본 능력(skill-set)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신지식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1) 시간지향적 마인드

짧은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려는 정신자세,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마인드를 말한다.

(2) 통찰력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는 안목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3) 거시적 마인드

어떤 일을 기획 또는 제작할 경우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말한다.

(4) 결단적 마인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확고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과감하게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17) 김효근, 지식사회와 신지식인의 의미,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강영철, 창의적 신지식 공무원 사례,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5) 타인을 중요시하는 마인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하고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6) 개방적·수용적 마인드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7) 성실성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진행하는 관찰력과 대화 노력을 말한다.

(8)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 자세를 말한다.

(9) 투명

지식의 습득, 창출,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다른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추진을 말한다.

(10) 긍정적·낙관적 마인드

늘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정신 자세를 말한다.

(11) 도전적 마인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자세를 말한다.

(12) 개선적 마인드

실패나 잘못의 원인을 찾아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정신 자세를 말한다.

신지식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신 자세를 기초로 하는 다음과 같은 습관이 필요하다.

- | | |
|-----------------|----------------|
| (1) 시간 활용 습관 | (2) 자기 계발 습관 |
| (3) 메모하는 습관 | (4) 타인 관리 습관 |
| (5) 대화 습관 | (6) 문제 해결 습관 |
| (7) 정보 수집·정리 습관 | (8) 계획을 세우는 습관 |

한마음 공동체 운동은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생명·환경·남북 화합 운동 등을 포함하는 미래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자는 운동이다. 곧 사회 공동체 운동과 미래 공동선 운동 두 가지로 나뉜다. 21세기 문화시민 운동은 문명사적 변혁과 발전이 예상되는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행동기준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아울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생활화함으로써 “아름다운 시민, 전통 있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운동이다.

6.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성

현대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바람직한 인성을 지녔다고 한다.¹⁸⁾

- ①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self-respect) 수용하는(self-acceptance) 경향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정립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8) 정세구, 미래지향의 인간교육, 1986.

- ③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의 본능적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 표현할 줄 안다.
- ④ 현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안다. 자신의 환경, 사회적 맥락, 주어진 과제의 특징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현실에 기초한 사고 방식은 건전한 인성의 필수적 요소이다.
- 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솔직한 자기 노출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자세는 더욱 깊고 원숙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 ⑥ 건전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며, 질서와 협동 정신을 생활화하고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등의 민주적 생활 태도를 가진다.
- ⑦ 바람직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나 가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택한 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정신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정의·평등·책임·준법·자유·다양성·사생활 존중·국제적 인권 등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⑧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 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보더라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수결 원칙을 지키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자기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야 한다.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과 질서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나, 대화나 설득을 통한 타협을 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공동체에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견이 나올 때 감정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IV. 경찰관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

1. 덕목 설정을 위한 자료

경찰대학은 ‘국가 치안 부문에 종사할 유능한 경찰 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따라서 경찰대학생은 ‘대학인’으로서, ‘경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간부’로서의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 인성교육의 덕목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여러 나라의 경찰윤리헌장에 나타난 경찰상¹⁹⁾

국제경찰 윤리강령, 유럽회의의 경찰윤리선언, 선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찰윤리 헌장 행동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경찰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²⁰⁾

- | | | |
|----------|---------|----------|
| (1) 정직 | (2) 성실 | (3) 양심 |
| (4) 이성 | (5) 지식 | (6) 진실 |
| (7) 신념 | (8) 용기 | (9) 헌신 |
| (10) 복종 | (11) 충성 | (12) 인내 |
| (13) 침착성 | (14) 규율 | (15) 자제력 |
| (16) 겸손 | (17) 검소 | (18) 친절 |
| (19) 공정 | (20) 정중 | (21) 모범 |
| (22) 솔선 | (23) 순결 | (24) 청렴 |
| (25) 긍지 | (26) 명예 | (27) 건전 |

19) 백형조, 경찰개혁에 대한 분석평가와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치안연구소, 제12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2000 : 363

20) 경찰로서 배격해야 할 부도덕으로 ‘감정, 편견, 편애, 차별, 악의, 공포, 고문, 부정부패, 비윤리성, 비인간성, 비열’ 등을 들고 있다.

(28) 상식

(29) 준법

경찰관의 업무 집행 자세 및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1) 건전하고 냉철한 판단 | (2) 공정 |
| (3) 평등 | (4) 공명 정대한 집행 |
| (5) 국민에 헌신 봉사 | (6) 약자 보호 |
| (7) 정의의 수호 | (8) 국민 신뢰의 존중 |
| (9) 행동 및 결과에 대한 책임 | (10) 적절한 재량 |
| (11) 최선의 지식·기술 | (12) 위험으로부터의 구조 |
| (13) 권리 존중 | (14) 불법에 비타협 및 과감한 대결 |
| (15) 적법 절차 준수 | (16) 헌법 및 법의 존엄성 수호 |
| (17) 정보의 공적 사용 | (18) 국가 비밀 보호 |
| (19)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 | (20) 최소비용으로 최대 성과 |
| (21) 경찰 발전에 진력 | (22) 변화에의 적응 태세 |

2) 경찰학 연구자들의 설정 덕목

① 이상안(李相安)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다음과 같은 세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 수준으로 ‘존중과 책임’, 제2 수준으로 공직 윤리의 6대 도덕 규범 즉 ‘자유, 질서, 정의’의 인간화 지향적 규범과 ‘경제, 봉사, 행복’의 공동체화 지향적 규범, 제3 수준으로 ‘정직, 공정, 관용, 사려, 자기규율, 부조, 동정, 협동, 용기’ 등 많은 민주적 가치들이다. 이들 각 가치들은 존중 또는 책임의 여러 모습들이거나 존중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제1수준과 제2수준은 학교와 공직자 훈련 기관에서 가르쳐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도덕 가치라고 하였다.²¹⁾

② 빌리어(Peter Villiers)는 훌륭한 경찰관(Good police officer)을 ‘임무를 성공적 호

21)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2000.

올적으로 수행하는 경찰’, ‘정력적이고 빈틈없는 유연한 경찰’, ‘도덕성, 모범, 정의를 구현하는 경찰’이라고 하였다.²²⁾

- ③ 백형조(白亭祚)는 21세기 한국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가장 절실한 덕목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민주경찰’, ‘민생안정의 봉사경찰’,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 ‘명예로운 천직 경찰’을 들고 있다.²³⁾
- ④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기강쇄신 목표라고 하여 ‘청렴 공정한 법집행과 친절하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경찰상’을 ‘깨끗한 경찰’(부정비리 척결), ‘신뢰받는 경찰’(공명정대한 법집행), ‘인권 경찰’(위압·권위적 자세 시정), ‘시원한 경찰’(민원·불편의 시원한 해결), ‘봉사하는 경찰’(친절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하고 있다.²⁴⁾
- ⑤ 경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상 정립’을 경찰개혁의 목표로 삼고 그 내용을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정부가 되어 국민과 함께 숨쉬고 국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파고드는 국민의 경찰’, ‘조직 내 상하간에는 신뢰의 정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⁵⁾

이상으로 보아, 경찰학 연구자들이 제시한 경찰관의 윤리 덕목을 보면, 실로 성인 군자상(君子像)을 연상하게 하는 “도덕적 완전무결성”을 경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덕목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또한 ‘나쁘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보통시민으로서의 경찰관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상의 이상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최선의 도야를 하여야 하며, 조직이나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이상형에 도달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목사, 의사, 변호사, 과학자, 예술가, 군인, 교사, 학생, 이웃사촌 등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할 입장이다.

22) Better police ethics, A practice Guide, Kogan Page Limited, 1997.

23) 백형조, 앞의 논문, 2000: 365-370.

24) 경찰개혁위원회, 연구자료 제6권, 1998:418.

25) 경찰청, 경찰개혁성과와 발전방향, 2000:7

3) 국가공무원법

-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공정의 의무
- (4) 청렴의 의무 (5) 품위유지의 의무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1)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선서문) (2)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침(선서문)
- (3) 법령 준수(선서문) (4)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선서문)
- (5) 국민의 편에 섬(선서문) (6)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선서문)
- (7)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 자세(선서문) (8) 국민 전체의 봉사자(제2조)
- (9) 공사 분별(제4조) (10) 신속·정확하게 업무 처리(제4조)
- (11) 인권 존중(제4조) (12)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수행(제2조)
- (13) 친절·공정(제4조) (14) 창의와 성실(제2조)
- (15) 책임 완수(제2조) (16) 정의(선서문)

5) 공무원 윤리헌장

- (1) 국가관 (2) 봉사 (3) 충성
- (4) 성실 (5) 공명정대 (6) 소명
- (7) 솔선 (8) 헌신 (9) 창의
- (10) 정의 (11) 공익 (12) 국리민복
- (13) 복지 (14) 정직 (15) 책임
- (16) 경애 (17) 신의 (18) 청렴
- (19) 질서

6) 경찰 헌장

- | | | |
|------------|---------------|---------------|
| (1) 충성 | (2) 자유와 권리 보호 | (3) 안녕과 질서 유지 |
| (4) 책임 | (5) 인격 존중 | (6) 봉사 |
| (7) 친절 | (8) 정의 | (9) 신뢰 |
| (10) 양심 | (11) 공정 | (12) 건전한 상식 |
| (13) 성실 | (14) 근면 | (15) 화합과 단결 |
| (16) 규율 준수 | (17) 검소 | |

7) 경찰서비스헌장

- | | | |
|---------------|--------------|--------|
| (1) 생명과 재산 보호 | (2) 법과 질서 수호 | (3) 봉사 |
| (4) 친절 | (5) 신속 | (6) 공정 |
| (7) 성실 | (8) 인권 존중 | |

8)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 | | |
|--------|--------|--------|
| (1) 자율 | (2) 창의 | (3) 책임 |
| (4) 신뢰 | (5) 활력 | (6) 친절 |
| (7) 공정 | | |

9) 경찰대학 학훈

- | | | |
|--------|--------|--------|
| (1) 조국 | (2) 정의 | (3) 명예 |
|--------|--------|--------|

10) 경찰대학 설치법

- (1) 심신 단련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대학을 둔다.”

11) 경찰대학 교과과정에 관한 규칙

(1) 지도적 인격 도모

“교양과목이라 함은 대학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학식과 인격을 도모함에 필요한 교과목을 말하며”

12) 경찰대학 학칙

(1) 지·덕 겸전의 지도적 인격도야(학칙 제2조 교육목표)

13) 경찰대학 교가

- | | | |
|--------|--------|--------|
| (1) 조국 | (2) 충성 | (3) 정의 |
| (4) 명예 | (5) 봉사 | (6) 질서 |
| (7) 정성 | | |

14) 경찰대학생 생활규범

- | | | |
|----------|----------|-------------|
| (1) 국가관 | (2) 봉사 | (3) 복종 |
| (4) 인내 | (5) 희생 | (6) 단결 |
| (7) 자율 | (8) 모범 | (9) 정의 |
| (10) 책임 | (11) 관용 | (12) 수범 |
| (13) 정직 | (14) 투지 | (13) 태도 |
| (16) 예의 | (17) 적극성 | (18) 침착성 |
| (19) 성실성 | (20) 이해성 | (21) 신뢰감 |
| (22) 활동성 | (23) 안정성 | (24) 지휘 통솔력 |
| (25) 명예 | (26) 창의 | (27) 판단력 |
| (28) 사교성 | | |

15) 경찰대학생 과외활동지침

- | | | |
|--------|----------|--------|
| (1) 조국 | (2) 정의 | (3) 명예 |
| (4) 봉사 | (5) 이해 | (6) 자율 |
| (7) 책임 | (8) 지휘능력 | (9) 협동 |

16) 경찰대학 재학생이 바라는 덕목²⁶⁾

- | | |
|----------------------|------------------------------|
| (1) 예의 | (2) 겸손, 우월의식 타파 |
| (3) 정직, 진실, 진 | (4) 솔직 |
| (5) 인간애, 휴머니즘, 인권의식 | (6) 정의, 덕성, 윤리, 인 |
| (7) 도덕심, 양심 | (8) 모범, 수범 |
| (9) 봉사 | (10) 다원성과 상대성의 인정, 배려, 이타심 |
| (11) 평등 | (12) 넓은 사고 |
| (13) 청렴, 결백 | (14) 금전에 대한 의식, 소유 의식 |
| (15) 강직 | (16) 근면 |
| (17) 성실 | (18) 용기 |
| (19) 사명감 | (20) 명예 |
| (21) 자기개발 | (22) 역지사지, 이해심, 다른 학생에 대한 관심 |
| (23) 책임 | (24) 인내, 감정조절, 극기 |
| (25) 자신감, 여유, 개방된 자세 | (26) 조국애, 충성 |
| (27) 행동성, 결단성, 과감성 | (28) 신독(愼獨), 반성 |
| (29) 상황적응력, 융통성, 유연성 | (30) 친절, 바른말 고운말, 유머 |
| (31) 사교성, 인화력 | (32) 이성교제 |
| (33) 헌신, 희생 | (34) 협동심, 공동체의식, 단결, 참여의식 |
| (35) 신의, 신뢰 | (36) 관용, 포용력 |

26) 연구진의 2000년말 '경찰대학생 인성교육에 필요한 덕목 조사' 결과

- | | |
|-----------------|--------------------------|
| (37) 자율 | (38) 능동성, 적극성, 도전정신, 변화력 |
| (39) 절약 | (40) 감사하는 마음 |
| (41) 질서의식, 준법정신 | (42) 평등 |
| (43) 사랑 | (44) 창의 |
| (45) 합리성 | (46) 분수과약 |
| (47) 역사적 안목 | (48) 책임감 |
| (49) 지휘력 | (50) 남녀평등 |
| (51) 민주성 | (52) 발표력, 절제된 표현력 |
| (53) 공익성 | (54) 긍정적 사고 |
| (55) 건전성 | (56) 폴로워십(followship) |

17) 경찰대학생의 사고방식²⁷⁾

(1)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찰대학의 교육목표

- ① 민주적 경찰상 확립(17.4% : 18.4%)
- ② 학위 수준의 이론과 응용방법(16.5% : 11.0%)
- ③ 실무능력 배양(13.6% : 5.3%)
- ④ 지·덕·체 겸전의 지도적 인격배양(51.0% : 28.7%)
- ⑤ 대학생으로서의 교양습득과 창의적 인간형성(- : 33.6%)
- ⑥ 기타(- : 3.1%)

(2) 경찰대학의 당면 과제

- ① 명예의식 부재(12.0% : 9.4%)
- ② 교과내용 문제(14.0% : 13.9%)
- ③ 사회와의 단절(25.8% : 16.8%)

27) 1993년도(앞의 항) : 2000년도(뒤의 항), 경대학보, 138호, 2000.12.8, 조사대상 : 413명

- ④ 선후배 관계(11.0% : 15.2%)
- ⑤ 학생생활규범(12.7% : 8.2%)
- ⑥ 면학분위기(9.8% : 17.7%)
- ⑦ 기타(12.0% : 9.8%)

(3) 경찰대학생의 가장 큰 사명

- ① 새로운 경찰정신 정립(46.4% : 44.7%)
- ② 실무능력 향상(24.2% : 5.8%)
- ③ 수사권 독립(29.0% : 3.7%)
- ④ 정의로운 사회건설(- : 38.9%)
- ⑤ 기타(- : 6.9%)

(4) 경찰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 ① 투철한 국가관(8.7% : 6.2%)
- ②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43.5% : 46.3%)
- ③ 명예의식(23.5% : 14.3%)
- ④ 희생정신(21.0% : 14.3%)
- ⑤ 기타(- : 18.9%)

(5) 경찰대학학생이 탈피해야 할 행태와 사고방식

- ① 권위주의(13.8% : 30.0%)
- ② 이기주의(5.2% : 7.3%)
- ③ 개인의 개성 무시(11.2% : 10.2%)
- ④ 획일화된 사고(12.0% : 17.2%)
- ⑤ 피동적·소극적인 생활자세(42.3% : 31.6%)
- ⑥ 기타(- : 3.7%)

2. 주요 덕목의 의미와 구현 방안

IV. 경찰관 인성교육의 주요덕목에 열거한 덕목 가운데 비교적 빈도가 높은 다음 덕목들의 설정 근거, 덕목의 의미, 그리고 예상되는 덕목 구현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 | | | |
|---------|---------|---------|
| (1) 봉사 | (2) 예의 | (3) 충성 |
| (4) 국가관 | (5) 정의 | (6) 정직 |
| (7) 공정 | (8) 성실 | (9) 신뢰 |
| (10) 관용 | (11) 협동 | (12) 명예 |
| (13) 모범 | (14) 복종 | (15) 인내 |
| (16) 자율 | (17) 효 | (18) 존중 |
| (19) 창의 | (20) 책임 | (21) 겸손 |
| (22) 절제 | (23) 기타 | |

(1) 봉 사(奉仕)

◆ 덕목 설정의 근거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직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 ‘국민에게 봉사’(공무원윤리헌장),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경찰법)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봉사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솔선 헌신, 국가에 헌신(공무원윤리헌장)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경찰헌장)

- ‘봉사와 질서를 위해 정성을 다져 이 나라 지키는 과수꾼되리’(경찰대학 교가)
-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봉사이념에 입각한 경찰정신을 체득하고 생활화’(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희생과 단결로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을 배양한다.’(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 (2) 경찰은 솔선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3) 경찰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경찰정신을 체득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투철한 봉사이념을 지녀야 한다.
- (5) 경찰대학생은 희생과 단결로 봉사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희생’이란 ‘남을 위하여 목숨·재물·명예 등을 버리거나 또는 빼앗김’을 의미한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인간애와 자기 희생의 마음가짐

봉사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유형·무

형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신적·물질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② 친절

남을 위하는 봉사정신은 친절 서비스의 바탕이다. 친절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그 바탕이다. 남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는 올바른 친절을 베풀 수 없다.

③ 협력 의식과 자발적 참여

봉사는 남을 도와 남을 편안하게 해 줌으로써 남으로부터 협력 의식과 활동을 자발적으로 불러넣는 의식과 활동이다. 미래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협조 지향적인 인식 태도를 기반으로 사회를 재구성해 나가지 않으면 사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구성원의 집단 거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바로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핵심으로 하는 봉사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봉사는 봉사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²⁸⁾

④ 봉사의 크기

봉사는 꼭 큰 일을 하거나 거금을 기부해서 남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는 자기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길에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주는 것, 고아원·양로원 등을 찾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훌륭한 봉사인 것이다.

⑤ 봉사의 효과

봉사는 우선 이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음으로 받는 이의 마음을 그 이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28) 이상안, 앞의 책, 2000.

조금만 봉사정신을 발휘하면 서로가 따뜻하고 훈훈해질 수 있다.

⑥ 업무를 통한 봉사

봉사라는 것이 반드시 자기 일을 떠나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 값진 봉사일 수 있다. 공직자가 국민들을 따뜻하고 성의 있게 도와주면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봉사활동이다.

⑦ 사회활동을 통한 봉사

최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하는 ‘사회적 봉사’를 널리 펴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역할은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경찰관은 대부분의 시간을 범죄와의 싸움에 할애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행정적 업무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가정 위기에 관여, 미아 찾아주기, 교통 지도, 군중 감독, 학교 방문, 노약자에 대한 도움 제공 등이 그 예이다.²⁹⁾

⑧ 경찰정신의 근간

경찰의 국민을 위한 봉사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관료적 타성이나 권위주의의 극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봉사정신이 경찰에게 강조되는 것은 경찰이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가진 정부집행기관으로서 항상 국민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기계적인 업무집행을 넘어서 기본임을 수행함에 국민에 대한 많은 부가적인 헌신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봉사정신은 헌법이 부여한 경찰인의 기본업무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 국민을 위한 봉사는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분의 의무이자 당위인 관계로 경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경찰정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³⁰⁾

29)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146-148.

⑨ 봉사적 행복관

경찰관은 국민 누구에게나 봉사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봉사관은 보람감·만족감의 효용을 가져다주어 개인적으로 행복에 이르게 된다. 경찰관이 '봉사를 통한 보람',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적 행복'이란 신념이 개인차원의 윤리관으로 정립될 때 국가·사회 내의 부정부패도 일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사회 차원의 윤리관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³¹⁾

⑩ 21세기 경찰의 지향점

경찰서비스 현장은 경찰의 업무를 과거의 법집행이나 사회통제가 아닌 행정 서비스로 보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주요한 덕목이다. 봉사는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나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와 함께 국민에게 균립하지 않고 국민들의 필요와 요청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자세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경찰의 업무는 서비스의 개념이 강한 만큼 21세기 경찰의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³²⁾

⑪ 경찰봉사의 한계

종래에 경찰관은 무한 봉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참작해 봉사하여야 한다. 첫째, 반드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시민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경찰이 대신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반드시 경찰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봉사의 내용이 사회 안녕 질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시민에게 곤란하거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한다. 시민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고, 곤란이 없어 경찰의 봉사가 필요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비록 시민의 청구가 있더라도 봉사할 필요가 없다. 넷째, 절대로 노고

30) 전용찬, 경찰윤리, 경찰대학, 2000:174-5

31) 이상안, 앞의 책, 2000.

32)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를 피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봉사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한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신성한 책임감과 애민적 심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⑫ 최고의 도덕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중되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봉사함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뜻 있고 목적 있는 행동을 다하는 것이다. 최고의 도덕이란 끊임없이 남을 위한 봉사,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나를 베풀면 만 배를 얻는다.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만사람은 그 못에 모자를 건다.”(One man knocks in the nail, and another hangs his hat.)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같이 괴로움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였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었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특강
 - 언론기관 봉사대상 수상자 초청
- 교내 봉사활동
 - 과별 주변 봉사제도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 마니또 제도실시, 후배교육 및 챙겨주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학교주변 청소, 무의탁 노인돕기, 불우청소년돕기
- 사회봉사활동
 - 사회복지기관(양로원, 고아원, 홀트 영아원, 장애인 등) 견학 봉사
 - 가나안 농군학교, 풀무원농장, 노동교육원, 기업체부설학교, 소년원 등 견학 봉사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운동, 사랑의 떡거리 나누기, 지역 품앗이 운동, 사랑의 결연 맺기 운동, 실직자·노숙자 돕기, 자원 재활용 운동, 결식아동 돕기,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우수리 운동(어린이 근육 재단), 녹음도서 보급 운동, 쌀 모으기 운동, 너나들이 운동(노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참여

- 청람 봉사상 표창
- 봉사 체험 수기 모집 및 발간

(2) 예 의(禮儀)

◆ 덕목 설정의 근거

-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거나’(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친절하고 명랑하며 예의바른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경찰예절(경찰예절규칙, 청훈령 '91)

위의 근거에 따르면 ‘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경찰예절규칙을 지켜야 한다.
- (2) 경찰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3) 경찰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경찰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하거나 악평해서는 안 된다.
- (5) 경찰대학생은 예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덕목의 의미

- (1) 사전적 의미

‘예의’란 ‘인간 행동을 규범하며, 경의를 나타내는 예절과 몸가짐’을 의미한다. ‘예절’이란 ‘예의와 범절’을 뜻한다. ‘범절’이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곧 모든 행사’를 뜻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의는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 인간의 행위규범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는 사람 사이에 차례를 정하고 행동에 절도를 확립함으로써 질서를 이루게 해준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³³⁾

② 인간생활의 질서

예의는 사회적·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생활에 필요한 질서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남과 더불어 함께 살려면 인간관계에서 위와 아래의 수직적 위계와 앞과 뒤의 수평적 순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순서는 특정인이 자신의 편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 위계 순서의 질서가 다른 아닌 예의이다. 질서가 있을 때 그 사회는 평화롭고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존중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³⁴⁾

③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예의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모든 덕의 출발점이자 관문이다. 공자가 “사람으로서 어진 마음이 없다면 예는 차려 무엇할 것인가”라고³⁵⁾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한 것이다.

33) 김태훈, 덕교육론, 양서원, 1999:57

34) 필립 체스터필드,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을유문화사, 1990.

35) 人而不仁 如禮何<論語>

④ 자신의 억제

예의란 서로 자신을 조금 억제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분별과 양식 있는 행위이다. 예의는 자신을 억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대대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의의 시초는 얼굴과 몸을 바르게 하고 낮빛을 온화하게 하며, 말소리를 순하게 하는 데에 있다. 얼굴과 몸이 바르고 낮빛이 온화하여 말소리가 순한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진다.”라고³⁶⁾ 한 것은 예의가 자신을 억제하는 마음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얼굴은 마음의 표상이다. 절제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 예의는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의에 이를 수 없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곧 인이니, 하루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라고³⁷⁾ 한 것은 예의 성취를 위한 극기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극기하지 못하여 그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공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려 버린 경우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이 격화되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소한 이익 앞에서 자신만을 생각한 채 행동하는 것 등은 모두 극기하지 못함으로써 예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아무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를 예로써 다스리지 않는다면 교만에 이르게 되므로, 예의는 자신을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한다면 가히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³⁸⁾ 하였다. 선인들이 아동들에게 “인간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옆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도 한번 마음 속에서 놓여지게 되면 돌이켜지기 어렵다. 독으로 물을 제어하듯이, 인간의 성품을 제어하는 것은 반드시 예법으로 한다.”라고³⁹⁾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36) 凡人之所以爲人者 禮儀也 禮儀之始 在於正容體 齊顏色順辭令 容體正 顏色齊 辭令順而後 禮儀備

37)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論語>

38)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夫<論語>

39) 人性如水 水一傾則不可復 性一縱則不可反 制水者必以堤防 制性者必以禮法<明心寶鑑>

⑤ 중용의 절도

예의는 인간의 행동을 중용에 이르게 해주는 절도(節度)이다. 흔히 예의를 백행(百行)의 표준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비굴이다. 예는 절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공자는 “공손하면서 예가 없으면 고생스럽고,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지고, 용감하면서 예가 없으면 난폭해지고, 정직하면서 예가 없으면 각박해진다”⁴⁰⁾ 하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의는 주어진 상황에서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절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의에 밝은 사람은 행동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럽다.

⑥ 효율적인 사회 감시망

예란 사회 구성원을 결속하고 이탈자를 경계하는 매우 효율적인 감시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은 예라는 촘촘한 그물을 통과해야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예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부자유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야만적 투쟁을 지양하고 문화적 존재를 배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의 체계이기도 하다. 긴 시간에 걸친 예의 훈련과정 없이는 인간의 내면 속에 군림하는 파괴 욕구를 경계할 수 없게 된다.

⑦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방편

예절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두루 중요한 구실을 하거니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장생활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빗나간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인들은 그 조직에서 요구되는 예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바른 예절을 몸에 익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의 변화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예절은 올바른

40)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論語>

대인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사회생활의 초석이 되는 여러 가지 예절을 몸에 익히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용하는 세련된 매너(manner)와 에티켓(etiquette)을 습득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의 도모와 신뢰받는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⑧ 상호 존중

예의는 상호존중의 표시이다. 예의는 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나 밑으로고 행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직원상호간에 필요한 협동방식과 조직형성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경찰의 행사나 직원상호간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직의 권위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상호간의 예절은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업무처리의 원활유 같은 기능을 한다.⁴¹⁾

⑨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예의도 병이 상호간에 전염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서로 따라 배운다. 예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열이 초를 녹이듯 예의 바름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만든다. 의식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참다운 예의는 어디나 마찬가지다. 꼴불견은 무식이 아니라 버릇없는 사람이다. 예의 바른 행동이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들이 형벌은 모면하나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염치를 느끼고 또한 착하게 된다.”⁴²⁾ “몸을 공손히 하여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욕이나 지탄을 받지 않는다.”⁴³⁾ “용기만 있고 예의를 모르면 난폭하게 된다.”⁴⁴⁾

41)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1998:206-207.

42)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論語>

43) 恭近於禮遠恥辱<論語>

44) 勇而無禮則亂<論語>

◆ 덕목 구현 방안<예>

- 특강
- 학교생활 예절
 - 사제간의 예의, 상급생에 대한 예의, 학습할 때의 예의
- 경찰예절
 - 경례에 관한 일반사항, 상급자의 호칭과 악수, 실내경례, 실외경례, 수상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기타경례, 승차예절, 호칭예절, 음주예절, 흡연예절, 식당예절
- 에티켓(etiquette)과 매너(manner)의 이해
- 인사예절
- 자기소개 바르게 하기, 접대 및 응대 예절
- 언어(말씨) 사용 예절
-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과 자신의 모습 바로 보기
- 행동예절
- 직장예절
- 테이블 매너(table manner)
- 가정생활 예절
- 국제 매너(global etiquette)
- PC통신 예의
- 기존의 ‘청람예절’ 확대 편찬
- 욕 안하기 운동
- 선후배간 높임말하기
- 어투 교정 ‘-해라’체 남용
- 부하에게 반말 사용 불가
- 교내 인권
- 아름다운 시민, 전통 있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운동, 페어플레이 운동, 멋진 시민, 품위있는 한국인 캠페인, 글로벌 에티켓 운동(조선일보), 글로벌 스탠더드 운동(예절교육, 동아일보) 참여

(3) 충 성(忠誠)

◆ 덕목 설정의 근거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삶의 보람, 국가에 충성’(공무원윤리헌장)
-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경찰헌장)
- ‘충성과 정의로 젊음을 길러 이 강산 수놓을 무궁화되리’(경찰대학 교가)

위의 근거에 따르면 ‘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2) 경찰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삼아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충성심으로 나라 발전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충성’이란 ‘참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정성 특히 나라의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성충(誠忠)’이다. ‘충(忠)’자는 본래 ‘중(中)’과 ‘심(心)’을 합한 글자이다. 이를 해석하면 ‘속마음’, ‘거짓 없는 성실한 마음’을 이른다. ‘충’자는 ‘충실(忠實)’, ‘충성(忠誠)’, ‘충직(忠直)’, ‘충신(忠信)’ 등 성실하고 진실한 뜻으로만 사용된다. 충성이란 국가와 사회도는 특정한 인간·집단·신념 등에 대해 헌신하는 충직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 충성이라는 용어는 우리말의 관행상 ‘신의·절개·지조’ 등을 표현하는 ‘절의’ 또는 ‘의리’라는 개념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충성의 대립어는 ‘불충’으로 ‘불의·배신·비굴’ 등의 의미를 지닌다.

(2) 윤리적 의미

① 진실하고 허위성이 없는 인간의 내면적 주체성

충성 ‘충’이란 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모여 뜻을 이룬 것이다. 논어에서는 자기 마음의 주체적 각성에 바탕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곧 ‘진기(盡己)’라고 하였다. ‘충’자의 본뜻은 허위와 자기 기만이 없는 성실한 대자관계(對自關係)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인관계인 임금이나 타인이나 백성에게도 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자관계로부터 남을 이해하고 친애하며 존경하는 뜻으로 확장된 것이다. 논어에서는 “인군(人君)은 신하를 부리되 예로써 하며 신하는 인군을 섬기되 충으로써 한다.”와 같은 구절만 충군(忠君)의 뜻으로 쓰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충, 또 평교 간의 타인에 대한 충을 말하였다. 좌전(左傳)에서는 “윗사람이 백성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충이라.”하여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충이라 하였다.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충이라 하였고, 또 ‘사사롭게 하여 공(公)을 해하는 것’이 비충(非忠)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충의 본래 개념은 ‘진실하고 허위성이 없는 인간의 내면적 주체성’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②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충’(忠)은 ‘진기지심’(盡己之心) 곧 자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충성은 동료, 가족, 조직, 나라, 민족, 신 등을 위해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충은 공적인 일을 할 때 사사로움이 없는, 치공무사(致公無私)의 정신이다. 충은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안에서 드러나고 나라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③ 공생공영을 위한 자각적 노력

충은 현대적 의미로 볼 때 남을 단순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를 보고 상호간 ‘공생공영(共生共榮)’하고자 하는 자

각적인 노력인 것이다. 충은 활성화적인 면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재주가 많더라도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고 늘 무사안일하게 삼가는 정태적인 복무 자세 등도 충의 길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일련의 사회 일각을 허물어뜨리는 듯했고 사회 전체의 화농을 보는 듯했던 사태의 연속은 바로 이 ‘충’의 정신이 결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하였다.

④ 인 내

충성은 대상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불구하고 인내해 낸다. 충성의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적 내용이다.⁴⁵⁾

⑤ 자기 희생

충성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한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충성의 대상을 위해 중요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가령, 충성스러운 친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있어 주는 친구로서 친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경찰관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안전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찰관이다. 충성은 광의의 봉사다. 공직자의 국가에 대한 활동은 봉사 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충성’으로 본다.⁴⁶⁾

⑥ 충성의 대상

충성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 자기 신념에 대한 충성, 자기 소속에 대한 충성, 자기를 알아주는 특정 개인을 향한 충성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은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애국심을 불러내었다. 자기 신념에 대한 충성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 소속에 대한 충성은 특정 조직이 외부로

45)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198-99

46) 전용찬, 앞의 책, 2000:177-8

부터 비난을 받거나 특정인으로부터 조직 전체가 모욕을 받는 등의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잘 표출된다. 자기를 알아주는 특정 개인을 향한 충성은 전통적인 여인의 절개나 친구간의 의리 등으로 나타난다.⁴⁷⁾

⑦ 충성을 받을 만한 대상

효율적인 폴로워(follower)들은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다른 그 무엇 즉 조직, 아이디어, 명분에 헌신한다. 간혹 리더(leader)에 따라 이와 같은 헌신을 곡해하여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어떤 목적이나 대의에 대한 충성심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효율적인 폴로워들은 그들의 리더를 단지 보람있는 일을 위해 함께 모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스스로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충성심과 노력을 절제하게 된다.

⑧ 바람직하지 못한 충성

맹목적인 충성은 비도덕적이 될 수도 있다. 충성의 대상은 악한 제도도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충성이라는 덕목만으로는 한 사람의 행위를 도덕적이라 하기 불충분하다. 충성은 그 대상이 바람직하나 아니냐에 따라 그 가치적 의미가 달라진다. 대상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충성은 옳은 것이며 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릇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⁸⁾ 다음과 같은 경우의 충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첫째, 동료에 대한 충성으로 고위층으로부터 하위직을 구분시켜주며 상사를 믿지 말라고 하거나 상사에게 고자질하지 말라고 할 때 드러나는 충성이다. 둘째, 경찰 고위직이나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으로 경찰 전체가 외부의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침예하게 느껴지고 표현된다. 그럴 경우 하위직 경찰관과 고위직 경찰관은 비판적이고, 경찰의 실정에 어두우며 경찰에 동정적이지 않은 대중 매체나 공중에 대

47)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198-99

48) 유종해, 행정의 윤리, 박영사, 1995:24-236

항해 뿔뿔 뭉친다. 이런 충성들을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흔히 ‘의리’라고 이르나 가치 있는 충성이라 할 수 없다. 경찰은 여러 가지 종류의 충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대상에 따른 충성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동료나 상사에 대한 충성이나 의리는 좀더 고차적인 경찰활동의 이념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는 포기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국민들과 ‘우리-저들 의식’(us-them mentality)으로 동료나 조직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기 쉽다. 이런 충성은 다른 동료를 위한 영웅적인 행위들의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의 비리를 보호해 주는 소위 ‘침묵의 규범’, ‘침묵의 푸른 벽’(blue wall of silence)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⁴⁹⁾ 동료의 심각한 부정부패나 비행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경찰관은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충성에 의지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

⑨ 공무원의 충성 대상

공무원의 충성은 “국가의 기본질서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고의 윤리와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치이념에의 신봉과 헌신, 공직자의 법질서 고수, 민주체제에 대한 신념, 공직자의 국가체제 및 이념에 대한 신념체제로서의 신조가 충성의 바탕이다. 공무원의 충성은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⁵⁰⁾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상위의 덕목이다. 공직자가 국기에 대하여 맹세하거나 상관에 대하여 예의를 표시하며 ‘충성!’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일상적 예의가 아니라 법질서 유지에 대한 약속 내지 맹세이기도 하고 정부체제 고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태도표명이라 볼 수 있다. 경찰조직에 대한 충성, 상사나 동료에 대한 충성은 모든 공동체가 부여한 경찰직분에 맞고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충성 규정을 두면서, 특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

49) 전용찬, 앞의 책, 경찰대학, 2000:180

50)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195

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전체의 보편이익을 지향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정권이나 개인 등 특수이익에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⁵¹⁾ 동료나 상사에게 불충이 되더라도 조직에 충성해야 하고, 조직에 불충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성이라는 덕목은 고차원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덕목이 되고, 승화되지 않는 맹목적인 충성은 소인배적(小人輩的)인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가치중립적 덕목을 영광스러운 꽃으로 치장하는 것은 공동체가 부여한 직분인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 데 있다.⁵²⁾

◆ 덕목 구현 방안<예>

- 경찰윤리론
- 국가, 국기에 대한 예절
-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
- 상징탑의 ‘이 곳을 거쳐간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는 구절 음미하고 각오문 쓰기
- 토론하기
- 경찰정신(충의선양탑 참배, 경찰정신, 국민 인권과 국법 질서,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분야별 서비스 헌장)
- 경찰·공직윤리(공직자 윤리법, 선비정신과 공직 윤리, 공직자의 의식전환, 비위 및 부조리 근절)
- 경찰사(근대 이전까지의 경찰, 근대 경찰, 광복 후 국립경찰 변천과정)
- 경찰의 미래(제2의 건국 운동과 국가 과제, 신지식인, 생산적 복지, 21세기 미래 사회와 경찰)

51)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197

52) 전용찬,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2000:183

- 사적지 답사(독립기념관 견학 및 사적지 답사)
- 선배와의 대화(경찰생활 체험담, 경찰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자세, 경찰관의 직업의식과 자기개발)

(4) 국가관(國家觀)

◆ 덕목 설정의 근거

- ‘국가를 위한 생명’(공무원윤리현장)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영광스러운 조국을 지켜 나가기 위해, 충성심을 함양하여 국가 보위의 파수꾼이며 겨레의 선도자가 된다.’(경찰대학 학훈)
- ‘조국의 영광 위해 모여든 우리, 겨레의 선봉이 되리, 대한의 기수가 되리, 이 나라 지키는 파수꾼되리’(경찰대학 교가)
-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봉사이념에 입각한 경찰정신을 체득하고 생활화’(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기본목표)
- ‘이곳을 거쳐간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경찰대학 상징탑)

위의 근거에 따르면 ‘국가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경찰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3) 경찰은 국가 보위의 파수꾼, 겨레의 선도자, 겨레의 선봉, 대한의 기수이다.

(4) 경찰대학생은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한 경찰정신을 체득하고 생활화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국가관’이란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 또는 주장’이다.

(2) 윤리적 의미

① 국익 우선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가치관이 공무원의 행동철학이 되어야 한다.⁵³⁾

② 자신의 가치관과 조직관·국가관의 일치

공무원은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이와 일치시켜 이것이 자신의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어떤 보직, 어떤 직장, 어떤 직위에 있든 간에 자신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것은 조직관, 국가관과 일치되어야 하고, 그 가치관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⁵⁴⁾

③ 거시적 안목

공무원은 거시적 안목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눈앞의 순간적인 변화보다는 먼 장래의 변화를 생각해야 하며, 현재의 내 자식들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⁵⁵⁾

53) 총무처,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길, 1985.

54) 총무처, 위의 책, 1985.

④ 경찰교육의 중요 요소

경찰 임용시 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은 경찰 임용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신사로(56.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공무원으로(33.4%)에 응답하여,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은 경찰 임용시의 교육 방향에 대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경찰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⑤ 애국심

애국심은 국가 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이다. 군대, 검찰,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경찰은 국가 기강과 안보의 지탱기관으로서 근무의 기본 정신이 애국심이어야 한다. 경찰은 국가 수호기관으로서 대민 접촉이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군대 등에 비해 애국심의 덕목이 상대적으로 낮기 쉽다. 그러나 경찰업무가 위험성이 따르고 희생정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경찰이 대국민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 애국심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⁷⁾

⑥ 헌신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낼 것인가를 묻지 말라. 그 대신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사람은 누구나 헌신적 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은 이기적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 애국심이란, 그대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고귀하고 우월하다는 그대의 신앙이다. 애국심은 그 뿌리를 인간의 본능과 애정에 깊이 박고 있다. 나라를 위한 사랑은 효도의 연장이다. 나라가 없고서는 일가(一家)와 일신(一身)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를 받을

55) 총무처, 위의 책, 1985

56) 김복영 외,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02, 치안연구소, 1996.

57)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없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애국은 제도로서의 규범을 지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며, 충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통치자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국가 규범을 지키는 데 가진 힘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지만 국가가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국민에게 자유를 이루어 주는 것은 국가의 힘밖에 없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므로, 자연적 상태에서는 자기보존을 위해서 상호 이익을 침해하여 도리어 이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주권자 밑에 각자의 이기를 제한하여 조화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부(富)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란 것은 개인이 상호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제도다. 국가의 품종개량을 지나치게 하면 결국 개인은 국가에 의해서 약해지고 그리고 와해된다. 따라서 국가의 본질적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無)로 돌아가고 만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천 년의 세월도 모자라고, 그것을 허무는 데는 한 순간으로써 충분하다. 복지국가란 국민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받는 혜택은 정치적인 권리이며 자선이 아니다. 그러니 복지를 신청한다고 미안해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개인이 자기의 돈으로 마련할 때와 다름없는 품질과 넓은 취급 범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강하려면 국민 각자가 강해야 한다. 사람이 나라를 섬기는 것은 꿀벌이 벌집을 돌보듯이 해야 한다. 국민은 나라를 섬기는 보상으로 돈을 받거나 어떤 명예를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힘은 국민이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결과 민족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굳은 이념과 국민 상호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의가 국가의 힘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질에 있고, 국민의 질은 그 국민이 숭상하는 정신과 높이는 이상과 실천하는 생활에 있는 것인 줄로 안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애국가 4절까지 쓰고 음미하기
- 태극기의 의미 설명하기
- 무궁화꽃이 지닌 얼과 교훈 알기
- 토론하기
- 졸업식 행사
- 교내 국기 강하식 때 애국가 연주

(5) 정 의(正義)

◆ **덕목 설정의 근거**

-
-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국가공무원법, 선서문)
 - ‘부정을 발본하고, 불의를 타파하여 정의 사회를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공무원윤리헌장)
 - ‘경찰공무원은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경찰헌장)
 - ‘정의감에 입각하여 사보다는 공을 위하는’(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불의를 배척하고 바른 것을 지키는 정의감을 체득하여’(경찰대학 학훈)
 - ‘충성과 정의로 젊음을 길러 이 강산 수놓을 무궁화되리’(경찰대학 교가)
 - ‘정의 사회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옳다고 판단한 일에 열성을 기울일 수 있는 절차탁마의 정신을 기른다.’(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발본하고 불의나 불법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 (2) 경찰은 정의사회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3) 경찰은 정의의 정신을 일상 직무수행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정의감에 입각하여 사보다는 공을 위하여야 한다.
- (5) 경찰대학생은 옳다고 판단한 일에 열성을 기울일 수 있는 절차탁마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정의’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다. ‘도리’(道理)란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이라 뜻매김된다.

(2) 윤리적 의미

① 공 정

정의의 ‘正’자는 ‘一’과 ‘止’의 합자이다. 오직 ‘하나’인 양심에 ‘그쳐서’ 행동하면 바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언제나 비교적이며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을 말한다. 사사로움은 철저히 배제된다. 개인의 성, 종교, 인종,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여 불편부당해야 한다. 정의가 오늘날까지 법조인들의 덕목으로 존중되고 있는 것이나,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정의를 공정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② 도덕적으로 옳음

정의의 ‘義’자는 ‘羊’과 ‘我’의 합자이다. ‘양(羊)’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 공도(公道)에 잘 순응하는 것으로, 전체의 복리를 위하는 옳은 정신이다. 또한 ‘我’자는 ‘手’와 ‘戈’의 합자이니,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의(義)는 옳음이다. 이때 옳음은 자기에게도 옳음이고 남에게도 옳음이다. 이 옳음은 공정함이며 투명함이며 떳떳함이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아서 떳떳함이며, 누구에게도 숨김이 없어서 떳떳함이다. 즉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자기 집 대문을 시원하게 열어 놓듯,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눈오는 날 선명히 드러난 사람의 발자국처럼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행적을 밝힐 때 즉 의를 좇는 행동을 할 때 부끄러운 것이 없는 떳떳하게 된다.⁵⁸⁾

③ 사람의 도리

정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한다거나,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까 염려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의로운 행위는 단지 그 자체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마땅히 사람이 걸어갈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선비정신의 의리와 상통한다. “덕을 존중하고 정의를 즐거워하면 태연자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는 아무리 궁해도 정의를 잃지 않으며, 아무리 영달해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궁해도 정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영달해도 정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⁵⁹⁾ 맹자의 가르침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임을 천명한 것이다.

58) 전용찬, 앞의 책, 경찰대학, 2000.

59) 尊德樂義 則可以囂囂(호)矣 故士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孟子>

④ 의주리종(義主利從)

정의는 한 개인의 내면과 관련하여, ‘의주리종’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이익의 추구는 반드시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익은 정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되어야 한다. 공자는 “부와 귀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정의에 맞게 얻는 것이 아니라면 탐하지 아니하며, 빈천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피하지 않으리라.”⁶⁰⁾하여 이익의 추구가 반드시 정의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⑤ 이타적인 삶의 태도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도덕의 세계에 머물도록 해주는 덕이다. 이 경우 정의는 편협한 이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주의와 대립되는 말이다. 그래서 정의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초월성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정의가 자기를 모두 버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정의는 이러한 경향을 반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려는 충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이타적 특성은 우리가 더욱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⑥ 준법 의지

정의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때로는 법을 초월하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의로운 자는 우선 법을 준수하며, 법적 정의의 실현에 적극적이다. 법은 불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법이 강제적 성격을 갖는 것은 그것이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다. 실정법은 응보(應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법질서가 응보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기만 하면 정당한

60)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去之 不去也 <論語>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욕구 충돌으로부터 벗어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다. 그러나 정의는 또한 법이 옳은가 혹은 옳지 않은가를 문제삼는다. 법은 항상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만 법은 그 보편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누락이나 빈틈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정의는 법적 조치를 수정하고 균형을 잡아준다. 더 나아가 정의는 법이 부당할 때에는 법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즉 법이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투쟁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과 정의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이나, 때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 정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⑦ 지 조

의가 기개로써 나타난 것이 의기(義氣)이다. 모든 경찰관이 의기에 차 있다는 것은 기상이 곧고 절개가 굳다는 것이다. 기상이 곧다는 것은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의미이다. 절개가 굳다는 것은 옳음에 굽힘이 없고 꼳꼳한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에게는 지조라는 말이 늘 붙어 다닌다. 지조는 강한 의지이며 고상한 정서이며 감정이다. 지조 있는 경찰관이 많아질 때 바람직한 경찰윤리가 성립될 것이다.⁶¹⁾

⑧ 규범적 정의감

정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정신이다. 경찰이 지녀야 하는 정의감은 일반적인 정의감이라기보다는 법집행에서 사회의 법질서를 충실히 지키려는 규범적 정의감으로서 의미이다. 즉 주어진 법질서를 엄격히 실현하는 경찰직분에서 나오는 정의감인 것이다. 이것은 법과 질서의 편에서 서서 모든 불법과 비리, 파괴와 무질서 등 부정적 가치에 대립하려는 의지이다. 주어진 법질서가 실질적 정의에 부합되는가의 문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몫인 것이다. 사실 주어진 법이 국민의 요망에 부합되지 않을 때 주어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61) 송 북, 선비:그는 누구인가, 계간 전통과 현대, 가을호, 217-9

힘든 일을 하고도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주어진 법집행을 고유의 업무로 하는 경찰의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비난이며, 민주적이고 실질적 법을 정립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그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성숙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도 비난받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경찰은 흔히 법과 동일시되거나 정부권력의 최일선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찰에게는 항상 법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불법의 무질서를 단호히 배격하는 정의감이 필요한 것이다.⁶²⁾

⑨ 배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 또는 준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정의는 인간의 심정이나 행동이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덕’과 ‘윤리’가 동일시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기 때문에 ‘준법적 정의’라고 한다. 아테네의 법은 시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보았던 것이다. 명예와 재산을 분배할 때 그 사람의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자는 정의를 배분적 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 비례적 평등이라고 한다. 이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본 것으로,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배분적 정의는 단체 생활에서 각자의 가치에 차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즉, 부의 균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의 균배 혹은 혜택의 균배 이런 것이 비교적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 이런 것이 다 고려된 비교적 적절한 분배라고 본다. 사람들이 받는 이익과 손실을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꼭 같게 하는 것을 시정적(是正的)정의 또는 평균적 정의라고 한다. 이것은 교환의 경우에 상호의 이득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면에서 교환적 정의라

62) 전용찬, 앞의 책, 경찰대학, 2000:175-6

고도 한다. 시정적 정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보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기득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고 보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보기도 한다.

⑩ 부정 부패 일소

정의는 바른 것, 옳은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인간과 사회, 국가를 지키고 실현해야 하는 원칙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사회와 국가가 그것을 축으로 영위되는 중심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것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일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이다. 원칙을 지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서로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불신이 없어서 공동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국가는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된다.

⑪ 엄정한 신상필벌

정의로운 사회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부패가 없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 법을 지키는 사회, 공정한 경쟁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말한다.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부정, 부패, 편법, 요령을 동원하여 출세하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며 바르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

⑫ 사회 평등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즉 구성원들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이다. 어려울 때는 고통을 함께 하고 좋을 때는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고통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담되어,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이다. 정의 사회란,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응분의 대가와 인간적인 존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⁶³⁾

⑬ 인권 존중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 인간존중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를 확립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사랑, 지속적인 인권교육, 인권 우선 정부정책, 공직자의 인권 의식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서로가 서로의 자유와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 즉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바르게 하며, 마음속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사회의 구현이 곧 그것이다.⁶⁴⁾

사회 정의의 실현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간 존중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를 확립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사랑,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을 우선하는 정부정책, 특히 공직자의 인권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⁶⁵⁾

⑭ 투명성

정의로운 사회는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투명하여 상호 신뢰하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이다. 이러한 투명성을 통해 공평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자신과 타인이 얻은 결과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인정하는 사회이어야 한다.

6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자기발전, 1981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81.

65)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제2의 건국 운동의 3대 원리, 1999.

⑮ 사회 정의

사회 정의란 곧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염두에 두면서 사적 이익을 자유롭게 질서 있게 추구함으로써, 벤딤이 말한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 뜻에서, 법의 목적은 곧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사회 정의란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각 개인의 정신적 자유, 인권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 사회의 구현을 통해 배분(配分)의 형평도 누리게 될 때, 민주주의의 참다운 정의가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⁶⁷⁾ 사회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을 보장하는데 완전 자유 경쟁이나 약육강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반 위에서의 경쟁과 배분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최저한으로라도 보장해 주면서 그 기반 위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 하겠다.⁶⁸⁾

⑯ 미래 사회에 대비한 사회정의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 곳에서는 만성 영양 실조,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음식쓰레기 만연하는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절망적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사회정의의 실현이 또한 미래 사회 모두가 함께 성취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자율과 통제, 동조와 다양성, 자유와 평등, 물질과 정신 등은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단순한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기준 위에서

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81.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81.

68) 총무처, 선진조국창조와 공직자의 길, 1983

조화되어야 할 기준들이다. 미래 세대는 이러한 조화로운 선택도 사회정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 기준이 의식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⑰ 사회의 질서

정의는 사회의 질서다. 정의가 갖다 주는 최대의 열매는 마음의 평정이다. 정의란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소유하고 자기에게 어울리게끔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저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란 인간이 국민으로서 거기에 사는 국가의 법률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증인이 있을 때에는 법률을 존중하지만, 증인이 없을 때에는 자연의 법을 존중한다면, 자기의 가장 보람있는 방법으로서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정의 없는 힘은 무력이고, 또한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하다. 큰 정의를 행하려는 자는 조그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에 있어서 정의를 성취시키려는 자는 작은 일에 있어서 부정을 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는 진실의 실현이다. 불의는 비교적 참기 쉽다. 내 가슴을 찌르는 것은 정의다. 정의가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자유 없는 곳에 정의는 없다. 정의의 지체는 부정이다. 정의란 사람마다 그가 받을 만큼을 취하는 일이지, 결코 개인이 타고난 불가양도의 권리의 실현을 무조건 주장하는 일은 아니다. 정의란 무기와 비슷한 것이다. 무기는 돈만 내면 적도 살 수 있고 내 편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정의도 핑계만 내세우면 적도, 내 편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고로 ‘정의의 적’이라는 이름은 포탄처럼 서로 던지고 반곤 했다. 그러나 수사(修辭)에 빠져들지 않으면, 어느 편이 진정한 ‘정의의 적’인지 좀처럼 명백해진 예는 없다.

⑱ 신뢰 회복의 지름길

정의는 공평성과도 통하지만 구체적으로 불의에 맞서고 위협을 불사하는 정신이다. 국민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불의와 싸운 경찰의 이야기에 감탄한다. 정의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일맥상통한다. 현재도 경찰의 여러 상징물들은 정의를 강조한 것들이 많다. 여러 가지 유혹과 타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있어 정의는 국민들이 경찰에게 신뢰를 보내는 가장 원천적인 이미지

속성이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가장 정의가 요구되는 직업이다.⁶⁹⁾

◆ **덕목 구현 방안<예>**

- 무감독시험
- 명예보고서
- 명예위원회 활동
- 지휘근무

(6) 정 직(正直)

◆ **덕목 설정의 근거**

-
-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 ‘국민에게 정직’(공무원윤리헌장)
 - ‘언행의 솔직 담백함’(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위의 근거에 따르면 ‘정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국민에게 정직하여야 한다.
- (2) 경찰은 정직하게 직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언행에 솔직 담백하여야 한다.

69)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정직’이란 ‘마음이 바르고 곧음’을 뜻한다. ‘솔직’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의미한다. ‘양심’이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일컫는다. ‘正直’은 어원적으로 “오직 하나(-)인 양심에 그쳐(止)서 행동하면 ‘바르다’는 뜻과 여럿(十)이 보면(目) 숨김없이(L) 드러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2) 윤리적 의미

① 계약과 신용의 바탕

정직은 계약과 신용이 바탕이 되는 현대 사회의 특수성에 편승하여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 가는 실정이다. 인간은 이중적 존재이다. 본래의 자기와 사회의 공적 이미지로서의 가면의 자기이다.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영어의 ‘personal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persona’에서 나왔다. 그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드라마에서 연극 배우가 쓴 가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가면 뒤의 본래적 자기 모습과 가면으로 포장된 공적 이미지라는 두 개의 자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중적 존재인 것이다.⁷⁰⁾ 이런 점에서 인간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부정직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② 언행일치

정직은 말이나 행동을 사상이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또는 역으로 생각을 말과 행동에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 사이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

70) 김태훈, 덕교육론, 양서원, 1999

한다. 즉 생각을 원래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본다. 이 일치의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③ 진리에 대한 존중

정직이란 진리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직은 성실과 맥이 통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말도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정직은 속이고 감추고 위장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직은 자기 자신을 진리 밑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일시적인 안락을 영원한 정신 밑에 놓는 것이다. 정직을 배척하는 것은 진리와 자기 자신을 이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정직하다는 말이 언제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나중에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이 검증되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자. 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적어도 그 당시에 그의 생각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인간관계의 초석

정직은 인간관계의 초석이다. 정직은 자기 자신을 보증하며 자기가 장래에 취할 태도를 예정하며 자기의 힘으로 능히 좌우할 수 있는 미래의 존재를 보증하며 따라서 필경 주어진 순간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힘이다. 반면에 거짓말은 사회집단에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묵약(默約)을 망가뜨린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 존중의 이익을 이용하면서, 그 자신은 그의 거짓말 하나 하나가 무너뜨리게 될 질서에 보호되면서 그 질서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최고의 이기주의자이며 동시에 자기 파괴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참다운 이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거짓말로 궁지를 일시적으

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알려져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 점을 인식한 자는 낭패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 말을 하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된다.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 곧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공정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편파적이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⑥ 양심의 발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에서 양심이 무엇인지는 각 개인의 윤리관이나 가치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짓기 어려우나, 직업인으로서의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것에는 널리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나 양심에 꺼리는 일을 생각나게 하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해서는 안 될 행위나 생각을 하면 양심이 작동하여 그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인 것이다. 양심에 상처를 입는다는 말은 그러한 뜻에서이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반복적인 양심의 침해를 통해서 마비될 수 있다.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말이다. 우리 경찰에게는 양심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양심침해는 양심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우리 경찰환경 가운데는 그러한 소지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주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에 연유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일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나 감당키 어려운 근무의 부과, 징벌주의의 감찰활동 등에 따라 항상 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준비해 놓기 쉬우며, 아무 탈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 사고를 낳는다. 따라서 경찰

은 양심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근무환경이나 감독방법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습과 관행의 타파라는 뼈아픈 자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⁷¹⁾

⑦ 자아의 성장

어떠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인 ‘자아의 성장’으로 말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⑧ 거짓말의 폐해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하는 말’이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나 이런 말만이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을 잘못 전달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진실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전달한 말이 금방 거짓이 되어버리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된다. 공직자의 한마디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단 한 마리의 파리가 한 접시의 요리를 못 먹게 망치고 미세한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을 죽게 만들듯, 한 마디의 거짓말만으로도 세계의 평화는 깨질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최악의 싹은 거짓말에서부터 돌아난다.

누구든 습관성 거짓말쟁이로 일단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된다. 한번 추락한 신용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과 같고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수표와 같고, 의식적인 거짓말은 위조지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말은 보증수표와

71)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55-56

같이 정확해야 한다. 거짓말은 감추면 감출수록 새끼를 친다. 이미 해버린 거짓말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스무 개의 거짓말을 지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은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만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계속 이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잘 하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노련한 ‘거짓말 제조기’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 간단하게 벗어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 상대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을 때 부득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어느 때는 자기의 활발한 공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새빨강거나 시커먼 거짓말은 신용을 추락시키고 사회까지 어지럽힌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는 성을 잘 내고 쉽게 화를 낸다. 흥분도 잘 한다. 논리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맹세나 다짐을 자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결의대회나 축구대회 같은 것을 자주 연다. 우리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체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거짓말도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이익을 해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가이익과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도 연구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²⁾

72) 박경현, 수연칼럼, 수사연구, 2000.

⑨ 가장 좋은 정책

정직함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그저 약간만 더 고통스러운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설탕을 탄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쓴맛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런데도 나는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강하게 이끌려 간다. “인간의 천성은 원래 정직한 것이다. 정직하지 않고도 생존한 이는 요행히 형벌을 면한 것뿐이다.”⁷³⁾ 정직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특강
- 무감독 시험
- 명예보고서 제도
- 공금 감사
- 청문회
- 진실게임
- 잘못에 대한 자기인정 기회 부여
- 언행의 솔직 담백한 언행
-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환경이나 여건 조성
- 강력한 처벌
- 정직함을 자연스레 기를 수 있는 것
- 부정행위, 절도 행위 중징계
- 거짓말에 대한 가혹한 처벌

73)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論語>

(7) 공 정(公正)

◆ 덕목 설정의 근거

- ‘공명과 정대는 공무원의 길이다.’(공무원윤리헌장)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직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경찰헌장)
- ‘조직내 상하간에는 신뢰와 정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경찰대학생은 매사에 공명정대하나 폭넓은 이해로써 통솔의 지킴으로 삼는다.(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공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공명정대는 공무원의 길이다.
- (2) 경찰은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 (3) 공정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집행을 하는 경찰이다.
- (4) 경찰은 국민에게 언제나 공정하여야 한다.
- (5) 경찰대학생은 매사에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공평’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다’를 뜻한다. ‘정대’란 ‘의지나 언동 등이 바르고 당당하다’는 뜻이다.

(2) 윤리적 의미

① 선의의 경쟁의 바탕⁷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공정한 수단에 의한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발휘해야만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의의 경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조직 형성의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사는 선의의 경쟁이 정착되게 하려는 자세, 부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아발전을 기하려는 자세가 조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조직 생존의 관건

인간사의 모든 행위에는 순리와 질서가 있듯이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한 직무 수행이 조직의 생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내외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 합리적인 의사결정, 외적으로는 민원처리의 공정성, 업무처리의 공개성을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하고 시민이나 고객의 만족감을 증진시켜야 한다.⁷⁵⁾

③ 공사 구별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이기나 사심이 개재되어 있어 인간관계의 공평성을 해치고 이 불공평성은 조직 내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공사를 분명히 하는 태도로 직장에서 공평무사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④ 공평무사

경찰관의 모든 임무는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호의니 애정이나 악의를 가지

74)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51

75) 이수용, 위의 책, 1999:423

지 않고, 신분,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이나 야망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공손한 태도로 사려 깊게 그리고 위엄 있는 태도로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절대 개인의 감정 적의 또는 우정이 공무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대중으로부터 최대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외모와 품행이 그들이 보호하는 대중의 위치에서 믿음과 존경이 고무되도록 처신해야 한다.⁷⁶⁾

⑤ 국민 만족 서비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경찰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경찰서비스 전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適時性),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경찰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소 덜 객관적이고 덜 전문적일 수는 있지만 경찰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⁷⁷⁾

⑥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된다. 경찰이 마주치는 여러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기 쉽다. 그런 상황에는 대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알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두 당사자의 격앙된 감정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경찰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냉정함이나 객관

76) 이수용, 위의 책, 1999:422

77) Police Code of Conduct,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90.

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들은 악인들을 상대할 때가 있고, 비위에 거슬리는 범죄피해자를 만날 때도 있다. 그리고 가끔씩 경찰관은 맞기도 하고 욕설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쉽고 돌발적인 행위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런 상황에서 평정을 잃을 경우에 시민들은 보통사람들이 평정을 잃을 경우와는 달리 대우한다. 시민들은 사회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행위자로서 경찰관은 모든 체포와 구금에 관한 절차들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범죄꾼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도 경찰관이 평정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개입으로서,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평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무관심한 태도로서 전혀 당사자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태도이다.⁷⁸⁾

⑦ 신뢰와 권위의 바탕

규제와 단속, 민원의 주기관인 경찰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찰이 공평성을 유지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와 권위를 지니게 된다. 공평성은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고와 자세를 필요로 한다.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감정과 사리사용과 편견,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적인 사고와 양심이 동시에 요구되는 덕목이다. 특히 민원이나 사건을 해결할 경우 경찰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평성이 의심받으면 여기에서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 이미지의 발생 원인이 된다.⁷⁹⁾

◆ 덕목 구현 방안<예>

78) 경찰대학, 경찰경무론, 1998:69-70

79)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 경찰업무의 공정성 확립 방안 생각해 보기
- 상급생의 하급생 지휘시 공정한 대우하기
- 학교생활에서의 불공정한 면 찾아보기
- 사회에서의 불공정한 면 찾아보기
- 국제사회에서의 불공정한 면 찾아보기
-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의 원인 알아보기
-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의 결과 예측하기

(8) 성 실(誠實)

◆ 덕목 설정의 근거

-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국가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경찰헌장)
 - 성실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통하여 경찰간부로서의 지휘와 지도능력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도야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외부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위의 근거에 따르면 '성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경찰은 성실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3) 경찰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어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성실한 생활을 통하여 경찰간부로서의 지휘와 지도능력을 성숙시

키고 인격을 도야하여야 한다.

- (5) 경찰대학생은 외부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정성’이란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뜻한다. ‘참되다’는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는 뜻이다. ‘성(誠)’이란 어원적으로 ‘言’과 ‘成’이 합한 글자이다. 글자 그대로 말한 바(言)를 반드시 이루도록(成) 혹은 그렇게 하는 일관하는 마음을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언행일치

성실은 언행일치의 덕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많으나 그에 따른 실천이 부족하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실천이 말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기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능한 사람은 대개 말 먼저 앞세우고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는 “군자는 할 말을 먼저 실행하고 난 뒤에 말한다”고⁸⁰⁾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야 호언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못함은 그 말과 일치되지 못할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할 때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⁸¹⁾ “옛사람이 말을 잘 하지 않았음은 실천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겼기 때문이다”라고⁸²⁾ 하였다.

80) 先行其言 而後從之<論語>

81) 其言之不怍 則爲之也難<論語>

② 솔직한 자기 현시

성실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진실성의 덕이다. 성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태도를 이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성이 없이는 도덕적 주체란 생각할 수 없다. 성실하다는 것은 우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는 것이며, 본 것을 미화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추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데서 성실은 시작된다. 성실은 “홀로 삼간다(慎獨)”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사실이 저절로 겉에까지 나타난다”⁸³⁾ 점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언행을 조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은 무엇보다 “숨겨진 곳보다 더 잘 드러남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남은 없는 법이니, 군자는 그 홀로 삼간다”⁸⁴⁾ 점을 명심한다.

③ 항구성

성실은 일관하는 마음 곧 항구성의 덕이다. 모든 덕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습관을 토대로 장기간의 실천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어간다. 사람이 어떠한 덕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꾸준한 일관성 곧 습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도덕적 덕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이며 성실은 그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에너지이자 궁극적으로 덕을 완성시켜 주는 활력소라 할 수 있다.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 그리고 내일의 자기가 일관성이 있게 하나이어야 한다. 이곳의 자기와 저곳의 자기가 일관되어야 함을 말한다. 어제의 행동과 오늘의 행동과 내일의 행동이 어느 곳에서든 일관되지 않고는 통일된 인격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이것은 불성실을 의미한다. 일관된 마음이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을 말한다. 성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진행하는 마음가짐이다.

82)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論語>

83) 誠於中 形於外<大學>

84) 莫見乎隱 莫顯乎微 君子 慎其獨也<中庸>

④ 정 성

성실은 정성의 덕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친구를 대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 없다. 자신이 한 말에 믿음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회적 생활도 불가능하다.

⑤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방법

많은 경찰관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사람이다. 박사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또 힘센 장사도 아닌 보통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통사람의 자본은 성실해야 한다. 재주가 많고 또 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간에게서 성실은 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시대의 사회인으로서 그 사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 발전을 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책무일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 즉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생활이요 거기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⁸⁵⁾

⑥ 공무원의 기본 의무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全人格)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⁸⁶⁾

⑦ 정신생활의 기본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을 얻게 된다. 성실해질수록 태도가 안정되어진다. 성

85) 김형진, 앞의 논문, 치안정책연구, 1999.12

8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실하면 성실할수록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하늘 땅 앞에 자기가 엄연히 존재해 있다는 관념은 성실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자각이다.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도 생기지만 성실치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지는 법이다. 자기에겐 정의가 있으면 상대방에 허위가 있을 리 없고, 자기에겐 허위가 있으면 상대방에 정의가 있을 리 없다. 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충실한 것이 더 좋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성실성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성에 대한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시대만이 그 속에서 정신력으로 작용하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성실성이란 정신 생활의 기본이다.

성실이란 덕은 한 포기의 꽃이 아니요, 봄날에 불어오는 동풍과 같아 그 훈훈한 기분과 따듯한 빛이 온갖 꽃의 개발을 재촉하는 분위기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실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인간 행동의 표준 중의 표준이다. 동풍이 불지 않으면 화초가 피지 못하고, 사람에게 성실이 없으면 인격의 향기를 가져 보지도 못하고 더욱이 풍기지는 못할 것이다. 성·불성(誠·不誠)—그것은 방관자나 공리주의자나 세속주의자가 헤아릴 문제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여 100%의 성실을 다할 수 있다면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 속에 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성실한 생활이나 삶 속에는 맹목적이거나 비타산적인 일면이 있는 법이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특강
- 지휘근무
- 당직, 불침번 근무
- 각종 자격증 취득하기
- 수강 태도

- 각종 점호
- 지적제도
- 후배교육
- 관서실습을 통한 자극
- 방학중 아르바이트
- 선배의 실패담 교육
- 계층적 생활구조로 인한 성실성 감소경향에 따른 자극 필요
- 개인별 성실도 변화 조사 필요
- 졸업 자격 강화
- 졸업 요건에 대한 규범내용의 엄격한 시행
- 짜여진 일과 진행, 바쁜 일정으로 자기변명 기회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잘 유지하는 학생을 선발, 자신만의 방법공개
- 선배의 ‘하면 다 해’등의 반응보다 전문적인 업무처리 정보, 실패담 교양

(9) 신 로(信賴)

◆ 덕목 설정의 근거

-
- ‘직장에서 신의’(공무원윤리헌장)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경찰헌장)
 - ‘경찰공무원은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생활전반에 대하여 존경과 능력을 인정받는 정도’(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상 정립’(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조직 내 상하 간에는 신뢰와 정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위의 근거에 따르면 ‘신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 (2) 경찰은 직장 내에서 상하간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한다.
- (3) 경찰은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신의’란 ‘믿음과 의리’이다. ‘의리’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조직 발전의 요소

21세기에 들어 탈이념 시대가 되면서, 결국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기업이나 한 조직체를 막론하고 그 조직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요소는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이다. 이런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자면 이웃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어야 된다.

② 국민의 기대

국민과 공무원간의 관계는 신뢰 또는 믿고 맡김이다. 공무원이 관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써 국민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권한과 권위와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신뢰받을 만한’ 방식으로 처신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들이 가지게 되는 공중의 신뢰에 대한 대가로 프라이버시의 일부를 희생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⁸⁷⁾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

민이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는 권위주의적 태도(33.7%), 부정·비리(23.3%), 불친절(18.1%), 과잉단속(16.7%), 인권침해(8.3%)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⁸⁸⁾

③ 민주경찰의 윤리적 표준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관이 가져야 할 윤리적 표준 중의 하나이다. 국민의 신뢰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맡기고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의 신뢰 즉 경찰이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공의 믿음은 경찰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윤리표준이다. 국민은 경찰이 반드시 법집행을 할 것을 신뢰한다. 경찰의 법집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을 사용할 것을 신뢰한다. 경찰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불편과 고통을 주는 강제력을 선택하고 행사해야 한다. 경찰은 법집행을 하는데 불가피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부상을 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국민사회에 지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경찰이 자의적이고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경찰인에게 최소한 권력을 그것도 적정하게 사용할 것을 윤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은 경찰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다. 경찰의 직분에 사적 이익 등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다면 공평한 법집행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④ 부패는 신뢰의 상실

경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는 경찰의 강압적인 법집행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찰이 부패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관 한 개인의 부패는 조직 전체의

87) 경찰윤리론, 경찰대학, 1998:224

88) 김복영 외,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02, 치안연구소, 1996.

부패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패에 대하여 조직원 전체가 염려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경찰직분에 대한 인식과 자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경찰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조직에 대한 신뢰

경찰조직과 경찰관 사이에 일체성 신뢰 또는 동일성 신뢰까지 형성되면, 경찰관은 경찰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조직의 생산성, 효과성 달성에 기여하는 동기형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무성취와 직무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발전과정과 연관된 연구로서 조직 내 신뢰와 조직직무 몰입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조직, 상관, 동료에 대한 신뢰 중 ‘조직에 대한 신뢰’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일수록 영향력은 크지만 관련성 정도는 낮다고 나타났다.

⑥ 본연의 임무 충실

국민은 사회질서유지와 범죄대응에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을 원한다.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각자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범죄와 무질서에 강한 경찰을 원하고 준법자와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경찰을 원한다.⁸⁹⁾

⑦ 성실과 불변성

사람과 사람이 접촉함에서 가장 큰 신뢰는 충고를 주고받는 것이다. 신뢰는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신뢰를 강조할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속는 일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로는 안 된다. 인생에서 믿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다.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유동력으로써 저울에 달아 볼 수도

89)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1998:69.

없고 도가니에다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념이란 어떤 중요한 우의관계나 애정관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특질이다. 남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신의 인격의 핵심과, 자신의 사랑의 핵심에 대하여 성실과 불변성을 확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오직 그러한 사람이라야만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현재 바라고 있는 대로 느끼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저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는 게 아닐지라도 저는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⁹⁰⁾

◆ 덕목 구현 방안<예>

- 개방된 공간에서 단체생활
- 투명한 학교행정(학교생활에 대한 자세한 사전교양)
- 무감독시험
- 깊이있는 인간관계
- 명예보고제도
- Blind Walking
- 마니또 제도
- 고민 털어놓을 선후배 갖기 캠페인
- 고민사항 (비밀) E-mail 상담
- 불신감 조장 사례 조사
- 뒤에서 받쳐주고 넘어지기

90) 信人者 人未必盡誠 己則獨誠矣 疑人者 人未必皆詐 己則先詐<菜根譚>

(10) 관 용(寬容)

◆ 덕목 설정의 근거

-
- 경찰대학생은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용서해줄 줄 아는 아량을 가진다.
(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경찰대학생은 매사에 공명정대하나 폭넓은 이해로써 통솔의 지침으로 삼는다.(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위의 근거에 따르면 ‘관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대학생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줄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 (2) 경찰대학생은 폭넓은 이해를 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관용’이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다. 관용은 베푸는 것이다. 관용은 자신과 다른 의견, 관습, 인종, 민족,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즉 편벽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혹은 비교조적(非敎條的) 관점으로써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남의 잘못을 크게 꾸짖지 않는 것이다. ‘용서’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용서가 과오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관용은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2) 윤리적 의미

① 겸허한 마음의 자세

관용은 무엇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겸허한 마음 자세이다. 우리는 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유의 나약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관용이란 바로 그런 열린 마음의 덕이다.

② 자기 희생

관용은 타인에 대한 자기 희생의 수용이다. 관용은 상대방이 응당 비난받아야 할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며, 금지시킬 수도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이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수반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미 관용이 아니다. 관용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기 희생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관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 희생자가 아니라 해서 불의를 관용하는 것을 결코 관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다. 진정한 관용은 타인에 대한 자기 희생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③ 최소한의 존중

관용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관용이란 막을 권리 혹은 허용할 권리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견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경멸적이고 거만한 어떤 의미가 배어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관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의견을 열등하고 잘못되었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은 결코 그러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관용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다.

그것은 또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인 것이다.

④ 극 기

관용은 극기의 한 표징이다. 다시 말해서, 관용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적 소망을 이겨내야만 한다. 관용은 다른 인생관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그것과의 대결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대적인 대결과 달리, 관용은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고 대립되는 의견을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는다. 왜냐 하면 관용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겸허의 정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일단 공유해 보려는 자세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상대방과 함께 최상의 진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⑤ 긍정적이며 소극적

관용은 부정의 덕이 아닌 긍정의 덕이다. 그것이 작은 지혜인 만큼 다가서기 쉬운 덕이 관용의 미덕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관용의 경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다른 덕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관용이 작은 미덕이지만 인간의 집단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덕이다. 개인들간의 관계에서는 예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덕인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의 출발인 것이다.

⑥ 한계성

관용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덕이다. 관용이 덕일 수 있는 까닭은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즉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한 관용은 관용 그 자체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다. 관용은 자기가 싫어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는 행동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삼가는 것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덕이다. 관용의 문제는 다양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진 경우에서 발생한다. 관용은 결코 자유나 무관심과는 다르다. 또한 관습의 압력에 기인한 동의와도 다른 것이다. 관용은 관용하는 사람이 개입할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의 사용을 삼가는 것을 요구한다.

⑦ 관용을 가장한 직무유기 주의

사상, 인종, 신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다양성이 보존되는 세계에서 가능하다. 관용 또한 존중을 표현한다. 관용은 사상, 인종, 신조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인 것이다. 관용은 다양성이 보존되는 세계를 가능케 한다. 다른 가치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존중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사려(思慮)는 우리 자신의 신체적 혹은 도덕적 위험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다. 자기규율은 자기 비하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을 막고 우리에게 좋은 것 내지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 자기규율은 또한 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우리의 재능을 계발하고 장래의 목적을 향해 면학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만들도록 해준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존중의 형태들인 것이다. 부조, 동정, 그리고 협동과 같은 가치들은 책임이라는 커다란 윤리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⑧ 너그러움과 겸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나 양갚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지혜가 깊어짐에 따라 한층 관대해진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여야 한다.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받들어야 하지만 정의만으로 재판을 한다면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즐거우면 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용서함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朔北)

의 한설(寒雪)이 모든 것을 얼게 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관용은 미덕이다. 군자에 필요 불가결한 미덕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기구를 깨뜨렸을 때에 어른이 눈을 붉혀 욱하고 때리는 것처럼 친해 보이는 것이 없으니 대개 어린아이를 저와 같이 여김이 지극히 미욱한 표적이다. 관용과 너그러움은 인생의 덕목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덕목이다. 관용과 너그러움은 또한 겸허의 덕을 불러 내준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공과 사의 구분 의식 교육(선후배 사이, 직책 관련)
- 동기간 객관적 인식 기회 필요(낙인 배제 노력 필요)
- 입장바뀌 역할극
- 토론문화 조성
- 석명권 부여(지적보고서에 사유서 부기 등)
- 지휘근무
- 봉사활동

(11) 협 동(協同)

◆ 덕목 설정의 근거

-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공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경찰헌장)
- ‘희생과 단결로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을 배양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학생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이해, 자율, 책임, 지휘능력 및 협동정신을 함양함에 있다.’(경찰대학 과외활동지침)
- ‘선후배 및 동기간에 인화하고 협조하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협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2) 경찰은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 (3) 경찰은 화합과 단결하여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단결로 협동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
- (5) 경찰대학생은 과외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협동정신을 함양한다.
- (6) 경찰대학생은 선후배 및 동기간에 인화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가진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이란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단결’이란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말한다. ‘화합’이란 ‘화목하게 합하는 것’을 이른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를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심정에서 출발한 협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기 쉽다. 즉 우리는 나 이

외의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성의 차원에서만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② 상호 존중

협동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신뢰하는 것이다. 협동에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협동은 상호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에는 결코 협동할 수가 없다. 협동은 단순한 조정과는 다르다. 협동은 함께 행동함에서의 상호간의 적극적인 동의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협동은 상호간에 인간적인 깊은 신임이 전제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협동적인 공동체는 구성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전개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인데, 개인들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은 상호간에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쌓게 해주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협동을 위한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된다.

③ 공동 이익 우선

협동은 자신의 최대 이익에 대한 탐욕을 억누르고 공동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이상을 머금고 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협동적 자세는 민주시민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삶의 태도이다. 어떤 개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절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유지·발전되는 까닭은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적은 이익에 만족하면서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들의 협동으로 가능한 이익을 자신만을 위해 무임승차식으로 획득하는 자들은 도덕적 비난을 결코 면하기 어렵다. 이익을 좇아 행동하면 원망이 많은 법이다. 그런데 대개 그러한 자들은 그런 원망에 귀를 막아버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 이상에 대한 외경심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④ 소속 집단에 대한 충직

협동은 우리가 모두 하나로 얽혀있다는 연대의식이 그 밑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협동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충직(忠直)하다. 연대의식이란 공동체를 향한 충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얽혀 있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유기적인 얽힘을 우리의 의식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의식에서 발로된 협동은 조직의 필요에 의한 기계론적 결합이나 혹은 이익과 이해관계로 인한 계산적 결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 및 그 사회성과 동시에 인간 본성적으로 부여된 결합으로 간주된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조직사회에서는 자칫 인간이 기계의 부품마냥 강제적으로 협동을 요구받게 되기 쉽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공동의 삶을 위해 이웃들과 협동하지 못한다면, 즉 연대의식에서 출발한 협동이 도덕적인 덕성으로서 인격화되지 못한다면, 인간에게 협동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철저히 은폐한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행위는 오래 가지 못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상호불신이 싹트게 되고, 인간소외 현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 공동체는 인간적 유대감 없이 단순한 기계적 결합으로 얽혀 움직이는 메마른 사회가 되어버린다.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해왔던 동양사회가 개인주의가 발달된 서구사회에 비해 미래의 보다 인간적인 삶의 터전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⑤ 공동선의 성취 수단

협동은 공동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유리하거나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협동은 그런 이해관계에만 얽매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협동은 적어도 공공의식에 의해서 밑받침된 덕성을 말한다. 공동선은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인 선의 단순한 집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전체에 고유한 선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복한 생활과 유복한 생활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위한 외적·물질적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선의 원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협동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할 것을 목적

과 사명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선은 인간의 실존적 여러 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회가 협동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는 선이다.

⑥ 능률과 생산성 제고

사람들은 직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된다. 같은 직장 안에서 여러 상사와 부하직원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게 되고, 일과 관련이 있는 외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직장생활이 즐겁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직장에 있는 시간이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인화(人和)가 중요하며, 이 인화는 협동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⑦ 조직 구성원의 의무

조직이라는 것이 본래 개인이 혼자서 이룩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의 협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공동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목표는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협력은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의 실행이지 개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직 성원간의 협력은 일을 위한 협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성취될 수 있다.⁹¹⁾

⑧ 동일체 의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자기의 이해득실에 약삭빠른 개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조직의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진다. 동료의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동일체 의식이야말로 자신

91) 이수용, 인간관계심리학, 1999:421

과 조직의 동료애의 전인적인 화합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⁹²⁾

⑨ 상호간의 팀워크(teamwork)⁹³⁾

경찰은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들, 입법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경찰관간, 과·계간 그리고 경찰조직단위 사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찰업무의 대부분은 그 효율성을 위해 경찰인 상호간의 팀웍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공명심은 경찰활동의 윤리적 요청인 협동의 관념을 위해 정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각 구성원은 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협동의 의미는 부서간 또는 개인간의 기능적인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이라든지 무형적인 것도 의미한다. 팀웍의 관념은 민주사회에서 공동체가 경찰에게 부여한 직분과 그 직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윤리표준인 것이다. 요컨대 거시적으로 볼 때 경찰은 국가 기능 중 형사법 기능의 일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기관간의 조정, 상호소통 및 공동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찰 조직 내의 상호작용에 의한 임무수행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⑩ 경찰 권익 보호와 직결

단결은 직업인으로서의 경찰 스스로를 지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가꿀 수 있는 이미지 속성이다. 또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동일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속성이다. 검찰이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자랑하는데 반해 경찰은 그러한 면이 다소 부족하다. 경찰이 단결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다. 경찰의 단결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미지 속성이다. 또한 경찰 스스로의 긍지와 명예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속성이다.⁹⁴⁾

92) 위의 책, 1999:422

93) 전용찬, 앞의 책, 2000:237-8

94)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⑩ 최고 최선의 능률

약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단결은 강한 힘을 부여한다. 단결에 의해서 작은 나라는 번성하고 불화에 의해서 큰 나라는 망한다. 우리가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된다. 마음을 같이한 사람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의 그것과 같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한다.

세 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최고, 최선의 능률의 형태는 자유민의 자발적인 협동이다. 협동은 하나의 이상이지 단순한 제도가 아니므로 엄청나게 많은 응용방식들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 각 단계마다에서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협동은 단순히 빵 문제 해결 방식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여신 그 자체이며, 그 속에서는 모든 종류의 빵 문제가 다 하나의 본질적인 윤리문제로 귀착되리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대항의식 속에는 없다. 협조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협조정신을 무시하고 개인주의에만 생활의 원칙을 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늘 서로 협조하면서 내려왔으며, 그 협조정신의 결과가 인류 문화의 발전을 가져 왔던 것이다. 우리 개인은 각기 자기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는 반면에 시대가 사회에 발맞추어 협조해 나가는 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시대의 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손이 손을 씻어 준다.

우리의 몸은 사지(四肢)와 백체(百體)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지와 백체가 분리하면 그 몸이 활동을 못 하기는 고사하고 근본이 되는 생명까지 끊어진다. 이와 같이 각개 분자인 국민으로 구성된 민족사회도 그 각개 분자가 합동하지 못하고 분리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민족사회는 근본적으로 사망될 것이다. 한 사

람의 역량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단체 봉사활동
- 교외 행사 참여(학술, 체육, 방송 등)
- 각종 동아리활동
- 체전
- 분열훈련
- 동기생 MT
- Group Study
- Internet을 통한 동기생회 운영
- 개인 과오에 대한 단체책임 부여
- Team work
-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 Team sports를 통해 협동의 중요성 깨닫기
- 공동 프로젝트를 설정 완성해 보기
- 협동과 경쟁의 의미 알아보기
- 협동에서 신뢰의 중요성 토론해 보기

(12) 명예(名譽)

◆ 덕목 설정의 근거

-
- ‘경찰과 자신이 명예를 위해, 이해를 초월하여 선악과 시비를 분명히 변별하는 지도적 인격자가 된다.’(경찰대학 학훈)
 - ‘배달의 큰동맥을 이어온 터전 명예의 상징으로 앞서갈 우리’(경찰대학 교가)
 - ‘개인의 건전한 취향과 사고의 역량을 길러 경찰간부로서 필요한 인격을 도야하며 경찰대학의 명예를 대내외로 선양함에 있다.’(경찰대학생 과외활동지침)
 - ‘경찰대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내면화하려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명예’의 의미
 - 첫째, 정의로 공명정대하며 불의를 묵인치 않는다.
 - 둘째, 봉사로 친절하고 겸손하며,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사(私)보다 공(公)을 우선한다.
 - 셋째, 성실로 모범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임무를 완수한다.(2000 경찰대학 요람)
-

위의 근거에 따르면 ‘명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대학생은 경찰과 자신이 명예를 위해, 이해를 초월하여 선악과 시비를 분명히 변별하는 지도적 인격자가 된다.
- (2) 경찰대학생은 명예의 상징으로 앞서가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과외활동을 통해 경찰대학의 명예를 대내외로 선양한다.
- (4) 경찰대학생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내면화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 (5) 명예는 공명정대, 친절 봉사, 겸손, 명랑, 선공후사, 모범, 적극적 사고 등을 의미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명예’란 ‘훌륭하다고 인정되어 얻은 존엄이나 품위’라는 뜻이다. ‘존엄’이란 ‘범할 수 없게 높고 엄숙한 것’의 의미한다.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존경받음과 긍지

명예란 외형으로는 한 인간의 지위 또는 업적에 대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존경이라 할 수 있고, 내면으로는 자신의 일과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명예는 외양과 내면의 양자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 경찰은 열악한 근무조건, 일제로부터 내려온 강압적 경찰상에 대한 사회적 냉대, 지시와 통제 위주의 조직문화 등에서 경찰인들은 자기 비하감을 절감했고 친직관도 희박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인들은 ‘경찰직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기보다는 승진을 통하여 출세하고 권력을 획득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경찰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훌륭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은 결국 경찰 개개인의 진정한 긍지와 명예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경찰인이 명예와 보람에 죽고 사는 조직풍토와 자기 확신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⁹⁵⁾

② 품위 유지

경찰공무원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신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축첩·도박·아편

95) 전용찬, 앞의 책, 2000:176

등과 같이 공직의 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외에 공무원의 순수한 사생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조직이나 그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의 경찰관의 인성이나 행동은 항상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 경찰관은 그가 생활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개인적 행위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⁹⁶⁾ 나의 한마디와 동작 하나가 전체 경찰의 명예는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에 직결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⁹⁷⁾

③ 남이 씌워주는 월계관

명예와 이익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부귀와 명예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가 문제이다. 도덕에 근거를 두고 얻은 부귀와 명예라면 산골에 피는 꽃과 같다. 즉, 충분한 햇볕과 바람을 받고 필 수 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 놓고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정한 일을 하면서 명예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명예를 지켜야 할 자리는 위험하여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지 못하고 또 해서도 안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은 여성을 해치거나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속이는 일이다. 남의 신의를 배반하는 일이다. 자기가 얻은 명예 속에 안주하는 것은 눈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잠든 채 죽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는 자기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씌워 주는 월계관인 것이다. 명예는 잃은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어렵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졸업식 행사

96) Police Code of Conduct, 국제경찰장협회, 1990

97) 경찰실무전서, 경찰대학, 1998.

- 각종 명예교육
- 정복 착용
- 무감독 시험
- 촛불파티, 촛불행진
- 모교방문
 - 고교 교장에게 학장 서한문 발송,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스터 등 자료 지원,
 - 설명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 교육,
 - 2.3학년 위주로 여유 있는 교양이 되도록 태도 교육,
 - 프로그램, 시나리오, 방문후 보고대회 등
-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
- 입학 경쟁률 교육
- 금전출납부 기록
- 자기 사명 선서문 작성
- 개인에 대한 타인의 명예 인지도 조사
- 예절 교육
- 청람 명예상 제정(Best 청람), 불명예 사례 조사(Worst 청람)
- 가정, 모교에 편지 발송
- 명예, 정의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한 학생자체 리포트 제출 지시
-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체득
- 공무원의 공복의식 교육
- 졸업생, 재학생의 자긍심 소개
- 경찰 비리관련 기사 교양
- 명예에 대한 교육생 인식 조사(명예, 정의 등에 대한 리포트 작성)
- 현실적인 월급 수준에서 가능한 저축관련 상품, 금액 등 위주 교육 필요

(13) 모 범(模範)

◆ 덕목 설정의 근거

-
- ‘불의 타파, 수범, 정의 사회 구현’(공무원윤리헌장)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학생생활을 자율적으로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후배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책임정신을 솔선 수범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후배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솔선 수범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생활전반에 대하여 의욕적이고 개방적이며 솔선 수범하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위의 근거에 따르면 ‘모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2) 국민의 모범이 되려면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학생생활을 자율적으로 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후배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솔선 수범한다.
- (5) 경찰대학생은 생활전반에 대하여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가진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모범’이란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를 뜻한다. ‘수범’이란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존경의 지위 유지

경찰관은 그들 조직이나 자신들에게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의 바른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인품과 행위는 근무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봉사할 지역사회 안에서 존경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경찰관의 개인적 행위는 절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⁹⁸⁾

② 자기관리

자기를 다스려 품위와 매너를 유지한다. 사생활은 공인으로서 절도 있게 한다. 금전관계를 깨끗하게 한다, 이성관계에 의심받지 않도록 한다, 술과 잡기에 빠지지 않는다, 말을 조심한다. 건강을 관리한다. 자기계발에 힘쓴다.⁹⁹⁾

③ 감화의 수단

인간에게 감화를 끼치려면, 우선 스스로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범이란 그것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간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이를테면 몸소 그 모범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늘 새롭게 행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성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시도

98) Police Code of Conduct, 경찰장들의 국제협회, 1990.

99) 경찰실무전서, 경찰대학, 1998:1348

가 성공되지 못하고 그래서 간격의 긴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만 앞으로의 도약이 항상 새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언뜻 보아 헛되게 보이는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한 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하 중에서도 특히 총명하고 젊고 야심적인 사람은 강력한 상사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있지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경영자의 존재만큼 조직에서 구성원을 타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 자체를 파괴로 이끌어 가는 요인은 없다고 하겠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不正)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¹⁰⁰⁾

◆ 덕목 구현 방안<예>

- 상·하급자 및 동료들 비난·악평하지 않기
-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지 않기
-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기
-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지 않기
- 단체생활
- 선행상, 가점 부여
- 지적, 훈련 등 타산지식의 기회 제공
- 지휘근무
- 포상제도
- 최우수학생 선정
- Best Dress제도(정복, 근무복)
- 몰래카메라
- 후배의 모범사례 공고
-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이었던 선배의 특강

100)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論語>

(14) 복종(服從)

◆ 덕목 설정의 근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 본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국가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경찰공무원복무규정)
- 복종과 인내를 통하여 학생의 기본자세를 확립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정성을 다하여 선배와 상급자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임하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복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 경찰대학생은 선배와 상급자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맹종’이라 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위엄 갖춤

공직자는 위엄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위엄은 엄결을 숭상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 권위주의와의 다름

권위주의는 강자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이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위압적 자세를 취하여 복종을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통주의, 맹목적 집착성, 복종성, 공격성, 비타협성, 미신성, 냉소성, 투사성(投射性), 정형성 등의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등급화(等級化)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려 하며 자기 의견과 궤를 달리 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독단적 행태를 일컫는다.

③ 공직자의 동조와 순응

동조(同調)는 다수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순응과 복종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요청이 있음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조직이나 사회를 유지, 일탈이나 와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④ 조직의 힘

억지로 명령에 굴복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다. 지배하기 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라.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제일 먼저 복종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들은 조직을 구하고 있다. 조직은 힘이며, 그 비결은 복종에 있다. 복종하기를 증오하는 자는 지배할 수 없다. 복종과 규율 없이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복종만이 고독과 불안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또 다른 방법, 즉 생산적이며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발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개성을 배제해 버림이 없이 개인을 외부 세계와 결부시키는 방법이다.

⑤ 직무상의 명령 수행

공무원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조직체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속상관이라 함은 신분상의 상관이 아니라 직무상의 상관을 말하며, 직무상의 명령에는 직무집행에 직접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장 등도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¹⁰¹⁾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능한 것일 때는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직무명령에 대한 위배는 징계사유가 된다.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관련하여 상대방 공무원은 직무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좀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직무명령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불복심사의 과정에서 당해 직무명령은 위법하였다고 하는 위법의 항변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직무명령이 형법에 저촉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만약 위법함을 알고도 복종하였으면 비록 상사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한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¹⁰²⁾

◆ 덕목 구현 방안<예>

- 예비입학훈련
- 지도교관, 선배, 지휘부 등의 지시에 대한 복종
- 각종 보고 제도
- 계층별(학년별) 생활지도
- 계층제적 단체생활
- 지휘근무
- 체전 기간중 ‘야자’타임

101)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178

102)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 선후배 사이 역할 바꾸어 보는 역할극
- 학교 여러 행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의미 부여 필요

(15) 인 내(忍耐)

◆ 덕목 설정의 근거

-
- 복종과 인내를 통하여 학생의 기본자세를 확립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운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어려움에 당면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수·극복하는 의지(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위의 근거에 따르면 ‘인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대학생은 인내를 통하여 학생의 기본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 (2) 경찰대학생은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
- (2) 경찰대학생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수·극복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한다. ‘극기’란 ‘자기의 욕심·충동·감정 등을 이성적인 의지의 힘으로 눌러 이기는 것’을 뜻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인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말한다. 인내는 굴종이나 체념과는 다르다. 인간에게 내일이란 없는 것이지만 내일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 그것이 인내이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내는 만족의 열쇠이다. 인내는 정의의 일종이다. 인내는 온갖 곤란과 고통에 대한 최상의 치료다. 인내는 일을 떠받치는 일종의 자본이다. 인내는 희망을 갖기 위한 기술이다. 어떠한 일이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단행할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없는 일은 참아야 한다. 인내는 집결된 끈기다. 행운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② 자기 관리능력

21세기를 활동무대로 할 경찰관들은 한편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극심한 갈등과 혼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배양해야 한다. 충격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자기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수정·조정할 수 있는 적응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상교육이나 극기교육 등은 그러한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연상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차분하게 관리하고 챙겨서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내면화하고 미래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며, 복잡다양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선택·조정·판단능력을 바르게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극기심 배양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인격형성을 촉진하고 닥쳐오는 난관과 불확실한 미래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예비입학훈련
- 분열훈련
- 신입생 각종 잡일 전담
- 당직, 불침번 근무
- 담력테스트
- 극기훈련
- 체전 전원 마라톤
- 단체생활 전반
- 각종 집합
- 학생자체 명예교육 등 각종 교육
- 잡초제거, 제초작업등 각종 근로 정신
- 쓰레기 분리수거
- 정규학사일정에 따른 개인 일정 진행
- 정복착용
- NIE 활용 교육
- 봉사활동
- 전의경과의 대화
- 양보
- 현장실습기회
- 명사의 고난사

(16) 자 율(自律)

◆ 덕목 설정의 근거

- 인류생존과 번영의 진리인 ‘자율·책임·책임’으로 제2 창경(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학생생활을 자율적으로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해야 할 일을 자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찾아 수행한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학생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이해, 자율, 책임, 지휘능력 및 협동정신을 함양함에 있다.(경찰대학생 과외활동지침)

위의 근거에 따르면 ‘자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자율로 제2의 창경을 해야 한다.
- (2) 경찰대학생은 학생생활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해야 할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4) 경찰대학생은 과외활동을 통해 자율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자율’이란 ‘남으로부터 지배·조력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세운 규율에 따라 바르게 규제하는 일’을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자율능력의 함양 필요

오늘날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획일적이고 절대가치 체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관·세계관에 의해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는 독자적인 가치체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전체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조화를 얻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교육에서 자율능력의 함양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모든 교육과정과 학습활동 속에 선택능력, 조정능력, 체계화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투입되고 생활학습의 경험 비중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조를 돕게 될 것이다. 우리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사고나 행동에서의 합리성 부족이라든지, 공익과 협동에서의 이기심 제어능력 부족이라든지, 모방력에 비해 창조력이 부족하다든지,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생활윤리나 이론만큼 생활화하지 못하고 내면화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이념 등의 공통인수가 바로 자율 역량의 부족에 기인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가치의 선택·조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율능력 배양교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② 인권과 참여의 실천

자유는 공기와 같다.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은 자유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이 지닌 모든 잠재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최대한도로 발현하게 해주며, 사회와 국가가 지닌 잠재력과 힘, 경쟁력을 무한히 뺏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보다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제2의 건국 운동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억압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의 건국 운동을 통해 국민 개개인, 모든 사회 체계가 권위주의와 구습, 무사안일주의, 타율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탈피하여 권한을 공유하고 자유와 책임의식을 동반하는 자율적 행동을 길러야 한다.¹⁰³⁾

③ 자기규율

자율은 자기 비하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을 막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 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우리의 재능을 계발하고 장래의 목적을 향해 면학하고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만들도록 해준다.

④ 자주성의 발휘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관리능력과 자주성을 발휘하며 세세한 감독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폴로워(follower)란 리더(leader)가 안심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알아차린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계통상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리더와 자기 자신이 동등하다고 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거리낌없이 상위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위계나 편제에 구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능률적인 폴로워들은 비굴한 방법으로 지위를 확보하고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리더를 이용해 보려는 시도 사이에 갈팡질팡한다.

⑤ 자발적 자기 통제

자율이란 위로부터의 타율적인 명령·지시·감시·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이를 어김으로 인한 제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 또는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공직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공무원 자발적으로 근무규범과 행동강령 나아가 고도의 공직윤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근무규범’에는 인위적 규범인 법규범을 물론 포함한다. 경찰공무원으로 본다면 이러한 법규범에는 헌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 시행령, 경찰공무원법 등이 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러한 법규범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동은 자율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103)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 제2의 건국 운동의 3대 원리, 1999.

또한 ‘행동강령’에 따른 자발적 행동도 자율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경찰공무원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동강령의 대표적인 예로는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이 있으며 다시 기능별 경찰서비스헌장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법규범으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으나 주로 윤리규범으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행동강령은 대체로 윤리규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율 개념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법규범뿐만 아니라 윤리규범도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⑥ 권한의 분배

자율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권한의 분배를 전제로 한다. 권한이 없다면 상사 또는 상급관서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고, 이에 따라 하급자 또는 하급관서는 대응시기를 놓치거나 책임회피식의 결정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¹⁰⁴⁾

◆ 덕목 구현 방안<예>

- 각종 행사의 자체적 준비
- 학번순 행사준비(학생위원회 활성화)
- 자체훈련제
- 분열훈련시 학생지휘부 자율훈련시간 확대
- 지휘부 자치 위원
- 후배를 훈련시키는 교육
- 부대지휘훈련
- 훈련, 예비입학 대비 과학적 신체한계관련 수치 파악
- 지휘근무
- 자체점호
- 일조점호 자율운동제
- 정복, 사복 착용기간 탄력적 운용

104)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53

- 1학년 정복 의무 착용
- 정복세탁등 관리문제(원활한 세탁 및 관리)
- 정복 착용시 활동 범위 확대(호프집, PC방, 출입가능지역, 활동가능 행동 등 확대)
- 대학생 숙웃 지급시 흰색으로 할 것(매점에서 흰색 물품 판매)
- 학생착용 사복에 대한 규제
- 명예보고제도
- 동아리활동 장려
- Study Group 장려
- 자유발언대,
- 자치회의
- 수업의 선택
- 틀에 짜여진 생활 완화
- 봉사활동
- 자유시간 늘임
- 독서
- 민주주의교육

(17) 효(孝)

◆ 덕목 설정의 근거

.....

인간은 개인으로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부모를 통해 조상과 연결되고 자식을 통해 후손과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육체를 낳아준 부모와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하늘과 땅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받아들였다. 비록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자

녀의 부모에 대한 관계의 도덕적 규범을 설정한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여해준 부모에게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의 개념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혈연 중심적인 효의 개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혼이나 사고사 등으로 인한 양부모 또는 계부모, 그리고 맞벌이 부부로 인한 양육 대리 부모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에는 혈연에 근거한 효의 개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효의 대상에 따른 범위의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효 개념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효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여해 주었거나 보호해 준 부모에게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효’ 또는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다.

(2) 윤리적 의미

① 부모에 대한 공경

유교에서는 ‘봉양(奉養)의 효’, ‘양지(養志)의 효’, ‘부모 사후의 효’를 강조한다. 봉양의 효란 부모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게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으로서 일차적인 효로 여긴다. 이는 직접적·육체적·물질적 효에 해당한다. 양지의 효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정신적인 효이다. 부모 앞에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공경하는 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 사후의 효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장사와 제사를 예를 갖추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들은 그 밑바탕에 모두 공경하는 심성을 깔고 있다.¹⁰⁵⁾

② 부모의 신뢰에 대한 자녀의 진실한 응답

효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부모의 신뢰에 대해 자녀가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자녀의 미래 삶에 대한 책임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그 현실성을 신뢰한다. 이러한 부모의 신뢰에 답하는 자녀 쪽의 진실이 바로 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효란 다름 아닌 부모가 갖고 있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녀가 신체의 일부를 훼손시키거나 도덕적 일탈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모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으로 불효라고 할 수 있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 부모님 도와드리기
- 가족 공동체의 화목
- 친척에게 예의 차리기
- 친척의 호칭 알기
- 자기 자원을 관리하기(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
- 매달 일정액의 용돈 드리기
- 주 1회이상 안부전화드리기
- 동네어른 모시기

105) 김태훈, 덕 교육론, 양서원, 1999.

(18) 존 중(尊重)

◆ 덕목 설정의 근거

-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다(헌법)
-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경찰법)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경찰현장)

위의 근거에 따르면 ‘존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3) 경찰은 직무 수행함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4) 경찰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존중’이란 ‘높이거나 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민주정신의 전제

민주정신의 전제이다. 민주정신은 나의 삶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평범한 상식에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은 인간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제도적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수단시하는 사회는 벌써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사회가 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간존중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안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인간존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찰은 모든 시민이 바라고 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가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민주정신을 투철히 할 필요가 있다.¹⁰⁶⁾

② 자연 존중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양의 우주관·인간관에 비취 보면 인간의 존엄이란 자유나 평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사랑과 조화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주와 인류의 평화가 보장될 때 자연히 지켜지는 것이다. 즉 자연을 극복·착취하고서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질 수 없다.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권위나 존엄은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조화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지 사회안정이나 인류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인격, 자유나 평등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에 따른 자유·평등을 말하기 전에 우주와 인류의 평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과 조화의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사랑과 조화의 통제를 받는 속에서의 자유와 평

106) 전용찬, 앞의 책, 2000:173-4

등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우주평화로, 자유는 사랑으로, 평등은 조화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결국 우주의 지휘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③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은 모든 일의 결정에서 일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문제가 중심 관심사가 된다는 뜻이다. 인간은 원래 개인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이 둘이 조화 속에 인간은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창의와 사회적 적응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의 이치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존중은 그 동안 집단 속에 묻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개성적인 인간 가치의 구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는 넓고 깊은 휴머니티다. 휴머니티의 근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치된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 사이의 만남을 통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본다. 인간 개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은 그 개체로서 유일하며, 생존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고 각 개인의 개체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그의 가치를 소멸하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태도·가치·신념을 지닌 인간을 미래의 인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은 서로가 독특하고 유일하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이러한 점 인정하고 공감적 이해를 할 때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공감적 이해란 자기 자신의 눈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고 타인의 내면적인 눈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이러한 공감적 이해가 가득 차지 않고서는 낙관적인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④ 존중과 책임

존중과 책임은 민주주의의 2대 기본가치이다. 존중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책임이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데 비해, 존중은 소극적인 책무를 강조한다. 존중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존중은 세 개의 주요 형식을 취한다. 자신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모든 형태의 생명과 그것들을 지탱시키는 환경에 대한 존중이다. 책임은 존중의 확대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의 복지에 대해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책임은 서로를 보살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존중은 우리의 소극적인 책무를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 준다. 책임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권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권리가 도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도덕에 대한 도전의 하나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양자 모두에 대한 강한 의식을 지닌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존중과 책임의 가치교육이야말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연루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은 바로 이 근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똑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우리가 싫더라도 요구한다. 황금률의 정신인 “그들이 네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가 그 예이다. 생명을 감싸는 복잡한 얼개에 대한 존중은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금하게 하며 모든 생명체가 의존하는 유약한 생태계인 자연환경에 대해 항상 조심스럽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¹⁰⁷⁾

107)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1998:444

⑤ 인권 존중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종적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상하의 계층의식이 강하다. 사실 직책에는 상하가 있지만 인격은 평등한 것이다. 인격적인 평등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개성을 인정하면서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격 존중이 이루어져야만 이 진정한 인간 사이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 개인의 자아실현에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¹⁰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시민적 특성중의 하나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미흡하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개인주의의 경쟁 원리가 이기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어, 타인의 입장이나 생각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생각이다. 여행중 버스, 기차,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한다. 운동경기가 끝난 후 거리로 몰려 나와 교통 마비시키고도, 시민 불편 미안 반성보다는 젊음의 낭만 운운하는 일이 적지 않다.

⑥ 의식의 민주화

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의심날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형사소송상의 법언은 수사경찰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경구이다.¹⁰⁹⁾

⑦ 자신의 인권 존중

108) 이수용, 인간관계심리학, 태일출판사, 1999:421

109) 김복영 외,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02, 치안연구소, 1996

경찰은 경찰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경찰자신의 인권도 존중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경찰의 운용면에서도 인권이 존중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망각한 비인간적인 경찰운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찰자신의 인권이 존중될 때 비로소 경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존중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⁰⁾

⑧ 참다운 사랑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나 창조자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들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스러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부여되어 있으며 서로 동포애로써 행동해야 한다. 우리들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유사한 점을 느끼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자기와 동등하게 본다는 것과 같다. 존경과 정의는 가까운 사이이다.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적 군주가 법률을 대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위에 둔다. 존경을 받을 만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존경의 값을 하라. 인간은 자신이 존중하는 만큼 남에게도 존중을 받는다. 존경이 없으면 참다운 사랑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경의 어원 'respicere'(바라보다)에 따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의 고유의 개성에 유의하는 능력을 말한다. 존경이란 상대방이 그 자신 그대로 성장하여 발전하여야 한다는 관심을 말한다. 존경이란 이와 같이 착취가 없음을 뜻한다.

◆ 덕목 구현 방안<예>

110)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40

- 하급생 존중
- 전의경 존중
- 직원에 대한 존중(경사 이하, 민간 사무직원 등)
- 영상을 통한 인권교육
 - 스위스 리처드 던도의 ‘에르스토 체계바라’, ‘볼리비아 다이어리’
 - 김태일의 ‘4월 9일’, 류미례의 ‘나는 행복하다’, 류수정의 ‘엄마와 섬그늘’,
 - 미국 다큐멘터리 ‘스코츠보로-미국의 비극’, ‘제9 법안 찬반투표’, ‘세계은행 부수기’
 - 유니세프 ‘어린이를 위한 인권 만화 시리즈’, 미국 허버트 비버만의 ‘대지의 소금’
 - 바바라 모스& 스테판 마크의 ‘처벌에 맞춘 범죄’ 등
- 노작, 영농교육 : 생명존중
 - 유희지 활용
 - 학생주말농장
- 동식물은 땀 흘려 정성을 들인 만큼 정과 열매를 준다 - 정직
- 짐승기르기(닭, 오리, 꿩, 토끼 등), 채소재배
- 환경교육
 - 쓰레기 분리수거
 - 물자절약
- 근검절약
- 자원활용
- 교과서 물려주기
- 인간과 환경의 조화
- NIE 활용 교육

(19) 창 의(創意)

◆ 덕목 설정의 근거

- 본인은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 직무에 창의, 창의적 노력 최대한 발휘(공무원윤리헌장)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3조)
- 문제나 사태의 요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발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위의 근거에 따르면 ‘창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창의적 노력으로 소임을 완수한다.
- (2) 경찰은 직무에 창의, 창의적 노력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 (3) 경찰대학생은 문제나 사태를 위하여 발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창의’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처음으로 생각해 내는 것 또는 그 의견’을 뜻한다. ‘창의’란 ‘기존의 다른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사고, 방법,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의 새로움’, 또는 ‘전통적인 사고, 관례, 양식, 관계 등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새로운 사고, 형태, 방법, 해석 등을 고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와 유사한 용어로서 ‘쇄신(刷新)’이라는 개념이 있다. 쇄신이란 어떠한 새로운 목표·발전·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목표 지향적이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각, 방법을 짜내어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발견·발명과 구별된다.

(2) 윤리적 의미

① 다양한 방법 개발

창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종래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새롭게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는 경찰에게도 요구되는 정신이다. 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강구하는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② 자율과 창의

창의적인 사고는 자율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율은 자율을 가능케 하는 권한의 분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¹¹¹⁾

③ 전문화의 열쇠

창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경찰이 직무방법개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전문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념이다.

④ 자기 발전 및 인류 생존과 번영의 진리

보통 맹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궁리해 가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든 좀더 낮게 만들고 남보

111)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55

다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자기 발전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한다. ‘자율·창의·책임’은 인류생존과 번영의 진리이다.¹¹²⁾

⑤ 자아 실현

우리는 지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지상에서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남겨 놓고 가야 한다.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손톱자국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한다. 발톱자국이라도 내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 보람있는 것을 지상에 남겨놓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한다. 자아 실현이라고 칭찬한다. 자기 표현이라고 일컫는다. 인생은 창조의 일터요, 자아 실현의 노력이요, 자기 표현의 무대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행위를 창조라고 하고 유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를 제작이라고 한다. 창조는 영원자인 신의 일이요, 제작은 유한자인 인간의 일이다.

◆ 덕목 구현 방안<예>

- 아이디어 수집
-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대회
- 학생전용 상설 전시공간(미술, 서예, 공예, 조각, 사진, 시화 등)
- 창의 활동의 교육 기회 부여(예술, 문학 등)
- 방학, 계절학기 기간중 독서감상문 제출
- 학생회관 또는 생활관 라운지 꾸미기(카페식 장식 및 운영)
- 경찰관련 창안상 제정

112)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20) 책 임(責任)

◆ 덕목 설정의 근거

- 직무에 책임(공무원윤리헌장)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경찰헌장)
-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학교생활에 끼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학생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이해, 자율, 책임, 지휘능력 및 협동정신을 함양함에 있다.(경찰대학생과외활동지침)

위의 근거에 따르면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1) 경찰은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2) 경찰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 (3) 경찰대학생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 (4) 경찰대학생은 학교생활에 끼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5) 경찰대학생은 과외활동을 통하여 자율정신을 함양한다.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책임’이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를 말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자아의 도덕적 성장

책임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아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책임이라는 덕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윤리적 존재로서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든다. “남을 사랑하는데도 친근해지지 않거든 자신의 인(仁)함을 반성하고, 남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신의 지혜를 반성하고, 남을 예로써 대하는데도 반응이 없거든 자신의 공경함을 반성해 보라. 행하여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모두 반성하여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법이니, 자기 한 몸이 올바르기만 하면 온 천하가 다 쏠려오는 것이다.” 라는¹¹³⁾ 맹자의 말을 음미해 볼 만하다. 모든 원인을 일차적으로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곧 의식은 책임의 발로이다. 그러한 삶의 자세는 도덕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②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열망

책임이라는 덕 속에는 ‘무엇에 대한’ 요구를 결코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혹은 남에게 떠넘기려는 태도가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를 배척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한다.

③ 자기 자신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

책임은 용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내면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오직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마다에서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떳떳이 인정한다. 책임 있는 태도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사랑하는 태도이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도덕적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 그런데 도덕적 삶에 대한 열망이 부족

113)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 而天下歸之<孟子>

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는 자기의 업적을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는 철저히 남의 탓으로 돌린다. 한 때 우리 사회에서 “내 탓이오” 운동이 벌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도덕적 삶에 대한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꾸짖기는 엄중하게 하고 남을 책망하기에는 가볍게 해야 한다”¹¹⁴⁾ 그리고 공자는 “군자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¹¹⁵⁾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여기에는 도덕적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훈계가 깃들여 있다.

④ 윤리적 자아의 실제 창조

책임은 성실이나 신의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자아의 실체를 창조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를 성숙한 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뜻이 서려 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줄 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책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정직의 책임, 연민의 책임, 자기 통제를 해야 할 책임,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책임, 타인의 재산을 존중할 책임,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할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책임이라는 덕은 한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시키는 필요조건이다.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 존재의 중요한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인격적 역량이 그만큼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받기가 어렵게 된다.

⑤ 공동체적 삶의 원동력

책임은 공동 생활을 위한 사회의 분업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행동을 전체의 목표에 연결시키는 도덕적 덕목이다.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요청되고 있는 덕목이다. 보상과 처벌에 대한 고려 때문에 책임을 떠맡는 것이

114) 躬自厚 而薄責於人 則遠怨矣<論語>

115)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論語>

아니라, 이웃과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인격으로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책임을 떠맡을 때에만 그 행위는 도덕적이다. 왜냐하면 도덕적 개입은 자기 이익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적 삶은 불가능하다. 개인들로서의 우리의 책임들은 흔히 조직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 그러한 책임들은 조직의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정의된다. 책임은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이다. 그런데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책임이라는 덕의 개념도 덩달아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맡은 바 일만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개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다.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서 버린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하게 깃들여 있을 때 완성된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자각해야 한다.

⑥ 자신이 확산하는 지식만을 남에게 전달하려는 마음가짐

지식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할 수 없는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그 잘못된 지식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지식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¹¹⁶⁾

⑦ 존중의 확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의 복지에 대해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은 서로 보살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책임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권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바로잡는 수단이 된다. 권

116) 김효근, 지식사회와 신지식인의 의의,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강영철, 창의적 신지식 공무원 사례, 지식기반국가와 신지식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리가 도덕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대의 도덕에 대한 도전의 하나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양자 모두에 대한 강한 의식을 지닌 젊은이를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책임감이 약하고 의타심이 높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기를 잘 한다. 학업 성적이 나쁜 것은 학교분위기, 가정 환경 탓, 선생 탓, 부모 탓으로 돌린다. 잘못된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기보다 자기외적(自己外的) 요인을 찾으려 한다. 이는 핵가족, 과보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힘보다는 남의 힘을 빌리려 하고 그것이 불명예라는 느낌 없다.

⑧ 자율, 창의와의 관계

자율과 창의에 의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자율이나 창의는 결국 방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3자는 항상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⑨ 책임과 배려의 21세기

현대 사회는 도덕적 책임의식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즉 자발적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려는 이기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다. 거기에는 책임이 빠져 있다. 도덕의 세계는 우리들 각자가 그 동안 놓아버렸던 도덕적 책임 의식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열리게 될 것이다. 각자가 도덕적 책임 의식을 확고히 지닌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법의 입지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20세기가 '권리의 윤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책임과 배려의 윤리'시대일 것이다.

⑩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완수하라. 각자가 자기의 문 앞을 쓸어라. 그러면 거리의 온 구석이 청결해진다. 각자 자기의 과제를 다하여라. 그러면 사회는 할 일이 없어진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책임을 안다는 그것이다. 자

기에게 속한 것 같지 않던 곤궁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것이다. 돌을 갖다 놓으면 세상을 세우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느끼는 그것이다. 참다운 책임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얼마만큼의 공헌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다. 왜냐 하면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노력과 그 공헌도에 관해서 참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명예스러운 일은 자기 책임을 다한 뒤에 오는 성공이다. 위대한 사람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큰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야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⑪ 책임 없는 자율은 방종

경찰관에게 책임감이 없다면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자율은 방종이 될 것이다. 참다운 책임은 단순히 처벌을 전제로 한 피동적인 관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창조의 과정이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거나, 책임과 권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룰 때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¹¹⁷⁾

◆ 덕목 구현 방안<예>

- 개인별 지휘근무 기회 부여
- 책임감 강한 학생 발굴 및 행태 교양
- 단체생활
- 각종 지시사항 이행
- 지휘근무
- 생활관별 영역 구분
- 노작교육
- 각종행사 준비
- 각종 훈련, 생활 검열
- NIE 활용 교육

117)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8:54

(21) 겸손(謙遜)

◆ 덕목 설정의 근거

.....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게 된다. 겸손이란 사람이 자기를 알려고 생각하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최초로 생기는 감정이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사명과 의무를 잠시 잊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보다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지기 쉽다. 겸손의 덕목을 익혀 참다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겸허’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다’는 뜻이다.

(2) 윤리적 의미

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인정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또한 비굴함과도 거리가 멀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경건이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겸손은 거만의 해독제이다. 겸손은 힘에 바탕을 두고, 거만은 무력에 바탕을 둔다. 남의 입장에서 남을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란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뚤어진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척도로 남의 인격을 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겸손은 비굴로 오해되고 강직은 무례로 곡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② 상호간의 신뢰와 배려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협하는 독소 중의 하나가 교만이다. 남보다 학식이나 재물이 많거나, 혹은 재능이 뛰어나거나, 권력을 많이 지닌 자들은 교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교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파생되는 허위의식이다. 절대적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상대적 준거에 비추어 남과 비교하려 든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존엄한 절대적 가치마저 무시하려 든다. 또 긍지(矜持)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소중한 자존심을 파괴하기도 한다. 겸손의 덕은 그런 점에서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배려, 협동 등의 덕목들과 연결된다.

③ 안으로 숨기려는 욕망

인품이라는 것은 안으로 숨기려 하면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고, 일부러 드러내 보이려 하면 추하게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흔히 일부러 드러내 보이려는 욕망은 교만과 연결되고, 안으로 숨기려 하는 욕망은 겸손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다.

④ 자신을 높이는 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일인데도 사람은 이 이치를 모른다.

⑤ 비판의 건설적 수용

지성인은 자기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남에게서 지적받으면 불쾌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그 비판을 자신의 말로 되풀이하여, 비판자가 자기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였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⑥ 성공의 최상책

남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자기의 장점을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말 일이다. 겸양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결코 말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우리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겸양은 때로는 성공의 최상책이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워야 한다.

◆ 덕목의 구현 방안<예>

- 경청하기
- 자기 장점과 단점 알기
- 복종하기
- 바르게 비판하기
- 칭찬하기
- 양보하기
- 배려하기
- 협동하기
- 선배와의 대화
- 특강
- 상급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겸손하다
- 엘리트의식타파
-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 1일 근로자 체험
- ‘목에 힘주기’ 제거
- 각자가 너무 잘 나서 잘 조화되지 못함
- 전의경의 바람, 일선경찰의 바람, 국민의 바람 듣기

(22) 절 제(節制)

◆ 덕목 설정의 근거

.....

인간의 삶은 어쩌면 욕망을 끊임없이 제어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편리함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의 만족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찾고자 하는 용광로와 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물질 문명의 혜택에서 오는 다채로운 쾌락, 기술의 발달에 따른 편리성, 그리고 시·공간적 개념의 단축으로 인한 조급성 등이 더해지면서 절제라는 미덕은 찾기 어려워졌다. 절제를 정신적·육체적 가치라 하면, 절약은 물질적 가치와 관련되는 덕목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우리는 절제나 절약보다는 경제적 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의 축적을 곧 행복의 척도로 여기기에 이르렀다.¹¹⁸⁾

.....

◆ 덕목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삼가는 것’을 말한다. 곧 ‘욕망을 적절하게 자르거나 알맞은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뜻이다. ‘절약’은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쓴 것’을 뜻한다.

(2) 윤리적 의미

① 극 기(克己)

118) 김태훈, 앞의 책, 양서원, 1999.

극기란 자기가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고, 그 앎을 단호하게 단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절제는 지(知)와 용(勇)이 함께 어우러진 극기로서 정신적 조화를 말한다. 본성적 욕망이 과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다.

② 안분지족(安分知足)

절제한다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다.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 해방이며 자유이다. 그러므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산다. 비록 그 적은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것은 저절로 회복되거나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늘 행복하다.

③ 사리사욕(私利私慾)의 조절 억제

인간은 숙명적으로 사리나 사욕을 지닌 유기체이다. 절제는 이런 사리사욕 가운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성향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④ 재물의 가치 있는 사용

절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다. 절약의 덕을 갖춘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에서 ‘개같이 번다’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다는 뜻이다.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될 데서 취한다거나 정당한 자기 몫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취한다거나 또는 남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청하는 따위의 의미로 해석하면 잘못이다. ‘정승같이 쓴다’는 반드시 써야 할 데 써야 할 정도만큼 쓴다는 뜻이다. 이 속담에는 재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깃들여 있다.

⑤ 자유로운 쾌락의 향유

절제는 역설적으로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쾌락이 있을 때에는 쾌락의 강도를 높여주며, 쾌락이 없을 때에는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절제이다. 그렇게 살면 언제나 쾌락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중한 사람은 어디에나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노예와 다름없다. 엄밀히 말하면 탐욕스러운 것은 육체가 아니다. 우리를 결핍에 시달리게 하고 끝없이 갈구하게 만드는 것은 욕망이라는 상상의 병이다. 방중은 그러한 쾌락의 노예이다. 방중은 쾌락을 즐기거나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쾌락으로 인해 방탕에 빠지거나 구속된다.

⑥ 경찰이미지의 핵심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회의 불법을 규제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인적인 자제 부족이나 유혹에 의해 사리사욕을 탐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청렴은 모든 공무원에게 항상 제1의 덕목이지만 특히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강력한 덕목으로 경찰이미지의 핵심적 속성이 된다. 박봉과 격무, 규제적 성격의 업무 수행은 청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찰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속성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이다.¹¹⁹⁾

◆ 덕목 구현 방안<예>

- 학용품 아껴쓰기
- 음식 남기지 않기
- 학교 비품 소중히 다루기
- 교과서 물려주기
- 용돈 아껴쓰기

119)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절약습관, 철저 단속, 심각한 문제
- 1끼 굶기교육
- 무상교육으로 너무 아끼지 않는다
-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 마이너스 통장 전면 금지
- 전표사용 금지
- 취식금지

(23) 기 타

이상의 덕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덕목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명랑하고 겸손하여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단체생활
 - 봉사활동
 - 동아리활동
 - 체육대회
 - 체육교육
 - 동기생 MT
 - 지역감정해소(지역교차 방문)
 - 예절교육(이성에 대한 예절, 특히 남녀학생 사이)
 - 솔직한 감정표현의 장단점 및 감정통제, 완곡한 표현법 교육 필요
 - 겸손함 관련 강조 필요(다른 엘리트 집단과의 행태 비교 교양)
 - 유머교육
 - 주법교육

- 파티문화교육(타대학과 연계)
- 잔류만 하는 학생 제재(졸업생과 연계)
- 스포츠댄스 교육
- 학년간 생활실 사용
- 파출소 방문하기
- 교내 개그콘테스트
- 이성교제예절
- ‘겸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교육
- 좋은 데이트 코스 등 소개

◆ 완급을 가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각종 훈련
- 지휘근무
- 각종행사준비
- 담력테스트
- 오리엔티어링
- 특공대훈련
- 정복착용

◆ ‘어떠한 여건에서도 굽히지 않는 기백’(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재학 중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한 최근 졸업생 모습 소개
- 경찰대학 입시경쟁률, 일반인들의 기대감 등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자극주기
- 집에 편지쓰기
- 무도훈련
- 체전시 전원 마라톤 완주
- 각종 운동경기
- 치열한 삶을 위한 각종 글 소개

◆ ‘내적·외적으로 늠름하고 씩씩하며 경찰대학생의 기품을 갖춘 자세’

- 정복착용
- 각종 제식훈련
- 3분 스피치
- 화법 교육(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체계적인 교육 필요)
- 토론문화 함양
- 자신감 있는 태도 고양
- 지휘근무
- 분열훈련
-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 ‘우유부단하지 않고 체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결정할 수 있는 능력’(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지휘근무
- 각종 체육활동
- 무도 수업
- 부대지휘훈련
- 지휘, 지도 관련 프로그램
- 수사(추리) 게임
- 오리엔티어링
- 전략적 사고 연습
- 역사 교육
- 학과출장 방송시 그날의 뉴스알려주기
- 상황극(다른 판단에 따른 다른 결론이 나는 내용)
- 잘못된 판단을 내린 자료 소개

◆ ‘생활전반에 대하여 의욕적이고 개방적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지휘근무
- 동아리활동
- Study Group
- 각종 행사 준비
- 체육대회
- 봉사활동
- 푸른 메아리 행사
- 이성교제(각종 미팅 주선)
- Joint MT
- 교내 백일장
- 교내 미술대회
- 개인연주회
- 성격(변화)조사
- 성격(외향, 내향성) 가치평가
- 개인별 지휘근무기회 부여

◆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이나 신경질적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

- 단체생활에서 역할 분담
- 예정된 일과진행(예고되지 않은 일정 지양)
- 미래보장
- 경제적 수혜
- 전문 상담관 설치
- 대모제도(카토릭 대모제도 유사)
- 고해성사
- 고민상담제도 활성화
- 정서불안요소 파악
- 각종 정보제공

- 고민 해결 수기 모집
 - 스트레스 해소 교육
 - 마니또 제도
 - 익명성 보장 대화방 운영
 - ‘통곡의 방’ 운영(방음, 비밀보장)
 - 자신의 언행에 대한 평가, 개선 기회
- ◆ ‘제반상황을 잘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바람직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오리엔티어링
 - 단체생활
 - 지시에 따른 행동
 - 지휘근무
 - 봉사활동
 - 동아리활동
 - 자신에 대한 설명(장단점 소개)
 -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롤링 페이퍼 등)
 - 학과 일기(학과별 개인에 대한 글쓰는 공간)
 - 독서문화 조성 및 독서토론회 개최
 - 시사토론회(쟁점토론)
 - 토론문화 조성
(타대학 교류, 타인의견 요약발표하기, 반대입장서기, 결과평가, 토론대회개최)
 - 전략적 사고에 대한 연습 및 발표
 - 입장바뀌 역할놀이
 - 국제이해(모의 Interpol 총회)
- ◆ ‘생활전반에 관한 왕성한 의욕과 열의’(경찰대학학생 생활규범)
- 학교생활의 의미 설명 및 동기 부여

- 경찰대학생으로서 책임있는 행동 및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상황
- 단체생활에서의 인간관계
- 선후배 자매결연 맺기에서 공통관심분야별 인원구성 검토
- 성격검사(다른 학생평가, MBTI검사)
- 지휘부 근무를 학번순으로 대행하는 제도(등용로 청소 지시, 각종 행사 준비 등 행사시)
- 사역 작업 개인책임제
- 가정에 격려 편지 발송
- 특공대 훈련
- 산악훈련
- 각종 동아리활동
- 각종 위원회 활동
- 학생간담회
- 3분 스피치
- 후배교육

V.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 윤리에서의 관심은 물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이다.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배양하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덕 혹은 품성은 기본적으로 인격자인 사람의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덕은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 덕의 실천이란, 곧 자신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몸과 감정을 훈련, 습관화하는 것이다.¹²⁰⁾

경찰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경찰관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지도를 하는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은 개인보다 사회·조직 등의 운용에 대한 도덕적 처방과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예컨대, 부정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부도덕성과 탐욕에서 찾는 방법은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업무의 무리한 추진, 부패에 대한 관용적인 조직의 문화, 사회 전반의 금전만능 풍조 등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인성교육은 개인의 도덕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지만, 거시적 접근방법은 조직문화의 개선, 제도의 개선, 사회 분위기의 쇄신 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찰 인성교육은 주로 미시적 접근방법에 더욱 힘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은 경찰관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각종 윤리적인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업무와 업무 환경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찰관은 청렴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는 설령 교육훈련 중에는 잠시 수긍될는지 모르지만 현실의 벽에 직면하는 순간 무력해질 가능성이 많다.

가장 이상적인 인성교육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시적 접근에 의한 처방인 개인의 도덕성 회복이 거시적 접근의 성과들로 인하여 더욱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각종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거시적 접근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120)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편, 참된 삶의 길, 중앙적성출판사, 1995.

수 있게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적 접근은 개인에게 더 큰 윤리적 역할을 하게 한다. 즉 조직인으로서 경찰관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조직에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남을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조직을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조직으로 만들 의무까지도 지게 된다.¹²¹⁾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에 바탕을 둔 경찰관 개개인의 도덕성 양양에 중점을 두지만, 동시에 거시적 접근에 바탕을 둔 조직, 제도, 문화 등에 대한 윤리적 분석도 염두에 두어 ‘좋은 말’만을 나열하기 쉬운 미시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경찰대학학생 인성교육의 장기 지속식 방법으로는 1학기, 1학년, 또는 전학년 동안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집중식으로는 1주 또는 2-3일 동안 이벤트(event)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각종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현장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표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강의나 교과서의 내용에서보다는 교직원의 행동, 학교의 분위기,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개인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교수요원, 강사 등의 연구자세, 생활자세 면에서의 귀감, 생활지도의 민주화, 공정한 인사, 신상필벌의 확립 등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움직이는 교과서’ 구실을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교육기관에서는 경찰윤리 또는 경찰정신이라는 교과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경찰윤리’, ‘경찰정신’, ‘경찰정신독본’ 등의 교과서들이 경찰교육

121) 경찰대학, 경찰윤리론, 1998.

기관의 내부용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경찰관 개개인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기를 요구하는 데 주안을 두는 미시적인 접근이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표면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

(1) 교과목

경찰대학생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경찰윤리론

경찰인의 공직자세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인간본질, 현대국가 시민사회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건전한 경찰조직문화의 모색, 경찰인의 덕목함양과 바람직한 경찰인상 제시, 경찰윤리현장의 이해, 경찰업무집행상의 윤리적 상황과 구체적 사례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경찰학개론

경찰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에 대한 기본개념과 경찰의 임무 등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경찰윤리, 경찰사, 외국의 경찰제도, 경찰활동의 법적 기초, 경찰관리와 실무 각 분야를 간략히 다룸으로써, 경찰 및 경찰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둔다. 민주시민사회의 경찰관으로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적 이념 하에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도록 그 이념을 분명히 하는 등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③ 공직윤리봉사론

공직윤리(규범)의 개념, 패러다임, 역할, 실천적 중요성, 유인지향적 법제화, 구체적 가

치기준, 내면화를 위한 가치교육 등을 주로 법적·제도적 규범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찰하며 이러한 공직윤리가 법적·제도적 규범, 공공조직 개혁이념, 공공조직문화 등의 정립에 있어서 그 바탕 내지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④ 리더십론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행동하도록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의 현대조직에 있어서의 중요성, 기능, 평가기준, 연구의 접근방법 및 이에 따른 연구의 예, 유형,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장래 경찰조직의 간부로서 조직내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⑤ 경찰화법

경찰간부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음성조절법, 주제선정법, 개요작성법, 일상적인 대화, 회의, 토론, 연설, 강연 등에 필요한 이론습득과 직접적인 훈련을 통해 경찰간부로서의 언어습관과 의사전달 방법을 익힌다.

⑥ 인간관계론

연혁, 원리,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 공과 등을 고찰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론이 경찰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경찰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아울러 인간관계로의 보다 발전된 접근방법으로서 행태과학에 대해서도 조직의 인간주의 내지 인도주의화라는 차원에서 논의한다.

⑦ 국어작문

모든 학습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어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지식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첫째 국어 및 구어문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둘째 효과적인 작문구성의 기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경찰문서와 보고서 작성실습을 통해 작문능력을 향상시킨다.

⑧ 철학개론

철학이 제기하는 물음이란 주로 어떠한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고래로 어떠한 대답들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개관하고, 아울러 현재 우리의 철학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망을 준다.

⑨ 심리학개론

심리학의 본질, 정신과 행동의 생리적 기초, 개인의 발달, 동기와 정서, 감각과 지각, 학습, 기억과 망각, 언어와 사고, 지능, 성격, 적응과 갈등, 사회적 행동 등을 강의하여, 학생들이 심리학 연구방법의 이해를 통하여 주관적인 인간이해로부터 벗어나 객관적 차원으로서의 이해로 옮기도록 한다. 또한 범죄심리학을 이해하는 기초로서의 심리학 지식을 교육한다.

⑩ 사회학개론

사회에 대한 이해 즉 사회구조의 규칙과 성격 그리고 변동에 관한 법칙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제 개념, 연구방법, 구조간의 관계 및 분석단위 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현시대 사회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⑪ 동양철학

명심보감, 채근담 등의 고전을 통해 성현의 지혜를 배우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터득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교과목 설정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¹²²⁾

-
- 민주성규범을 위한 교과목
민주주의 기본원리, 법의 가치, 의무와 책임론, 권리의 경제학, 범경제학, 법집행론 등
 - 윤리성규범을 위한 교과목
자유인권론, 공익론, 정의론, 봉사행복론, 정책론, 질서규제론 등
 - 전문성규범을 위한 교과목
범죄인지학, 정보사회론, 사회변화와 범죄, 위해예방론, 협상론, 심리학 등
 - 신뢰성규범을 위한 교과목
경찰과 국민관계, 부패방지론, 청소년 선도론, 종교론, 인간관계론, 전통풍습론 등
-

(2) 특 강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강을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경찰정신, 경찰헌장, 공무원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공직자 윤리법, 국가중요정책
- 경찰예절규칙, 생활예절, 경찰관의 직장예절
- 합리적인 사고기법, 대인화법, 직장예절
- 사회윤리, 공직자윤리, 민본의 현대화
- 의미 있는 삶, 예술감상법, 대중문화의 이해

신임순경과정의 경우, ‘소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 경찰정신[13시간]
- 경찰관의 공직윤리[11시간]
- 국가중요정책 및 특강[38시간]
- 특별소양(수화교육 등)[6시간]
- 순국역사 현장교육[7시간]
- 경찰예절 및 봉사활동[22시간]
- 좌선 및 건강관리[2시간]

122)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1999.

김재훈 외가 중앙경찰학교에서 71개에 이르는 과목을 수강하고, 실제 일선에 투입된 지 수 년 이내인 신입순경을 대상으로 신입순경 과정의 교과목 중 인성교육과 관련있는 것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 | |
|------------------|---------------------|
| ○ 경찰정신(6) | ○ 순국역사 현장교육(7) |
| ○ 경찰현장(2) | ○ 공무원윤리현장 및 실천강령(1) |
| ○ 공직자 윤리법(1) | ○ 경찰예절규칙(6) |
| ○ 생활예절(6) | ○ 경찰관의 직장예절(7) |
| ○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1) | ○ 선배와의 대화(2) |
| ○ 사회봉사활동(7) | |

신입순경교과목에 대한 파출소장들 및 신입순경들의 평가는 과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¹²³⁾ 대체적으로 교양교육에 비하여 실무교육을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실

123) 김재훈 외(1998)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교과목으로 선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선정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각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대답은 각각 다를 것이다. 돈이라는 대답 사람, 지혜, 신앙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확고한 신념을 인생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일컫는다. 중요한 것이 돈이건 사랑이건 그것은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관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곧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태도와 신념체계가 인생관과 가치관의 핵심을 이룬다.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관(觀)을 정립하는 것이다. 자아관, 인생관, 국가관, 자연관, 역사관, 세계관 등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올바른 관을 갖고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또한 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므로 관은 행(行)의 기본이다. 이제 인생관은 단순히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동원리가 되고 판단 원리가 되고 지도원리가 되는 것이다. 관이 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올바른 관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므로 실천의 밑바닥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론 없는 행동은 힘이 부족하고, 철학 없는 실천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중국 근대 유교의 대사상가인 왕양명(王陽明)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사랑의 기초이기도 하다. 지는 행으로 표현되고, 행은 지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지와 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러기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선 확고한 철학과 사상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철학과 사상과 신념의 기초가 없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힘차게 실천하기가 어렵다. 확고한 철학이 섰을 때 비로소 초지일관, 시종여일, 백절불굴, 칠전팔기의 의지와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갖는

무과목 가운데서도 특히 파출소에서 많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지닌 과목의 필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교양과목들의 경우, 파출소장들에게 예절관련 과목들이 대단히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신입순경 및 파출소장에게서 미온적인 지지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순경들에게 상대적으로 실무과목 중시 및 교양과목 경시의 경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신입교과과정에 포함된 교양과목들의 내용 및 방법론이 신입순경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별로 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신입순경들은 실무과목에 대하여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오히려 교과시간이 너무 많이 배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입순경들 입장에서는 실무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교양과목을 배우느니, 차라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실무과목에 할애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교과과목의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조정된 신입순경 교양과정중 인성교육 관련과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정신(6)
- 경찰현장(2)
- 인간관계론 : 합리적인 사고기법(4), 대인화법(6), 직장과 예절(6)
- 윤리적 생활 : 사회윤리(6), 공직자윤리(4), 민본의 현대화(2)
- 멋으로의 초대 : 의미 있는 삶(6), 예술감상법(6), 대중문화의 이해(2)
- 특강 : 순국역사 현장교육(7), 사회봉사활동(7)

일이다. 낡은 사고, 진부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인간이 변화하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인간변화의 기본핵심은 바로 생각과 사상의 변화이다. 즉 사상의 혁명, 의식의 혁명, 생각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과목내용으로는 ‘긍정적 자아관’, ‘사명적 인생관’, ‘창조적 가치관’, ‘행동적 윤리관’, ‘천직적 직업관’, ‘은총적 생활관’ 등을 들고 있다.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나아가 보람있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직업적 사명감을 갖게 한다.

경찰간부후보생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설정하고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 특강(친절, 봉사, 공직윤리, 경찰개혁 등)[22시간]
- 안보의식과 통일정책[6시간]
- 사회봉사활동 [16시간]
- 전통사상과 문화의 이해 [10시간]
- 유적지 순례 [28시간]
- 창의력 개발과 사고혁신 [4시간]
- 커뮤니케이션(갈등 관리) [44시간]
- 인성교육(U-DAP훈련,¹²⁴ 감수성훈련 등) [14시간]

(3) 독 서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고전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을 두고 필독서 교육을 시킨다.

- 교수, 교관, 선배들의 참여 아래 지성, 덕성 및 리더십 함양을 촉진시키는 동서양 고전목록을 만든다.
- 단순히 학생들에게 목록을 배포하고 읽기를 권장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 고전들을 읽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고 독서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서양에 걸쳐 덕성과 리더십 함양에 기준이 되는 인물과 이들이 지도자로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떠한 과업을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취해내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특히 리더로서의 자

124) U-DAP(Universal Database Access Program)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감정을 통제하고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 조직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전문인성교육수련단체의 교육전략 계획이다.

질, 지성 및 덕성 간의 조화가 각 문제 상황이나 과업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 고전필독서 목록은, 선정위원회 구성 → 기본 교재 구입 → 독후감 평가위원 임명 → 평가 → 우수작 발표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학장이 지정하는 비학점 과목으로 정하고 계절학기를 이용해 필독서 독후감 정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한다.
- 고전 필독서에 포함해야 할 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 종교의 사회규범화에 대한 사색을 도와주는 책 :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명심보감, 채근담, 반야심경, 불경, 신약, 구약 등

△ 사회경제규범과 관련한 책 :

플라톤의 ‘국가론’,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정약용의 ‘목민심서’,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individualism vs. communitarianism)에 대한 최근 논쟁

△ 건강한 품성함양을 위한 책 :

에릭슨의 ‘아이덴티티의 위기’, 슬츠의 ‘성장심리학’, 머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

△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책 :

‘사기열전’, ‘정관정요(제왕학)’, ‘노자와 리더십’, ‘삼국지’, ‘난중일기’, 마츠시다의 ‘지도자의 조건’, 리짱어와 새피의 ‘Leadership through Followship’, ‘모택동 전기’

(4) 토 론

토론은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강의식과 같은 일방적인 훈련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해의 불충분한 점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소집단 형태에서 진행자의 지도 아래 회의나 토론 형식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현대의 교육방법이 강제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자기 연수방식으로 이행됨에 따라 이 방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자유토론, 분임토론, 포럼, 심포지엄, 패널식 토의

등이 있다. 토론의 제목은 되도록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다음의 예와 같이 학생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¹²⁵⁾

-
-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 사람들은 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가?
 -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나?
 - 이성의 의증을 파악하는 방법은?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이란?
 - 교육내용에 대한 회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 인류에게 더 이상의 진보는 필요한가?
 -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 경찰대학의 존재문제는?
 -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및 피해보상은?
 - 성공적인 삶이란?
 - 성공과 노력의 상관관계는?
 - 정부의 통일정책은?
 - 겸손과 비굴함, 유연성과 소신있음의 구분은?
 - 원만한 대인관계
 - 사랑과 성
 - 양성평등
 - 원조교제
 - 왜 나는 사는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행복이란 무엇인가?
 -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 학문탐구란?
 - 공부를 잘 하는 비결은?
 - 어떻게 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 경찰조직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인권보호와 수사의 어려움은?
 - 남이 보는 나는?
 - 성공의 비결은?
 - 엘리트교육을 받은 자들의 정책실패는?
 - 예의바름과 아첨, 예의와 아부의 차이는?
 -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평
 - 뇌물(賂物)과 작은 호의(gratuities)
 - 경찰과 검찰
 - 사이버 범죄
 - 경찰봉사의 범위
-

(5) 전문 인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활용

125) 2000학년도 현재 경찰대학 4학년생(51명 응답)들이 “현재의 고민거리 하나만 말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응답한 예들이다.

인성교육이나 컨설팅(consulting) 관련 전문기관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

-
- 자기성장 프로그램
 - 감수성 훈련
 - 발표력 증진 프로그램
 - 게슈탈트(gestalt) 집단상담
 - 성격개선 프로그램
 - 심리조절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신념강화 프로그램
 - 자기표현 프로그램
 - 극기훈련 프로그램
 -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 좌선
 - 단전호흡
-

2. 각종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

특정 시간을 마련하여 이벤트성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의 정례 연례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작위적이기보다 자연적인 동기부여 교육이 될 수 있다.

(1) 예비입학

- 각종 물품 지급시
 - 국가와 국민의 지원임을 강조
- 식사시
 - “국민 여러분! 감사히 먹겠습니다.” 복창
- 각오문 작성
 - 첫날, 중간, 마지막날 각 1회
- 성장사 작성
- 교가, 경찰가 배우고 그 의미 알기
- 애국가 4절까지 알기

-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 알기
- 무궁화의 상징적 의미 알기
- 국립현충원 참배
- 편지쓰기
 - 훈련 중 자신과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 훈련 중에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돌아켜보아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짐
- 타임캡슐 묻기
- 범화산 등반
- 자기발표
 - 자신이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지
 - 사교성과 적극성 배양
- 야간비상훈련
 - 단결심, 인내심, 자긍심, 투지, 신뢰감을 얻음
- 생활예절 익히기
- 나의 어머니
 - ‘효도, 예의’라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흥을 느낌
- 제식훈련
- 분열훈련
- 생활규범 소개
- 동아리 소개
- 생일파티
- 강의 안내
- 점호
 - 점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관물 정리, 정비 등 점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신 자세를 배움
 - 공동구역, 생활실 청소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 단결, 자율성 등 배양
- 역할 놀이
- 성교육 특강
- 테크노 댄스

- 세심 의례
- 선배생활실 방문
- 선배와의 대화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로 안정감을 유지
- 졸업생 특강 :
 - 최고 계급자, 퇴직자, 타직업 종사자 등
- 재학일기
- 토론
 -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설치의 목적, 경찰대학 설치 목표, 경찰대학 학훈, 경찰대학교가 등을 통해 대학인의 자세와 경찰대학생의 자세를 익힌다.
 - 경찰대학생으로서 자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에서도 특정 대학의 졸업생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긍지를 계속 갖추게 한다.
 - 경찰대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본다.
- 촛불 명상

(2) 입학 준비 및 입학식

- 입방식
 - 선배 학생의 경우 창의성을, 신입생의 경우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임기응변, 침착성을 배양
 - 섹터별로 시행함으로써 섹터의 단결심 제고
- 정복, 예복 등의 첫 착용과 명예 교육
 - 제복인으로서 단체의 명예를 위한 절제를 체득
 - 지나친 제약으로 안절부절못하는 자세보다 당당하고 늠름한 자세를 견지.
- 법화관 졸업생과의 만남
 - 예의, 사교성과 함께 졸업생과 깊은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
- 입학식 행사
 - 학부모, 친지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소속감, 책임감, 자긍심

(3) 학위수여식

- 법학사, 행정학사 취득 : 학사학위 취득 영예와 자긍심 고취

(4) 졸업식

- 제식동작의 숙련
 - 인내, 협동심, 단결심 고취
- 학년 혼성 중대 편성
 - 사교성을 제고
 - 제식훈련만 반복하기보다는 구보, 체력훈련 등을 병행하여 신입생의 의욕 저하 예방
- 장기 자랑
 - 연습중 장기 자랑으로 전교생에게 자신을 알리고 후배들을 알 수 있는 기회 부여
 - 저학년에게는 적극성 제고
- 국가원수 임석
 - 경찰 최대의 행사의 주역으로 국가원수에게 친히 격려를 받는 긍지와 자부심
- 임용선서
 - 경찰 초급간부로서의 사명감 고취

(5) 진학식

- 학습성과에 대한 반성과 격려

(6) 신입생환영회

- 촛불 도열
 - 신입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정성껏 준비하여 후배를 맞이한다는 선배로서의 자긍심 감지
- 회식
 - 신입생은 대학에 입학해 첫 번째 공식적인 음주로 주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부여
 - 탤스 타임시 매너와 남녀 학생 사이의 예절 등을 체득

(7) 졸업생환송회

- 석별의 아쉬움, 선후배의 끈끈한 정 교류
- 대학의 전통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8) 사은회

- 학장을 비롯한 교수, 교관, 무도 사범에 대한 감사의 마음

(9) 청람체전

○ 준비

- 체전 준비위원회, 응원단 등 준비 활동
- 행사를 기획, 준비, 진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성, 책임감, 창의성, 지휘통솔력, 판단력, 활동성, 희생정신 등을 함양

○ 진행

- 화합 분위기 조성, 자율적 경기운영
- 각종 경기를 통해 과도한 승부욕과 집단이기주의보다 전체적으로 스포츠정신 곧 공정함과 극기심을 학습

○ 뒤풀이

- 후배들을 독려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적극성, 사교성, 기분전환 등의 기회, 상하급생이 서로 솔직한 자세

(10) 학장배 전국 대학친선축구대회

- 축구를 통한 일반대학과의 친선교류

(11) 지휘근무교대식(1학기)

(12) 모교방문

- 심신의 변화에 따른 자부심
- 경찰과 경찰대학 홍보
- 우수한 후배 지원 독려

(13) 여름학기

-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스포츠 등의 특강을 통해 정서 함양
- 각종 자격증 취득

(14) 여름 방학

- 국내외 여행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호연지기, 자율성, 자립성 함양
- 동기생끼리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짐
- 학교에 잔류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거나 자기 개발.

(15) 청람학술축전

- 정서함양
- 공동체 의식 고양
- 축전준비위원회 구성
- 행사 준비, 진행, 반성
- 외부 인사 섭외
- 기념품 예약
- 학교 홍보
- 예산 집행
- 동아리 활동으로 단결심, 창의성, 책임감, 자율성, 적극성, 성실성 배양

(16) 민경친선음악회

- 경찰악대와 민간인이 어울려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행사
- 부모, 친인척, 친구 등 초청 정서적 교류

(17) 경찰의 날

- 전현직 경찰관의 노고를 상기하며 미래상을 예견
- 큰 행사의 진행 방식을 익힘.
- 기념식장 중앙에 위치하여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낌

(18) 수학여행

- 자연존중, 정서함양
- 단결심, 일체감 고취
- 민경친선

(19) 지휘근무교대식(2학기)

(20) 겨울 방학

- 국내외 여행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호연지기, 자율성, 자립성 함양
- 동기생끼리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짐
- 학교에 잔류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거나 자기 개발.

(21) 겨울학기

- 관서실습을 통해 책임감, 이해심, 소속감, 인화력, 인내력 배양
- 여러 가지 사건에 직면해 위기관리능력을 배양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동아리 활동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찰대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은 지식 습득만큼이나 중요한 전인교육의 한 요소이다. 학술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예술 동아리, 종교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대학에서 활동중인 동아리는 다음과 같다.

.....

- 학술 분야
 - 경찰행정학회(올림터)
 - 고시연구(범우회)
 - 컴퓨터(COMPUTOPIA)
 - 영어(ESC)
- 예술 분야
 - 클래식 기타(종이학)
 - 문학(미석문학동인회)
 - 연극(또아리)
 - 풍물놀이(한마당)
 - 음악(푸르피)
 - 서예(서우회)
 - 다도(다향)
 - 사진(빛여울)
 - 미술(미추사모)
 - 재즈부
- 스포츠 분야
 - 농구부
 - 축구부
 - 골프부
 - 국궁(부루)
 - 당구부
 - 자전거(은빛날개)
 - 바둑(만패불칭)
 - 무도(무풍, 아이기도부)
 - 야구부(매니악스)
 - 테니스부
 - 승마부
 - 산악부
 - 스킨스쿠버(바다라기)
 - 낚시(조우회)
 - 복싱부(해동청)
 - 댄스 동아리
- 종교 분야
 - 불교학생회
 - 카톨릭학생회
 - 기독교학생회
- 매스컴 분야
 - 방송(B.C.B.S)
 - 학보사
 - 교지편집위원회
- 기타
 - 수화 동아리(두레손)

이밖에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아리 실 배정, 정기 발표 기회 부여, 전문 강사 초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성, 책임감, 대인관계, 조직운영 등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이론적 설명이나 강의가 아닌 체험을 통한 학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현장체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사회조직들에 대한 다면적·심층적 이해하기 위해 산업, 정치, 사회 등의 현장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물론 경영자, 관리자, 관료 등을 초청 정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특별 강의를 학생들이 듣도록 함으로써 더욱 조망적(眺望的)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감정, 집단이기주의,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문의 지도자가 어떠한 역량, 어떠한 비전과 가치관, 그리고 지성과 덕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현장에서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도록 한다.

예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관서 실습(도심 파출소, 오지 파출소, 사이버 수사대, 교통 통제 센터, 경찰특공대 등)
- 일반 대학 도서관,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견학
- 순국역사 현장교육
- 법원, 교도소 견학
- 국토순례
- 각도 상호방문
- 농촌봉사활동
- 시위 현장 견학

5.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감정·행동 측면에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¹²⁶⁾

상담은 일정한 장소에서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대면 상담

대면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수행하는 전통적인 상담이다. 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 상담자(카운슬러 자격을 갖춘 전임 교수, 교관 또는 전문상담원)와 상설 상담실이 필요하다.

(2) 사이버 상담

사이버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PC통신, 전자우편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행하는 상담이다. 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 상담자와 개인 컴퓨터 또는 상담 전용 컴퓨터실 등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를 이용한다.

사이버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상담할 수 있다.

②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실시간 채팅상담을 제외하면, 어느 시간대이나 내담자가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담 원고, 음악 파일, 동영상 등은 상담자가 컴퓨터 앞

126) 이장호, 상담면접의 기초, 중앙적성출판사, 1997:23

에 없어도 내담자에게 개방될 수 있다. 또 내담자가 편지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자메일로 상담실에 띄울 수 있다.

③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물리적인 거리나 아늑한 실제공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상대방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진짜 성(性)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상담자가 상담 도중 내담자의 성, 이름, 신분 등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지만 일부러 묻지 않거나 상담자가 물어도 내담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사이버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실시간 채팅(chatting) 상담

② 전자우편(E-mail) 상담

③ 게시판 상담

상담 내용을 다수에게 무제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이용한 상담

상담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읽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한다.

⑤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이용한 상담

글, 그림, 영상, 소리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한다.

사이버 상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

① 이성 및 성 문제

② 성격 문제

③ 진로 문제

- ④ 가정 문제
- ⑤ 학업 문제
- ⑥ 비행 문제

사이버 상담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풍부하고 용이한 정보 획득

대면 상담이 한 명의 상담자와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사이버 상담을 통한 풍부한 정보획득은 내담자로 하여금 더 넓은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신속한 신뢰관계 형성

사이버 상담에서는 대면상담에서보다 관계형성에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도 기본적인 상담관계가 쉽게 맺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모습과 같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문자로 표현된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상담하게 된다.¹²⁷⁾

③ 감정정화(catharsis) 기능

사이버 상담은 매체의 익명적인 특성상 상대방이나 주위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더욱이 언제나 접속할 수 있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에게 감정 정화를 제공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④ 내담자 주도적인 상담과정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익명으로 문자를 통해서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에서 만나는 내담자보다 더 많은 통제력과 주도성을 갖게 된다.

⑤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의 용이

사이버 상담은 컴퓨터 앞에서 내담자가 띄우는 문자 정보를 상담자들이 동시에 공유하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개입들을 서로 의논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

127) 임은미 외, 사이버상담의 개념과 실제, 심성 수련활동의 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 1999

6.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이 프로그램은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개방함으로써,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너와의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표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소집단 체험학습이다. 이를 ‘심성수련(心性修練)’ 또는 ‘인간관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지적(知的)으로 적대시하면서 생활해온 학생들이어서 리더십이 무엇이며, 경쟁 속에서의 협동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걸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적 책임감이 무엇이며 이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집단 토론이나 일정한 기간의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기주의적인 지식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확고한 공동체 의식 및 목표 설정, 과업에 대한 책임감, 시민정신, 솔선수범, 희생의 미덕 등을 배우고 생활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적(知的)으로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 적응을 잘 하는 기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표, 공동선(共同善)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지식과 경쟁 위주의 편중되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속의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 덕성, 품성을 연마하고 고양함과 아울러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처해 있고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창조적 삶이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며,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선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건강한 자기와 공동체에서의 삶을 연결짓는 훈련이나 집단 활동 등을 통해 타인의 관점과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치안 부문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경우에 필요한 리더십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 첨단기술화, 정보화, 인권, 피해자학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기본 자세와 더불어 리더로서의 자질과 의무 및 책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 상담을 도입할 수 있다. 집단 상담은 “생활과 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자의 지도와 동료들과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양식 등을 탐색·이해하고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다.”¹²⁸⁾ ‘나, 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감수성과 생각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조화를 기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으로 발전시키는 특수한 소집단 체험학습’인¹²⁹⁾ 이른바 ‘심성수련(心性修練)’도 집단 상담의 한 유형이다. 심성수련은 지금까지 개발 형성되지 않은 심성을 개발하고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갖게 된다.

(1) 심성수련의 목적

심성수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자아의 발견

자신을 개방하여 자신의 생각·느낌·행동 등의 특성에 대하여 새롭게 통찰하고, 묻혀 있고 왜곡되어 있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수용·개발하게 한다.

② 타인의 이해

자기의 고정된 가치관이나 관념에서 벗어나 타인들이 나와 다른 독자적인 존재임을 알게 한다.

③ 관계의 개선

128) 이장호 외,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법문사, 1992.

129) 서울시카운슬러협회, 인성교육을 위한 심성수련 활동의 길잡이, 1999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루어져 인간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④ 행동의 변화

인간관계의 공감적 이해로 긍정적인 자존감이 신장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자아실현의 의욕을 증진하며 더욱 현실적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한다.

⑤ 조직의 활성화

공동체 의식으로 일체감을 증진하여 새로운 공동 목표에 도전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게 한다.

(2) 심성수련의 특징

심성수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자유로운 분위기에 맞추어 안내한다.
- ② 지식보다는 생각을, 생각보다는 마음을 소중히 한다.
- ③ 과거보다는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더 관심을 둔다.(Here and Now)
- ④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눈다.
- ⑤ 참가자 전원이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 ⑥ 완전 자의(自意)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 ⑦ 경험할수록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 ⑧ 진행자도 함께 성숙해진다.
- ⑨ 학습의 생활화를 경험하게 된다.
- ⑩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쉽다.
- ⑪ 연령·학력의 차이 없이 활용 가능하다.
- ⑫ 최소 집단에서 대집단까지 적용 가능하다.

- ⑬ 종류와 활동이 다양하다.
- ⑭ 어느 곳에서든지 실시할 수 있다.

(3) 기대되는 효과

심성수련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평등함을 공감하게 된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된다.
- ③ 성취동기와 자기 신뢰감이 증진된다.
- ④ 개척정신이 신장된다.
- ⑤ 정서순화의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 ⑥ 의사 결정과 유연성을 함양하게 된다.
- ⑦ 참된 자유(정직성)의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 ⑧ 인간의 정의(情意)·감정·경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 ⑨ 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게된다.
- ⑩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된다.
- ⑪ 자기 일치를 이루게 된다.
- ⑫ 자연과 사물을 애호하게 된다.

심성수련을 통한 인성교육은 단기 집중적이고 이벤트(event) 성격을 지니므로 교육과정 및 각종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집단활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훈련 또는 계절학기 집중 훈련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경찰대학생 인성교육에 필요한 심성수련 프로그램의 개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프로그램 진행 요령

- ①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말이나 행동, 부드러운 시선을 주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상대방이 말하는 참뜻과 섬세한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 ③ 혼동하기 쉬운 문제나 느낌을 분명하게 구분해 명료화시켜 준다.
- ④ 지적할 때 ‘궁금한데요’하는 식으로 풀어서 한다.
- ⑤ 분위기가 정체될 때는 활발한 사람부터 시작한다.
- ⑥ 말이 없는 참가자에게도 가끔 발표할 기회를 먼저 준다.
- ⑦ 의욕이 없는 참가자들에게는 특징을 들어서 관심을 표현해 준다.
- ⑧ 몸푸는 동작은 발뺨기, 기지개 켜기, 등 두드리기 등 정도로 한다.
- ⑨ 전달하고자 하는 속마음의 핵심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반영한다.
- ⑩ 집단의 대화나 활동 내용을 요약하여 주고 대안을 제시한다.
- ⑪ 어떤 행동이나 징후에 대해 추측이나 가정의 형식으로 설명해 무의식적인 움직임 의식할 수 있게 한다.
- ⑫ 참가자들이 솔직한 느낌을 표현할 때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는 격려와 지지를 해준다.
- ⑬ 자신을 유지하면서 참가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공감한다.
- ⑭ 진행자는 직접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참가자들과 깊은 이해관계를 증진시킨다.
- ⑮ 변화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 ⑯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그래, 옳다, 그렇구나” 등 간단한 말과 행동으로 격려해 준다.
- ⑰ 기대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실망보다는 희망으로 구중보다는 칭찬을 위주로 적당할 때 적절하게 돕도록 한다.

(5) 진행자의 자세

- ① 진행자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 ②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③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고, 오히려 안심과 용기를 주어 다시 한번

그 일을 해 보도록 기회를 준다.

- ④ 진행자는 개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⑤ 자주성과 책임성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⑥ 생각, 의견, 비판, 느낌 등의 표현에 대해 경청하는 태도로써 참가자들이 발표하는 용기를 기르도록 한다.
- ⑦ 진행자의 태도는 참가자들이 공포심 없이 찾아와서 상의할 수 있게 한다.
- ⑧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는 문제라도 공포감 없이 마음놓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 준다.
- ⑨ 참가자들을 대할 때 인자한 부모와 같이 느낄 수 있게 한다.
- ⑩ 진행자는 모든 생각, 계획, 결정의 독점을 피해야 한다.
- ⑪ 지나친 주장과 강요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이며, 독단적인 분위기는 창조적 발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⑫ 무조건적 순종은 덕행, 애정, 책임성, 적극성의 발휘에 저해요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 ⑬ 진행자는 무절제한 사랑의 모습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
- ⑭ 호감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돌봐주는 것은 오히려 의뢰심을 키워 주는 것이 되므로 삼가야 한다.
- ⑮ 차별대우나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
- ⑯ 진행자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 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언제나 솔직하게 알려 준다.
- ⑱ 진행자의 직접적인 지도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인상이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⑲ 진행자는 토의된 내용에 대해 절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⑳ 진행자는 참가자를 존중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한다.

(6) 참가자의 자세

- ① 참가자는 사회적 지위나 학식, 연령, 남녀, 경험 유무를 떠나서 순수한 인간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
- ②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다.
항상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③ 지금, 여기에 관심을 집중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느끼는 내 기분,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체면, 가면을 벗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하며, 자신의 내면에 충실해야 한다.
- 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듣는다.
이야기의 사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사람의 기분, 감정, 욕구, 저의까지 귀담아 듣는다.
- ⑥ 집단에 적극적인 참가자가 된다.
집단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⑦ 이 프로그램에서 한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친다.
비밀 엄수의 안정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다 함께 비밀을 지킨다.
- ⑧ 참가자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못함에 구애 없이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참 만남을 체험한다.
 -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다.
 - 지식이나 상식, 경험담은 접어 두고, 그냥 나타나는 현재의 감정, 느낌을 말한다.
 - 나, 여기를 주어로 한다.

참가자들이 피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때, 거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나 책에서 읽었던 것을 화제로 만드는 일
- ② 남에게 충고, 조언, 훈계하는 일
- ③ 상대방을 평가, 판단, 비판하는 일

- ④ 너무 생각에만 빠지는 일
- ⑤ 이 자리와 상관없는 자기 말만 계속하는 일
- ⑥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나 사이에 별 관계가 없고 의미도 없는 일
- ⑦ 부담스럽게 질문하거나 따지는 일

(7) 프로그램 진행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게임들

다음 게임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중간 중간에 진행자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① 도입과정

.....

○ 애칭 짓기(petname play)

- 소요시간 : 4시간
- 활용시기 : 모든 프로그램의 첫 시작

◆ 목표

1. 자신의 애칭을 소개하면서 자기개방을 시도한다.
2. 참가자 사이에 상호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연다.
3. 긴장감이 해소되고 자유로워짐을 체험한다.
4.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람은 다양한 개성의 소유자임을 안다.
5. 평등의식을 체험한다.
6. 지금까지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 유의점

1.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활동한다.
2. 애칭을 대신 지어주지 않는다.
3. 남의 애칭을 비판하거나 희롱하지 않는다.
4. 애칭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동안에는 모두 애칭으로 서로를 부른다.

◆ 준비

- 명찰 제작용 자료(비닐, 두꺼운 종이 등)
- 필기도구(매직펜)

◆ 진행

1. 진행자는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자기 소개를 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 계획, 적응방법,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자신의 애칭을 지어 명찰 한가운데에 쓰게 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름 대신 애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어졌으면 하는 애칭을 하나씩 지어봅시다. 평소 자신이 남에게 불리고 싶었던 이름, 좋아하는 사물, 자연의 이름, 자신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등을 생각해 지어봅시다. 너무 길지 않게 발음하기 어렵지 않게 지어서 명찰에 한가운데 크게 써주십시오. 네 귀퉁이에는 빈자리를 남겨 놓으세요.”

4. 명찰의 네 귀퉁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게 한다.

-
- 왼쪽 위 : 자신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3가지
 - 왼쪽 아래 :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 3가지
 - 오른쪽 위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 오른쪽 아래 :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
-

5.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달게 한다.

6. 종이 카드에 다음 질문의 답을 적는다.

-
- 애칭
 - 애칭이 뜻하는 바, 애칭에 얽힌 사연
 - 나의 취미나 특기
 -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 나의 장점과 단점
 - 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

7.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8. 눈을 뜬 뒤, '하나 둘'하며 번호를 붙여 두 명씩 짝이 되어 악수를 하고 각자 명찰과 종이카드를 보이며 자기 소개를 하게 한다.
9. 한 사람이 5-7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하되, 먼저 홀수짝이 하고, 그 다음 짝수짝이 하도록 한다.
10.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 짝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발표하도록 한다.
11. 짝의 발표가 끝난 뒤, 자기 소개를 덧붙여서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12. 발표가 끝난 후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 자기 소개

- 소요시간 : 참가자 1명당 3분
- 활용시기 : 모든 프로그램의 첫 시작

◆ 목표

1. 자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게 한다.
2. 참가자 사이의 이해 및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

◆ 설명

우리들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색한 듯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보고 정리해봄으로써 자기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는 부담을 느끼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깊은 차원의 사적인 고민이나 갈등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개의 내용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진행

1. 참가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짓게 한다.
2. 두 사람이 적당한 장소를 택해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한다. 서로는 가능한 상대방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아내도록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성명, 별명, 별명이 붙게 된 사연, 가족 관계, 취미, 관심거리, 장래 희망, 기타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 등이다.
3. 10분이 지난 뒤 모두 모여 앉아 그 동안 대화한 내용 가운데 자신이 파악한 상대방을 참가자 전원에게 소개하게 한다.(이 때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되도록 흥미롭고 재치 있는 소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② 중간 부분

○ 역할 놀이

역할놀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상황을 참가자들이 함께 즉흥적으로 연기에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갈등문제를 좀더 객관화시키고 더욱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언어, 행동을 남의 것과 비교해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한다.

주제의 설정이나 내용의 구성은 물론 각 배역들이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역동적 과정을 경험하는 하나의 종합인 완성 작업이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주제 선정에서 집단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시켜 문제 정리와 함께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2개의 해결방법으로 집약하거나 완전한 흑백논리로 결론짓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에 다각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 사제관계, 부모 자식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 국민과 공직자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서 구체적 사례를 선택해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방법까지 자율적으로 설정해 본다. 또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동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 소요시간 : 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 활용시기 : 모든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

◆ 목표

1.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하고 친근감이 생긴다.
2.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해결에 대한 방안 선택이 명료해진다.
3. 참가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높아 공동체감이 커지는 것을 배운다.
4. 집단의 성숙, 개인의 발전에 기회가 된다.
5. 다양한 역할 연습으로 성인들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6. 여러 역할을 직접 맡아봄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7. 자신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8. 모든 사람들의 다재다능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9. 극중의 특정 역할을 통해 심리적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

◆ 유의점

1. 극본의 주제선택은 참가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2. 무대장치나 분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 준비

- 16절지; 켈트지 조별 2장, 필기도구; 크레파스
- 스카치 테이프, 풀, 가위

◆ 진행

1. 5-8명 이내로 팀을 편성한다.
2. 조별로 주제, 줄거리, 배역 등을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
3. 이 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준다.

- ① 준비시간, 공연시간을 알려주어 시간활용을 잘 하도록 한다.
 - 준비시간 : 20-30분
 - 공연시간 : 5분
 - ② 주제 선정하기 :
 - 직접 겪은 일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협의해 선택한다.
 - 주제를 미리 제시해 주기도 하나 가능하면 참가자들이 공동관심사로 정하는 것이 의미 있다.
 - ③ 내용 꾸미기 :
 - 주제가 뚜렷하게 잘 드러나도록 2개 정도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내용은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짠다.
 - ④ 배역 정하기 :
 - 되도록 희망대로 정한다.
 - 대사와 연기는 내용에 맞도록 즉흥적으로 각자 구상한다.
 - ⑤ 연습하기 :
 - 5분 이내에 극이 끝날 수 있도록 연습하면서 수정 보완한다.
-

4. 공연을 한다.

- 준비시간이 끝나면 조별 대표가 모여 발표순서를 정하게 한다.
 - 6개조로 30분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제도 2-3가지로 집약하면 좋다.
 - 공연 시작 전에 분위기가 들뜨거나 장난스러워지지 않도록 참가자들과 약속한다.
 - 공연자들은 목소리를 조절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5. 공연이 끝난 뒤 조별로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끝난 뒤에 좋았던 점,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등을 발표한다.
6. 다른 조가 공연한 것을 보고, 느낀 점, 새롭게 배운 점을 발표한다.
7. 참가자 전원이 모여 역할극을 진행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듣고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이야기한다.
-

③ 마무리

○ 촛불 명상

-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 활용시기 : 모든 프로그램의 마무리

◆ 목표

1. 마음속에 느낀 바를 내면화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앞으로의 진지한 삶을 다짐한다.
2. 촛불 앞에서 자신이 결심한 바를 맹세하고 다짐하게 한다.
3.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준다.
4.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의 희생·봉사 정신을 본받도록 한다.
5.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한다.

◆ 준비

1. 7-8명씩 팀을 편성하고 대표자를 미리 정한다.
2.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 초 1인당 1개 · 촛불판 · 성냥 또는ライター · 배경음악 테이프
 - 큰 책상 1개 · 낭독문 · 동기초

◆ 유의 사항

1. 화재나 화상에 주의하도록 단단히 일러준다.

◆ 진행

1. 잔잔한 음악을 들려준다.
2. 20분 정도 아무 말없이 혼자만의 명상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책상 위에 촛불판과 동기초를 세워 실내 중앙에 놓는다.
4. 참가자 전원이 초를 들고 조별로 중심을 향해 서게 한다.
5. 진행자가 동기초에 점화하는 동시에 전등을 끈다.
6. 동기초에서 각 팀의 대표가 점화한다.
7. 대표자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이라고 말하면서 참가자에게 차례로 점화하게 한다.
8. 진행자는 준비된 낭독문 A를 낭독한다.

한 자루 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촛불은 몸소 자기 몸을 태워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뜻대로 된 일,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기뻐던 일, 고통스럽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진 일들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거나 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일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여 후회와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에 그토록 열심히 도전하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며, 왜 그 때문에 과오를 범하고
 후회와 반성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연한 자세로 서서히 타 들어가는 촛불을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긍정과 부정, 허세와 진실을 깨닫게 할뿐만 아니라,
 밝은 정신세계와 보다 선명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불빛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냘프게 보이는 한 자루의 촛불이지만,
 자기자신을 태우면서 우리에게 밝음과 따스함을 주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은 희망이요, 진리요, 자유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므로 광명의 안내를 받아 올바른 우리의 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며,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발하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이 자기 완성으로써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바침으로 자유롭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빛이 됨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주게 되며,
 진리의 실천자로, 진리의 인도자로 밝고 맑은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완성으로 자유롭게 되며,
 모든 이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불빛을 보십시오! ‘희망의 빛이요, 자유의 빛인 불빛을 보십시오!’

9. 음악을 끈다.
10. '사랑으로(등대지기)'를 합창하게 한다.
11. 1절은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고, 2절은 허밍으로 한다.
12. 조용한 음악을 다시 들려준다.
13. 진행자는 다음 글을 실감나게 낭독한다.

어머니! 말없이 타들어 가는 촛불을 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 이름은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늘 곁에 계셨기에 무관심하게 느끼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다급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가슴 깊숙이 잔잔하게 미소지으며 자리잡은 어머니의 목소리

사랑의 깊은 의미를 처음 가르쳐 주신 어머니!
 저의 아픈 상처를 마음놓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어머니! 저는 한번도 어머니의 고마움을 마음놓고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달아드린 한 송이 카네이션만으로도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왜 그리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남에게는 그렇게 험하게 웃어대면서, 어머니께는 왜 그리 웃음에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요구만 하고, 나의 잘못에도 당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항상 미소와 안쓰러움으로 저를 받아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말없이 미소 뒤에 숨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의 은혜'를 합창하겠습니다.
 (어머니 은혜 합창)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말로만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큰소리로 외쳐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14. 낭독문을 다 읽고 나면 1분 정도 명상 시간을 준다.
15.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촛불판에 초를 꽂고 제자리에 선다.
16. 진행자가 낭독문 C를 낭독한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람인들은 미래 삶이 풍요로우며 밝게 펼쳐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자신을 태우면서 아픔이나 괴로움도 잊고 묵묵히 사방을 밝혀 주고 따스함을 퍼뜨리는 촛불을 봅니다.

우리들의 큰 헌신과 봉사가 국가와 사회를 밝혀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불우한 이웃과 친구들의 얼굴에

내가 밝은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달아 참된 매일 매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

다툼이 있는 곳에 용기를 /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

어두움엔 밝은 빛을 /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

우리는 “이곳을 거쳐간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촛불의식을 마치겠습니다.

17. 음악을 끈다.

18.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은 언제나’를 합창하면서 촛불관 가까이 모여 함께 촛불을 끈다.

19. 실내의 전등을 켜다.

20. 진행자와 대표자는 현관 앞으로 가서 나가는 학생들과 악수를 한다.

(8)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도입(1-2개 정도)

- 자기개방 : 애칭짓기, 오뎅이의 삶, 나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등

② 전개

- 자기발견 및 이해 : 자기소개, 3분문답, 나의 주머니, 나는 누구인가, 생애도표, 가치관 경매 등
- 자아확립 : 좋은 점 쓰기, 연상하기, 창문 열기, 종이로 젓가락자르기, 나의 위치, 생애설계, 자성예언 등
- 의사소통 : 말 전하기, 적극적 경청하기, 공감적 대화, 대화의 전환(역지사지)
- 공동체 증진활동 : 멋진 사람(만물상), 역할놀이, 리더의 역할 연습(어깨동무) 등

③ 정리 : 촛불 명상, 사랑의 꽃바구니, 소감문, 설문지 등

개별 프로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도입

- 안내자료, 명상, 음악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전개

-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드는 활동을 한다.
- 발표를 한다.
- 위의 활동을 심화한다.

③ 정리

- 일반화(프로그램을 통해 삶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느꼈고 생각했는가)와 생활적용(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을 통해 목표를 정리한다.

(9) 프로그램의 종류

- | | |
|--------------------|----------------|
| ①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 ② 자기성장 프로그램 |
| ③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 | ④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 ⑤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⑥ 예절 생활화 프로그램 |
| ⑦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 ⑧ 친절서비스 프로그램 |
| ⑨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 |

VI. 경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안

-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중심으로 -

1.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1.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2. 나 이렇게 변했어요
3. 적응방법 연습
4. 대학생활 계획
5. 적응력 역할 놀이
6. 내가 나에게
7. 신입생으로서의 내 모습
8. 촛불 명상

1.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복종, 명예, 자율, 협동, 인내, 존중, 예의, 겸손, 관용, 성실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대학교육의 목표를 안다.
2. 경찰대학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한다.
3. 대학인으로서 경찰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인식한다.

◆ 유의점

1. 대학생활과 대학공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내 인사가 진행을 담당한다.

◆ 준비

1. 노트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 준다.

1) 지금 나의 심정은?

우리는 대학생이다. 경찰대학생이다. 대학인이며 지성인이며 예비경찰지도자이다.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은?. 그저 ‘몇 달 쉬었으면 좋겠다, 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마지막 학년까지도 청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잠깐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굳은 다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 멍하니 실망과 좌절과 갈등과 회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대학 4년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한 시기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2) 대학의 목적과 대학인의 사명

도대체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학의 목적과 사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는 주로 ‘전공과목’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는 주로 ‘교양과목’을 통해서 구현되어 지·덕·체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대학인의 특성은, ‘생각하는 폭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 ‘생각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글이나 말에 어느 정도 논리적인가?’에 달려 있다.

대학은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다. 단순한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관도 아니고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도 아니다. 지도자는 한 가지 구실밖에 못하고, 특정 목적에만 쓸모 있는 도구적 존재로 그쳐서는 안 된다.(君子 不器[論語]) 시대가 정한 잣대(대학수학능력시험)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게 할’ ‘빛’을 지고 있다. 따라서 ‘오직 나 하나만 잘 되겠다.’는 입신출세의 관념이나 지위 지향적(地位指向的)인 삶이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은 남이 안 볼 때나 하는 잠깐의 입놀림으로 돌리고 ‘함께 잘 되자.’, ‘더불어 살자.’, ‘모두를 위하여’라는 과업 지향적(課業指向的)인 삶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높이 나는 새’가 되려는 관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University’란 말은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의 편식화를 부정하는 뜻을 지

닌다.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통해, 균형잡힌 인간상을 정립하고, 단세포적인 인간 형상을 탈피하는 것이다. ‘지성인’이란 ‘교양인’인 동시에 ‘지식인’을 말한다. ‘신지식인(新知識人)’, ‘Technocrat’라는 말도 이와 관계 깊은 말이다. 교양이 배어들지 아니한 전문지식은 기관사 없이 달리는 기관차와 같으며 그런 지식인은 정신적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교양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면 지킬 박사의 구실을 할 수 있으나 교양이 뒷받침 없이 학문을 한 사람은 단지 하이드 씨 구실밖에 못한다. 인간의 지식이란 양계장의 닭장처럼 칸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각 학문 사이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새내기 대학생의 자세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대학은 산모가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라. 산모는 학생 자신임을 인식하라. 대학의 강의는 확연한 해답을 주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학구적인 의욕을 자극하고 문제를 제시할 뿐이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 번민을 겪으면서 ‘일그러진 영웅’도 되고 ‘젊은 날의 찌그러진 초상’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학이란 값진 회의를 품기 위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득 찬 머리’보다 ‘잘 형성된 머리’가 중요하다. ‘안다’는 것은 기지(既知)의 것을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질서화해 미지(未知)의 것을 탐구하는 창조적 지성이다. 기존의 지식이나 사상의 수집, 축적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일정한 잣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갖추어 지식의 재생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15-16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이수하면 1학점이라고 한다. 대체로 전공과목은 3학점인데, 시간수로 보면 45-48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의에서는 교과외의 뼈대만 보여줄 뿐이다. 살은 학생 자신이 붙여야 한다. 1시간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연습과 복습을 게을리 해서는 ‘반푼 학사’가 될 뿐이다.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튼튼하게 자라야, 무성해진 뒤에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다.”

둘째, 대학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느냐’보다도 ‘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함을 알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주의(事師主義)를 빨리 탈피하고, 자율적인 학습습관을 길들여라.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안목을 체계적으로 숙성시켜라. 유능한 경찰관이나 치안책임자는 물론 교수, 변호사, 장관, 경제학자, 성범죄전문가, 마약전문가, 종교가, 컴퓨터전문가, 공학박사, 의학박사, 파일럿, 국회의원, 사업

가, 도지사, 장관, 대통령 등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확장하라. 종래의 학습습관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평가받고 수험준비만을 위한 파행적 교육을 스스로 청산하라. ‘따짐과 물음’의 학습방법을 모색하라.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리력, 연상력, 상상력, 직관력, 창의력’등을 배양하라. 지엽말단적 학습은 전이가(轉移價)가 없고 무질서한 지식의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학년은 파행적 학습의 중요한 교정 기간이다. 지식인의 사명은 사회적 제도, 이론적 진리, 실용적 기술 등 모든 의미있는 문화유산을 발전적으로 보존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언적 지식인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제사장적(祭祀長的) 지식인은 현실을 직접 움직여가면서 질서확립과 안정유지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벗어나 자기 수양과 진리 탐구를 위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하라.

셋째. 대외적 전시 위주의 긍지나 자만은 잠시일 뿐이다. ‘속살’을 찌우라. 교복이나 배지가 대학생의 상징이 아니다.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의 영예에 도취되지 말라. 인간의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기에는 ‘눈금이 흐린 잣대’이다. 경찰대학은 일반 법과대학도 사관학교도 아닌 ‘특성화된 대학’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 ‘자대시일개취자(自大是一個臭字)’ 라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날 뿐이다.’는 말이다. ‘하는 나’와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조화롭게 발달된 ‘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나’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보는 나’는 사물을 관찰하는 것만 위주로 하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나’는 남에게 비쳐진 나, 내 나름대로 살지 못하고 남 나름대로 살게 돼 일류만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든 서적은 배경적 경험이나 지식없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저학년에서 각종 개론서를 섭렵하라. 법관이 되는 데 가장 우선적 필수사항은 200권 이상의 문학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한다. 법관업무를 수행하는데 80%가 사리(事理) 판단이고, 20%만 법리(法理)판단이라는 것이다. 법률서적에 파문혀 세상과 격리, 사리를 모르고 법리만 아는 법관은 잘못된 판단자가 되기 쉽고 빗나간 선민(選民)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지도급 인사를 배출한 서양 명문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시 사회봉사증명 요구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편향된 분야만을 독파하는 독서는 피하라.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에 급급하지 말자.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다. 모든 자리는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묵묵히 내면을 다지고 다듬어 가는 학생이 내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인간간계를 맺어라. 교수, 교관, 직원, 상하급생, 동기생들과 공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문제도 상의하라. 그러나. 자연과 혈연과 학연의 고질적인

‘끈’을 넘나들 줄 알라.

다섯째, 외국어를 무기화하라. 회화도 중요하지만 원서를 독파하고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끝으로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내 20대는 실패투성이였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에서 갈파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

-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정하라.
-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
-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 보려 시도하라.
- 하루에 원고지 한 장을 채우라.
-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
-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누어 보라.
-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
-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사랑에 빠져 보라.
- 주제 파악은 처음부터 무시하라.
- 당신을 침묵케 하는 사람을 만나라.
- 10년후의 나와 대화해 보라.
-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가 되라.

하바드(Havard) 대학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교육받은 사람’(an educated person)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특정 분야의 지식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
-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안목
-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심미적(審美的) 이해
-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의 능력
-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 대해 ‘국지인(局地人, provincial)’이 되지 말 것

4) 경찰대학인의 각오

경찰대학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그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 대학이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경찰대학은 국가와 국민이 특별히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이며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는 대학이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귀여움받고 응석받이 아들 딸이지만, 이 시간부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딸이며 아들이 되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를 잊고 국민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봉사자로 남아야 한다. “이곳을 거쳐간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이상, 박경현, 무궁화의 의미와 경찰대학 예비입학생의 자세, 2000.)

2. 나 이렇게 변했어요

- 관련 덕목 : 성실, 겸손, 복종, 희생, 헌신, 국가관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예비입학 훈련을 통해 경험한 바를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2. 힘든 과정을 극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3. 자신의 변한 모습을 말이나 글로 정리하게 한다.
4.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유의점

1.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든다.
2. 되도록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게 한다.
3.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작은 일부터 생각하게 한다.
4.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발표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더욱 적극적인 경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서로가 나눈 이야기에서 비밀이 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6. 야외에서 진행할 때는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준비

1. A4 용지
2. 필기도구
3. 야외 진행시 필요한 도구들

◆ 진행

1. 2명씩 짝이 되어 서로 무릎을 꼭 붙이고 두 손을 서로 잡게 한다.
2. 서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각자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한다.
3.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준다.
4. 눈을 감고 훈련기간 중 경험했던 일 중 힘들었던 일, 언짢았던 일, 불쾌했던 일,

분했던 일 등을 한두 가지씩 기억해 적어보게 한다.(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작은 일부부터 생각하게 한다.)

5. 같은 방법으로 눈을 감고 기뻐던 일(즐거웠던 일, 흐뭇했던 일, 만족스러웠던 일, 유쾌했던 일) 등을 한두 가지씩 생각해 적어보게 한다.
6. 눈을 뜬 다음에 자기가 적은 내용을 보면서 짝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한다.
7. 공감하는 부분과 충고해 주고 싶은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8. 훈련 전과 훈련 종료후의 달라진 점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공통점을 적게 한다.
9. 그 내용을 들어서 함께 참가자 전원을 향해 큰소리로 외치게 한다.
10. 참가자들은 자기가 적은 내용과 비교하면서 박수로 호응하게 한다.
11. 전체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발표하게 한다.

3. 적응방법 연습

- 관련 덕목 : 존중, 복종, 이해, 협동, 성실, 겸손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교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들을 이해한다.
2. 남의 행동을 보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힌다.
3.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4. 참가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높아 공동체감이 커지는 것을 알게 한다.
5. 모든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6. 갈등상황에서 현명한 사고와 행동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유의점

1. 다양한 갈등상황을 제시한다.
2. 갈등상황이나 역할연습에 대한 느낌과 대안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역할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 진행

1. 학교생활 중에 예상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한다.
(예 : 상급생의 지적, 동기생과의 갈등, 지도교관과의 소원함, 열차려, 조기기상, 수면시간, 구보, 청소, 구두닦기, 잡초 제거 등.....)
2. 2명씩 짝을 짓게 한다.
3. 두 사람이 갈등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한다.
4. 상황에 따른 적응방법을 의논해 그 상황장면을 연습한다.
5.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희망자가 발표하게 한다.
6. 발표하는 상황과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검토한다.
7. 발표내용에 대해 느낌이나 대안을 이야기한다.

4. 대학생활 계획

- 관련 덕목 : 성실, 겸손, 의욕, 자신감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수 있는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다.
3. 참가자들의 목표와 비교해 자신의 목표를 검토할 수 있다.
4. 알차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꾀한다.

◆ 유의점

1.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2.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지루함을 덜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 체조나 게임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 준비

1. A4용지
2. 크레파스 또는 매직

◆ 진행

1.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게임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2.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학년별, 영역별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세워봄으로써,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진행자가 <경찰대학 요람>과 <학생생활규범>을 보면서 전체적인 학교생활을 간단히 설명한다.

-
- ① 일과
 - ② 강의
 - ③ 평가
 - ④ 서클활동
 - ⑤ 생활규범
 - ⑥ 무도
-

4. 학년별, 영역별(교양과목, 전공과목, 경찰학과목, 외국어, 무도, 컴퓨터, 수영, 운전, 이성교제 등)로 행동목표, 실천행동, 장애요인,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외국어	행동목표			
	실천 행동			
	장애요인			
	극복방안			
	행동목표			
	실천 행동			
	장애요인			
	극복방안			
	행동목표			
	실천 행동			
	장애요인			
	극복방안			
	행동목표			
	실천 행동			
	장애요인			
	극복방안			
	행동목표			
	실천 행동			
	장애요인			
	극복방안			

5.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그림, 수치, 기호, 문자 등 영상화할 수 있는 표현수단을 총동원해 표현한다.(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림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그림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6. 각팀의 그림을 개인별로 설명한다.
7.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는 동안 자신의 계획과 비교해 보고 무리한 목표설정은 없었는지 또는 적절하지 못한 실행계획은 없었는지 검토해 본다.
8. 발표를 듣고 나서 느낌과 얻은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5. 적응력 역할 놀이

- 관련 덕목 : 자율, 이해, 포용, 존중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하고 친근감이 생긴다.
2.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해결에 대한 방안 선택이 명료해진다.
3. 참가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높아 공동체감이 커지는 것을 배운다.
4. 집단의 성숙, 개인의 발전에 기회가 된다.
5. 다양한 역할 연습으로 성인들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6. 여러 역할을 직접 맡아봄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7. 자신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8. 모든 사람들의 다재다능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9. 극중의 특정 역할을 통해 심리적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

◆ 유의점

1. 극본의 주제선택은 참가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2. 무대장치나 분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 준비

1. 16절지
2. 켄트지 조별 2장
3. 필기도구
4. 크레파스
5. 스카치 테이프
6. 풀
7. 가위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 준다.

역할놀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상황을 참가자들이 함께 즉흥적으로 연기해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갈등문제를 좀더 객관화시키고 더욱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언어, 행동을 남의 것과 비교해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한다.

주제의 설정이나 내용의 구성은 물론 각 배역들이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역동적 과정을 경험하는 하나의 종합인 완성 작업이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주제 선정에서 집단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시켜 문제 정리와 함께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2개의 해결방법으로 집약하거나 완전한 흑백논리로 결론짓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에 다각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 사제관계, 부모 자식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 국민과 공직자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서 구체적 사례를 선택해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방법까지 자율적으로 설정해 본다. 또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동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2. 5-8명 이내로 팀을 편성한다.
3. 팀별로 주제, 줄거리, 배역 등을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 이 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준다.

- ① 준비시간, 공연시간을 알려주어 시간활용을 잘 하도록 한다.
 - 준비시간 : 20-30분
 - 공연시간 : 5분
 - ② 주제 선정하기
 - 직접 겪은 일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협의해 선택한다.
 - 주제를 미리 제시해 주기도 하나 가능하면 참가자들이 공동관심사로 정하는 것이 의미 있다.
 - ③ 내용 꾸미기
 - 주제가 뚜렷하게 잘 드러나도록 2개 정도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내용은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쓴다.
 - ③ 배역 정하기
 - 되도록 희망대로 정한다.
 - 대사와 연기는 내용에 맞도록 즉흥적으로 각자 구상한다.
 - ④ 연습하기
 - 5분 이내에 극이 끝날 수 있도록 연습하면서 수정 보완한다.
-

4. 공연을 한다.

- 준비시간이 끝나면 팀별 대표가 모여 발표순서를 정하게 한다.
 - 6개팀으로 30분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제도 2-3가지로 집약하면 좋다.
 - 공연 시작 전에 분위기가 들뜨거나 장난스러워지지 않도록 참가자들과 약속한다.
 - 공연자들은 목소리를 조절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5. 공연이 끝난 뒤 팀별로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끝난 뒤에 좋았던 점,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등을 발표한다.

6. 다른 팀이 공연한 것을 보고, 느낀 점, 새롭게 배운 점을 발표한다.

7. 참가자 전원이 모여 역할 놀이를 진행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듣고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이야기한다.

6.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7. 신입생으로서의 내 모습

- 관련 덕목 : 자율, 협동, 명예, 책임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1. 카드 : 인원수× 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8. 촛불 명상

② 자기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1. 자기성장을 위한 안내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3.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4. 인생관과 생활 자세
5. 삶의 의미 찾기
6.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7. 자기 선서(Self - Affirmation)
8. 내가 나에게
9. 자기성장을 한 내 모습
10. 촛불 명상

1. 자기성장을 위한 안내

- 관련 덕목 : 자율, 존중, 신뢰, 모범, 성실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도덕적 자아의 형성 과정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2. 자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3.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안다.
4. 자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5. 자기 개발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6. 조직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익힌다.

◆ 유의점

1. 이론 위주보다 가슴으로 느끼도록 한다.

◆ 준비

1. 유인물
2. 파워 포인트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 준다.

1) 도덕적 자아(自我)

흔히 교육사회학의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자아가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도덕적인 자아는 사람마다 다르다. 행동의 일선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나’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아가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자아’라고 한다. 그런데 도덕적 자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형성된다고 한다.

- ①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아 의식을 형성한다.
- ② ‘내가 진실로 무엇과 같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
- ③ 둘째 단계에서 거울에 비쳐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 ④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형성이라고도 한다.
- ⑤ 실제로 행동을 해 보는 성공의 경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도덕적 행동을 발전시키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또 자기가 사랑받은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형성된다.

이상과 같은 다섯 단계 곧 자아 의식의 형성, 자기 자신의 수용, 도덕적 모형의 정립, 양심의 형성 및 성공의 경험을 통하여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자아가 형성된다. 도덕적 자아의 형성 없이는 도덕적 행동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나’를 뛰어 넘어 ‘우리’ 의식을 갖고 이에 따른 의무와 사명의 짐을 지고 있는 대학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도덕적 행동의 전제가 되는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어있는가 또는 형성해가고 있는가 깊은 성찰과 피나는 수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실로 무엇과 같은가?’, ‘내가 어떻게 형성돼야 하는가?’, ‘옳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되뇌이면서 말이다. 또한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① 합리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 판단력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도덕을 이념이나 지식보다도 실제적인 행동과 보다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행동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인간이 된다.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도덕적 융통성을 기초로 한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융통성은 도덕적 자아가 추상적인 도덕적 원칙을 구체적인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서 튼튼한 자아가 자기의 도덕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곧 자율성이 된다. 자율성은 도덕적 행동의 기초가 되며 자율성이 없는 것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자율성은 도덕적 자아가 확고하여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외부의 간섭 없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변동이 급속한 경우에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행하여지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은 결국 높은 차원에서 원리와 원칙을 형성해 놓고 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성은 이 높은 차원에서의 추상적인 원리와 확고히 확립하는 일이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는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서 축구나 야구의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받는다. 그러나 공이 눈앞에 왔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 공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확고한 도덕적 자아를 갖는다는 것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의 형성이다.

- ③ 이타주의를 기초로 한 도덕적 인격주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얼마나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주의는 자기 자신의 좁은 입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보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인격주의는 사랑을 기초로 한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④ 도덕적 자아는 책임감을 특징으로 한다. 책임감은 도덕적인 자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비판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이다. 책임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의지를 그 본질로 한다.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이 없이는 도덕적인 자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으로 볼 때, 도덕적 자아의 형성이란 쉽게 말해 '상식의 준수'라고 단정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 싶다. 그러면 어째서 상식의 궤를 벗어난 행동을 저지르는 자가 생기는가! 현대 사회는 '이익 사회'라고 한다. 이 사회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융합된 '공동 사회'의 인간 관계로부터 나와 나 그리고 우리가 뚜렷이 구별되는 분리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게셀샤프트(Gesellschaft)'적인 인간 관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서만 '남'과 관계를 맺는 한정된 인간 관계를 가진다. 이런 인간 관계는 한정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알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관계는 이해의 타산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어느덧 이해 추구의 개념이 합법화되게 된다.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그대'(Ich und Du)에서 이러한 인간 관계는 '인적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

계가 수립되지 못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너와 나라는 대립자의 관계로 보는 독존의 논리에서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인간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너를 위한 나, 나를 위한 너라는 관계의 우리 의식의 고양이라는 공존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나일뿐 아니라, 대학생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교육자라는 등의 의식을 항상 지녀야 한다고 한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독존과 최고지향적 논리, 유아독존적, 상호배척적, 물형제적, 물공동체적 지배와 노예의 정신 풍토를 갖게 된다. 나는 우리 집단, 조직 속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직, 집단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최적지향적 논리 이타적, 상호협동적, 형제애적, 공동체적인 정신 풍토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리더로서 저마다 ‘누가 최고냐?’보다 ‘누가 가장 적당하냐?’라는 논리로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고 싶으면 남들도 거기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이상, 박경현, 국어 표현론. 한샘. 1995 고침)

2) 자기 이해

“너 자신을 알라”,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심신에 관한 여러 가지 상태, 대인관계의 질과 양, 나의 가치관 및 이와 관련된 자기의 여러 행동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자기발전의 첫 단계이다.

자기이해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경험을 진실되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왜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불안이나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에 심신을 투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하고 있는 행동은 ‘있는 그대로의 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며낸 것인지, 이와 같은 나의 행동이 나 자신의 학업성취와 나의 삶, 나아가서는 타인과의 인간관계 발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3) 자기 수용

자기수용이란 자기이해를 통해 자기의 좋은 점, 밝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초라하고 어두운 면조차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수치, 좌절, 불안, 분노 등의 감정까지라도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타인도 이

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타인을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자기개방

우리는 “만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남에게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배척할지 몰라.,” “아직 믿을 수 없어.”등등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를 드러내지 못한다. 심지어는 전혀 다른 ‘나’를 꾸며서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알맞게 자기를 개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타인에게 솔직하게 개방함으로써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루프트(Luft)와 인검(Ingham)이 개발한 조하리 창(Johari window)은 자기 개방의 방법을 일러 준다.

조하리 창

	자신이 아는 부분	자신이 모르는 부분
타인이 아는 부분	열린 영역	눈먼 영역
타인이 모르는 부분	감춘 영역	미지 영역

① 열린 영역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잘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이 영역이 클수록 상호 작용이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② 눈먼 영역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다. 나의 이상한 습관이나 버릇, 특이한 성격, 아집, 불만 등 내면적인 것은 물론 어울리지 않는 복장, 헤어스타일, 무감각한 옷차림 등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자주 쓰는 말 또는 몸짓 들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남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보기이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다. 이 영역이 크면 다른 사람과 알력이 생기기 쉽다.

③ 감춘 영역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공개 영역이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나의 속마음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에 접근할 수 없다. 숨겨놓은 것 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 알릴 수 없는 나만의 비밀, 남 몰래 지은 죄 등 다양하다. 대부분 이것을 공개하면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 약점을 잡힐 우려, 이용당할 위험이 있어 감추게 된다.

④ 미지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다. 무의식의 심층부에 자리잡고 있어 심리치료, 충격적 경험, 우발적 사건, 아주 극적인 통찰을 통해 몇 가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 미지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열린 인간관계 즉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하리 창에 나타난 각자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열린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좋은 인간관계는 바로 이러한 노력에서 출발한다.

열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기를 공개해야 한다. 자아개방이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피드백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노력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노력이 있을 때 자아상과 타아상을 잘 가질 뿐 아니라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자기개방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써 상대방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자기개방은 다른 사람과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신뢰수준이 높아질 때 가능하다.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생각을 같이 하고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그 때 더욱더 자기를 공개하게 된다.

피드백은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나의 상에 대한 느낌을 비친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 상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이기보다 부분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거울이 비친 내 모습이므로 평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줄 수 있다. 지적을 쉽게 받아들여려면 높은 인격과 인내 그리고 성숙이 필요하다.

자기가 아닌 자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를 내재화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추어진 잘못된 나를 지적받고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피드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라 지각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낀 것을 말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말하게 된다.

눈먼 영역을 줄이고 열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을 청하고, 그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조언을 통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맹점들을 발견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수군거림을 당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지적을 받아들이며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인간관계는 좋아진다. 그러나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도 없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인간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감춘 영역을 줄이고 열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기개방이 필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약점을 잡히거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거나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경우 속마음을 내보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속마음을 항상 닫고 지낸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형성되기 어렵다.

피드백과 자기개방이 함께 진행되면 열린 영역은 눈먼 영역이나 감춘 영역으로 함께 확장된다. 즉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수준이 높아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개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에게 대한 정보를 나에게 피드백시킴으로써 열린 영역은 확장된다.

열린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신뢰성, 개방성, 그리고 수용성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내가 상대방을 r더 많이 신뢰할수록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할 것이다. 내가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자기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내가 그들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려 할 것이다. 열린 영역이 확장되면서 눈먼 영역과 감춘 영역이 축소됨은 물론 미지 영역도 축소된다. 또한 자기개방과 피드백이 미지 영역에서 열린 영역으로 새로운 정보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갑작스레 어떤 일로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전기가 번뜩였다.'라고 말하거나 '아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열린 영역으로의 이동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지 영역보다 열린 영역이 넓어야 바람직하다.

5) 자기 개발

자기개발이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각성하고, 알아내고 또 잠재력이 많이 있음을 믿고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그 능력을 미래의 삶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에 대한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인간주의적 철학·인간주의적 윤리·인간주의적 자유·인간주의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혜일 것이다.

자아실현의 문제는 사람은 본래 사랑과 조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남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충족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이다.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남도와 조화를 완성하면 그것이 자아실현이지, 달리 실현해야 할 자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류평화·우주평화가 실현될 때 자아는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거기서 행복도 얻는다.

자기개발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주요한 것은 정신자세 개발, 의식 개발, 사고방식 개발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정신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다. 정신자세가 확고부동해야 고난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뜻한 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정신자세가 올바르게 서야 성적도 올릴 수 있으며, 직장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올바른 정신자세란 적극적 정신자세, 확신에 가득 찬 자세,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한 자세,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자세, 크게 생각하고 큰 뜻과 꿈을 가지고 참을성과 끈기로 이겨 나아가는 ‘승자의 심리’를 의미한다. 나약하고 부정적인 패자의 정신자세가 아니라 강한 결단과 의지, 성취감으로 넘치는 자세를 의미한다.

적극적 정신자세(Positive Mental Attitude : PMA)란 승자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로 표현되는 자세를 의미한다. 하려고 하는 의지, 결단, 확신을 가지면 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정신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

적극적인 정신자세와 함께 강한 의지와 결단은 우리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의지력이 강하고 추진력이나 책임감이 강하게 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도 의지력이 강하고 추진력이나 책임감이 강하면 ‘성숙하다’고 하며, 나이

든 어른도 그렇지 못하면 ‘철이 안 들었다’고 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 무엇인가를 과감히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사람의 주요한 자질이 된다.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시오.(Bloom where you are planted.)”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어떤 경지에 처하든 당신 스스로 그 곳의 주인이 되시오,(隨處作主)”라는 말도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이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다. ‘내 가정이 나빠서.....’, ‘우리 학교가 나빠서.....’, ‘내 직업이 나빠서.....’, ‘우리나라가 형편없어서.....’하는 식으로 모든 실패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바깥 환경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같은 환경요인이 있었다면 의지와 결단력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하고 자기개발이 잘 된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Here & Now)’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의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은 화려한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말도 아니며,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허송하라는 것도 아니다. 크고 화려한 꿈은 착실하고 건실한 오늘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매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복할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능력을 다하고 성의껏 살아가는 것만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하고 멋있게 사는 길이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기완성적 엘리트가 되어야만 한다. 자기완성적 엘리트는 타인이 경쟁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경쟁의 상대가 되는 것이다. 자기완성적 엘리트는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자기완성적 엘리트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을 경쟁상대로 삼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자기완성적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21세기부터 밀어닥치는 생존경쟁에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희생 없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6) 조직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① 성숙성(maturity)

성숙성은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참을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사물을 자기가 바라
는 대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현실주의적으로 본다. 사물을 넓은 관점에서 보
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② 낙관주의(optimism)

지나친 낙관주의는 비현실적이지만 적당한 낙관주의는 열의나 활기와 직결된다.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③ 적극적 태도(positive attitude)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극적 태도를
가질 경우 매사에 부정적이며 턱없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방해하며 혹평하는 사
람이 된다.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을 발
휘할 때이다.”, “아침에 누구를 만나든 희망찬 이야기를 꺼내라. 그러면 시각이 긍
정적으로 바뀐다.”

④ 쾌활성(pleasantness)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쾌활성을 잃지 않는 것은 좋은 감정과 태도의 원천이 되
며 행복감·만족감·인간미를 낳는다.

⑤ 관용(tolerance)

관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태도이다. 살
인·방화·폭행 등에 관용을 보일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너그러운 태도를 요구하
는 일들이 너무 많다.

⑥ 개방성(open-mindedness)

개방적인 태도는 열린 창문과 같다. 마음을 열어놓아야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 옹
고집과 편견을 청소할 수 있다.

2. 위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각오를 글로 써 보게 한다.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겸손 등
- 소요 시간 : 2시간 정도

◆ 목표

1. 자기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 집단 앞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자신을 이해·수용·개방하는 학습을 경험한다.

◆ 유의점

1. 진실하고 진솔한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준비

1. 유인물
2. 파워 포인트

◆ 진행

1.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바람직한 삶을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태, 대인관계의 양과 질, 가치관 및 이와 관련된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객관적 지식 위주의 교육을 받아 왔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막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할 때 망설이는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어떤 때 즐거워하고 어떤 때 슬퍼하며 어떤 때 화를 내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장래 희망은?” 등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람직한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좋은 점 또는 자랑하고 싶은 점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모자라는 점, 나에게 숨기고 싶은 점들이 더 많아 보인다.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이해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생긴 나를 남에게 알리면 배척당할 것이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간혹 스스로를 경멸하거나 부

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결과 때때로 그 책임을 부모나 사회, 그밖에 아 나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 즉 내가 못한 것은, 혹은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나 행동은 현실에 직면해서 그 현실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두려워서 혹은 싫어서 피하려는 비굴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삶이 보람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용단을 내려 현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서슴없이 세상에 공표해 버리는 용기를 갖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왜 주저하는가? 왜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 싫은가? 왜 나는 불안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부족한 것 같은 자기가 폭로될 것이 겁나서 그것을 은폐하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한번 큰 마음 먹고 용기를 내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세상에 큰 소리로 공표해 보라. 속이 후련하고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나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인간미가 있다고 가까이 오고 더 친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 바로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한번 실험해 보라. 참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참 자유인이 되는 첫걸음은 그릇된 자의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사회일반에 관한 상식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더욱 힘써야 하겠다.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은 저절로 되는 줄 오해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기 이해의 증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수용, 진실된 자기의 노출을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책도 부지런히 읽고, 명상도 꾸준히 하고, 반성의 글도 써 보고, 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마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방면에 더욱 힘써 더욱 풍부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2. 참가자 전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 다음 약 30분

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쓰게 한다.

-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 나는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인가?
- 나의 가치는?
- 나의 삶의 목적은?
-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나의 현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은폐하고 있는가?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고 있는가?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3. 20분 정도 지난 후 각자로 하여금 차례로 전체 앞에서 자기가 쓴 것을 읽게 한다.
4.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전체 앞에서 읽을 때, 또는 다른 참가자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 서로 토의하게 한다.
5. 끝내기 15분 전에 각 참가자로 하여금 오늘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깨달았거나 학습한 것이 있으면 한 마디씩 하게 한다.
6. 끝으로 진행자가 중요한 실습 내용을 요약하고 마친다.

3.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신뢰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상호간에 장점과 단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솔직하게 지적해줌으로써 자기 성장과 친근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 유의점

1.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행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종이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장점과 아울러 고쳐야 할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장점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단점을 은폐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량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좋은 점 또는 자랑하고 싶은 점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모자라는 점, 남에게 숨기고 싶은 점들이 더 많아 보인다.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이해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 나를 남이 알게 되면 배척당할 것이다”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간혹 스스로를 경멸하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결과 때때로 그 책임을 부모나 사회의 나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즉 내가 실패한 것은 혹은 내가 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나 행동은 현실에 직면해서 현실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두려워서 혹은 싫어서 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성장에 지장이 될 뿐 아니라 삶에 보람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용단을 내려 나의 현재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나 지각 체계는 문화와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한 문화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같은 언행을 두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행동이 사람에 따라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난 자신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동

특성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로 보인다거나, 반대로 내가 단점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어떤 성격적인 일면이 남들에게는 장점으로 부각되어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남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은 나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남들에게는 장점 혹은 단점으로 비춰지는 어떤 것을 나 자신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Feed back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장단점을 지적해 주는 학습 활동에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 유의 사항이 있다. 여러 사람에게서 장점 세례를 받을 때는 흐뭇하고, 어색한 느낌에 사로잡혀 상대방에게 감사할 여유를 잃거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점으로 알고 있던 자신의 이면을 단점으로 다시 지적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섭섭한 나머지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는 이미 자기도 알고는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넘기기가 쉽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애써 관심과 성의에 감사하고, 그의 Feed-back을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인 후 취사선택은 나중에 한다.

우리는 오늘 위에서 말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서로 자기 성장을 돕기 위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작자의 장단점을 지적해주고 지적받는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고칠 수도 있거나와 고칠 수 없는 경우라도 예방하거나 적절히 조절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7-8명을 한 팀으로 편성한다.
3. 팀원끼리 서로 마주 보며 등글게 앉게 한다.
4.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누어준다.
5. 용지 뒷면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각각 5가지씩 쓰게 한다.
6. 각 팀에서 1명씩 택하여 참가자 전원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1가지씩 지적해 준다.
7. 지적 받은 참가자는 모든 사람의 지적이 끝날 때까지 '감사합니다'는 반응 이외

- 에는 다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받은 용지의 앞면에 지적 받은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
8. 모든 지적이 끝난 후 자기가 쓴 5가지씩의 장점과 단점을 참가자들이 지적해 준 내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 간략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9. 차례로 돌아가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지적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10.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 앉아 활동에 대한 소감이나 다른 의견을 교환하게 한다.
 11. 한 사람씩 차례로 오늘의 활동을 통해 학습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한 뒤 요약하고 모임을 끝낸다.

4. 인생관과 생활 자세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절제 등
- 소요 시간 : 3시간 정도

◆ 목표

1. 인생관에 따른 4가지 생활 자세를 이해하게 한다.
2. 건전한 생활 자세인 자기 긍정 - 타인 긍정의 자세를 배우게 한다.

◆ 유의점

1.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참가하게 한다.

◆ 준비

1. 유인물
2. 파워 포인트

◆ 진행

1. 진행자가 인생관에 따르는 4가지 생활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은 성장해 가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오게 된다.

이 가치가 특정 자세로 형성되면서 인생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를 삶의 자세(life position)라 한다. 삶의 자세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고 성격의 일부로 남아 있기도 한다. 상호교류 분석가들(transactional analysts)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자기 긍정(I'm OK) - 타인 부정(You're not OK)
- 자기 부정(I'm not OK) - 타인 긍정(You're OK)
- 자기 부정(I'm not OK) - 타인 부정(You're not OK)
- 자기 긍정(I'm OK) - 타인 긍정(You're OK)

1. 자기 긍정(I'm OK) - 타인 부정(You're not OK)

이런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경시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도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감이 강하고 심술쟁이처럼 툭하면 남을 혼내주거나 괴롭힌다. 상대방을 해치거나 배제하려는 독선적인 태도 곧 GRO(get rid of)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를 지배하며,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로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열등감의 보상 또는 투사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지나치면 범죄행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 쉽다.

- 배타적이고 지배적이다.
- 타인의 진의를 바르게 수용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다.
- 원한의 분노를 품고 있다.
- 극단적인 논리를 편다.
- 상대를 몰아붙인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 우월의식이 강하다.
-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신과 비난과 증오의 태도를 갖는다.
- 남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고 세상에 대하여 분노와 욕구 좌절로 반

응한다.

- ‘편집증적’(偏執症的) 자세를 보인다.

2. 자기 부정(I'm not OK) - 타인 긍정(You're OK)

이런 경향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비하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생활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우울하고 축 늘어지고 소외되어 있다. 자기 비하, 열등감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려는 태도 곧 GAF(get away from)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인정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어떤 사랑은 부정적으로라도 인정을 받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긍정적 지원이 끊어지면 자기부정-타인부정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런 사람은 가출, 이혼, 사절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 쉽다.

- 우울증적 경향을 나타낸다.
- 자주 자신이 어리석고 열등하며, 추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 우울과 불신감, 죄책감을 가진다.
-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기를 싫어한다.
- 자신을 갖지 못하고 열등의식이 있다.
- 분노를 마음속에 축적한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자기 것도 차지하지 못한다.
-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 문제나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며 코치해 주기를 바란다.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3. 자기 부정(I'm not OK) - 타인 부정(You're not OK)

이런 경향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아 자존심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다.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이 패자라고 생각하며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절망한다.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인정을 주어도 받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인정을 주지 않는다. 희망을 잃고 비관하며 살아간다. ‘도대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막다른 골목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태도 곧

GNW(go nowhere with)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자세는 가장 나쁜 유형으로 심하면 정신분열에 이르고 집단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 쉽다.

-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 자기는 물론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다.
- 체제나 세상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
- 반항적이고 적대적이다.
- 버림을 받는다든지 혼자서만 있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책임도 맡지 않으려 한다.
- 책임을 맡으면 투덜대고 실수를 반복한다.
- 인생의 목표가 없고 낙담하여 소외를 느낀다.

4. 자기 긍정(I'm OK) - 타인 긍정(You're OK)

이런 자세는 자기에 대한 가치와 타인에 대한 가치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건설적인 태도로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자세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 나간다. 자타 모두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을 모색하므로 삶의 태도도 건전하다. 이런 사람은 남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 곧 GOW(go on with)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왕자처럼 다른 사람을 공주처럼 대하고 친교와 친밀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 누구와도 사이좋게 모든 일을 잘 해낸다.
-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 분노를 표시할 때 자유롭게 표출한다.
- 개방적이며 언제나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보고 서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한다.
- 필요한 행동만 한다.
- 게임을 하지 않는다.

2. 참가자들이 A·B 두 사람씩 짝을 짓게 한다.

3. A와 B가 역으로 바꾸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역할 놀이를 한다.
4. 먼저 A는 자신은 전적으로 열등하고 부족하며 잘못된 인간으로 가정한다. B는 자신이 전적으로 정당하며 훌륭하다고 자신하며 A의 단점만을 강조하여 이야기한다. A는 B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A의 역할 놀이가 끝나면 B가 다시 해 본다.(자기 부정 - 타인 긍정의 자세)
5. A는 자신이 전적으로 장점만을 지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만을 이야기한다. B는 전적으로 열등하고 잘못된 인간이라고 B의 단점을 지적하게 한다. A의 역할 놀이가 끝나면 B가 바꾸어 해 본다.(자기 긍정 - 타인 부정의 자세)
6. A나 B가 세상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A는 자신의 단점과 B의 단점만을 부각시켜 이야기한다. 다음에는 B가 역할을 바꾸어 해 본다.(자기 부정 - 타인 부정의 자세)
7. A는 자신이나 B도 결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장점과 B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B가 역할을 바꾸어 본다.(자기 긍정 - 타인 긍정의 자세)
8. 참가자 전원에게 자신은 평소 인간 관계에서 어떤 생활 자세를 가장 편하게 많이 나타나는가를 손을 들어 표시하게 한다.
9. 앞의 설명을 읽어 준다.
10. 진행 과정에서 갖게 된 느낌이나 경험, 특히 네 가지 생활 자세들 사이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하게 한다.
1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하며 마무리한다.

.....

사람은 한 번 태도를 정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인생의 각본을 쓰고 인생을 연출한다.

1) 바람직한 인생관의 정립

① 효율적인 현실 지각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

② 자기에

③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④ 적극적인 사고

⑤ 삶의 목표 설정

자신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해야 한다. 삶의 목표가 혼란되거나 계획이 미확정되거나 인생관과 삶에 대한 신념이 막연한 채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마음은 피곤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자아실현을 학문적 성취에 두느냐 또는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과 명성 혹은 다른 것에 두느냐 하는 목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 버리고 나서 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가 언제나 인간을 만든다.”고 슬러는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명세화된 목표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에 용이하며, 우리가 목표 성취에 대한 확신과 열성이 생겨나게 된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것은 더욱 쉽게 성취된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다시 성취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동기가 없이는 어떤 시작도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없다.

목표를 세울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종이 위에 또박또박 쓰고 그림과 도표도 그려보아야 한다. 그 목표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 속으로 불러넣어야 한다. 그 다음 긍정적으로 이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되뇌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말로 새겨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깨우쳐지고 몸과 마음에 깊이 목표가 새겨지게 될 것이다. 마음에 품은 뜻을 내일 되풀이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계획한 목표의 실현을 향해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의 시간표를 작성하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추진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목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명한 시간적인 한계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장이나 미움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의 목표도 결코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사고의 왜곡

사람들이 우울해진다거나 불안해지는 것은 대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

고의 왜곡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각이 감정반응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이 감정을 어떻게 좌우하는 가 하는 원리와 특히 우리가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생각의 오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생각의 함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감정반응이 어느 극단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 생각의 왜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에서 일어난다.

① 흑백논리(all-or-nothing thinking)

사물을 흑과 백 두 가지 부류로만 보는 경향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의 결과는 완벽성 추구이며, 실수나 불완전 상태에 대한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어떤 일도 쉽게 착수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에게 부적절감과 무가치감을 느끼게 하고, 사소한 실패에도 자신을 완전한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되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모르고 스스로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기를 요구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화를 내고 공격하며, 대인관계를 원만치 못하게 만든다, 때로는 결벽증이나 강박증을 보이기도 하며 노이로제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②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단 한번의 부정적 사건을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본보기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③ 판단력의 색안경(mental filter)

한 가지 잘못된 일에만 계속 집착함으로써 나머지 잘 된 일은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긍정적 측면의 부정

어떠한 이유라도 찾아서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며 인정하기 거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관적 사실과는 어긋나는 부정적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⑤ 성급한 결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잘못된 심리추측(mind reading)’과 ‘지레짐작의 과오(fortune teller error)’가 있다. 잘못된 심리추측은 그 진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지레

집착의 과오는 일이 잘못될 것으로 지레짐작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된 예측을 마치 확실한 기정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의 상황에 관 것이지만 후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성질의 추측이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⑥ 과잉확대 혹은 과잉축소

어떤 일(자신의 실수, 불완전성, 불안감,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의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다른 일(자신의 장점, 다른 사람의 불완전성)들은 불공평하게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망원경 효과’라고도 한다.

⑦ 감정적 판단(emotional reasoning)

자신의 감정적 느낌이 사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까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현상이다.

⑧ ‘하지 않으면 안 돼’의 과용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혹은 ‘해서는 안 돼’와 같은 엄한 규율을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태도를 자신에게 과잉 적용할 때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자기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분노, 욕구좌절감 및 실망을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무감동해지고 의욕을 상실하며 심하면 허탈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는 하루도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으며 항상 불만과 분노와 실망의 연속 속에서 살게 될 뿐이다.

⑨ ‘부정적인 이름’ 붙이기

이것은 극단적인 과잉 일반화의 한 가지로, 자신의 과오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다.”와 같은 부정적인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놈은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이야.”라는 식으로 쉽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 준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 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성격특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그 이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각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사람 자신도 그 이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물론 때로는 그 이름을 부인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비교적 드물다. “사람은 자기가 선정한 기대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간다.”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도 이런 현상이다.

⑩ ‘모두 내 탓이오’(personalization)의 사고 방식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불행한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그 사람은 부당하고도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모두 내 탓이라고 자신을 확대한다.

5. 삶의 의미 찾기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겸손, 신뢰, 자율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상을 재발견해본다.

◆ 유의점

1. 진지한 자세로 참가하게 한다

◆ 준비

1. 유인물
2. 용지

◆ 진행

1.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글을 쓰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별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12시간 후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서서히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의 행동을 써봅시다.

2.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전원 앞에서 낭독하게 한다.
3. 다시 종이를 배부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조사를 쓰게 한다.

사람이 죽으면 애석하고 섭섭한 마음을 조사로 씁니다.
우리는 그 조사를 읽어보면 고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조사가 쓰여질까 생각해봅시다.
12시간을 사경을 헤매던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올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나에 대한 조사를 누가 어떻게 써줄까? 생각하며 조사를 써봅시다.
힘이 들면, 내가 죽은 후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하고 써봅시다.
나의 사람됨됨이, 업적, 미덕, 특이한 것, 능력, 생김새, 잘못된 일, 누구나 기억해 줄 일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써봅시다.

4. 다 쓴 것을 돌아가면서 읽게 한다.
5. 다시 종이를 나누어 준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글을 쓰게 한다.

“이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땅에 묻히거나 한 줌의 가루로 돌아갔습니다.
내 이름은 호적에서도 친구들의 입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성을 들여 써봅시다.”

6. 시간이 허용되면 위의 3가지 활동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1-2가지만 해도 무방하다.
7.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10-15명 정도를 1조로 편성해 실시하는 것도 좋다.

8. 각각의 활동 내용을 쓰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으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

.....

삶의 의미를 찾읍시다.

▽ 내가 가장 사랑하는에게

▽ 유언

▽ 나의 묘비에 적을 말

6.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관련 덕목 : 이해, 성실, 겸손, 정직 등
- 소요 시간 : 2시간 정도

◆ 목표

1.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봄으로써 정확한 지각력(知覺力)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 유의점

1. 참가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준비

1. 유인물
2. 파워 포인트

◆ 진행

1.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 특유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비슷한 신체구조와 생리, 심리 등 여러 현상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서로 유사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유전 및 환경적 배경에서 출생해 자라왔기 때문에 외계 사물에 대한 지각력에 있어서나 사고력과 행동 양식에 있어서 개인차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기 독특한 개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가끔 신체적 모습이나 생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느낌, 생각, 동기, 기호 등,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에 유사점을 발견하고, 친밀감 또는 동료의식을 체험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한편 서로서로 간의 차이점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도 있었다. 똑같은 사상에 대해 서로 다른 느낌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동료들을 봄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었다.

오늘 우리는 나와 너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이 유사한가에 대해 주의해 봄으로써 우리의 지각력을 시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학습경험을 해보기로 하자.

2. 10-15명 정도로 팀을 편성한다.
3. 팀원끼리 얼굴을 마주 보고 등글게 앉게 한다.
4. 그 중에서 관심 있는 팀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2명씩 짝을 짓게 한다.
5. 약 15분 동안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 찾아보도록 한다.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깊이 있고 내면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각각 5가지씩 찾도록 한다.
6. 약 15분 뒤 팀별로 다시 모여 앉아 각 짝별로 돌아가면서 일어선 채 자기들이 발견한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닮았거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전체 앞에서 설명하게 한다. 그리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느낌이나 경험에 대해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7. 모든 참가자가 모여서 학습 활동과 관련된 소감이나 의견을 교환하게 한다.
 8. 팀별 팀장을 뽑아 그들이 차례로 오늘의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 또는 학습한 것들에 대해 한마디씩 하게 한 뒤 요약하고 마친다.
 9. 상호간에 감사와 애정의 표시를 함으로써 자기긍정 및 친근한 인간관계를 체험한다.

7. 자기 선서(Self-Affirmation)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신뢰, 자율, 협동 등
- 소요 시간 : 1시간

◆ 목표

1.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의 사명선서를 자기에게 하게 한다.
2. 자기 사명 선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한다.

◆ 유의점

1. 참가자들의 장난기가 발동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준비

1. 용지
2. 필기도구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 준다.

우리의 두뇌는 ‘인간 전산기(human computer)’라고 한다. 전산기 안의 기억 장치처럼 두뇌 속의 기억세포도 기억해 두었다가 태도나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반복하여 입력시키면 장기적 기억으로 기록되기 마련이며 무의식 중에서도 그 기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자기선서’는 마음을 항상 특정한 목적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마음이 집중적으로 투입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2. A4용지 한 장을 나누어준다.

3. 미래에 되고 싶은 자기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현해 본다.

- 길게 서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으로 쓰면 좋다.
- 첫 문장은 반드시 되고 싶은 목적의 인물을 표현한다.
- 그 다음 문장들은 목적의 인물이 되기 위해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성품이나 자격들을 표현한다.
- 자기의 약점은 반대말로 바꾸고 장점은 더욱 더 확고하게 쓴다.
- 미래의 바람이지만 현재 된 것처럼 단문으로 쓴다.
-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다가 마음에 들면 정서한다.
- 결정된 내용을 2장 코팅(coating)한다.

-----< 예 1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훌륭한 ○○○다. ○ 나는 부지런하다. ○ 나는 의지력이 강하고 박력 있다. ○ 나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 ○ 나는 인내심이 강하며 끈기가 있다. ○ 나는 선택받은 자다. ○ 나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 ○ 나는 청렴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행복하다. ○ 나는 젊고 건강하다. ○ 나는 모험심도 있고 성취동기도 있다. ○ 나는 인간관계가 좋다. ○ 나는 희망과 활기에 넘친다. ○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다. |
|---|--|
-

-----< 예 2 >-----

자기 행동 계약서

- 목 표 : 금연
- 계약 내용 :
2000년 ○월 ○일부터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떠한 경우라도 일절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 강화 조항 :
금연을 지킨 하루 하루마다 1,000원씩 저금통에 저금을 하겠습니다. 이를 모아 4주 후에 연극이나 음악회 등 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 벌칙 조항 :
만일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울 경우 1 개피당 5,000원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낸 벌금은 저금통에 모아두며 이 돈은 모두 사회사업기관에 기탁하겠습니다.
- 기 록 :
하루 단위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피웠으면 피운 개수를 수첩에 적어두겠습니다.

계 약 자 : ○ ○ ○

증 인 : ○ ○ ○

- 4. 한 장은 책상 앞이나 위에 붙이고, 한 장은 지갑에 넣고 다닌다.
- 5. 때와 곳을 가리지 말고 수시로 소리내어 읽어본다.
- 6. 몇 달 동안 반복해 본다.

8.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 체험을 하고 집간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 1. 16절지
- 2. 필기 도구

◆ 유의점

-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 1. 용지를 나누어준다.
-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램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9. 자기성장을 한 내 모습

- 관련 덕목 : 성실, 신뢰, 협동, 절제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1. 카드 : 인원수× 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10. 촛불 명상

③ 가치관의 명료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1. 가치관에 대한 안내
 2. 가치관의 명료화
 3. 누구를 태울까
 4. 탈출자 뽑기
 5. 가치관 경매
 6. 생애 도표 그리기와 상장 수여식
 7. 바람직한 청람인상(靑藍人像)
 8. 타임 머신(Time Machine)
 9. 가치관 역할 놀이
 10. 내가 나에게
 11. 가치관이 분명한 내 모습
 12. 촛불 명상
-

1. 가치관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성실, 겸손, 관용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가치관의 형성 배경을 이해한다.
2.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 유의점

1.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준비

1. 활동자료
2. 필기도구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

1) 가치관의 정의

가치관이란 ‘특정의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태도를 종합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 뜻매김한다. 또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자기 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신념이나 사고와 감정과 행동 시기에 조화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표준이나 기본 요소’, “선택 상황에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바람직한 것에 관한 관념”이라고 정의한다. 한 개인이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는 여러 특정의 사태나 사물에 대해서도 그 가치관과 일관성 있는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즉, 전쟁이나 독재정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며, 반면에 평화정책, 사회복지사업 등에는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특정의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게 되며 반면에 어떤 특정의 대상들에 대해 가지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한데 뭉쳐 특정의 가치관을 형성하게도 된다.

2)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

가치관은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다른 심리적 특성들에 비해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치관은 일정한 방향의 행동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행동적 반응 경향이 형성되고 이러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 일정한 태도 성향이 형성되며 학습한 행동들과 태도들에 일정한 인지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가치관의 형성 조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욕구충족 과정

인간은 선득적(先得的)인 욕구와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 다양한 행동을 발달시켜 나가고, 나아가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초기에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접하는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

좋은 긍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욕구 충족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회피적 반응과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욕구충족이나 목표달성이 가능한 행동은 반복되며 칭찬이나 보상을 받게 되는 행동과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면서 인지적 능력의 성숙과 더불어 긍정적 행동과 태도에 일관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② 인지적 발달

가치관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더욱 발달하게 된다. 개인이 접촉하는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일치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 이미 형성된 태도와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만 선택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태도와 가치관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애국’의 가치관 형성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막연하거나 초기에 형성된 조국에 대한 호의적이며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접하게 되는 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태 중 긍정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믿으려 한다. 국가에 대한 많은 외신 보도들 중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불신을 그리고 긍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 사실 중 긍정적인 측면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수용하려 하며 심지어는 다소 불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 노력하게도 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이해 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가치관을 더욱 심화시켜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 경향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초기에 형성된 막연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그후에 계속해서 접촉하는 나라가 부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도 된다. 또 가치관 형성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③ 집단에의 참여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은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갖는 신념, 가치, 규범, 기대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3) 가치관의 학습원리

가치관 교육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치관을 선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선별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현존하는 가치관 중 교육해야 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교육대상의 수준에 따른 계열성을 규정하는 문제 등도 가치관 선

별을 신중이 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가치관이 다양하고 그 변화도 심하며, 또한 미래에 요구될 가치관까지 고려하기를 요구하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심지어 어제까지는 적국이었던 나라가 오늘에 와서는 우호국이 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관계에서부터 청빈을 미덕으로 여겼던 가치관이 풍요한 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생활현실 등이 기존의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재선별해야 하는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물론 변화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문화와 사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보편 타당한 가치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실의 요청과 미래의 요청에 알맞은 가치관을 선별하고 또한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게 선정된 가치관을 계열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가치를 명료화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자기 결정에 능동적인 동기 유발이 되므로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기 결정, 자아실현, 자기통합이 되는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성숙되고 원만한 인격을 가게 된다.

2. 위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가치관의 명료화

- 관련 덕목 : 성실, 관용, 협동, 정직 등
- 소요 시간 : 3시간 정도

◆ 목표

1.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다.
2.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3.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4. 자신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기른다.
5. 일생을 통해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유의점

1.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모두 소중하므로, 남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 준비

1. 활동자료
2. 필기도구

◆ 진행

1. 6-8 명으로 팀을 짝다.
2. 다음 자료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답하게 한다.

가치관 명료화 활동 용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 나는 ----- 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 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 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 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 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자신이 참석했던 활동이나 모임 2가지
 - ②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자신이 내린 결정 사항 2가지
 - ③ 지금까지 나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 2가지
 - ④ 최근에 만족스러웠던 성장 과정 3가지
 - ⑤ 자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생활 실천 목표 3가지
 - ⑥ 자신을 항상 화나게 하는 경험이나 상황 3가지
 - ⑦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소원 3가지
 - ⑧ 행복에 대한 자신의 정의
 - ⑨ 만일 내가 1주일 후에 죽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3가지
 - ⑩ 만일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1주일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가지
 - ⑪ 앞으로 10년 안에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3가지
-

3. 각자 자신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게 한다.
4. 11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가를 살피게 한다.
5. 반복 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가지 정도 추출하도록 한다.
6. 한 사람씩 각자가 추출해 낸 5가지 정도의 가치관의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7.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참가자를 관찰한 결과에서 추측하고 있는 그 참가자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게 한다.(이는 각 개인이 자기가 우위에 두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된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명료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8. 활동이 모두 끝나면 전체 집단에서 활동과정 중 경험한 여러 가지에 대해 서로 소감을 교환하게 한다.
9. 소감 발표가 끝나면 차례로 돌아가거나 몇 사람을 선택해 오늘 활동을 통해 새로 학습한 것을 평가하게 한다.

3. 누구를 태울까

- 관련 덕목 : 정직, 신뢰, 협동, 창의 등
- 소요 시간 : 2시간 정도

◆ 목표

1.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한다.
2. 자신의 가치관을 재확립하여 더욱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다.
3.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인가를 반성해 볼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안다.
5.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유의점

1. 순위를 정할 때 그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한다.
2. 집단 순위를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한다.

◆ 준비

1. 활동자료

◆ 진행

1. 진행자는 문제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해 준다.
2. 진행자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해 준다.
3. 활동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누구를 태울까?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이 꼭 한 사람의 부주의로 발발하였습니다. 온 세계는 방사능과 화염으로 휩싸이게 되었고 이 지구상의 인류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초토화된 지구의 피투성이 속에서 꼭 10명이 살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지하 깊숙한 연구실에서 일찍이 지구 최후의 날을 대비해 연구를 거듭해 왔던 한 과학자가,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10명 중에서 7명은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야 할까요.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7명을 당신이 선정해 보십시오.

생존자	개인순위	조별순위	이유
-----	------	------	----

- 무장한 경찰관
- 80세의 목사
- 과학자
- 유명한 소설가
- 변호사
- 임신중인 변호사의 처
- 1학년 여대생
- 축구선수
- 지적인 여배우
- 동남아출신 유학생(의대생)

4. 각자 개인 순위란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하게 한다.
5. 팀별로 모여 토론과 합의에 의해 집단순위를 정하게 한다.
6. 팀별 순위를 정하는 토론을 할 때는 자기 주장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표현하게 한다.
7. 이때 다수결로 정하거나 야합하거나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정하지 않도록 한다.
8. 팀장이 자기 팀의 순위와 그렇게 순위를 정한 이유를 전체에게 발표하게 한다.
9. 활동과정에서 느꼈던 점, 생각났던 점, 불편했던 점 등도 모두 발표하게 한다. 이때 순서 없이 각자가 원하는 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경청하도록 한다.
10.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새로 깨달았던 점 특히 마음에 깊게 남았던 점,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발표, 토의, 질문하도록 한다.
11. 자신이 개인순위를 정할 때의 판단기준, 팀에서 순위를 정할 때의 자신의 행동 특성들도 점검해보고 그러한 행동 특성, 가치판단 기준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및 문제해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성찰해 보고 발표하게 한다.

4. 탈출자 뽑기

- 관련 덕목 : 성실, 협동, 정직 등
- 소요 시간 : 2시간 정도

◆ 목표

1.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이에서 오는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도록 한다.

◆ 유의점

1.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도록 한다.
2.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보다 더 훌륭하다고 확실할 때만 동의하도록 한다.

◆ 준비

1. 다음 내용이 담긴 유인물

당신은 우주 정거장에서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별안간 지구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여기저기에서 핵폭탄이 마구 발사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 기지에서 급한 구출 요청이 왔다. 빨리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기지에 있는 생존자를 구출해 달라는 것이다. 기지에는 10명이 남아 있는데 우주선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7명밖에 탈 수 없습니다. 30분 후면 기지는 폭발한다. 기지에서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대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다. 당신은 우주 정거장 대원의 일원으로 30분 안에 다음 10명 중에서 6명을 선발해야 한다.

- 30대 벤처기업가
- 임신 6개월 된 벤처기업가의 부인
- 의과대학 남학생
- 40대 유명 남자 역사학자
- 유명한 여배우
- 여성 유전공학자
- 50대 목사
- 올림픽 남자 육상선수
- 여대생
- 충기를 휴대한 경찰관

◆ 진행

1.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한다.
2. 준비된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읽도록 한다.
3. 한 팀이 탈출시킬 6명을 30분 내로 선발하게 한다.
4. 각자에게 다음 질문에 답하게 한다.

- 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나의 느낌은?
-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나의 느낌은?
-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 이상의 과정에서 나의 갈등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는가?

5. 이상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는 한 사람씩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탈출자를 선발하는 참가자들이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 주도록 한다.
6. 이상의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다같이 나누도록 한다.

5. 가치관 경매

- 관련 덕목 : 창의, 성실, 정직, 협동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의 행동이나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치관을 확인하게 한다.
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상황파악, 계획,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체험하게 한다.
3.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접하게 되어)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4. 가치실현을 위한 의지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5.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
6. 학생들이 삶의 가치를 돌이켜 보고, 다른 학생들의 가치관도 살피면서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한다.

◆ 유의점

1. 경매가는 경매를 붙일 때 흥을 돋울 수 있도록 한다.
2.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돈표
3. 가치관 항목 카드
4. 가치관 경매표

◆ 진행

1. 일정한 액수의 돈표(총 1000만원 정도)와 가치관 경매표를 참가자에게 나누어 준다.
2. 가치관 경매표를 검토한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가치관 경매표를 보십시오.”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표의 아래 빈 칸에 써넣으십시오.”

경매품	나의 입찰 예정액	나의 최고 입찰액	최고 낙찰가
-----	--------------	--------------	--------

- 일생동안의 경제적 안정
- 마음껏 즐길 수 있는 1년간의 휴가
-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
- 친구의 존경과 사랑
- 삶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
- 행복한 가족관계
- 세상에서 가장 매력있는 사람
- 이성과의 진정한 사랑
- 부정과 속임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
- 삶의 의미를 아는 지혜
-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
- 사회의 병폐를 제거하는 봉사정신
-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
- 온전한 신앙심
-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 지역감정이 없는 사회

3. 참가자들 사이에 합의를 해 추가 항목을 결정한다.
4. 진행자는 추가된 항목을 카드에 적는다.
5. 경매에 대한 안내를 한다.

여러분이 경매에서 원하는 항목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뛰어난 순발력과 적당한 눈치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가치항목들을 꼭 경매에서 딸 수 있기 바랍니다.”

6. 자신이 사고 싶은 가치관을 골라 ‘나의 입찰예정액’란에 돈을 배정한다. 이 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할당하도록 한다.
7. 진행자는 경매품 하나하나를 경매하도록 한다. 각 경매품에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됨을 설명한다.
8. 입찰할 사람은 각 경매품의 최종 입찰액을 ‘나의 최고 입찰액’란에 적는다.
9. 세 번 값을 부를 때까지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값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며, 경매품은 돈표를 받고 지불한다.
10. 최종 결정된 경매 낙찰가를 ‘최고 낙찰가’란에 적는다.
11. 경매가 끝난 뒤 다음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구입한 총 가치항목 내역
- 가장 비싸게 산 항목
- 가장 싸게 산 항목
- 구입한 가치항목 가운데 가장 뿌듯한 항목과 그 이유
- 꼭 사고 싶었으나 사지 못한 항목과 그 이유
-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어떠한 가치에 최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 자신이 사려고 했던 것과 그 이유

12. 다음과 같은 사람을 지정하여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다.

- 가장 많이 산 사람
- 전혀 못 사거나 가장 적게 산 사람
- 가장 비싸게 산 사람
- 가장 싸게 산 사람

6. 생애 도표 그리기와 상장 수여식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존중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삶의 의미와 계속성, 삶의 목표 설정, 생애 설계의 준비기로서의 중요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계를 해 보게 한다.
2.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해 봄으로써 생애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3.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생애 전체를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5.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6.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솔직해지도록 한다.
7. 참가자 상호간에 심층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8.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9. 참가자 사이에 서로의 내면적인 감정을 공유해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 유의점

1.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발표시에 걱정의 순간이 되면 피하지 말고 지그시 그 심정에 머물도록 한다.
3. 심정이 깊게 가라앉은 참가자에게는 모든 참가자가 동글게 다가서서 어깨나 무릎, 등에 손을 얹고 마음을 기울여 기원을 해 준다.

◆ 준비

1. 필기도구
2. 음악 테이프

◆ 진행

1.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려준다.
2. 잠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도록 한다.
충분한 명상을 통해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한다.

.....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함께 들어봅시다.

.....

3. 다음의 생애 도표에 현재를 적당한 위치에 표시하고 각 시기마다 만족도에 따라 위·아래로 점을 찍게 한다. 자신이 돌이켜 보기에 만족스러웠을 때는 상향곡선으로, 불만스러웠을 때는 하향곡선으로 그래프를 연결해 그리게 한다.



5. 최상의 지점과 최하의 지점을 자세히 회상해 적게 한다.
가장 흐뭇하고 벅찼던 때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회상하고, 그 때 영향을 준 사람, 또 그 사건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자신이 그린 생애곡선과 기술한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각오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사 건 영향을 준 사람 지금 내게 미치는 영향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8. 옆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걸맞는 상장을 만들어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한다.

상 장

9. 발표 후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7. 바람직한 청람인상(靑籃人像)

- 관련 덕목 : 존중, 성실, 정직, 충성, 국가관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바람직한 청람인상을 정립하게 한다.
2. 타인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바람직한 경찰대학생이 될 것을 다짐하게 한다.
4.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계기를 마련한다.
5. 조별 작업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과 협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한다.
6.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게 되고, 조화로운 공동체에서 협력이 중요함을 체험하게 한다.
7. 서로 비슷한 갈등을 공감함으로서 친근감을 갖게 한다.
8. 참가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감을 증진시킨다.

◆ 유의사항

1.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요시간을 지키도록 유의한다.

◆ 준비

1. 색카드(3×5cm 정도/빨강, 노랑, 파랑) : 1인당 3장
2. 쉼트지 : 조별 1장
3. 크레파스

◆ 진행

1. 5명씩 팀을 편성하고 1인당 색카드 3장씩 나누어 준다.
2. 각자 바람직한 청람인상이란 어떤 것인지 3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강 카드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노란 카드에, 그 다음은 파랑 카드에 쓰도록 한다.
3. 각자 바람직하지 못한 청람인상이란 어떤 것인지 3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강 카드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노란 카드에, 그 다음은 파랑 카드에 쓰도록 한다.
4. 팀별로 모은 색카드를 같은 내용별로 분류한다. 먼저 색깔별로 카드를 모아 같은

내용을 찾아내고, 만약 공통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를 모두 섞어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을 제1 순위 요소로 정한다.

5. 팀별로 1, 2, 3 순위로 뽑힌 요소들을 썬트지에 그린다. 추상화도 상관없다.
의미만 통하면 되고 되도록 상대팀이 맞출 수 없게 그려야 한다.
그림 그리기 작업이 끝나면 상대팀과 그림을 교환하여 상대팀이 선정한 바람직한 청람인상을 맞추어 본다.
6. 바람직한 청람인상의 중요한 요소로 뽑힌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한 가지 곡에 가사를 붙인다.
7. 팀별로 그림1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발표할 때 작업과정에서 느낀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8. 타임 머신(Time Machine)

- 관련 덕목 : 겸손, 성실, 모범, 신뢰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3.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4.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 유의점

1. 타임머신 여행을 떠나기의 질문을 읽어줄 때 진행자는 되도록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준다.

◆ 준비

1. 필기도구
2. A4 용지

◆ 진행

1. 참가자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참가자들은 등글게 앉아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3. 잠시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20년 후로 상상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4. 진행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A4용지에 자세히 쓰도록 한다.

- 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입니까? 아니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아침을 먹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 ③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풍경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④ “어떤 교통편으로 출근을 합니까?”
 - 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은 어디입니까?”
 - ⑥ “오전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 ⑦ “점심시간입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 ⑧ “나른한 오후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⑨ “퇴근시간입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 ⑩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벨을 누릅니까?”
 - ⑪ “누가 반가이 맞아 줍니까?”
 - ⑫ “잠자기 전까지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

5.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당신이 쓴 내용대로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가치관 역할놀이

- 관련 덕목 : 정직, 신뢰, 존중, 겸손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더 객관화시키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2.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알게 한다.
3.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힌다.
4. 가치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하게 한다.
5.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함으로써 친근감을 갖게 한다.
6. 다양한 역할 연습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도 경험하게 한다.
7.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동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8.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감이 증진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유의점

1. 지나치게 특기자 위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한다.
2. 극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대안모색시 흑백논리로 결론을 짓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 진행

1. 5명씩 팀을 짠다.
2. 참가자 각자가 가치관 갈등 사건을 3 가지씩 생각하여 적는다.
3. 팀별로 토론을 하여 가치관 갈등사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4. 진행자는 극을 구성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5. 팀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을 각색하여 역할놀이의 내용으로 선정한다.
결론은 팀별로 결정하되 이후 파생되는 상황들도 함께 다루도록 한다.

6. 즉흥적으로 내용을 꾸미고 각자의 희망대로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
7. 5분 이내로 공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8. 팀별로 즉흥적으로 꾸민 극을 공연한다.
9. 다른 팀이 구성해 공연한 극을 보고 다른 팀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과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팀별로 토의하여 발표한다.
10. 다른 팀이 내린 결론과 그밖의 다른 문제 해결책이 있는지 팀별로 토의를 하여 발표한다.
11. 준비할 때의 이야기와 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의 느낌을 발표한다.(팀별로 소감나누기)

10.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11. 가치관이 분명한 내 모습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신뢰, 겸손, 협동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1. 카드 : 인원수× 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12. 촛불 명상

4]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1. 스트레스에 대한 안내
 2. 학업 스트레스 극복
 3. 스트레스 원인 및 해소
 4. 스트레스 대처 실습
 5. 시간 관리
 6. 스트레스 역할 놀이
 7. 스트레스를 이겨낸 내 모습
 8. 내가 나에게
 9. 촛불 명상
-

1. 스트레스에 대한 안내

- 관련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자율 등
- 소요시간 : 3시간 정도

◆ 목표

1.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안다.
2.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를 푼다.
3. 스트레스의 자가진단을 해 본다.
4.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의 예를 들어본다.
5.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을 생각해 본다.
6.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익힌다.
7. 스트레스 퇴치하는 특수 방법을 익힌다.

◆ 유의점

1.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게 한다.

◆ 준비

1. 파워 포인트
2. 각종 기기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1)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란, 어떤 욕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이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시대다. 물질적 삶은 풍요롭지만 적응에는 문제가 많다.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이다. 도플러는 빠른 사회적·문화적 변화로 심리적 혼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며, 이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인간의 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경쟁은 날로 심해 학업 및 직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이해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적 유대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2)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① 스트레스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를 만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수술을 앞둔 어떤 일반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범인을 체포하다가 부상을 당해 후송되어 수술을 앞둔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일반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지만 경찰관은 이제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② 큰 재앙이나 위기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작은 사건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복합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 ③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며 경쟁적인 인성의 소유자는 보다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
- ④ 스트레스는 다 나쁘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스트레스(distress)도 있지만, 극복하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eutress)도, 때로는 같은 일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마쳐서 성과가 오르면 긍정적인 스트레스이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게 되면 성과도 오르지 않고 힘난 들면 부정적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료(행복 추구의 수단)가 될 수도

있고 죽음에의 입맞춤(피로, 질병, 신경쇠약, 심장마비 등)이 될 수도 있다.

3) 스트레스 자가진단

증상	자주 그렇다	1주에 한두 번	거의 없다.
○ 최근 쉽게 긴장하고 분노를 느낀다.	2	1	0
○ 학교나 가정에서 충돌이 잦다.	2	1	0
○ 불안이나 긴장감 때문에 평소보다 술 담배가 늘어난다.	2	1	0
○ 두통이나 요통, 목이나 어깨의 통증, 불면증이 나타난다.	2	1	0
○ 잠을 자고 나도 다음날 몸이 개운치 않다.	2	1	0
○ 공부나 앞날의 걱정 때문에 정신집중이 어렵다.	2	1	0
○ 불안 및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제 혹은 다른 약물을 복용한다.	2	1	0
○ 가슴이 답답하고 화끈거리거나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는 등의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다.	2	1	0
○ 불안이나 긴장을 풀 시간을 내기 어렵다.	2	1	0

<평가표>

14-16 : 심각한 수준 10-13 : 평균 이상 6-9 : 평균
 3- 5 : 평균 이하 0- 2 : 거의 긴장이 없음

4)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stressor)의 예

-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고시, 대학원 시험, 기타 자격시험 등)
- 학우들과 공동생활
- 학우들과의 공동학습
- 발표
- 학내외의 동아리 활동
- 이성관계
- 상사(상급생)과의 공동생활
- 리포트
- 상사(상급생)의 열차려
- 가족관계
- 시간관리

- 용돈문제
- 신체적 약점(허짚이, 여드름)
- 강의시간 중 졸음
- 성적 욕구

5)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

① 비현실적 기대감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렵거나 너무 높은 수준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목표도달에 실패하거나 높은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기대감에서 오는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생긴다.

⇒ 자기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자.

② 자신감의 결여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다 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 두려움을 느낄 경우 스트레스가 생긴다.

⇒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하늘에 맡기면 된다는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렇게 하면 막연한 '감'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

③ 실현불가능한 욕구

능력 이상으로 물질을 소유하고자 한다든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든가, 자신의 일이 안전한 것이 못되든가, 공연한 신분 상승을 바라든가, 조직생활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 분수를 지키고,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자세를 갖자.

④ 일상생활의 골칫거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골칫거리들이 - 잦은 사역 집합, 잦은 검열, 컴퓨터 사용 미숙, 자유시간통제, 잦은 수시평가, 미팅시간 지각, 머피의 법칙, 부모의 잔소리, 사소한 지적사항, 거둬드는 조사 사항 등 -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애태워 보아야 나만 손해다. 빨리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자.

⑤ 과도한 요구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을 때 긴장감이 생긴다.

⇒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자.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찾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⑥ 직무 만족감의 결여

현재 주어진 임무가 자신의 욕구, 적성, 흥미에 잘 맞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생긴다.

⇒ 신중히 생각해 후회하지 않을 업무를 찾아보자..

⑦ 불만스러운 인간관계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경우가 있다.

⇒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⑧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학교 생활, 졸업후의 직장 생활, 결혼 후의 가정 생활 등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긴장감을 느낀다.

⇒ ‘지금 여기’(here & now)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자.

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양친, 조부모, 형제, 자매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불행을 당했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하자. 그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는 수가 있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⑩ 질병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심전력을 다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자.

6) 스트레스 대처법

- (1) 스트레스는 피하기보다는 부딪쳐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다. 흔히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 (2) 스트레스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등의 자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3)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꾸준히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트레스 대처에는 생각만으로도 아니라 행동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흔한데, 오랜 시간 동안 배어온 습관이 한번 시도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 (4) 스트레스는 남을 탓하기 전에 네 마음에 따라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 감정, 행동 등이 달라진다. 깊은 밤에

텅빈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문밖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하자. 만약 네가 그 상황을 강도나 도둑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불안해지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퇴치할 만한 무기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화분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네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 ①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선 당신 자신을 바꾸라.
- ②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라.
- ③ 완벽을 바라지 말라.
- ④ 아무도 없는 곳(옥상, 들, 숲, 산 등)에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라.
- ⑤ 항상 15분의 여유를 두고 행동하라.
- ⑥ 승부에 집착하지 말라.
- ⑦ 때로는 내가 옳더라도 양보하라,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⑧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라.
- ⑨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남과 의논하라.
- ⑩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 ⑪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 자신을 존경하라. 스스로 비하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⑫ 자주 웃어라.

아기는 하루에 평균 400번 웃는데 어른은 평균 15번 웃는다고 한다. 그만큼 어른이 될수록 웃음을 잃어가며 산다. 옛말에 일노일로 일소일소(一怒一老 一笑一少)라 했다. 우리의 몸은 총 650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큰 소리로 웃으면 이 가운데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고 얼굴 근육만도 15개가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큰 소리로 1분 동안 웃으면 10분간 조깅을 한 것과 같다. 한 번 큰 소리로 웃으면 면역에 관한 임파구들을 자극하는 감마 인터페론이 체내에서 200배나 증가해 면역력을 높여준다. 우리 몸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A도 증가해서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물핀보다 200배나 효과가 강하다는 엔돌핀도 증가해 통증과 근심 걱정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 게다가 심장의 힘도 좋게 하고, 플라스미노젠을 증가시켜 혈전생성도 막아준다.

7) 스트레스 퇴치하는 특수 방법

- | | |
|-----------------------|-------------------|
| ① 밖으로 생각을 내뿜기 | ② 잠시 벗어나기 |
| ③ 노여움을 서서히 풀기 | ④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기 |
| ⑤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 | ⑥ 한번에 한 가지씩만 해결하기 |
| ⑦ 자신을 지나치게 모질게 대하지 않기 | ⑧ 남에게 어느 정도 여유 주기 |
| ⑨ 자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 ⑩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마련하기 |

2. 학업스트레스 극복

- 관련 덕목 : 절제, 복종, 성실, 정직, 자율, 책임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들의 학업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2. 학업행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3. 효과적인 학업전략을 배운다.
4. 학업성적의 향상을 도모한다.
5.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빈 의자 기법을 통해 좀더 객관화시키고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기회를 갖는다.
6.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객관화, 명료화시킨다.
7.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8.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9.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용적 태도를 형성한다.

◆ 유의점

1. 진행자가 너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2. 참가자들이 내놓는 문제들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힘들었던 심정을 공감해 준다.
3. 역할을 하고 있는 참가자의 문제에 대해 참가자는 자신의 갈등 상황이나 문제해결 과정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7.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선정해 모든 참가자 앞에서 발표한다.
8. 발표한 내용에 대해 팀별로 토론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팀에게 스티커를 준다.
9. 심사위원은 각 팀에서 1명씩 임명하고 사전에 심사기준을 정한다.
10. 발표한 내용을 팀별로 토론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팀에게 시상한다.

1) 학업스트레스 극복 방안

① 현재의 내 수준을 인정하자.

잡자기 수준을 높게 잡지 말자. 의자에 한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면 이제 10분 정도씩 늘려나가 보자. 목표는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지금 나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잡자.

②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자.

공부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자.

③ 쉬어가며 공부하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끈질기게 앉아 있다고 능률이 한없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적절히 쉬면서 하자. 10분 공부하고 1시간 쉬어야 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자.

④ 남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생각해보자.

지금 친구들은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금 옆에 있는 학우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보자.

2) 바람직한 독서법

성적이 우수한 두 학생이 있을 때 각기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에 따라 알맞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다.

먼저 Ohio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Francis P. Robinson 교수가 대학생의 학문적인 공부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고안한 SQ3R법을 소개한다. 그는 'Survey → Question → Read → Rcite → Review'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① 개관하기(survey)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그것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단계이다. 모르는 곳에 가기에 앞서 지도를 펴놓고 연구하는 것과 같고, 골프를 치기 전에 새로운 코스를 한 번 걸어가 보는 것과 같은 단계이다. 앞으로 부딪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세부사항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체적 양상을 미리 아는 것이다.

책의 각 장 안에 있는 소제목을 훑어본 다음 각 장마다 요약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읽어본다. 각 장의 핵심 아이디어를 3-5개 정도로 요약해 본다. 개관을 하는 데에는 1분 이상 걸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개관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장을 다시 읽을 때 아이디어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질문해 보기(Question)

- 필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해본다.
- 주요한 제목과 부제를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
-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동안 떠오른 문제를 질문해 본다.
- 자신이 만든 질문을 참고서나 교과서의 끝이나 앞에 있는 질문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③ 읽기(Read)

-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 읽는 동안 중요한 개념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을 표시한다.

④ 요약하고 상기하기(Recite)

-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요 핵심개념을 이해했는가 확인한다.
- 각 문단이나 소제목 그리고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속으로 내용을 떠올리며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연습장에 내용을 써두어도 좋다.
-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읽는다.

⑤ 검토하기(Review)

다음과 같은 QMS법도 있다.

- ① 각 장의 내용 개관하기
- ② 표제를 질문으로 바꾸기
- ③ 문단별로 읽어나가기
- ④ 책의 여백에 질문 써넣기
- ⑤ 여백의 질문을 이용해 상기하기

- ⑥ 즉시 그리고 후에 재검토하기
- ⑦ 사실과 아이디어의 반성적 사고

3) 기억력 개선을 위한 방법

- ① 학습이 끝난 후 1분간의 복습은 기억력을 두 배 증진시킨다.
- ② 수강 전 2분 예습과 수강 후 2분 복습을 생활화한다.
- ③ 망각에 대한 가장 강한 대처는 자기 낭송이다.
- ④ 책을 읽는 즉시 읽은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내용을 더욱 더 의미 있게 이해하게 되고 열중하게 된다.
- ⑤ 학습 내용을 복습하지 않으면 2주일 내에 80%를 잊게 되고, 복습을 하면 80%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⑥ 최선의 기억 방법은 자료를 조직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자주 낭송(?)하고 복습하고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다.
- ⑦ 집중학습(1일 7시간)보다 분산학습(1주간 매일 1시간씩)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한다.

3. 스트레스 원인 및 해소

- 관련 덕목 : 인내, 창의, 정직, 관용, 성실, 자율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참가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파악한다.
2.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한다.
3.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한다.
4.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지를 평가한다.
5.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배워 실생활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6.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 유의점

1.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다.
2.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책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루하지 않고 정서적 안녕,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기술한 내용을 나누어 발표하도록 한다.

◆ 준비

- 필기도구

◆ 진행

1. 지루함을 덜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게임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
2. 스트레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돌아가며 일도록 한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읽고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
- ① 스트레스는 없을수록 좋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하기보다는 부딪쳐서 해결할 때 성취감도 생기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물론 스트레스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③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스스로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등의 질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는 생각뿐 아니라 행동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습관이 한두 번 시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 ⑤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사고, 감정,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텅빈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문밖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을 강도나 도둑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불안해지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대응할 만한 도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을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이쳐서 화분이 떨어져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고 그 상황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3. 경찰대학(종합학교, 중앙학교) 입교 후 한 학기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 사건을 자세히 기술한다. 입교 전에 가졌던 기대와 실제상황에 대한 비교, 스트레스 정도(0 - 10), 각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식을 기술한다.

스트레스 사건	입학전의 기대	실제상황	당시 느꼈던	당시 사용한	해결
			스트레스 정도	대처방안	정도

4. 진행자가 먼저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을 설명한다.
 5. 참가자는 자신이 기술한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찾아본다.

-
- “앞장에서 말한 일반적 스트레스 인자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스트레스 인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앞장의 9가지 일반적인 스트레스 인자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자 3가지를 골라 보십시오.”
 - “위와 같은 스트레스 인자가 생겼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

6. 2명씩 짝을 지어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를 짝과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 “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7. 힘들었을 때의 심정을 3분 정도 춤(동작)으로 표현한다. 연습 후 2명씩 나와 춤을 발표한다.

8. 모두 발표하고 나면 자신들의 주제와 느낌을 나눈다.

4. 스트레스 대처 실습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협동, 겸손, 인내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2.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한다.
3.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배워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의점

1. 설명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책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루해지지 않도록 정서적 안녕,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기술한 내용을 나누어 발표하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 진행

1.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①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의 회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지 맙시다. 자유시간에 친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농구나 족구를 하자고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하지 맙시다.

② 스트레스 존재의 부정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자기나 타인을 스트레스 속으로 밀고 나가도록 다그치지 맙시다. 이성친구가 없어 사실은 외로우면서 이성교제는 돈 낭비요 시간 낭비고 정력낭비라고 치부해버리지 맙시다.

③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돌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④ 기계적인 일에 몰두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기계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맙시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친구들과 쓸데없는 잡담을 늘어놓지 맙시다.

⑤ 과민한 정서상태

신경질을 내거나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감정을 폭발해 버리거나 과민한 감정상태에 머무르지 맙시다. 자신의 날카로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상대방에게 공격하거나 짜증내지 맙시다. 같은 방 친구에게 별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높여 말다툼하지 맙시다.

⑥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함

야심이 큰 경우 스트레스가 엄습하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싸우겠다는 시도이나 결과적으로 지쳐 고갈되고 맙니다.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찾아서 하며, 친구들에게 공연히 간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스스로 달달 볶지 맙시다.

2.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 책략에 대해 설명한다.

① 흔히 '남자는, 경찰은'은 씩씩해야 하고, 눈물을 쉽게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러 둔 감정이 의식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때와 곳을 불문하고 대상이 무엇이거나 묻지 않고 그저 쉽게 울고 웃고 슬퍼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히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만 두고 당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던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히 말해 봅시다.
-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인가 써봅시다.

② 당신 주위에서 당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주는 따뜻한 지지가 스트레스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여유 없는 사람입니까?

-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기적에 남은 정서적 지지자와 그에게서 받았던 지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해 봅시다.
 - 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 현재 당신의 주위에 있는 정서적 지지자는 누구입니까?
 - 당신은 누구에게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 참가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해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면?
- ③ 당신의 신체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면 스트레스 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음식 섭취, 운동 그리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
- △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을 가능한 한 삼갑시다.
 - △ 과일, 채소, 생선 같은 신선한 음식을 가능한 한 많이 먹읍시다.
 - △ 설탕, 탄수화물, 지방, 소금 등은 적게 먹읍시다.
 -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비타민 B를 많이 보충합시다.
-

- 당신의 식습관 중 변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매주 최소한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시다.
 - △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과잉 운동은 삼가고, 체력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합시다.
 - △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합시다.
 - △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스키 타기, 테니스 등 유산소 운동을 합시다.
 - △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체력과 탄력성을 키우는 운동을 합시다.
 - 당신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운동계획을 세워 봅시다.
 - △ 수면은 양보다 질을 중하게 취합시다.
 - △ 숙면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합시다.
 - △ 잠들기 전에 카페인과 같은 흥분제 섭취를 삼갑시다.
 -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 ④ 하루 생활 중 틈이 날 때마다 호흡 조절, 명상, 요가, 목욕 등으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호흡을 적절히 조절하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 △ 가부좌나 반가부좌 자세로 편안하게 앉는다.
- △ 눈을 지그시 감는다.
- △ 호흡에 관심을 쏟는다. 들이마시는 숨을 쉴 때 '하나, 둘, 셋'하고 내쉬는 숨을 쉴 때 '하나, 둘, 셋'하고 센다. 호흡은 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 △ 근육에 관심을 기울인다. 먼저 다리 근육에 초점을 두고서는 처음에는 힘껏 팍 조였다가 이어 서서히 이완시킨다.
- △ 발가락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근육을 차례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완시켜 간다. 이완되었으면 그 상태를 지속하도록 한다.
- △ 10-20분 동안 깊은 호흡을 계속한다. 끝날 때 눈을 뜬다. 눈을 뜨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았다가 일어난다.
- △ 하루에 두 번씩 실시한다. 단 식후 2시간 이내에 실시하면 소화 장애가 생기기 쉬우므로 2시간 이후에 실시한다.
- △ 되도록 방해요인이 적은 조용한 환경에서 시행한다.

다음과 같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 △ 눈을 감고 호흡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 △ 숨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쉰다. 이 때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댄다.
- △ 호흡하는 것을 숫자로 센다. 매번 호흡하면서 속으로 '하나'하고 반복해 세어도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도 된다.
- △ 숨을 들이쉴 때는 모든 것이 나의 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모든 생각이 나를 떠나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 △ 들이쉴 때는 약 5초간 서서히 깊이 들이마셔 아랫배 단전까지 내려가도록 했다가, 내쉴 때도 약 5초간 서서히 길게 토해 낸다.
- △ 점점 익숙해지면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시간을 더 길게 한다. 그러나 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 한번에 20분 정도, 새벽이나 저녁 잠자기 전 하루 두 차례 실시한다.

국가대표선수의 불안극복 호흡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 마음 속으로 자신의 허파를 상중하 세 칸으로 나눈다.
- △ 숨을 깊이 들이켜 허파의 맨 아래 칸을 채운다.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과 배를 가르는 가로막을 밑으로 내리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 된다.
- △ 계속 숨을 들이마시며 갈비뼈를 들어올리고 가슴의 공간을 크게 하면서 들숨으로 가운데 칸을 채운다.

- △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과 어깨를 조금 들어올려 맨 위칸을 채운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 △ 몇 초 동안 숨을 멈춘다.
- △ 천천히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내리며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숨을 길게 내쉰다.
- △ 되풀이해서 숨을 쉰다. 들숨 때에는 목과 가슴의 긴장을 느끼고, 날숨 때에는 긴장이 풀리며 몸에 있는 모든 긴장과 불안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⑤ 자기 관리

- 목표를 향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 우선 순위를 정한다.
-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한다.
-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책략에 대해 실습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익힌다.

-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만 두고 당신의 감정을 억눌러왔던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서적 지지자와 그에게 받았던 지지는 어떤 것입니까?”
- “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 “현재 당신 주위에 있는 정서적 지지자들은 누구입니까?”
- “당신은 누구에게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 “참가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해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면?”
- “당신의 식습관 중 변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 “당신의 신체건강 향상을 위해 새롭게 운동계획을 수립한다면?”
-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 “이완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또 당신에게 가장 적당한 이완방법은 무엇일까?”
- “정신적 안정과 관련해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또는 “자기관리 측면에서 당신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5. 시간 관리

- 관련 덕목 : 성실, 절제, 겸손, 인내, 창의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시간 부족으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한다.
2. 시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일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한다.
4. 장기적인 목표 아래 추진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본다.

◆ 유의점

1. 시간관리에 대한 설명이 어렵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게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무대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시간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1) 시간관리의 중요성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젊은 날의 하루는 황금보다 값지다 하였다. 우리는 꼭 짜인 일과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삶이 아니겠는가?

2) 시간관리의 효과

- 여유 있는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

-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
- 바쁜 사람에게는 여유를, 한가한 사람에게는 긴장감을 주어 삶을 충실하게 한다.
- 서두름과 분주함을 예방하며 바쁜 현대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운동, 독서, 사색 등 여러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3) 시간관리의 지침

-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 우선 순위를 정한다.
- 현실적인 하루 계획표를 만든다.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배정한다.
- ‘우유부단, 다음으로 미루기, 중도 포기’ 등의 악습을 멀리 한다.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 모든 일마다 마감시간을 분명히 정한다.
-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한다.
- 시간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2.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의 원리’를 읽게 한다.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현재 입장을 다음과 같은 점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자신이 처한 위치를 살펴본다.
- 자신이 바라는 소망과 욕구들을 살펴본다.
- 현재의 시간관리 스타일을 검토한다.
- 시간낭비 요인을 분석한다.

1) 목표 세우기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세워야 한다.

- 구체적이어야 한다.
-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달성할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 목표는 가능성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목표들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10년-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한다.
 - ②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5년 동안의 중기 목표 또는 3개월-1년 동안의 단기 목표를 생각한다.
 - ③ 단기-중기-장기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한다.
 - ④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 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 ⑥ 마감일을 두어야 한다.
 - ⑦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2) 우선 순위 정하기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목표들을 모두 나열한다.
-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목표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

- 먼저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한다.
-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 압력이나 유혹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서 한다.
- 일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한다.
- 손에 먼저 잡히는 것부터 닦치는 대로 한다.

- ① 계획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 ②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60%만을 계획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③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요구되는 기간, 중요도 등 일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3개월-1년 동안의 단기, 4-5년 동안의 중기, 10-20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여야 한다.
- ⑥ 단기-중기-장기 목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⑦ 계획한 일 옆에는 소요될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⑧ 계획한 일 옆에는 구체적인 달성 방법(5W원칙에 따라)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⑨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3) 계획 세우기

<실행하기의 원리>

-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 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 ②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고 서두르지 말고 등교한다.
 - ③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한다.
 - ④ 그날의 계획을 확인한다.
 - ⑤ 하루의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한다.
 - ⑥ 곧바로 일에 착수한다.
 - ⑦ 복잡하고 중요한 일은 오전 중에 한다.
- 하루 중 일할 때
 - 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일에 뛰어든다.
 - ② 시간계획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추가적인 긴급한 일은 무시한다.
 - ④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속도로 일한다.
 - ⑤ 비슷하고 세세한 일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 ⑥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 하루 일을 마무리할 때
 - ① 자투리 일을 끝낸다.
 - ② 결과를 점검해 평가한다.
 - ③ 다음날의 시간계획을 세운다.

<평가하기의 원리>

- 기초평가
 - 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검토해 본다.
 - ②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검토해 본다.
 - ③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실 가능한 것인가 검토해 본다.

기타 자세한 원리는 목표 세우기 - 우선 순위 정하기 - 계획 세우기의 원리들을 참조해 현재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

○ 과정평가

- 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검토해 본다
- ②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만을 하고 있는가 검토해 본다.
- ③ 우선 순위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가 검토해 본다.
- ④ 계획한 시간 내에 일을 마치고 있는가 검토해 본다.

기타 자세한 원리는 실행하기의 원리들을 참조해 현재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

○ 결과평가

- ① 달성한 일은 무엇이고 달성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검토해 본다.
- ② 어느 정도로 목표를 달성했는가 검토해 본다.
- ③ 다음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가 검토해 본다.

2. 지난 1주일(또는 1달) 동안에 한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두 생각해 적게 하고, 어떤 영역의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분석해 보도록 한다.

날짜	한	일	영역

3. 발표 내용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이야기한다.

6. 스트레스 역할놀이

- 관련 덕목 : 성실, 자율, 책임, 인내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 1.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객관화시키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2.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언어·행동을 알게 한다.
3.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4. 스트레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하게 한다.
5.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함으로써 친근감을 갖게 한다.
6.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감을 증진한다.

◆ 유의점

1. 지나치게 특기자 위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한다.
2. 극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대안을 모색할 때, 흑백논리로 결론을 짓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무대

◆ 진행

1. 5명 1팀으로 편성을 한다.
2. 최근에 겪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발표한다.
3. 팀을 나누어 각 팀별로 발표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중복되는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한다.
4. 즉흥적으로 내용을 꾸미고 각자의 희망대로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
5. 5분 이내에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6. 각 팀별로 나와서 공연한다.
7. 다른 조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과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팀별로 토의하여 발표한다.
8. 2명씩 짝지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해 소감을 나눈다.

7. 스트레스를 이겨낸 내 모습

- 관련 덕목 : 성실, 존중, 모범, 신뢰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스트레스를 극복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
2.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3.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4.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5.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6.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 준비 사항

- 카드 : 인원수× 15
-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8.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램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9. 촛불 명상

⑤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갈등에 대한 안내
 2. 갈등 해결하기
 3. 성격 유형 파악하기
 4. 대인관계 분석
 5. 이성교제
 6. 대인관계 역할 놀이
 7. 대인 관계가 향상된 내 모습
 8. 내가 나에게
 9. 촛불 명상
-

1. 갈등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인내, 협동, 겸손, 성실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갈등의 원인을 안다.
2. 원인이 밝혀진 갈등의 해소 방안을 세울 줄 안다.

◆ 준비

1. 유인물

◆ 유의점

1.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2.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다.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1) 갈등이란

갈등은 적의적 대립·충돌을 가리킨다. 의견 대립, 이해관계 대립에서부터 주도권 다툼, 양립할 수 없는 욕구 추구로 인한 정신적 싸움, 도덕 투쟁, 나아가 전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다. 갈등이 선의의 경쟁과 구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가치와 요구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불신, 거부감, 대화 단절 등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갈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2) 갈등 대처 방식

(1) 건설적인 방법

- 갈등을 감추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갈등을 서로서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참고 들어준다.
- 내 욕구를 줄이거나 자제한다.
-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
- 제3자에게 갈등해결을 부탁한다.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본다.
- 서로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며 섭섭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다.
- 갈등상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다.
-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각각 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2) 비건설적인 방법

- 갈등이 있어 불편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 상대방의 요구에 늘 맞춰 준다.
-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한다.
-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
- 직접 분풀이한다.
-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을 한다.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비난하게 한다.
-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한다.
- 변명이나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다.
- 상대와 결별을 선언한다.

2. 위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갈등과 해소 방법을 자유롭게 발표해 보게 한다.

2. 갈등 해결하기

- 관련 덕목 : 겸손, 인내, 성실, 자율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대인관계 갈등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자신의 대인관계 갈등의 해결방식을 이해한다.
3. 대인관계 갈등의 해결 방법을 익힌다.
4.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다.
5.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 준비

- 필기도구
- 16절지 종이

◆ 유의점

1.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2.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다.

◆ 진행

1. 간단히 몸풀기를 한다.
2. 둥글게 모여 느낌을 이야기한다.
3. 16절지에 익명으로 대인관계에서 현재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10분)
4. 그것을 섞어 한 사람이 하나씩 뽑게 하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발표하게 한다.
5. 문제에 대한 의견, 공감, 해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6. 2인 1팀으로 대인관계 갈등상황을 이야기한 뒤 한 가지 상황을 연습해 발표하고 갈등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7. 심사위원을 정해 준비된 심사기준(갈등 표출, 갈등 해소, 연기력, 경청 태도 등)으로 평가하게 한다.

3. 성격유형 파악하기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자율, 겸손, 공정 등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정도

◆ 목표

1. MBTI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2. 자신의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점을 찾게 한다.
3. 자기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한다.
4. 성격이 다른 타인을 이해하게 한다.
5. 대인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준비

- MBTI 풀이

◆ 유의사항

- 산만해지지 않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한다.

◆ 진행

1. 성격유형검사(MBTI)의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 실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 강의를 지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성격유형검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 성향을 알아내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 “먼저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자신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살펴봅시다.”
 - “다음으로 정보수집단계에 따라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알아봅시다.”
 - “다음은 판단기능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양식에 따라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사람의 성격유형을 식별하는 검사이다. 이는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1) 감각 - 직관

- S(Sensing type) : 바깥의 사물을 인식할 때 직접적인 감각에 의지하는가?
- N(iNtuition type) : 바깥의 사물을 인식할 때 간접적인 직관에 의지하는가?

‘감각형’은 정보를 자신의 눈과 귀 등 오관에 의존하여 받아들이기를 선호한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며 순서에 따라 업무를 차분히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보기는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오감에 의존해 정보를 수집한다.
- 현실감각이 뛰어나다.
- 반복적인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 꼼꼼하고 오타도 잘 찾는다.
- 크리스마스 행사도 전년도와 똑같이 진행한다.
-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저거 다 주우려면 힘들텐데...”라고 생각한다.
- 단계를 밟아 순서대로 일하는 스타일이다.
- 영화나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기억한다.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잘 기억한다.
- 길눈이 밝다.

‘직관형’은 오관에 의해 얻어진 정보의 차원을 넘어 가능성, 의미, 본질, 전체적인 관계 파악을 선호한다. 이 유형은 상상력과 영감에 비중을 두며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좋아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긴다. 전체를 보기 위해 세밀한 사항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육감을 중요시한다.
- 창의적이어서 Idea Bank라고 한다.
- 다소 엉뚱한 일도 잘 한다.
- 크리스마스 행사를 전년도와 똑같이 하면 죄짓는 기분을 느낀다.
- 비약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 영화를 보고 나와서 “좋은 영화였어!”라고 하며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뒤

죽박죽이다.

- 미팅한 다음날 상대방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이미지만 남아 있다.
- 길눈이 어둡다.

(2) 사고 - 감정

- T(Thinking) : 판단을 하게 될 때 사고에 의한 판단을 선호하는가?
- F(Feeling) : 판단할 때 감정에 의한 판단을 선호하는가?

‘사고형’은 논리적인 것을 선호한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이 유형은 일관성, 타당성, 합리성을 중시한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원리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느낌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기준을 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객관적 사실과 정보에 입각해 결정한다.
- 옳다-그르다 측면에서 판단한다.
- 논리적, 분석적, 이성적이다.
- 논쟁적이고 완고하며 차갑다는 인상을 준다.
- 그림을 평가할 때 구도, 명암 등을 따져 가며 한다.
- 싸워도 공사를 분명히 구분한다.

‘감정형’은 객관적인 기준보다 자기가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 유형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재치가 있다. 객관적 진리나 윤리적 규범보다 보편적 선을 선호하고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중시하며 일이나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상대방과 나와 관계에 주로 의존해 결정한다.
- 좋다-나쁘다 측면에서 판단한다.
-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다.
- 우유부단하다.
- 거절을 잘 못한다.
-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으며 짬뽕을 먹고 싶어도 될까봐 못 먹는다.
- 무엇이 좋은 이유로 “고향집 같아서, 나랑 친한 친구라.....”등을 든다.
- 사람에 대한 비판과 일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향 - 내향

- E(Extroversion) : 판단과 의식의 주의 집중이 외부세계로 지향하는가?
- I(Introversion) : 판단과 의식의 주의 집중이 내부세계로 집중하는가?

‘외향형’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외적 경험을 선호한다.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고자 한다. 따라서 활동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침묵이 길게 느껴진다.
-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나가야 한다.
-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본다.
- 전화를 1시간이나 하다가도 끊을 때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하다.
- 등산은 다른 사람과 같이 간다.
- 조잘거리기 좋아한다.
-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난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풀어야 한다.
- 사교적, 정열적, 매력적이다.
- 허풍이 세고 목소리가 큰 편이다.

‘내향형’은 내면세계에서 일어난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다. 생각을 주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며 직접 경험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침묵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다.
-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쉬어야 한다.
- 할까말까 고민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
- 전화통화를 5분 이상하는 일이 드물다.
- 문을 걸어 잠그고 쉬어야 한다.
- 등산은 혼자 간다.
-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비축한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 깊이가 있고, 사려 깊고, 평온하다.
- 서먹서먹하고 억지가 심하며 회피적이다.

(4) 판단 - 인식

- J (Judging) : 일을 처리하는 데 사고 및 감정에 따른 판단적 태도를 취하는가?

○ P (Perceiving) : 일을 처리하는 데 감각과 직관에 따른 인식적 태도를 취하는가?
여기에서 판단이란 외부세계에 대해 구조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비판적이거나 심판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판단형’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좋아하며 일이 정착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유형은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원하며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미리 준비한다. 정한 기간 내에 일을 마무리짓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계획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편하다.
-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부터 세운다.
-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다.
- 정리를 끝내야 다른 일을 시작한다.
- 5분 기다리면 50분 기다린 것처럼 느낀다.
- 리포트 다 쓰고 논다.
- 놀러 갈 때 이사가는 것처럼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
-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노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한다.
- 부지런한 편이다.
- 장을 보러 갈 때 목록을 꼼꼼히 적어 가지고 간다.
- 꼼꼼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

‘인식형’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응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삶을 통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 이 유형은 다양한 기회를 좋아하고 경험에 개방적이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

- 유유자적하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 마감시간이 되어야 일이 손에 잡힌다.
- 갑작스러운 일이 신난다.
- 집에서 보는 책과 학교에서 보는 책이 다르다.
- 이 책 저 책 늘어놓고 공부한다.
- 50분 늦어도 5분 늦은 것처럼 느낀다.
- 실컷 놀고 나서 리포트는 “어떻든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 놀러 갈 때 대충 챙겨서 간다.
- 노는 것도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도 노는 것처럼 한다.
- 게을러 보일 수 있다.

- 쇼핑할 때 충동구매를 한다.
- 순간 판단력이 빠르다.

2) 자기 성격유형 간이 식별법

다음 사항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것을 고른다. 각 박스(box)의 문항 중 2가지 이상 체크(check)된 박스의 머리글자가 자신의 성격유형이다.

E	() 자기외부에 주의집중 () 말로 표현하기 선호	() 정열적, 활동적 () 쉽게 알려짐
I	() 자기내부에 주의집중 () 글로 표현하기 선호	() 조용하고 신중 () 서서히 알려
S	() 지극, 현재에 초점 () 정확, 철저한 일처리	() 실제의 경험 () 사실적 사건묘사
N	() 미래가능성에 초점 ()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	() 아이디어 () 비유적, 암시적 묘사
T	() 진실, 사실에 주관심 () 논리적, 분석적	() 지적 논평 () 규범, 기준 중시
F	() 사람, 관계에 주관심 () 상황적, 포괄적	() 우호적 협조 () 나에게 주는 의미 중시
J	() 정리정돈과 계획 () 신속한 결론	() 의지적 추진 () 통제와 조정
P	()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 유유자적한 과정	() 이해로 수용 () 융통과 적응

2. 16가지 성격유형을 설명하고 그 풀이를 나누어준다.

- 성격 유형 풀이 -

▲ ISTJ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 세상

의 소금형, 안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형, 보증수표, 의무와 책임, 신중, 집중력, 현실감, 보수적 등의 특징이 있다.

▲ ISFJ

조용하고 차분하며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헌신적이다. 임금님 뒤편의 권력형, 성실, 온화, 협조, 봉사, 이바지, 신뢰, 헌신적, 근로의 가치 중시 등의 특징을 지닌다.

▲ ISTP

조용하고 과묵하고 정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백과사전형, 논리적, 적응력, 충동적, 평등주의, 자극, 도구사용, 자유분방 등이 특징이다.

▲ ISFP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친절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며 겸손하다. 성인군자형, 따뜻한 감성, 겸손, 순수예술, 감각예리, 가장 친절, 쾌락적, 충동적, 자연적 등이 특징이다.

▲ ESTP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능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다. 수완 좋은 활동가형, 행동파, 재치, 다양한 활동, 기발한 착상, 예측불허 등이 특징이다.

▲ ESFP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다. 사교적 유형, 분위기 고조, 가장 관대, 낙천적, 뛰어난 화술, 실천하는 행동파,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는 형 등이 특징이다.

▲ ESTJ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다. 사업가형,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 일을 많이 함, 대들보, 책임감, 전통 중시, 규정과 절차, 조직적 등의 특징을 지닌다.

▲ ESFJ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양심이 바르고 인화를 잘 이룬다. 친선도모형, 사교적, 조화, 친절, 현실감, 봉사, 훌륭한 파티의 주인공격 등의 특징을 지닌다.

▲ INFJ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한다. 예언자형, 통찰력, 타인 복지, 공감 능력, 직관력, 언어, 시적 등의 특징이 있다.

▲ INTJ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과 비판 분석력이 뛰어나며 내적 신념이 강하다. 과학자, 비전 제시, 가장 자신, 이론적, 독립적, 직장과 일에 충실 등의 특징이 있다.

▲ INFP

정열적이고 충실하며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며 내적 신념이 깊다. 잔다르크형, 관심, 수용, 이상, 대의명분, 자기 희생, 새로운 아이디어, 학술 등의 특징을 지닌다.

▲ INTP

조용하고 과묵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아이디어뱅크, 뛰어난 전략가, 사고, 언어 정밀, 집중력, 기억, 분석, 과시 등의 특징을 지닌다.

▲ ENFP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재능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스파크형, 열정, 인생 흥미, 타인 기분 잘 알아냄, 통찰력, 낙천적, 카리스마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 ENTP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안목이 넓으며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많다. 발명가, 상상력으로 새로운 도전, 창의적, 실용화, 임기응변, 유머, 들쭉심 등의 특징을 지닌다.

▲ ENFJ

따뜻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다. 언변 능숙형, 리더, 카리스마, 협동, 인간 중시, 이상화, 언어, 이성교제 인기 등의 특징을 지닌다.

▲ ENTJ

열성이 많고 솔직하고 단호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 리더형, 활동적으로 이끄는 지도력, 책임자, 능률, 효과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3. 강의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성격유형을 짐작해 본다.
4. 성격유형이 같은 참가자들끼리 이야기하게 한다.
5. 성격유형이 다른 참가자들끼리 이야기하게 한다.

6. 대인간 발생하는 많은 갈등이 서로 성격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 대인관계 분석

- 관련 덕목 : 겸손, 정직, 성실, 책임, 자율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게 한다.
2. 자신의 대인관계 특징을 이해하게 한다.
3.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4. 깊이 있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5. 대인관계 갈등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한다.
6. 자신의 대인관계 갈등 해결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7. 대인관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익히게 한다.
8.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한 태도로 참가하도록 한다.
2.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 철저히 임해보도록 한다.

◆ 진행

1. 대인관계 지도 그리기 양식을 나누어주고 물음에 답하게 한다.
-

“당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따라, ‘끈끈이, 친한이, 공일이, 아는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끈끈이는……”

“친한이는……”

“공일이, 공통되는 일을 하는 이는……”

“아는이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고 상자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이 <p style="margin-left: 20px;">호감이 가는 사람 싫은 사람</p>

2.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좋아하는 유형과 그 이유)과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싫어하는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그 사람의 좋은 점 찾기/싫지만 그래도 찾아본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 찾기/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관계개선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실천가능한 것 등)을 명료화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깝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끈끈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함께 고동의 목표를 가지고 폭넓게 교제할 수 있는 친한이나 아는이도 소중한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작성한 대인관계 지도를 보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나의 친구관계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이와 공일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끈끈이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당신은 끈끈이 한두 명에 주로 의존하는가?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아는이는 많은데 친한이와 끈끈이는 왜 부족한가?”

“끈끈이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는 이 유형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으로 분류된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이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는다면?”

“그밖에 당신의 대인관계 특징은 어떠한가?”

3. 진정한 친구관계를 설명하고 친구의 요건을 기술하게 한다.

1) 친구 관계의 중요성

청년기에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과 야망을 서로 나누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화와 성장에 직면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 친구를 사귀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데 신비스러운 공식은 없지만, 다음의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따르면 우정을 더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일같이 도와 주라.

사람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가령 건강문제는 의사에게 법률문제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각 분야에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큰 힘이 들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우정을 갈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 주는 사람의 우정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② 도움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하라.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간사해서 아홉 번 신세를 진 사람도 한번만 섭섭하게 대접을 하면 그것만 되뇌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 잠초처럼 속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언짢은 감정을 없애버리고 고마웠던 무수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언짢은 감정은 서운한 일만 부르고 고마운 마음은 고마워할 일만 부르게 된다. 우정의 참다운 평가는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좋은 친구로부터 은연중 받고 있는 심리적 감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 어느 성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얼마 동안 걷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고 한 제자에게 그것을 주워서 냄새

를 말아보라고 하였다. 성자의 물음에 제자는 비린내가 난다고 대답했다. 또 한찬 건다가 길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다. 제자는 향내가 난다고 대답했다. 성자는 드디어 말했다. “새끼줄은 생선은 아니로되 생선을 가까이 했으므로 비린내가 나고, 종이는 향이 아니로되 향을 가까이 했으므로 향내가 난다.”라고 하였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준다. 좋은 친구는 한 순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복(人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③ 자주 만나서 우애를 다지라.

“우정은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꽃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정성을 기울여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람은 우정을 산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산길은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 길을 덮어 버린다. 우정도 자주 왕래가 없으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멀리 사라져 버린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 하지 않는가? 친구의 경조사는 물론이려니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정을 돈독히 하는 만남을 마련해야 한다. 우정은 오가는 정이 있을 때 두터워진다. 특히 가족끼리의 만남은 우정의 깊이를 한층 더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종종 안부 전화라든가 서신 왕래가 있어야 한다. 외국여행을 간 친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림엽서를 보내왔을 때 기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동년배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도 친교를 더해주는 수단이 된다. 물론 어른들끼는 각듯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

④ 너 자신을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 전에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대신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숨김없이 상대방에게 말하여라. 세계에 간한 가치관을 서로 이야기할 때 비록 표면적인 접근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솔직한 감정전달에서 어떤 공통성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런 책략에는 한계가 있다.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빠른 자기노출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라.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상대방에게 말해라. 말이 아니라면 행동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좋다. 비

록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거절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우정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⑥ 상대를 인정해 주라.

우정의 표시는 상대방을 당신이 좋아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데 어떤 조건을 달지 말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라.

⑦ 같은 활동에 참여하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정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정이란 자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만족할 만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단순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정도일지라도 지속적인 우정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⑧ 관심있게 보살피라.

잊어버리기 쉬운 본질이지만 관심과 보살핌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상대방의 행운에 관심을 표명하고 불행과 슬픔을 같이 나누어야만 한다. 관심있는 보살핌은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우정은 성장이 늦은 식물이다. 그러나 성장하면 쉽사리 마르지 않는 식물이 된다. 햇볕이 내려 쬐는 속에서나 홍수에도 지지 않는 식물이 된다. 많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가지와 이파리를 무성해진다. 아니 옳게는 시련이 우정을 키운다고 할 수도 있다.

우정은 결코 아침을 하지 않는다. 아침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며 뼈아픈 충고를 던진다. “네 말은 틀렸다.”, “네 행위는 옳지 않다.”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얼굴을 하는데, 우정은 도무지 쓰디쓴 말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문득 반발하고 싶어서 “아니, 내 행위는 옳다.” 하고 응수한다. 그러므로 우정은 싸움을 좋아한다. 싸운 후에는 정말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절교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 보는데 어느 덧 또 그 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이 나서 떠난 그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하는 듯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이다. 우정이 없는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헤어진다. 우정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 우리는 싸움을 걸어 온 친구에게 응당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정처럼 사람의 결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 밝은 전등불을 비치면 사람의 얼굴에 여드름이나 생채기 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우정은 너무 접근

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의 결점을 알고 있다. 물론 장점도. 그도 내 결점을 알고 있다. 결점과 결점이 교제하여 어찌 오래 지속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커피를 산다고 했으면서 각자 부담을 주장하는 그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속으로 미워할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진실한 우정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쥬우벨의 말을 따르고 싶다. “친구가 외딴눈이라면 나는 친구의 옆모습을 바라보자.”

4. 각 요건에 대해 자기 자신은 어떠한지 점수를 매겨본다.

5. 각각 느낀 점과 새롭게 깨달은 점을 서로 이야기한다.

5. 이성 교제

- 관련 덕목 : 예의, 성실, 겸손, 협동, 자율, 책임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정도

◆ 목표

1. 자신의 이성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2. 이성관에 대해서 참가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3. 데이트 상대 선택에 도움을 준다.
4.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도움을 준다.

◆ 준비

1.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하도록 주의한다.
2.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구체화된 이성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진행

1. 5명씩 1팀으로 편성한다.
2.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

1) 이성과의 의사표현방법

부모와 자식,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애정과 사랑의 대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깊고 강하게 만들어 준다.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진 사랑을 잘 키워 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소통이라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랑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이 서툴러 사랑하는 마음을 성공적으로 전하지 못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오해를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특히 상대방에게 행동의 변화를 바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상대방의 변화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의사표현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표현한다.

오직 요점만을 말하는데, 가능하면 잘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절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2)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당신은 너무 정리 정돈할 줄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벗어 놓은 양말은 세탁기에 넣고, 입고 난 신문은 신문철에 꽂아 놓았으면 좋겠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3)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의 태도가 필요하다. 원인을 밝히되 해결 방안을 찾는 맥락에서 밝혀야 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힐책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4) 극단적인 말을 삼간다.

‘지켜워’, ‘자기만 아는 사람’, ‘인간 말자’, ‘원수’ 등과 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과일반화(過一般化)로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화풀이 효과밖에 없고, 상대방부터 반격을 유도한다.

(5) “언제나 그렇다.”거나 “한번도 그런 적 없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대개의 경우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부터 반박을 당할 수 있다. ‘한 번도’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문제되는 일을 ‘언제나’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6) 상대방의 심리를 함부로 분석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기나 이유에 대한 추측은 대개의 경우 틀리기 쉬우며, 오히려 상대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 “당신이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으며,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거나 보복하려고 한다는 등의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연히 신문이나 잡지에서 본 심리 분석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적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만 크고, 사실과 추측을 혼동하게 될 뿐이다.

(7)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나 서로 이해가 가능한 점을 찾아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불평하는 요점이 분명치 않으면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오해가 있으면 이해시키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주저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8) 화제가 빈곤할 때에는 상대방과 함께 겪은 과거의 경험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한다. 단, 과장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새삼스레 잘잘못을 가리려해서는 안 된다.

2) 연인과의 언행

다음은 사랑하는 연인과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행이다.(하이텔 공개 프로그램, ‘연인을 지키는 50가지 방법’ 참고)

(1) 나약함을 보이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못 봐도 몹시 그렇다고 징징대지 말라. 연인이 언젠가는 자신을 떠나버릴까 두렵다고 자주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연인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 사랑의 마법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

(2) 더 많이 이야기하라.

대화를 할 때에는 몇 마디 말로 끝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말한다.

(3) 관심을 보이라.

연인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라. 잦은 전화 통화와 편지를 주고받아라. 그가 말할 때에는 말허리를 끊지 말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라도 잠깐만 멈추어라. 조용히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귀 기울여 들어라. 연인과 눈을 맞추며 들어라. 맞장구를 치며 들어라. 말만 듣지 말고 몸짓으로 말하는 것도 들어라. 중심 내용을 놓치지 말라. 횡설수설할 경우에는 질문을 하라. 다 듣고 난 뒤에는 들은 것을 다시 정리하며 이야기하라.

(4) 서로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라.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존경에 기반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인을 지키려면 그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연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춘다. 연인이 해주는 칭찬을 깊이 음미하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으로 새겨든다. 스스로 사랑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하는 것을 명심한다. 연인에게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감각을 기른다.

(5) 충실한 나날을 보내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 정신적 성장, 정서적 행복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생활방식을 택한다. 지나친 흡연, 지나친 음주, 지나친 놀이 등은 지나치면 만용을 부리기 쉽고, 상대방이 싫증을 내게 한다. 습관이나 용모 또는 체형까지도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절제한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과시하거나 허풍을 떨어서는 알찬 결실을 맺기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며 믿음직스러운 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바로 그런 이들의 삶에 살며시 온다.

(6) 단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라.

영화 감상, 연극 감상, 공원 산책 등 호젓한 시간을 가진다. 교외로 탈출한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만남보다는 낯선 곳으로 가본다. 그러나 은밀한 공간을 찾게 되면 둘 사이의 끝이 빨리 오기 쉽다.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정당당당히 만난다.

(7) 상대방이 있는 곳에 있으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기 쉽다. 눈길을 놓치지 말고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다. 사랑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8) 열정을 보이라.

열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무엇에도 성공할 수 없다. 열정은 사랑의 감정에 기름을 붓는다.

(9) 칭찬하라.

칭찬 거리를 부지런히 찾는다. 더욱 많이 칭찬한다.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한다. 칭찬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다. 명곡도 똑 같은 레파토리를 들으면 싫증이 난다.

(10) 반응을 보이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한다. 그러나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노여움이란 어찌면 당신의 이기심이나 완벽주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11) 재미있게 지내라.

떠밀려 살아가지 말고 상대방의 바람이나 기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만 파묻혀서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삶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을 가진다면 재미있게 사는 것은 간단하다. 놀이터에서 신나는 놀이 기구를 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생각하라. 재미를 얻는 비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든다.
- ② 사물이나 현상에 집착하는 대신에 사물이나 현상이 오히려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이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줄곧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신을 둘러싼 상태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똑 떼내어 멀쩡이 떨어뜨려 놓는다.

- ④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유머를 읽거나 귀담아 듣는다.
- ⑤ 유머를 계속 수집한다.
- ⑥ 절대적이거나 신성 불가침한 것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 ⑦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 ⑧ 자신의 결함에 대한 겸손한 자기 수용이야말로 유머의 가장 수준 높은 형태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12) 해묵은 문제를 들추어내지 말라.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 간혹 불화가 생기면 그 때문에 애를 태우지 않는다. 다툼과 동시에 다 잊는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현명한 연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는 하지만, 그들의 실수를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13)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을 호소하라.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14) 질투하지 말라.

어떤 사랑에도 질투라는 함정이 숨어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기지 않는 한, 참고 참는다. 매사에 남과 비교하는 태도를 버린다.

(15) 사소한 일들은 무시하라.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지닌다. 상대가 온당치 않은 행동을 보이면 목소리의 억양에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난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가능한 한 자세히 묘사한다.)이 싫은데, 이 째해서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난 당신의 행동이 우리들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는 것 같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16) 사랑의 감정을 행동으로 보이라.

연인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선물을 하거나 감사를 표시한다.

(17) 스킨십을 아끼지 말라.

연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한 다음, 어머니와 아들이나 아버지와 딸 또는 남매 같은 감정으로 피부 접촉을 꾀한다. 지나친 스킨십(skinship)은 모든 것을 물거품

으로 만들기 쉽다. 사랑은 서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동물적인 이성의 눈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머지 않아 곧 싫증이 난다. 연인은 영원한 동반자요, 유일한 보호자여야 한다.

(18) 개성의 반만 살리라.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된 점도 분명히 지적해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개성의 반만 살리고 반은 죽이는 것이다. 상대를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잔소리를 밥먹듯이 하면 그 사랑은 곧 깨진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재능을 건강하게 계발하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19)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은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일부러 꾸며낸 것이더라도. 좋은 연인이 되려거든, “.....해야 한다.”, “반드시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고난을 견뎌내라.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사랑은 더욱 알차다. 다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함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다. 자신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여지기를 바라는가? 자신이 묘비명을 지어본다. 그러면 자신은 그 묘비명에 쓰인 대로 변할 수 있다. 매일매일 신선한 사랑을 나누려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가정을 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가를 알게 해준다. 사랑, 가족, 하루하루 누리는 소박한 생활의 기쁨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당신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21)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라.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생각해 주는 것이고, 아울러 당신은 사랑할 충분한 시간과 힘을 얻게 된다. 연인과 어떤 일을 하려면 스스로, “나는 이 일을 즐길 것인가?”, “나는 이 일에 쏟을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이 일에서 얻는 이득이 그로 인한 노고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한 의무가 내 삶의 다른 국면들보다 과연 더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져 본다.

(22) 좋은 부모가 되라.

사랑의 열매는 후손의 잉태와 관계가 있다. 부모가 되었을 때의 형편도 생각하라. 잠시 사랑을 나누다 헤어지려면 아무 것도 고려할 것 없다. 눈에 무엇이 썩워서 말초적인 감각의 날만 세우면 되니까. 그러나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려거든 몇 년 앞을 내다본다.

(23)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라.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현실은 경제적인 면을 외면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제적인 면만 따지다가는 상대방의 다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4) 더 높은 힘이 있음을 믿으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누리자면, 당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몰래하는 사랑은 몰래 끝나기 쉽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빛나가기 쉽다.

(25)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라.

많은 사람들은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을 꺼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연인은 마음을 잘 읽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연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3) 지속적인 사랑의 비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있을 수 없지만 사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성적매력과 사랑을 확실히 구별하라.

열정이 상당한 부분 성적 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곤란하다.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냉철히 구분해 살펴야 한다.

(2) 관계를 검토하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당신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에 도움을 준다. 단지 바람직하지 못한 당신들의 관계에서 헤어내기 위해 또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대가와 이익을 무시하지 말라.

(3) 대화의 문을 열라.

진실로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만 한다. 서로 간의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4)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당신의 연인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판단은 여전할 것이다. 물론 세월이 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변한다. 그러나 당신이 상대방에게 뚜렷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있는 그대로 그를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3. 다음에 나열한 여러 가지 조건 중, 결혼(데이트) 상대로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요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 | | |
|------------|----------------------|
| ○ 돈이 많다 | ○ 성적 매력이 있다. |
| ○ 키가 크다 | ○ 옷을 잘 입고 단정하다 |
| ○ 건강하다 | ○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 |
| ○ 의욕적이다 | ○ 지적이며 빈틈이 없다 |
| ○ 집안이 좋다 | ○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어 준다. |
| ○ 인격적이다 | ○ 말을 재치 있게 한다 |
| ○ 재능이 많다 | ○ 유머가 풍부하다 |
| ○ 직업이 좋다 | ○ 신앙심이 깊다 |
| ○ 잘 생겼다 | ○ 포용심이 있다. |
| ○ 적응을 잘 한다 | ○ 내 말을 잘 들어준다 |
| ○ 칭찬을 잘 한다 | ○ 예의 범절이 바르다 |

- 주관이 뚜렷하다
- 좋은 습관이 많다
- 학식이 풍부하다
- 대인관계가 좋다
- 늘 진실하다
- 화를 낼 줄 모른다
- 좋은 친구들이 많다
- 세심하고 자상하다
- 이해심이 매우 많다
- 항상 웃는 얼굴이다
- 자기 일에 충실하다
-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 부모에게 효도한다.
- 발전가능성이 크다
- 자부심이 강하다
-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 화를 낼 줄 모른다
- 이성관계가 깨끗하다

4. 위에서 데이트 상대로서의 필수 요소를 5가지 중요도 순서로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순위	내 용	이 유
1		
2		
3		
4		
5		

5. 위에서 데이트 상대로서의 전혀 관계없는 요소를 5가지 중요도 순서로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순위	내 용	이 유
1		
2		
3		
4		
5		

6. 위에서 결혼 상대로서의 필수 요소를 5가지 중요도 순서로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순위	내용	이유
1		
2		
3		
4		
5		

7. 위에서 결혼 상대로서의 전혀 관계없는 요소를 5가지 중요도 순서로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순위	내용	이유
1		
2		
3		
4		
5		

8. 이성교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의하게 한다.

9. 팀별로 각자 기록한 것을 발표하고 그룹 공동순위를 정하고 발표하게 한다.

10. 배운 점 및 느낀 점, 다른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내용, 다른 참가자가 나에게 준 피드백 내용

6. 대인관계 역할 놀이

- 관련 덕목 : 협동, 존중, 자율, 신뢰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좀더 객관화시키고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2.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언어, 행동을 알게 한다.
3.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4.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하고 친근감이 생기게 한다.
5. 참가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높아 공동체감이 커지는 것을 배우게 한다.
6. 다양한 역할 연습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7.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동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8.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해결에 대한 방안 선택이 명료해지게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 유의점

1. 지나치게 특기자 위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2. 주제를 다양하게 한다.
3. 극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게 한다.
4. 대안을 모색할 때 흑백논리로 결론을 짓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진행

1. 5명 1팀으로 편성한다.
2.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

.....

모든 인간관계는 그 나름대로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대인간 갈등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때 생긴다. 또한 개인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법, 개인적인 욕구, 그리고 각자의 행동에 대해 갖는 기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형성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갈등이 없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하며 관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한다. 갈등은 잘만 다루게 되면 관계 형성과 유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변화를 조장시키며, 문제해결에 있어 동기를 유발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아울러 인간관계를 더 심화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어떤 조직이건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개인의 목표, 권한과 의무의 균형, 다수를 위한 최적(最適)의 선(善) 등을 고려하면서 조직이 당면한 갈등을 풀어 가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정의 구현과 관련된 문들, 그리고 갈등 해소 기법 등을 학생들이 알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의 선과 개인의 이익이 집단 내에서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될 때 이를 어떻게 승화시키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는지가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 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성격을 분석하고 각 유형에 따른 해소 방법을 잘 알게 함으로써 지혜, 덕성 및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3. 최근에 대인관계(상급생/동급생/하급생/교수, 교관/직원/기타)에서 갈등을 겪었던 사건과 대처방안을 기술하고 팀별로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에 겪었던 대인관계 갈등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 내가 했던 말, 주변 상황, 화가 난 이유 등을 자세하게 적고 난 뒤, 당시에 느꼈던 갈등 정도와 대처방안, 해결정도에 대해 적어 보십시오.”

대상	갈등내용	당시 느꼈던 갈등 정도	당시 사용한 대처 방안	해결 정도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

기 타

4. 각 팀별로 발표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중복되는 상황을 선정해 역할 놀이를 시행한다.
5. 진행자는 극을 엮는 순서를 설명한다.
6. 주제를 선정한다.

<예> A팀 : 상급생과의 갈등
 B팀 : 동급생과의 갈등
 C팀 : 이성 하급생과의 갈등
 D팀 : 가족 간의 갈등
 E팀 : 이성 상급생과의 갈등
 F팀 : 상사와의 갈등

7. 즉흥적으로 내용 꾸민다.
8. 각자 희망대로 배역 정한다.
9. 연습한다.

“각 조별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역할극을 준비해서 공연해 봅시다.”

- 역할극의 주제는?
 -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은?
 - 2 명씩 짝을 지어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행동연습을 해보자.
-

10. 각 팀별로 나와서 5분 정도 공연을 한다.
11. 다른 팀이 공연한 극을 보고 그 팀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팀별로 토의해 발표한다.

12. 다른 팀이 내린 결론과 그밖의 다른 문제해결책이 있는지 팀별로 토의해 발표한다.

(흑백논리로 결론을 짓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13. 문제 해결책에 대해 팀별로 내린 결론에 기초해 2 명씩 짝을 지어 적절한 대처 행동을 연습한다.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하게 한다.

-
- 집단에서의 갈등 중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갈등 유형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각 갈등 유형은 어떤 해소 기법의 적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 집단 내 갈등 해소에서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지성과 덕성을 갖춘 지도자는 집단 내 갈등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또 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15. 다음 내용을 작성한다.

-
- 배운 점 및 느낀 점
 - 다른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내용
 - 다른 참가자가 나에게 준 피드백 내용
-

16. 준비할 때의 이야기와 활동을 마치고 난 뒤 자신의 느낌을 팀별로 발표한다.

17. 팀별로 함께 한 활동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7. 대인관계가 향상된 내 모습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신뢰, 겸손, 협동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대인관계에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
2. 참가자들의 지지를 통해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3.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
4. 자신감, 자존심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5.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다.
6. 자기 주체성이 생기고 자신감을 키운다.
7.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
8.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한다.
9.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10. 참가자 상호간의 이해심을 증진시킨다.

◆ 준비

1. 카드(참가자수×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자신의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성 15가지를 카드에 한 가지씩 쓰도록 한다.(예 : 나는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는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5.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
6.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은 모두 말해 준다.
7. 장점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진행자도 발표자에 대한 느낌과 장점을 부각시켜 지지해 준다.
8. 왼쪽에 놓인 카드들을 왜 버리고 싶은지에 대해 말하게 한다.
9.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카드를 찢어 바구니에 버리도록 한다.
10. 진행자는 카드를 찢어 버릴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1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
- 배운 점 및 느낀 점
 - 다른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내용
 - 다른 참가자가 나에게 준 피드백 내용
-

8.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9. 촛불 명상

〔6〕 예절 지키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예절에 대한 안내
 2. 에티켓과 매너의 이해
 3. 인사에절
 4. 자기소개 바르게 하기, 접대 및 응대 예절
 5. 언어 사용 예절
 6. 이미지 메이킹과 자신의 모습 바로 보기
 7. 행동 예절(행동과학적 태도개선)
 8. 테이블 매너(table manner)
 9. 가정생활 예절
 10. 직장생활
 11. Global Etiquette(국제 매너)
 12. 경찰 예절 교육의 기본 방향
 13. 내가 나에게
 14. 예절인으로서의 내 모습
 15. 촛불 명상
-

1. 예절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예절, 겸손, 관용, 모범 등
- 소요 시간 : 1시간 정도

◆ 목표

1. 올바른 예절을 몸에 익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의 변화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도록 한다.
2. 예절은 올바른 대인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사회생활의 초석이 되는 여러 가지 예절을 몸에 익히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는 세련된 매너와 에티켓을 습득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의 도모와 신뢰받는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유의점

1. 진행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준비

1. 유인물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한다.

1) 예절의 필요성

예절은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양식이다. 사람은 남과 더불어 산다, 남과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서로 약속해 놓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절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절은 인간으로서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이 되고 사람노릇을 해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한게 살려면 사람끼리 약속해 놓은 예절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예절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피하는 것과 같다.

예절은 안에 있는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언동이 일치해야 참 예절이라 말할 수 있다. 예절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절은 의사소통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절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고 좋으면 본받고, 남이 하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경계한다. 예절을 아는 것도 좋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예절을 몰라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예절은 마음속에 있는 상호간의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 직원상호

간에 필요한 협동방식과 조직형성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경찰의 행사나 직원상호간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직의 권위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상호간의 예절은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업무처리의 원활유 같은 기능을 한다.

2)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강의, 비디오, 책자, 강사초빙)

- 기본 에티켓(테이블 매너, 언어, 주법 등)
- 관혼상제 예절
- 사회예절과 학교생활 연계
- ‘청람예절’(경찰대학 발간) 보완
- 단체생활
- 학생 자체 세부생활 지침
- 교수, 교관, 교직원에 대한 예의 교양
- 인사예절, 악수, 전화예절, 상사에 대한 예절, 복장예절, 돈 거래, 좌석 매너, 술담배 문제, 명함관리, 휴대폰 예절, 팩스 및 이메일 예절, 승차예절, 전통예절, 언어사용예절, 직장예절, 국제 예절(인사, 복장, 호텔 팁, 식사예절, 식탁 예절, 여행예절,

2. 강의를 듣고 난 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예절을 벗어난 일이 있는가를 발표하게 한다.

2. 에티켓과 매너의 이해

- 동서양의 에티켓의 차이, 현대 에티켓과 매너의 이해

3. 인사예절

- 인사예절의 이해와 실습, 동양의 배례법과 공수(拱手)의 이해, 인사(절하는) 방법과 실습, 음양오행에 의한 우주의 방위 이해

4. 자기소개 바르게 하기, 접대 및 응대 예절

- 소개, 악수, 명함 수수 등 바르게 하기, 방문 및 접대시 유의할 점과 지켜야 할 점, 소개 실습

5. 언어 사용 예절

- 바른 언어사용으로 정서 순화, 존대어와 겸양어의 이해와 활용, 바람직한 인사말과 호칭(국어표준화법)

6.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과 자신의 모습 바로 보기

- 이미지의 이해, 타인의 눈을 통한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바로 보기, 밝은 표정과 미소 연출법, 바른 시선 교환법

7. 행동 예절(행동과학적 태도 개선)

- 앉고 서는 동작시 유의점과 아름다운 모습을 증진시키는 포인트 제시, 바르고 보기 좋은 제스처와 수정될 제스처,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 호감 가는 손동작, 승차예절

8. 테이블 매너(table manner)

- 식사와 음료에 관한 에티켓, 식탁(한식, 양식)에서의 주의사항, 식기물 사용방법과 다루는 방법 실습, 메뉴 보는 법과 주문하는 법, 서빙받을 때의 매너

9. 가정생활 예절

- 부모 자식 간의 예절(언행, 인사 등), 어른에 대한 섬김의 예절

10. 직장예절

① 지각을 했을 때

상사의 자리에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지각한 이유를 말씀드린다. 퇴근시엔 상사가 근무 중에 먼저 살짝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먼저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습니까?”등을 여쭙어 보고 돌아간다.

② 상사의 명령을 받을 때

항상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배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러한 말씀이십니까?”하고 확인한다. 잘 알아들었을 때 “정말 좋습니다. 대찬성입니다” 등 필요 이상의 말은 좋지 않으며 실천으로써 인정을 받도록 한다.

③ 꾸중을 들었을 때

사무상 실수로 꾸중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되며 “잘 못했습니다”하고, 만일 변명의 여지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미안합니다”하고 물러났다가 적당한 기회에 이유를 말씀드린다.

④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가 되더라도 직장 내에서는 특별히 자주 만나거나 친밀한 표현을 삼간다

⑤ 손님과 대화중 전화가 왔을 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한다. 공무가 아닌 전화는 “손님과 이야기 중이니 나중에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한다.

⑥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형편을 알 수 없으므로 “지금 바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다시 걸까요, 지금 말씀 드려도 좋습니까” 등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본다.

⑦ 이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

⑧ 끝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⑨ 가정의 문제를 직장까지 연결시키지 않도록 한다.

11. Global Etiquette

- 국제 매너(여행 예절, 항공기 예절, 호텔 예절), 대중(공중)예절(조선일보 에티켓 사례학습)

12. 경찰 예절 교육의 기본방향

- ①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경찰관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동일 수준의 예절을 몸에 익히도록 교육한다.
- ② 조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찰예절을 익히는데 기초가 되는 일반예절 먼저 교육한다.

중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직장 내 상사·부하·동료 등 대인관계에 대한 예절 교육
- ② 담배, 술, 인사, 미소, 대화, 식사 등 실내 예절 교육
- ③ 화장실,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예절 교육
- ④ 차량 운전을 비롯한 각종 질서 준수시 지켜야 할 예절 교육
- ⑤ 관혼상제 예절 교육

13.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14. 예절인으로서의 내 모습

- 관련 덕목 : 성실, 정직, 신뢰, 겸손, 협동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예절을 갖춘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이해한다.
2. 참가자들의 지지를 통해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3.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
4. 자신감, 자존심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5.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다.
6. 자기 주체성이 생기고 자신감을 키운다.
7.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
8.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한다.
9.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10. 참가자 상호간의 이해심을 증진시킨다.

◆ 준비

1. 카드(참가자수×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자신의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성 15가지를 카드에 한 가지씩 쓰도록 한다.(예 : 나는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는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5.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
6.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은 모두 말해 준다.

7. 장점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진행자도 발표자에 대한 느낌과 장점을 부각시켜 지지해 준다.
8. 왼쪽에 놓인 카드들을 왜 버리고 싶은지에 대해 말하게 한다.
9.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카드를 찢어 바구니에 버리도록 한다.
10. 진행자는 카드를 찢어 버릴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1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
- 배운 점 및 느낀 점
 - 다른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내용
 - 다른 참가자가 나에게 준 피드백 내용
-

15. 촛불 명상

⑦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의사소통법 이해하기
 2. 피드백(feedback) 주고받기
 3. ‘나’ 전달법(I - message)
 4. 감정 확인과 보고
 5. 경청하기
 6.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 AT)
 7. ‘3분 스피치’ 연습
 8. 내가 나에게
 9.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내 모습
 10. 촛불명상
-

1. 의사소통법 이해하기

- 관련덕목 : 협동, 성실, 정직, 절제 등
- 소요시간 : 2시간

◆ 목표

1.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규칙을 숙지한다.
3. 기본화법을 익힌다.
4. 대화의 기본자세를 안다.
5. 기본적인 대화 매너를 익힌다.
6. 신뢰받는 대화의 과정을 이해한다.
7. 완곡한 화법을 알고 시행한다.
8. 논쟁을 피하는 화법을 알고 시행한다.
9. 칭찬의 요령을 알고 시행한다.
10. 대화할 때 유의 사항을 알고 대화를 한다.

◆ 유의점

1. 되도록 강의는 물론 실습도 병행한다.

◆ 준비

1. 설명 자료
2. 실습계획서

◆ 진행

1. 진행자가 다음 내용을 강의한다.

-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간의 특징적 요소들 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소가 바로 언어이다. 인간의 언어는 인류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언어의 기능에 개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설득이라는 수사학적 관점과 언어사용자 간의 쌍방적인 관점에서 보는 의사소통적 관점,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와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중시하는 상호관계적 관점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사학적 관점에서의 언어는 인간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으며, 의사소통적 관점과 상호관계적 관점에서의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 사이에 언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다른 동물들의 집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언어이며, 이에 대한 타인의 수용이나 인정, 또는 부정과 불만 또한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언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상, 김재훈 외, 1998:81-84)

(1) 화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과의 관계

언어교육은 언어기능의 유창성을 획득하는 것으로써만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언어기능 획득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변화를 이룩하여 보다 건전한 인간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즉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은 인간 형성의 중요한 구실을 한다. 피히테(Fichte)의 말 “언어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다기보다는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와 같이 유발된 언어의미로 인하여 청자의 행동과 태도 및 그 품성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감화적 문제는 언어교육적인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그 가치는 언제나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사고와의 관계

언어는 사고와 상호의존적이다. 우선 언어 사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물론 특정 사고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 또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녔던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언어 사용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사람들은 일정한 아이디어를 보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그 아이디어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탬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즉 언어를 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사고의 성질,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특정사고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미래 사회와의 관계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계층의 개인에게 자유로운 언론이 허용되어 있다. 계급과 신분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의견이 존중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건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직 내에서의 화법의 중요성

사회조직 전반에 걸친 민주화에 발맞춰 경찰조직도 새로운 시대의 민주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경찰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임무에 따라 적절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임무나 여건으로 인해 사회와는 매우 다른 행동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 계급이나 지위에 의한 명령과 지시의 가요가 아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권위와 논리적 설득이야말로 경찰조직이 운영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화법기술이다.

(2)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① 화법의 원리와 중요성
- ② 화법의 계획 : 주제 및 목적, 자료수집 및 정리, 구성과 개요, 원고작성
- ③ 화법의 실제 : 답화(좌담, 면접, 상담, 대화), 토의, 회의진행, 브리핑.

(3) 경찰 업무와 화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찰은 시민과의 관계에서 일단 일방적으로 듣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문제를 듣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때 대화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이들의 불평을 듣고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② 화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화법에 따라 문제의 해결이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③ 경찰의 제1차적 목적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가장 강조되는 역할은 시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인과의 가장 기초적인 접촉방법인 대화술을 익힘으로써 경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 수용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중요성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매개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의사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하고, 영향을 주고,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①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이해할 때
- ② 듣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때
- ③ 말하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 의사 소통은 결함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이 너무 경계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 ④ 듣는 사람이 말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 ⑤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따라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이 대인관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규칙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쌍방적인 과정이다. 쌍방으로 통로를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참가자가 협동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규칙들로 의사소통을 원만한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① 공감하며 이해하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

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방의 준거체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남의 입장에 서고 남에게 자기 자신의 온정과 이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감정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남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남과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의 기쁨을 여러분 나름대로 볼 수 있고, 남의 슬픔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남과 동반자 의식'을 느낄 수 있으며, 그래서 남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내 입장이나 생각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상대방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 것같이,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체계를 가지고 본다.
- 상대방은 부모님에게 상급생에게 어른들에게 수없이 여기저기서 충고, 지시, 조언 등을 듣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상대방들은 매우 식상할 것이다. 설부른 충고나 지시를 하기 전에 따뜻한 이해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② 장애물을 의식하기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방해할지도 모르고 고정화된 장벽을 가능한 한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서로 산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자신의 마음을 개방한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되, 선입견적 판단을 갖고 의사소통과정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남도 여러분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자 할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 과거의 경험, 자기 자신의 사적인 가치, 신념, 흥미 등이

자신의 시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메시지를 고찰하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망(歪曲網)으로 때때로 말하지 않던 것들을 듣게 되어 의도했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피드백을 주고받기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남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미를 이해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 보라.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시각을 반사시켜 주거나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당신은 자신이하게 느낀 것을 말했나?”라고 말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이 이해한 것을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쪽 사람 모두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동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해석은 또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자기 자신의 말로 의역하고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능력을 계발하라.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자신에 대한 개방적 인식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노력하라.

④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이란 적극적인 책임의식이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다. 여러분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경우에 듣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귀’를 갖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시각을 피드백해 주어야 한다. 때때로 여러분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들과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벽에 대고 이야기를 나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남의 태도를 느낄 수도 있다. 곧 여러분은 상대방이 벽돌담을 대한 것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므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⑤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자세 갖기

긍정적 사고는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게 하고 누구하고나 신념이 있는 대화

를 나누게 하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 즉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큰 힘을 가지게 하며, 모든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모든 일을 부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며 불안, 초조,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어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며 누구에게도 신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람직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말이다.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행동,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바른 생각과 비판을 하고 누구하고나 밝은 표정과 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활이 거듭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의 형성을 가져오며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게 되며 누구하고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실체가 다르게 느껴질 때는 위선이요 허위요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되어 버리게 된다. 성격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느니 만큼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자신감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해 나갈 때 비로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자신 있고 즐거운 긍정적인 생활은 표정이 밝아져서 그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자신감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밝고 맑은 표정이나 태도와 언어는 정서적인 생활과도 직결이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지지 못하는 생활은 표정이나 태도가 언제나 불안스럽고 어둡고 어색하여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잃은 사람이라 볼 수 있다.

- 내 의견을 명료하고 솔직하게 전달한다.
-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다.
-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
- 내가 바라는 것을 전달할 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다. 즉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한다.

- 상대방의 말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은 짐작해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물어본다.
-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4) 기본 화법

말할 때의 화법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말소리가 분명해야 한다.
- ② 이야기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 ③ 이야기가 듣기 쉬워야 한다.
- ④ 이야기가 관심과 흥미를 끌어야 한다.
- ⑤ 이야기가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 ⑥ 내용과 표현이 단조롭지 않아야 한다.
- ⑦ 이야기가 때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 ⑧ 이야기가 상대방과 시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⑨ 이야기가 여운을 남겨야 한다.

5) 대화의 기본 자세

- 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 상대방의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준다.
 -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 실수 등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방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받아준다.
 - “야, 그것도 못하냐?”,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 원래 그런 놈 아냐” 등처럼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 ②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
 - 상대방에게 꾸준히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한다.
 -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 기분이 나빠도 안 그런 척, 항상 좋은 얼굴로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쁜 감정이 생겨도 이것을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길이기도 하다.

- 좋은 감정이나 칭찬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 ③ 상대방의 마음 이해하기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상대방의 말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노력한다.
 -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준다.
 -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경우라도 내 의견만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6) 기본적인 대화 매너(manner)

- 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
- ② 겸허한 자세로 공손한 말을 쓴다.
- ③ 유머(humor)스러운 표현을 한다.
- ④ 침이 튀지 않게 한다.
- ⑤ 시선의 방향은 상대방의 미간을 보면서 말한다.
- ⑥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 ⑦ 표준어와 일상용어를 사용한다.
- ⑧ 진실한 표현을 한다.
- ⑨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다.
- ⑩ 상대방이익을 고려한 표현을 한다.
- ⑪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말한다.
- ⑫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경청한다.
- ⑬ 되도록 말은 적게 한다.
- ⑭ 발음을 정확히 하고 속도를 조절해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

7) 신뢰받는 대화의 과정

- ① 제1단계 (처음 인사말)
 - 초면이면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교환한다.
- ② 제2단계 (친숙한 분위기)
 - 처음부터 본론을 말하지 말고 잠시 기분을 맞추기 위한 대화를 한다.
- ③ 제3단계 (목적이나 요지)
 -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대화의 목적과 요지를 말한다.

- ④ 제4단계 (피차의 신뢰감)
 - 다시 한번 상대를 너그럽게 만드는 단계를 거친다.
- ⑤ 제5단계 (계기를 만든다)
 - ‘그런데, 그래서····’등을 써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든다.
- ⑥ 제6단계 (본론에 들어간다)
 - 부탁, 설명, 사과 등 본론을 말한다.
- ⑦ 제7단계 (본격적인 대화)
 -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질문이나 응대를 받는다.
- ⑧ 제8단계 (최종적인 조정)
 - 부탁을 들어주거나 용서를 하도록 조정의 필요가 발생된다.
- ⑨ 제9단계 (확인)
 - 이야기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한다.
- ⑩ 제10단계 (감사하고 끝맺음)
 - 끝에 가서 뒷말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감사하면서 끝맺는 인사말을 한다.

8) 완곡한 화법

- ① 의뢰나 의문문으로 고쳐서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
 - “~하세요”보다는 “...해 주시겠습니까?”
- ②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 “...는 없습니다” 보다는 “...는 곧 들어옵니다”
- ③ 거절할 경우, “죄송합니다만”과 의뢰형을 사용하는 것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할인은 안 됩니다” 보다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

9) 논쟁을 피하는 화법

- ① 상대방 의견의 일부분과 일치시킨다.
 -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런데 ...”
- ② 일찍부터 상대방 생각과 동일했다는 행동을 보이고 이쪽 생각을 말한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과 맞습니다. 지금껏 선생님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

- ③ 대부분 다른 사람 의견이 그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해준다.
-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른 선생님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
- ④ 상대를 공격하기에 앞서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다.
- “잘 생각하셨습니다. 훌륭한 의견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셨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이겠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
- ⑤ 상대방의 불평에 대해 화난 얼굴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화법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화를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 ⑥ 상대방의 불평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수긍하여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가지고 더욱 자세히, 더욱 친절히,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쉽게 풀릴 수 있다.
- ⑦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표현을 쓴다. 무심코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기분을 언짢게 하는 표현을 삼간다.
-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등의 표현은 삼간다.

10) 칭찬의 요령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칭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어떤 논리정연한 말도 칭찬(찬사) 한마디를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 ① 대담 칭찬법 : 대담하게 칭찬하는 방법
- “선생님! 정말 멋있습시다” 등
- ② 단순 칭찬법 : 사실 그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칭찬하는 방법
-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눈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등
- ③ 호칭 변형 칭찬법 : 본래는 일정한 지위를 호칭하는 말을 칭찬용어로 사용하는 방법
- “박사님!”, “사장님!”(실제는 박사나 사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등
- ④ 감탄 칭찬법 : 적절한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칭찬하는 방법
- “어쩍!...” “역시!...” 등
- ⑤ 반문 칭찬법 :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칭찬하는 방법

- “아! 그렇습니까? 놀랐습니다” 등
- ⑥ 비유 칭찬법 : 유명인이나 또는 좋은 것에 비유하여 칭찬하는 방법
 - “아주머님의 눈은 마치 ‘나탈리 우드’같아요” 등
- ⑦ 간접 칭찬법 : 소문이나 남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칭찬하는 방법
 -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등
- ⑧ 소유물 칭찬법 : 소유물이나 어린 아이, 가족 관계를 대상으로 칭찬을 하는 방법
 -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따님이 정말 귀엽군요” 등

11) 대화할 때 유의 사항

- ① 시계를 자주 보는 버릇

대화 중 자꾸만 시계를 보면 “다음 스케줄이 바뀐 모양이다”,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을 중단시키므로 좋지 않다. 다음 약속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② 엉뚱한 곳을 보고 말하며 듣는 버릇

남이 이야기를 하는 데 시선을 다른데 두거나 얼굴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들으면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삼가야 할 일이다.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바라보고 관심을 주어야 하며, 때에 따라 응답을 하고, 표정이나 몸짓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 ③ 개인적인 약점을 들추어 비위를 거슬리는 말

가정형편, 학력, 실력, 경력 등으로 상대방을 형편없이 깎아 내리는 말버릇이나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약점을 들추어 비위를 건드리는 말은 삼가야 할 것이다.
- ④ 어떤 이유에서든 고객과 불쾌한 언동을 하거나 시비를 벌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응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 다소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시비는 저주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⑤ 거절할 때의 말씨는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정도를 넘어선 요구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잘못하면 다소 거칠거나 냉정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사무적이 되기 쉽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자꾸 우기는 것을 거절할 때 친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끝까지 잘 참고 친절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 잘 숙달되어야 진정 친절한 매너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⑥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신뢰와 호감 받는 의사전달이 중요하다.

대화는 상대적인 것이고 상호작용이므로 말을 능변이나 달변도 중요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으면 친절한 대화로서 충분하다.

⑦ 평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불평, 불만을 함부로 떠들지 말고, 독선적, 독단적, 경솔한 언행을 삼가며, 욕설, 독설, 험담을 삼간다. 남을 중상 모략하는 언동을 삼가고 아무 때나 자신을 한탄하는 말은 삼간다.

⑧ 대화 예절에 있어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다.

매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관심이나 무시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삼간다.

⑨ 겸손한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논쟁을 피하고 자신을 함부로 뽐내거나 자랑하지 말며,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매사 아는 체하는 것을 삼간다. 농담, 야유, 핀잔은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도전적 언사는 가급적 자제한다. 또한, 상대방에 일반적이고 강제적인 언사를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피한다. 남의 뒷공론을 함부로 떠벌리지 말고 상대방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지 말며, 남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속단하여 말하지 말고 남이 얘기하는 도중에 분별없이 차단하지 않는다.

⑩ 솔직하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되, 항상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매사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말한다.

12) 대민 화법교육의 기본방향

- ① 경찰에 대한 외부적 평가의 대상인 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표준어를 교육한다.
- ② 대민 친절 및 민경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쉽고 부드러운 국어 구사 능력을 교육한다.

- ③ 실무상 잘못 쓰고 있는 용어를 교정하도록 교육한다.
 - ④ 어려운 한자말이나 관료적인 용어를 쉽게 쓰도록 교육한다.
 - 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⑥ 공문서 작성시 맞춤법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도록 반복 연습한다.
-

2. 위의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부족했던 면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2. 피드백(feedback) 주고받기

- 관련 덕목 : 겸손, 상하급생 간의 마음터놓기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남에게 비쳐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
2. 바람직한 feedback의 방법을 학습한다.

◆ 유의점

1.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도록 한다.

◆ 준비

1. 설명자료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가깝게는 가족관계에서부터 학교나 기타 사회의 여러 집단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의 과정에서 우리들 서로가 자기에게 비쳐진 상대방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어서 우리들 각자의 자기 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쳐진 개인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 흔히 피드백(Feed-back)의 방법이 사용한다. 피드백이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곧 상호간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주고받는 것으로 성의있고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이나 참가자 전체는 호의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행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며 나아가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드백을 주고받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않을까 또는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게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데 그친다.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각적인 사실을 주어져야 하고 도덕적 혹은 가치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 해줄 때 효과적이다.
- ③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신뢰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때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④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 ⑤ 한 사람에게서보다는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피드백이 더욱 의미가 있다.
- ⑥ 피드백을 받을 때는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감사하게 받아서 시험해 보려는 태도로 임하여야 하며 화를 내거나 공격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 성공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서로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 참가자 중에 1명을 뽑는다.
3. 그 사람을 잠시 동안 밖으로 나가 있게 한다.
4. 그 사람 모르게 다시 1명을 더 뽑는다.
5. 밖에 나가 있던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
6. 다른 참가자가 두 번째 뽑힌 사람의 행동 특성을 열거한다.
7. 먼저 뽑힌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 맞춘다.
8.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게 한다.
9. 다음에는 역할을 바꾸어 실시해 본다.

3. '나' 전달법(I-message)

- 관련 덕목 : 협동, 예절, 겸손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명확하게 부담이나 상처 없이 전달한다.
2.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어투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

◆ 유의점

1.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준비

1. 설명자료

2. 필기도구

◆ 진행

1. 진행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의 언행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아주 불쾌한 감정을 발생시킬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남에 의해 나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감정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이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 남의 행동, 남의 행동의 변화에 대한 바람 등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A. 당신이 했을(할) 때
- B. 나는 했(한)다.
- C. 왜냐하면 당신의 그 행동(말)은 나의 감정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D. 나는 당신이 하게 행동(말)하기를 바란다.

이 때, A는 남이 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의 감정을 촉발한 원인을 진술한 것이다. B는 내가 받은 영향을 진술한 것이다. C는 남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강도를 표시한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D와 같이 남의 행동의 변화에 대한 바람, 욕구, 제안들을 덧붙일 수도 있다.

이런 ‘나’ 전달법(I-message)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하면 효과적이다.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해서 전달합니다. ‘나’ 중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덜 위협적이다.
-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 상대방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솔직하게 말한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대답할 선택할 여지가 있다.

- ‘지금-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이다.
- 내 마음을 전달한 다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나’ 전달법은 서로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나’ 전달법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너’ 전달법(you-message)은 어떤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총알택시 기사를 보고 “여보, 기사! 천천히 가자”고 소리친 것은 핑계를 기사에게 돌린 ‘너’ 전달법이고, “아저씨, 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한 것은 내 입장을 설명한 ‘나’ 전달법이다. 기본적으로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호감을 주는 화법이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모두 존중해주는 대화의 방법이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너’ 전달법에 익숙해져 있음을 재발견해 보도록 이야기한다. 사건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나의 마음이 평온을 잃고 불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다.

‘나’ 전달법은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이 남에게 이용당하도록 방치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가령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 오늘 밤 영화구경 가기 싫지? 그러니까 집이나 지켜!” 또는 “너 저기 쓰레기통을 치워 주겠어?” 등과 같이 말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을 경우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거리낌없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려 들 것이다. 자신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요구에 대해 ‘긍정’, ‘부정’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는 분명한 주장이 필요하다. 또 여러분이 남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공격적인 경우가 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너무 경솔해!” 또는 “안돼, 나는 당신의 지겨운 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피곤해! 이제는 당신의 힘으로 해봐!”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공격적인 메시지는 종종 싸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주장을 담은 ‘나’ 전달법은 감정과 행동을 밝혀 줄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의 변화를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단순한 ‘나’ 전달법이 요청되고 어느 경우에 주장을 담은 ‘나’ 전달법이 요청되는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

룻밤만 지나면 상대방에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더 협상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명료화하고,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밖에 ‘Do-message’ 화법은 어떤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그 사람의 행동과정을 잘 조사하여 설명하고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을 구하는 것이고, ‘Be-message’ 화법은 잘못에 대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단정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화법이다. 예를 들면, 연속으로 지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잘못이다.” “당신은 지각 대장이다.”라고 단정하면 Be-message 화법이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며 연속 지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은 Do-message 화법이다. Do-message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 2명씩 팀을 짜서 연습해 본다.

- 친구가 돈을 5만원 빌려가서는 약속한 날에 갚지 않았다.
- 후배가 청소 시간에 유리창을 깨뜨렸다.
- 이성친구가 자기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3.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4.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듣는 과정에서 깊이 깨달았거나 느꼈던 감정들을 서로 발표하고 토의한다.
5. 이제까지 자신의 대화 방법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나를 ‘나’ 전달법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두 가지씩 발표하게 한다.
6. ‘나’ 전달법을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실생활에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발표하게 한다.

4. 감정 확인과 보고

- 관련 덕목 : 절제, 협동, 성실, 정직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때그때 확인하여 말로 보고하는 기술을 익힌다.
2.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해 파괴적 행동이나 정신 신체적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3. 자신의 정서 상태를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로 보고해서 알려 줄 때, 상대방은 스스로의 언행은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준비

1. 설명 자료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

인간은 주관적인 감정의 존재라고 한다. 감정이란 객관적인 논리가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따르는 심적 상태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그것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에나 인간관계의 발전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격에 따라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 오히려 남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낸다. 만약

안으로 작용할 때에는 편두통, 고혈압, 위궤양 등의 정신 또는 신체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원인을 남에게 돌려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행동을 고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투로 “너는 나쁜 놈!”이라고 한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고치도록 강요하는 투로 “너의 나쁜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네 행동을 고쳐!”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기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월렌(Wallen)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① 말로 보고하기 진술하기 ② 간접적인 표현 또는 판단하기 ③ 직접적인 표현인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내기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감정이 일어난 그 때 과격한 행동, 판단 및 비난 또는 강요함이 없이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파괴적 행동이나 정신 신체적 병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 상태를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로 보고해서 알려 줄 때 상대방은 스스로의 언행은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도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기쁨, 즐거움, 고마움 등 나의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누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안다.
- 긍정적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결정한다.
 - 웃는다, 소리를 지른다, 박수를 친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 등
- 결정한 방법대로 고마움을 표현한다.
- 그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알아본다.

상대방에게 실망, 분노, 슬픔, 수치 등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전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분명히 해본다.
 - 짜증난다, 답답하다, 외롭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등
- 어째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 상대방이 이기적이다 : 자기 물건에 절대 손을 못 대게 한다.
- 상대방이 무례하다. 나를 무시한다 :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 화를 잠깐 멈추어 본다.
 - 심호흡을 한다, 잠시 자리를 피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명상을 한다, 혼잣말을 해본다.
-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본다.
 - 극단적 생각, 남의 마음을 읽는 것, 미리 판단하는 것 등을 수정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 행동을 변화시킨다.
 - 나의 행동 변화시키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키기, 상대방 입장 들어보기

실제로 우리는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정확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의 학습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자기의 감정을 일어나는 그 순간 정확하게 확인할 뿐 아니라 억압하거나 부인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말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습 활동을 해보자.

2. 7-8명이 한 팀이 되어 둘러앉게 한다.
3. 지난 며칠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회로 애락의 감정을 2-3분 정도 묵상해 보게 한다.
4.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신의 경험을 감정의 차원에서 줄거리만 간단히 이야기하게 한다. 가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길게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분 정도 짧게 줄거리만 이야기하게 한다.
5. 모든 참가자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가운데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경험 하나를 선정하게 한다. 선정은 가능한 한 전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기의 경험이 선정된 참가자는 자세하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만일 다른 참가자 중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질문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말에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의 입장이 되어 경험에 동참하는 기분으로 공감하게 한다. 경청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도 유의하게 한다.

7. 참가자들은 “내 생각으로는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느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와 같이 질문해 봄으로써 자신의 공감능력을 확인해 보게 한다.

발표자로 하여금 그 질문에 답하게 한다. 혹시 맞지 않으면 수정해도 좋다.

8. 발표자는 자신의 발표가 끝났으면 자신이 발표할 동안의 감정 및 참가자들로부터의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공감적 반응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발표하게 한다.
9. 시간이 허용하면 두 번째 사례를 선정해 같은 요령으로 진행할 수 있다.
10. 2명씩 짝을 지어 서로 마주 보고 앉게 한다.
11. 말을 하지 않고 1분 정도 서로 관찰하게 한다.
12. 그 동안에 각자는 자신의 감정을 특별히 유의하여 반응하게 한다.
13. 1분이 지난 후 각자는 상대방에게 그 1분 동안 경험한 감정을 발표하게 한다.
14. 10여 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 둘러앉게 한다.
15. 두 사람씩 가운데로 나와서 팔씨름이나 엄지손가락 씨름(서로 악수를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누르는 게임) 등을 하게 한다.
16. 모든 참가자가 빠짐없이 게임을 한 후 먼저 한 짝부터 감정을 말로 발표하게 한다.
17. 사람 중에서 먼저 상대방을 택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전할 때, 게임할 때, 게임이 끝난 후에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를 발표하게 한다.
18.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받았을 때, 게임할 때, 하고 난 후 각각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19. 종료 20여분 전에 전체가 모여 앉아 오늘의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각자 깨달은 점을 간단히 한 마디씩 하게 한 뒤에 마친다.

5. 경청하기

- 관련 덕목 : 예절, 절제, 협동, 포용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방법을 체험한다.
3.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개선시킨다.

◆ 유의점

1. 딱정 피우기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연기해야 함을 강조한다.

◆ 준비

1. 설명 자료

◆ 진행

1. 진행자가 경청에 대한 다음 자료를 설명해준다.

1) 경청의 방해 요인

바람직한 인간 관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 그가 전달하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몸짓, 표정, 그리고 음성의 섬세한 변화를 간파하고 저변에 깔려 있는 메시지를 감지하여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육감으로 직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은 자신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자기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① 다른 사람의 말의 내용을 진정으로 경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
- ②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기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 ③ 자신의 역할이나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우
- ④ 자신을 타인의 위치에 두는 공감적인 태도 없이 상대를 편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

2) 경청의 효과

① 자기 성장에 도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물론 자신에게도 잘 경청할 수 있게 되어 우리들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만약, 우리의 학습진단이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간에 깊이 있는 경청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② ‘말 잘 듣는다’의 의미

우리 주변을 보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보다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려 하지 않고 의심과 불평만 한다. 남의 이야기는 대충 듣고 제 주장만을 하려고 한다. 웬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말 잘 듣는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저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맹종하는 것을 말 잘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좇대도 없이 남의 의견에 좌지우지되거나 남의 유혹에 잘 넘어 가는 사람을 말 잘 듣는 사람 또는 귀가 엷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말 잘 듣는 아이’란 말은 자연스러워도 ‘말 잘 듣는 어른’이란 말은 어색하다. ‘말 잘 듣는 부하’라는 말은 성립되어도 ‘말 잘 듣는 상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언제나 말은 높고 힘센 쪽에서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언제나 낮고 약한 쪽이 도맡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보다 자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남에게 명령하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잘 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은 듣기만 하고 다른 한 쪽은 말하기만 해서, 양쪽 사이에 높은 대화의 장벽이 생기기 쉽다. 어느 쪽에 있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쌍방이 오해나 불만 없이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말 잘 듣는 학생, 말 잘 듣는 아내, 말 잘 듣는 직원, 말 잘 듣는 국민, 말 잘 듣는 유권자’라는 말이 자연스럽듯이, ‘말

잘 듣는 선생님, 말 잘 듣는 남편, 말 잘 듣는 사장, 말 잘 듣는 권력자,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 사회는 막힌 것이 뚫리고 영킨 것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④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경찰

우리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지팡이, 파수꾼, 이웃, 친구, 보호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봉건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캐릭터인 '포돌이'의 큰 귀는 국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들겠다는 뜻이며, 부릅뜬 커다란 눈은 단 한 건의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찰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말 잘 듣는 경찰은 자신의 말보다 국민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경찰이다.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일까? 그것은 남의 말은 두 배로 듣고 나의 말은 그것의 반만 하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귀가 입보다 위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마 상대방의 말은 높게 받들고 내 말은 낮추어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사제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이성간의 애정, 이 모든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그리고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공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 잘 듣는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다. 우리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저 제 말만 지껄이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친근감이 가지 않는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다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호 신뢰하게 되고 친밀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은 국민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말 잘 듣는 경찰은 국민과 눈맞춤을 하고 국민의 말에 맞장구쳐 가면서 귀담아 듣는 경찰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와 기분을 이해하면서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다. 맞장구는 대화를 부드럽게 하는 윤회유구실을 한다. 맞장구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을 지어서 공감할 수도 있다.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열의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게 된다. 이야기 도중에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

거나 말허리를 꺾거나 건성으로 듣지 않고 참을성 있게 들어야 말 잘 듣는 경찰이 될 수 있다.

말 잘 듣는 경찰은 한 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듣는 경찰이다. 귀는 왜 머리 양쪽에 가지런히 달려 있는가? 이는 양쪽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눈에는 눈꺼풀이 있어 마음대로 뜨고 감을 수 있는데, 왜 귀는 줄창 열려 있는 것일까? 아마 무슨 이야기든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지 모른다.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불쾌한 말, 달콤한 말 가리지 말고 골고루 다 들으라는 뜻이다. 칭찬과 비난, 찬성과 반대 모두 다 들어야 한다. 큰소리에만 현혹되지 말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피해자의 말도 충분히 듣고 가해자의 말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잠시 생각해 보자. 그 동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의 말은 적당히 듣지 않았는가? 국민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진정 국민의 말을 경청해 본 적이 있었는가? 달콤한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쓰디쓴 충고는 마다하지 않았는가? 최근 베스트셀러인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도 '남의 말을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공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체력단련에 힘쓰는 만큼 듣기 훈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듣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이다. (이상, 박경현, 리더의 화법, 2000, 참조)

3) 호감 받는 듣기 요령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화에 있어서 말은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7 : 3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대화요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평온한 눈빛·표정과 바르고 공손한 자세에서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때 적절한 맞장구를 치면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다.

4) 남의 말을 잘 듣는 원칙

- ① 침묵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 ② 상대방의 표정과 동작을 주시할 것
- ③ 자신의 감각을 총동원하여 들을 것

- ④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 것
- ⑤ 적절한 때에 맞장구를 칠 것
- ⑥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
- ⑦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중단시키지 말 것
- ⑧ 대화에 흥미를 가질 것
- ⑨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것
- ⑩ 상대방의 거울이 될 것

5) 공감적 듣기의 요령

- ① 제1단계 (내용반복) :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단순히 흉내내듯이 말로만 반복한다.
- ② 제2단계 (내용 재정리) :
상대방이 말한 의미를 자신의 말로 요약한다. 1단계보다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 ③ 제3단계 (감정의 파악) :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파악한다. 감정을 나타내 주는 말의 이면에 있는 몸짓이나 어조를 파악한다
- ④ 제4단계 (내용재정리/감정의 파악) :
자신의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다. 2단계와 3단계를 결합하여 내면을 파악한다.
- ⑤ 제5단계 (공감적 표현) :
가장 적절한 때를 골라서 감정을 공유한다. 공감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지를 구별해낸다.

6) 맞장구치는 요령

- ①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적당한 때를 맞출 것
- ② 맞장구는 짧게 감정을 넣을 것
- 아! 그래요? 그래서요? 저런! 역시! . . .
- ③ 맞장구를 멈출 때를 알 것
- ④ 맞장구는 지혜롭게 할 것
- ⑤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긍정의 말로만 맞장구를 칠 것

7) 들을 때 유의 사항

- ① 몸을 흔들거나 손과 발로 엉뚱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 ②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 들지 말고 의문이 있으면 말이 끝난 후에 묻는다.
- ③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때는 정중하게 말한 사람의 양해를 구한 후에 말한다.
- ④ 말을 듣는 중에 중요하거나 의문 나는 점은 메모한다.
- ⑤ 대화 중에 자리를 뜰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한다.

8) 들을 때 몸의 사용법(SOLER)

- ①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본다.(squarely)
- ②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지 말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open)
- ③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lean)
- ④ 가끔씩 눈을 마주친다. 상대방을 쏘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문으로 본다.(eye contact)
- 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relax)

2. 2명씩 짝을 짓게 한다.

3. 다음 A, B, C의 방식을 진행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실습한다.

- A. 서로 등을 대고 앉아서,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들도록 열심히 1-2분간 이야기한다. 이 때 듣는 사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딱칭 피우기 역할을 하며 한 사람이 끝나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하게 한다.
- B. 같은 방향을 향해, 옆으로 앉아서 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말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는 듯, 지루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칭을 피우고, 끝나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하게 한다.
- C. 무릎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 보고,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시선을 맞추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며 듣게 한다. 한 사람이 끝나면 역할을 바꾸어 하게 한다.

4. 각 방식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5.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 느꼈던 점 등을 발표하게 한다.
6. 나의 언어 습관과 경청 태도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
7. 나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 습관의 예를 들고 자신의 결심을 참가자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1. 2명씩 짝을 짓게 한다.
2. 먼저 경청하지 않는 역할 놀이를 하게 한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임의로 만들어 열심히 하도록 한다. 이 때 이야기를 듣는 쪽의 사람은 가능하면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체한다. 예를 들어 시계를 들여다본다든지, 걸어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책을 펴서 읽는다든지 한다.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은 말을 계속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중단하게 될 것이다. 성급한 사람이면 상대방을 억지로 끌어당겨 자기 말을 듣게 할 것이다.

3. 경청하는 역할 놀이를 하게 한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에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한다. 이야기를 듣는 쪽은 경청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힘쓴다. 예컨대 부드럽게 서로 마주보고 재미있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그래요', '그렇구나' 등과 같이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는 서로가 역할을 바꾸어서 경험하게 한다.

4. 3명씩 가능하면 잘 모르는 사람끼리 팀을 이룬다. 그 중 두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상호간에 논쟁을 하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관찰자가 되게 한다. 주제는 ‘조혼이 좋으나 만혼이 좋으나, 명예나 돈이나’ 등과 같이 찬부가 분명한 것으로 한다. 주제에 대해 논쟁하는 두 사람은 다음의 규칙을 따르게 하고 관찰자는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규칙을 어겼을 때는 개입해서 교정해 준다.

- 규칙 1 :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그의 말 내용을 그가 만족할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확인한다.
- 규칙 2 : 자기가 하고 싶은 반응을 하게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하게 한다.

5. 이와 같은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 시간이 있으면 7-8명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방법으로 집단토의를 하게 한다. 이때 볼펜이나 손수건 등을 마이크로 삼아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려면 마이크를 받아 쥐고 먼저 앞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확인한 후에 자기 말을 하게 한다. 이 경우에도 한 사람을 감독으로 지정해 누구든지 만족스러운 요약을 하기 전에 자기 말을 하면 즉각 개입해 수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활동이 끝나면 전체가 다 모여서 오늘의 학습 경험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한다.
7. 마치고 15분전쯤부터 각자로 하여금 그 날의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깨달은 점, 배운 점 등에 대해 간단히 한마디씩 소감을 발표하게 한 후 요약하고 마친다.

6.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 AT)

- 관련 덕목 : 협동, 겸손, 예절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자기 주장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2. 자기 주장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도록 한다.

◆ 유의점

1. 기탄 없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나와 너'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자기 주장을 하게 한다.

◆ 준비

1. 토론장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장 훈련에 대해 설명해 준다.

자기주장이란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 모두를 표현하므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학습된 의사전달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장 훈련은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신념과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도와주며,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의 방법들을 배우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은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권리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말하기와 쓰기)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혜와 덕성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려면,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학생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사에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고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대해서 혼자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① 학생들에게 어떤 갈등 상황에 관계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파악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준다.
- ② 소집단 훈련을 통해 토론법, 자기의 표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마련해 준다.
- ③ 자기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읽는 법, 서평 쓰는 법 등도 알도록 한다.

2. 다음 제목으로 토론을 하게 한다.

- 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게 대립하는가? 이 때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취하게 될 경우 갈등 상황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 ② 가상적인 갈등 상황을 생각해내고, 그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 타인의 권리를 명세(明細)한 다음,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 ③ 개인이 일상생활 중 어떤 덕목을 지닐 때 산업사회에서의 여러 갈등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가?

7. '3분 스피치' 연습

- 관련 덕목 : 겸손, 예절, 성실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를 기른다.

3. 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4.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유의점

1.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경청하게 한다.
2.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발표할 기회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준비

1. 연설 제목을 적은 예쁜 카드 30장 이상
2. 시간 종료 알림 벨
3. 청해(聽解) 노트 A4용지
4. 연설 제목의 예

-
- ① 공통 주제(각 학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주제)
 - 경찰대학이 정말 다닐 만한 곳인 이유.
 - 경찰대학생의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신의 견해
 - 경찰대학생 선후배 간 관계가 좀더 친밀해지기 위한 방안
 - ② 1·2학년 주제(학교생활 관련)
 - 경찰대학 생활을 통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
 - 내가 만일 총학생장이 된다면 중점적 추진할 사항
 - 내가 지금 가장 못 마땅하거나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 경찰대학 생활이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한 마디
 - 친구들이 왜 경찰대학에 다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나 모교방문시 후배들을 위해 우리 대학 홍보
 - F학점을 받아 학사경고 위기에 처한 경우 교수님께 대한 사정
 - 경찰대학 여학생(남학생)중에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어 프로포즈 방법

③ 3·4학년 주제(일선 경찰생활 관련)

- 전경대 소대장으로 처음 부임한 뒤 소대원들에게 취임소감
- 시위진압중 대학생에게 소대원 전체가 무장 해제당했을 경우 소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훈 교육 내용
-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파출소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된 채 자신에게 대든 경우 다음 날 조회때 직원에게 혼시
- 파출소장으로 부임하여 직원들에게 하는 첫 인사말
- 직원이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파출소장으로 부임하여 협력단체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
- 살인범으로 확신되는 용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반장으로서 한 마디

◆ 진행

1. 각 학년별로 30명씩 1개 팀으로 구성한다.
2. 각 팀별로 학생중 진행자 1명, 서기 1명을 선정하여 진행과 기록 등을 하게 한다.
3. 발표는 30명 전원이 하되 3분 동안 연설하도록 한다.
4. 앞으로 한 사람을 나오게 한 다음 연설제목 카드 하나를 뽑게 한다.
5. 연설 내용은 논리성이 없어도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6. 연설 시간은 시계를 보지 않고 스스로 측정하도록 한다.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행자가 벨을 울린다.
7. 한 사람의 연설이 끝나면 먼저 연설자 스스로 자신의 발표내용, 준비과정, 자신의 발표태도, 어려웠던 점, 부담스러웠던 점, 청중들의 반응 등에 대해 자평을 하도록 한다.
8. 다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설자에게 배울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말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전원이 연설하도록 한다.
9. 청중 모두는 청해 노트에 메모하도록 한다.
10. 진행자는 임의로 참가자 중 일부를 지명해 연설을 듣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 새

롭게 발견한 점 등을 발표하게 한다.

11. 진행자는 연설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총평을 한다.

8.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 16절지
-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9.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내 모습

- 관련 덕목 : 협동, 겸손, 관용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 카드 : 인원수× 15
-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10. 촛불 명상

⑧ 친절 서비스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친절에 대한 안내
 2. 스마일(smile)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실습
 3. 전화 바르게 걸고 받기
 4. 학교 방문자 친절 안내
 5. 1일 1소(笑) 운동
 6. ‘친절한 경찰’이 되려면
 7. 내가 나에게

- 8. 친절한 내 모습
- 9. 촛불 명상

1. 친절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친절의 의미를 깨닫는다.
2. 친절한 말하기의 기본 원칙을 익힌다.
3. 친교적 대화의 중요성을 안다.

◆ 유의점

1. 강의로만 그치지 않는다.
2.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친절 경연 대회를 펼쳐 본다.

◆ 준비

1. 유인물
2. 파워 포인트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1) 친절의 의미

‘친절’이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것’을 말한다. ‘정답다’는 ‘정이 있어 따뜻하다’는 뜻이다. ‘고분고분하다’는 ‘공손하고 부드럽다’는 의미

다. ‘공손하다’는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절한 경찰’이란 ‘국민을 따뜻한 정으로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하는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 친절은 받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친절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그 바탕이 된다. 그 마음은 바로 봉사 정신이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이 되어 보아야 한다. 흔히 친절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되기 쉽다. 친절행위는 작거나 크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게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베푸는 쪽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한없이 고맙고 뜻밖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베푸는 수많은 작은 친절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말 기적이 될 수도 있다.

② 친절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친절은 의무를 수행하듯이 베푸는거나 죄책감에서 억지로 끌어낸다거나 두려움에서 뺄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무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따분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도가 지나친 친절이나 뻔히 저의가 보이는 친절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약하게 한다. 친절은 베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무리 없이 하면 되는 것이다.

③ 친절은 베푸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쓰기’에 달려 있다.

친절은 남을 향한 순수한 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친절을 실천하는 데는 특별한 몸짓이 필요하지 않다. 친절을 베푸는 데는 돈 한 푼도 필요없다. 그저 날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④ 친절은 습관으로 굳어져야 참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꾸준히 실천할 때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 친절을 베풀고자 마음먹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실천하여야 몸에 익는다. 대개 처음에는 친절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다가도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격무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짜증이나 신경질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꼭 참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한번의 불친절로 이제까지의 친절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절은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잘 맞는 옷처럼 자기 몸에 배어야 한다.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

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친절은 아직 멀었다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갖추어야 발전할 여지가 있다. 상대방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다. 친절은 오늘은 만족할 수 있어도 내일은 그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려는 생각은 친절한 말로 나타난다. 친절한 말은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친절한 행동은 친절한 습관으로 발전한다. 친절한 습관은 친절한 성격으로 굳어진다.

⑤ 친절은 말이나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가장 손쉽게 베풀 수 있는 선물이다. 말에서 나오는 친절은 신뢰를 낳고 생각에서 나오는 친절은 심오함을 낳으며 느낌에서 오는 친절은 사랑을 낳는다. 그러나 친절은 침묵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친절은 오히려 ‘말없는 친절’, ‘요란하지 않은 친절’이다. 친절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심금을 울린다.

⑥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저마다 마음에는 밝은 태양을 떠올리고 얼굴에는 맑은 미소를 띠고 입술로는 마스한 말을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누구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할까 하는 밝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친절은 맹인도 볼 수 있고 병어리도 말할 수 있게 하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언어”라고 했다.

⑦ 친절은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친절은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어떠한 부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남에게 한 가지 친절한 일을 해주고 은근히 채권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보상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좋지 않다. 또 그러한 친절은 상품과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친절은 어디까지나 순수해야 한다. 그 속에 아무런 목적도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친절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호뭇하게 해준다면 그 호뭇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가끔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온다. 친절은 마음의 흐름이다. 억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친절을 실천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지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친절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보답이나 인정을 바라는가? 스스로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아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⑧ 친절을 베푸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남에게 친절해서는 어리석거나 음흉한 사람이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 왜냐 하면 친절한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는 까닭이다. 친절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베풀으로써 그들도 모두 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깔보아서는 친절이 생기기 어렵다. 친절은 이러한 마음속의 잡초를 뽑아내야 자랄 수 있는 것이다.

⑨ 친절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심 많고 친절하면서 더없이 사랑해야 할 내 부모, 내 자식, 내 부하, 내 상사, 내 조직에게는 친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친절할 때 이웃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스스로를 보살피어야만 남들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친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불친절해도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도 하게 되면, 진정한 친절은 빛을 잃는다.

⑩ 친절은 변화의 촉매제이다.

친절을 베풀면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을 지니게 된다. 남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인품을 닦는 길이다. 친절행위는 베푸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시킨다. 친절은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대한 윤리적인 힘이다. 친절은 인생이라는 기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데 쓰이는 최소한의 예의다. 친절은 사회의 햇볕이며 그 속에서 미덕이 자란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연못 한가운데 던진 조약돌처럼 긍정적인 변화의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⑪ 친절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기만 할 뿐 해악을 끼치는 일은 없다.

친절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언어다. 친절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통로이다. 친절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경계선을 건너뛴다. 친절이 많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서적 분위기가 바뀐다.

2) 친절한 말하기의 기본 원칙

말을 할 때에는 성의를 담은 마음에서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고 등을 편 똑바른 자세에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상냥하며 정확한 어조로, 알기 쉽고 친절한 말씨로, 목소리는 한 톤 올려서 적당한 크기와 속도로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이다. 능변가란 말하기, 듣기의 일정법칙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데, 이야기를 잘 하려면 아이디어 정리, 상황에 맞는 방법의 활용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흥미를 안겨주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하고, 말하기 속도에 변화를 주어 상대방이 싫증나지 않도록 하며, 대화를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여 이야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 변화를 주면서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널리 통용되는 말을 사용하고 적절한 제스처의 활용을 통해 듣는 이에게 생각의 깊이와 강한 인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3) 친교적 대화의 습관화

말은 항상 어떤 뚜렷한 뜻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단한 말을 나눔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자아내게 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목적의 대화를 친교적 대화라고 한다.

우리는 대인 관계에서 우호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흔히 날씨 이야기, 인사말, 농담, 재치 있는 말, 달콤하나 별뜻이 없는 말 등을 주고받는다. 가령,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은 정말 안녕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감(情感)을 표시하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한 첫 인상을 물을 때면 으레 ‘wonderful!’이라고 외교적인 말로 답한다.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고는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지요.”하는 주인의 겸사(謙辭)도 친교적인 말이다. 이런 말들은 대화의 공간을 메우고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대화에 윤택한 구실을 한다. 이처럼 말은 그 내용 자체보다 단순히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친교적인 말을 주고받는 일은 의사 소통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쓰다듬어 사회 집단의 응집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리더는 공적인 생활에서 침묵이나 통명스러움을 잠 채우고 단순히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말이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우호적인 인사말을 함

으로써 서로의 두터운 정리(情理)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말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응집시키는 것이 되며, 서로 ‘쓰다듬기(stroking)’하는 우의적 관계를 맺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 이런 쓰다듬기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대화 쌍방간에 불안감이나 적대감 등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면, 인사·소개·위로·격려·축하·칭찬·비판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말을 할 줄 알아야 인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소개나 안내, 경조사 인사말 등은 말을 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며 청자의 기분과 감정 상태, 지식 수준과 처한 입장, 청자들의 관계 등에 매우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청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고려해야만 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역효과가 낳을 수도 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고리이고 윤희유라 할 수 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밝은 인사 한 마디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대체로 외국인들은 낯선 사람끼리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간단하고 밝은 인사를 주고받는다. 우리도 마주치는 사람끼리 밝은 표정으로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사말을 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인사말은 말의 뜻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다. 일본의 유치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의 하나가 ‘오아시스’라고 한다. 오아시스는 기본 예절에 대한 핵심 어구이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아침 인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고맙습니다), “시쓰레 시마스”(실례합니다), “스미마셴”(미안합니다)의 머리글자를 따서 오아시스라고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인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몸에 지니게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인사말은 인사를 하는 사람과 인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 시간, 상황, 장소 등에 따라 적절한 말이 있다.

4) 언어 예절

말하기와 듣기는 인격의 발로이며, 결국 대화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교류라는 데에 대화 예절(언어 예절)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응대는 결국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게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친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늠하는 척도로서 친절한 대화 예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화 예절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화는 말 자체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말의 어조와 음성·억양 그리고 몸짓·표정·태도 및 자세 등 언어 외적인 요인들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상, 박경현, 리더의 화법, 2000, 삼영사 참조)

2. 위의 설명을 듣고 친절면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2. 스마일(smile)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실습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각 기관에서 강조하는 친절 서비스의 실태를 들어 본다.
2. 스마일의 중요성을 안다.

◆ 유의점

1. 강연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습도 한다.

◆ 준비

1. 강연장 준비(강사와 사전 협조)

◆ 진행

1.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다.
2. 전문가의 지도 아래 ‘친절 서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계획은 별도 수립, 공무원 또는 은행원 친절경연대회 참조)

3. 전화 바르게 걸고 받기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바람직한 전화 걸고 받는 요령을 터득한다.

◆ 유의점

1. 강의로 그치지 말고 실습을 병행한다.

◆ 준비

1. 유인물
2.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 진행

1. 다음 내용을 강의한다.

1) 전화 예절의 중요성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전화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다. 이미 우리 몸의 일부가 된 듯이 전화는 우리 생활 깊숙이 차지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수십 번씩 접해야 하는 문명의 이기(利器)가 쓰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어떤 때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두통거리일 수도 있고 고마운 전령사(傳令使)일 수도 있다. 물론 사용자가 얼마나 전화 예절에 충실하느냐에 다른 갈림길이기도 하다. 어떤 전화를 받고 또 어떻게 전화에 응대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전화, 조금만 신경 쓰면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전화 예절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전화 예절이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것은 얼굴을 맞대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언제 누구와 벌어질지 모르는 ‘무제한적인

상황'에다가, 일단 문제가 생겼다 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원거리(遠距離)의 익명성(匿名性)'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전화 예절이다.

전화 예절은 사실 복잡할 것이 없다. 전화를 건 사람과 받은 사람의 신원을 서로 정확히 밝히고 용건을 또박또박 정중하게 전한다면 오해를 살 일도, 불쾌한 일이 일어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전화 사용의 첫걸음은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있잖아요', '저' 등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복잡한 용건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하고 확인을 해 둔다. 긴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다. 정중한 말씨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을 확인한 후 갑자기 정중해지는 것은 큰 실례이다. 상대방이 불쾌한 태도로 나오더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상대방을 가라앉히거나 적당히 전화를 끊도록 한다. 반말투로 말하거나 경칭(敬稱)을 함부로 생략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간결하고 친절 한 한 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상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말로만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 전화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말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전화는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다. 수많은 일들이 전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화상의 대화는 송화자와 수화자가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점들이 있다.

- (1)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전화 건 목적이나 전화 받을 사람과의 관계를 밝힌다. 그러나 회사나 기관의 경우에는 받는 쪽에서 먼저 회사명이나 기관명을 말하여 전화를 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
- (2) 가능하면 밝고 명랑한 음성으로 말한다.
- (3)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시간을 가급적 피한다.
- (4) 통화자 중 윗사람이 먼저 전화를 끊도록 한다.
- (5) 통화는 간단히 한다.
- (6) 남에게 전달할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 뒤 확인을 하고, 전달을 부탁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 둔다. 또한, 널리 보급된 자동 응답기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용건은 물론 전화를 건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남기도록 한다.
- (7) 전화를 거는 사람은 수화기를 들기에 앞서 상대방의 전화 번호와 이름을 확인한다.
- (8) 상대방이 나오면 확인하고 자기의 이름을 밝힌다.

- (9) 용건은 미리 요약해 두었다가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 (10) 말할 때에는 빠르게 말하지 말고, 일반 대화에서처럼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명료한 발음으로 말한다. 전화 대화에서는 짧은 시간에 용건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하기 쉬운데, 너무 빨리 말하면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속삭이듯 말하면 상대방이 꼭 들어야 할 말도 놓치게 된다.
- (11) 거친 말, 속된 말 또는 일반화되지 않은 외국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인품을 낮추는 일이므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도 삼가야 한다.
- (12) 강조해야 할 말은 강조해서 말한다. 이를테면, 기쁜 내용이면 밝은 어조로 말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면 그에 알맞은 어조로 말해야 효과적이다.

2) 전화를 받을 때

- (1) 벨(bell)이 울리면 수화기를 든다.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집에서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모범안이고, “여보세요.” 다음에 잠깐 틈을 두고, “○○동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등과 같이 지역이나 아파트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네”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간결하기는 하나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간다. “○○동입니다.”하고 바로 지역 이름을 밝히는 것은 너무 비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한 삼가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는 “네, ○○○[부서 이름]입니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듣기에도 좋은 말이다. 물론 “네, ○○○과 ○○○[이름]입니다.”와 같이 부서와 이름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밝히는 것도 좋다. 일부에서 “감사합니다. ○○○입니다.”와 같이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친절한 느낌이 드는 말이다. 그러나 “네” 없이 “○○○입니다.”만 하는 것은 집에서 전화 받을 때와 같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여보세요, ○○○○입니다.”

“여보세요, ○○(직장이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 (2)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전화를 바꾸어줄 때의 말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바꾸어드리겠습니다.”를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상대방이 누구인

지를 묻지 않는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신분을 밝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도 소홀하게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한다. 특히 직장에서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분(또는 ○시간)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간결하고 친절한 말씨여야 한다.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았을 때]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 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직장인 경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분 후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잘못 걸려 온 전화일 때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모두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아닌데요.”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이 재차 “거기 ○○○○번 아닌가요?”하고 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피한다. 이때 ‘아닌데요’와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사이에 ‘몇 번에 전화하셨습니다?’와 같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느낌이 들어 전화 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좋다.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3) 전화를 걸 때

(1) 상대방이 응답을 할 때

직장에서 전화를 걸 때는 집에서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인데요,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해도 괜찮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인데요.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2) 교환일 때

교환을 통해 전화를 걸 때도 “안녕하십니까? ○○번(또는 ○○부서) 좀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이나 상황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한테서 전화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쓴다. 이 상황에서도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전해 주십시오.’ 등과 같은 명령형은 피하도록 한다. “안녕하십니까? ○○○번 좀 부탁드립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3) 대신 전화를 걸 때

직장에서 전화를 대신 걸게 되는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님 전화인데요, ○○○씨를 부탁드립니다.”가 바람직하다.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씨 부탁드립니다.”

(4)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의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바꿔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정중하게 표현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바꿔드리겠습니다.”

(5)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은 듯이 전화기를 탁 놓지 말고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춰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4) 전화를 끊을 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고 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몇몇 학생을 지명하여 전화를 받고 거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4. 학교 방문자 친절 안내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각종 행사시 학교 방문자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요령을 안다.

◆ 유의점

1. 강의와 더불어 실습도 병행한다.

◆ 준비

1. 캠퍼스 조감도

◆ 진행

1. 다음 내용을 일러 준다.
-

1) 안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위치나 어떤 곳으로 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길을 안내할 때에는 내용과 표현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확한 방향과 거리, 걸리는 시간, 표지판 등 찾아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듣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길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다. 길을 안내할 때에는 안내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잘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이나 행사장을 알려 주는 것, 혹은 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시설물의 위치 등을 알려 주는 것, 시설의 이용법이나 어떤 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등이 안내이다.

안내를 할 때에는 듣는 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길 안내의 경우라면 듣는 이가 알고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것이 듣는 이가 길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에 확인하기 쉬운 건물이나 사건 등을 지적해 주는 것도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된다. 행사에서 청중들이 자리를 옮겨야 할 시간을 안내해 주는 경우라면 옮기기 전에 있을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행사 다음에 움직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안내하기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용할 교통편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한다.
- (2) 정확히 모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 (3)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되, 수식어는 피하고 간단하게 말하도록 한다.

2) 바람직한 친절 서비스의 모습

(1) 민원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가진다.

- | | |
|------------------|-----------------|
| ① 밝은 표정, 미소 띤 얼굴 | ②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인사 |
| ③ 단정한 용모와 차림새 | ④ 좋은 자세와 멋진 동작 |
| ⑤ 예의 바른 대화 | ⑥ 친절할 전화 응대 |

(2) 되도록 민원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 ①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② 대화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말한다.
- ③ 부드럽고 상냥한 완곡 화법이나 언쟁을 피하는 화법을 익힌다.
- ④ 칭찬과 감사의 말을 찾아 최대한 활용한다.
- 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
- ⑥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어떤 이유에서든 고객과 불쾌한 언동을 하거나 시비를 벌이지 않는다.
- ⑧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담아 겸손하게 말한다.
- ⑨ 말은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명확히 한다.
- ⑩ 항상 충분한 준비를 하여 책임 있는 대화를 한다.

-
2. 몇몇 학생에게 캠퍼스 조감도를 나누어 주고, 안내를 해보게 한다.
 3. 민원인과 안내자로 나누어 실습을 하게 한다.

5. 1일 1소(笑) 운동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연중

◆ 목표

1. 스마일 운동을 벌여 습관화하도록 한다.
2. 스마일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익힌다.

◆ 유의점

1. 일시적인 운동만으로 그치지 말고 연중 시행하도록 한다.

◆ 준비

1. 유인물

◆ 진행

1. 다음 내용을 알려준다.
-

1) 세련된 음성, 속도, 어조

우리는 “자네가 말로만 그렇지 않았지만 자네의 음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말하는 사람의 음성의 높이, 음조, 크기, 간격 등에 따라 그 태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 ① 말할 때의 음성은 또렷한 목소리, 적당한 속도, 알맞은 음량과 강약을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해야 한다. 업무상 잠깐 만나게 되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발음이 불명확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의사전달에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 ② 말의 속도는 1분에 350자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되 T.P.O(time, place, occasion) 즉 때와 장소 및 경우에 따라 변화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③ 목소리는 낮게 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고 품위가 있다. 다만, 낮은 목소리에 힘마저 없으면 응대에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소리라면 상대방의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낮은 목소리로 하되 힘있고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

2) 적절한 존경어와 겸양어의 사용

친절한 말하기는 올바른 존대와 겸양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존대어는 “~하신다” “~하십시오”를 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적인 형태 외에는 평소에 습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물어본다는 “여쭙어 본다”, 저 사람은 “저 분”, 누구는 “어느 분”, 나이는 “연세”, 있다는 “계신다” 등이 있다. 올바른 겸양어는 “~했습니다”~“하겠습니다”를 붙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불규칙한 형태는 평소 염두에 두면서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말한다는 “말씀하신다”, 나는 “저”, 우리는 “저희” 등이 있다.

3) 높임 말씨와 낮춤 말씨의 적절한 사용

말씨는 높임 말씨, 반 높임 말씨, 보통 말씨, 반 낮춤 말씨, 낮춤 말씨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화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민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낮춤 말씨를 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높임 말씨로서 국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품위 있는 말의 사용은 곧 인품의 고상함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높임 말씨를 쓸 때는 확실히 높임 말씨를 써야지 반말 투와 섞어 쓰는 것(예를 들면, “아저씨! 여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혈압 올리지 마시고...”)은 금물이다.

4)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

너무 딱딱하거나 사무적인 말씨는 삼가는 것이 좋으며, 비록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마지막 상대방까지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유머와 재치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명랑하게 만드는 것도 친절과 봉사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가벼운 유머나 위트가 제격이다. 또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아이에 대한 칭찬도 효과적이다. 특히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옷차림새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겠지만 이런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 해보면 차츰 숙달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6. 토론(‘친절한 경찰’이 되려면)

- 관련 덕목 : 친절, 예절, 협동, 성실, 겸손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절한 경찰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알려 준다.
2. 친절한 경찰과 대국민 이미지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 유의점

1.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 준비

1. 친절 경찰 봉사 사례

◆ 진행

1.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1) 친절한 경찰이 되어야 하는 근거

-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② 경찰관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1991, 대통령령)
- ③ 우리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경찰현장)
- ④ 조직 내 상하간에는 신뢰와 정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 ⑤ 상대방의 언행이 불쾌하더라도 의연한 자세로 소임을 다한다.(경찰실무전서:1360)
- ⑥ 국민은 친근한 경찰을 원한다. 경찰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물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일상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일선공무원이다. 경찰은 국가권력의 반사경과 같다. 경찰의 모습이 정부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국민은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경찰이 좀더 가깝고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기를 원한다. 친근하지 못한 경찰은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민생치안의 확립과 대민 서비스의 향상으로 항상 국민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려면 경찰활동이 범인체포 및 각종 시위진압이라는 한정된 역할과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에 활동의 우선 순위를 두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미지의 개선이 요망된다.(경찰경무론:69)
- ⑦ 경찰의 업무 중에는 제재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성격의 것들이 많아, 경찰을 대하는 국민들은 웬지 두렵고 기피적이다. 경찰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때는 물론이고 단속할 때에도 처벌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가이드의 개념으로 국민들을 접해야 한다.(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 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6집, 치안연구소, 2000.)

2) 경찰 친절교육의 기본 방향

- ① 경찰의 존립 근거가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교육한다.
- ② 현재 경찰의 위상을 인식시키고 경찰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가 친절 봉사를 강조한다.
- ③ 경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 대상으로서 경찰관이 국민을 응대하는 자세와 인상이 경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④ 업무 처리의 정확한 기준과 목표가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 교육한다.
- ⑤ 친절과 봉사의 명확한 개념과 인식 및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교육한다.
- ⑥ 전문적인 듣기·말하기·웃기 훈련을 시범 및 역할 연기 등을 통해 반복 실시한다.
- ⑦ 국민의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정리·수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한다.

7.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정직, 성실, 겸손, 이해 등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8. 친절한 내 모습

- 관련 덕목 : 협동, 이해, 관용, 성실, 정직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1. 카드 : 인원수 × 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9. 촛불 명상

9] 리더십 개발 훈련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리더십에 대한 안내
 2. 리더십(Leadership)과 폴로워십(Followship)에 대한 토론
 3. '경찰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리더' 선정 및 초청
 4. 나의 자화상
 5. 로봇(Robot)되어 보기
 6. 리더십 진단 및 개발
 7. 리더십 역할놀이
 8. 리더로서의 내 모습
 9. 내가 나에게
 10. 촛불 명상
-

1. 리더십에 대한 안내

- 관련 덕목 : 자율, 복종, 희생, 헌신, 관용, 포용, 자율,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리더십의 정의를 안다.
2. 리더십의 필요성을 안다.
3.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안다.
4.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5. 폴로워십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6. 경찰 리더십의 요건을 이해한다.
7. 리더십 개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유의점

1. 진행자는 주어진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에 맞게 리더십에 대해 설명한다.
2.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슬라이드를 제작한다.

◆ 준비

1. 유인물이나 슬라이드 제작

◆ 진행

1. 진행자는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

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leadership)은 흔히 ‘지휘력, 지도력, 통솔력, 지휘통솔력’이라는 이르는 것의 총칭이다. 리더십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의 달성에 공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과정이다. 모든 조직은 크기와 위계화(位階化) 정도, 목표에 관계없이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이란 항상 원칙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대부분의 소단위 조직에서도 성원들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으며, 의사결정력에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일치로부터 조화와 응집력을 끌어내어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장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의 발휘 여부는 조직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

대학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도자 양성 혹은 엘리트 교육의 책임을 떠맡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학생들을 지도자로 육성시키는 데 매우 소홀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것들은 지배적 정치인들의 도덕적 황폐성과 대학교육담당자들의 ‘어설픈’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의 현대사를 그르친 이

유도 되지만 그들을 직접 관찰했던 우리의 대학생들에게 ‘현실’에서 모범을 취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나 정치차원에 대한 건전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리하여 국가나 정치에 관한 것이라면 환멸과 냉소로 임하게 했으며, 그 결과 국가건설 과정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태로만 인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정치의 그 같은 윤리적 황폐성과 비도덕성은 책임 있는 대학교육담당자들의 지극한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대학은 본래의 소임인 지도자육성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대학의 엘리트들에게 지도자적 자질과 책임의식을 훈련시켜, 그들이 나가서 ‘질’의 양의로의 전환’을 실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 즉 ‘모든 개인들이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시민사회’로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대학은 정규교과목, 학생생활규범과 과외활동 지침에서 경찰간부로서의 ‘지휘·지도 능력’ 곧 리더십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성실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통하여 경찰간부로서의 지휘와 지도능력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도야한다.(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
- ② 학생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이해, 자율, 책임, 지휘능력 및 협동정신을 함양함에 있다.(경찰대학생 과외활동지침)
- ③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집단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
- ④ 관리자와 리더십(경찰경무론) 참조
- ⑤ 리더십론(경찰대 정규교과목) 참조

3) 리더십의 조건

(1)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가치가 있다. 리더십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신을 바르게 하라.

리더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가까지의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공로가 별로 없는데, 지위가 높다거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부를 획득한 사람의 주위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 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

리더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리더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권위의 힘만으로 위엄을 세워 조직 구성원의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명령만하는 것은 협동의 걸림돌이다. 대화는 듣는 것부터 하라.

④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라.

조직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 물론 그 목표는 조직원들의 합의(consensus)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효과적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전략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조직의 결속력(teamwork)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자원을 집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힘이 분산되면 아무런 성과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⑤ 구성원에게 믿음을 심어 주라.

조직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믿음과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라.

⑥ 일이 재미있도록 만들어 주라.

구성원 각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해낼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일이 재미있다.

⑦ 구성원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라.

리더는 조직 구성원을 대할 때 공명정대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성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이다. 합리적인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인사와 보상에서 사적 요인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⑧ 솔선수범하라.

리더는 윤리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구성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리더십이 확보된다. 리더는 권한에 따르는 희생과 책임의 정신 곧 'noblesse oblige' 지도적 지위에 있을수록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군대의 사병들 내무반에서처럼 편안 일은 고참이 하고 어려운 일은 신참이 하도록 한다면, 가장 하등의 조직력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에서도 리더는 소시민이 우리는 여러 가지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은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며 리더들은 편안함만을 추구한

다면 그런 사회는 활력을 잃을 것이다. 자신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라. 구성원의 발전을 도와주고 모범을 보이라.

⑨ 구성원을 인간으로 사랑하라.

리더는 구성원을 기계같이 다루지 말고 인간으로 사랑하여야 한다. 일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지휘 통솔하여야 한다. 전체적 리더십이나 자유방임적 리더십보다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는 구성원들을 통치하기보다는 섬겨야 한다. 구성원 길들이기를 리더십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조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구성원들을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만 하는 리더십은 이미 리더십이 아니다. 이런 전체적 리더십은 매우 강해 보이지만 사실상 리더십의 부족해 생겨난 공여지책이다. 리더는 구성원에게 자상해야 한다. 구성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⑩ 금전적 보상으로 구성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라.

구성원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금전 말고도 다른 수단이 수백 가지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⑪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리더는 지나친 환상만을 좇아가지 않아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⑫ 지나치게 조직 내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리더는 지위가 오를수록 내부 문제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⑬ 용기를 가지라.

리더십은 용기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감과 용기가 결여된 리더를 따르고 싶은 구성원은 없다. 우유부단은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다. 결단력이 없어 언제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리더에게 자신을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2) 마츠시다(松下)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① 있는 그대로를 살피라.
- ②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라.
- ③ 공분(公憤)을 가지라.

- ④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 ⑤ 잘못된 원인은 스스로에게 돌리라.
 - ⑥ 사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쓰고,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키며, 사람을 기르라.
 - ⑦ 천하의 흐름을 알고 천명을 중하게 생각하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라.
 - ⑧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줄 알라.
 - ⑨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포용력을 갖추라.
- (3) 폭스(J.J.Fox, 1998)는 'How to Become C.E.O'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습관들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① 평생 '아이디어 노트'를 사용해, 남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수집하라.(Mistake is milestone.)
 - ② 하루에 1시간 이상 깊이 생각하라.
 - ③ 한 달에 1번 이상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라.
 - ④ 상사를 편안하고 빛나게 하라.(자기 자리도 인계하려 할 정도로)
 - ⑤ 구성원에게 '감사하다, 네가 필요하다, 너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축하한다'(thank you, need you, appreciate your effort, congratulation)라는 말을 최대한 자주 하라.
 - ⑥ 시간을 최대한 능률적·경제적으로 쓰라.
 - ⑦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영광을 누리기 힘들다'(No goals, No win, No glory.)
 - ⑧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며 이끈다는 것이다'(To teach is to learn and lead).
 - ⑨ 매년 1건 이상의 자기 성취를 하라.

진정한 리더십의 발휘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부하를 위하여 동료들 위하여 국민을 위하는 공동 노력의 정신에서 이루어지며 능력과 상호 작용적 협동심을 발휘할 때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는 수평적·정신적·인격적 관계가 중시되며 따라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카리스마적 합법적 리더십보다 전문적 포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4) 폴로워십(followership)의 유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폴로워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 양자의 역할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된다. 조직이 지탱되고 안 되고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얼마나 수수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도 달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폴로워들이 얼마나 그를 잘 따라 주는가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리더십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폴로워십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폴로워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순한 양’형

자발적이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며 무비관적이다. 비진취적이어서 대개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② ‘네,네,네’형

리더의 생각을 무비관적으로 맹종한다. 리더에게 매우 공손하며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한다. 판단력이 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리더는 이런 유형을 좋아한다.

③ ‘소외자’형

비판적이고 독자적이다. 맡은 역할을 피동적으로 수행한다. 흔히 냉소적이고 불만이 있어도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④ ‘생존자’형

바람의 방향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불이익을 당하느니 안전하게 지내는 편이 낫다(better safe than sorry)’라는 생활신조에 따라 살아간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데만 민첩하다.

⑤ ‘스타’형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주성과 패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모험을 자청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므로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한결같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직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5) 바람직한 폴로워의 공통적 자질

바람직한 폴로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자질을 가진다.

① 자율

자율이란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관리능력과 자주성을 발휘하며 세세한 감독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훌륭한 폴로워란 리더

가 안심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미리 알아차린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계통상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리더와 자기 자신이 동등하다고 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거리낌없이 상위자에게 이견을 제시하며, 위계나 편제에 구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능률적인 폴로워들은 비굴한 방법으로 지위를 확보하고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리더를 이용해 보려는 시도 사이에 갈팡질팡한다.

② 헌신

효율적인 폴로워들은 자신의 생활과 경력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조직, 아이디어 또는 명분 등에 헌신한다. 간혹 리더에 따라 이같은 헌신을 곡해하여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어떤 목적이나 대의에 대한 충성심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효율적인 폴로워들은 그들의 리더를 단지 보람있는 일을 위해 함께 모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스스로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충성심과 노력을 절제하게 된다.

③ 자격/능력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무능할 수밖에 없으므로 ‘스타’형 폴로워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량을 숙달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업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올리며, 이들에게 있어 자기 계발을 포함한 지속적인 학습은 제2의 천성이자 경력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다. 반면 효율적이지 못한 폴로워들은 학습과 발전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들에게 있어 학습은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뿐이며, 세미나에 파견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리더 중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들의 자격 용건 및 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④ 폐기

효율적인 폴로워들은 폐기에 차 있고 정직하며 믿음직스럽다. 그들은 지식과 판단력을 갖춘 독자적이며 비판적인 사고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힌다. 그들은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성공을 함께 나누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윤리적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다. 통찰력이 있고 허심탄회하며 두려움이 없으므로 이들은 리더와 동료들이 솔직한 입장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며 그들이 필요

- ① 부하직원의 의견과 창의성 존중
- ② 수직적·수직적 의사소통 원활
- ③ 동료간의 좋은 인간관계

7) 리더십의 개발 방법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

- 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고 훈련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등 근원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기술적이거나 현학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② 장래 리더로서의 자기 인식

지금까지 관행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 직책에 따르는 희생이 부족했다. 이 점을 대학시절부터 인식하여 리더가 되었을 때, 솔선수범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③ 대중적인 삶의 이해

휴가중 일정기간 파출소 철야근무 의무화, 농촌봉사, 산업체 견학 등에 적극 참여해 본다.
- ④ 사회지도층 초빙 강연 및 대화

바람직한 리더의 자질, 사태해결력, 집단 구성원 내의 갈등 조절, 판단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본다.

 - (ㄱ) 초빙 강사진들로 일련의 강좌를 개설한다.
 - (ㄴ) 정기적인 소집단 토론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단 내에서 경쟁하면서 협조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익히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 (ㄷ) 공공 또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마련하여 각 조직에서 리더로서 또는 폴로워로서의 값진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와 조직력, 지도자의 일, 지도자와 반대 세력,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관계, 지도자의 인내, 지도자의 도덕적 책임감 등의 구체적 측면에서 실시 예정인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은 어디까지나 대학생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⑤ 다음과 같은 리더십 개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 (ㄱ) 개인 행동 수준 : 강의, 사례연구, 역할연기, 감수성 훈련, 행동 모형화

- (ㄴ) 집단 행동 수준 : 팀 구축, 집단대면 기법, 과정 자문법, 제3자 조정법, 설문조사 피드백
- (ㄷ) 조직체 행동 수준 : 세미나, 팀의 개발, 집단간 행동개발, 모형의 실천, 이상적 모형의 정착

2. 교육 기간중 교육생들의 리더십과 폴로워십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Brain Storming) 나열해 보게 한다.

-----<예>-----

- 각종 행사를 통한 개발
- 지휘근무
- 섹터별 과업 달성
- 개인별 지휘근무 연습(등용로 청소라도 학번순으로 지시하는 방식)
- 부대지휘훈련 실전화(실현가능한 실제목표 수행)
- 제식훈련, 분열훈련
- 재강화훈련(3.4학년 대상)
- 각종 위원회
- 명령, 보고 계통 확립
- 기획보고서 모의 작성
- 후배교육 의무화
- 지적제도 합리화
- 동아리 활동
- 3분 스피치
- 리더십 관련 책자 내용 소개
- 술선수범해서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
- 3·4학년 대상 지도, 지휘받는 기회 부여

3. 5명 1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한다.

2. 리더십과 폴로워십에 대한 토론

- 관련 덕목 : 자율, 헌신, 복종, 희생, 관용, 포용
- 소요 시간 : 2시간

◆ 목표

1. 리더십과 폴로워십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2. 폴로워십의 중요성을 안다.

◆ 유의점

1. 무제한 토론을 허용한다.
2. 토론의 의제를 저학년과 고학년 용으로 나누어 토론하게 한다.

◆ 준비

1. 발표 장소, 음향시설
2. 토론 평가표

◆ 진행

1. 10명씩 팀을 구성한다.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토론 의제’를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한다.(단, 시간적으로 한 학기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다음과 같은 <예>를 참조해 리더십은 3-4학년, 폴로워십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토론하게 한다.

-----<예>-----

- 민주적인 리더십과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비교하고 예를 들라.
- 민주적인 리더십과 약한 리더십이 종종 동일시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 리더십의 발휘 여부가 조직 구성원에게 달려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 술선수범하지 않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생각해 보라.

- 리더가 소시민적인 안락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
 -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현실에서 거명할 수 있는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각각 갖추지 못한 점은 어떤 것들인가?
 - 한국 사회는 리더가 성장하는 데 어떠한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 상급생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

3. 팀장은 일정한 양식의 토론 평가표에 토론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4. 우수작을 선정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한다.

3. '경찰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리더' 선정 및 초청

- 관련 덕목 : 공정, 희생, 모범
- 소요 시간 : 선정(2시간), 초빙 강연(2시간)

◆ 목표

1. 당해 연도에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된 인물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하게 한다.
2. 참가자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직접 초빙해 소감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 유의점

1. 선정 인물이 정치인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참가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인물을 선정하도록 한다.

◆ 준비

1. 무기명 투표지

2. 음향시설

◆ 진행

1. 30명 단위 분반한다.
2. 각 반별 투표로 인물을 선정한다.
3. 전반이 모여 반별로 선정된 인물에 대해 대표 발제 및 토의하게 한다.
4. 참가자 전원의 투표로 최종 인물을 선정한다.
5. 최다 득표자 초청해 그의 경험과 지혜, 덕성 및 지도력에 관한 견해 경청한다.
6. 경청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4. 나의 자화상

- 관련 덕목 : 겸손, 친밀감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2. 자신의 삶을 회고해 정리하도록 한다.
3.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게 한다.

◆ 유의점

1. 다양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A4용지
3. 크레파스
4. 스카치 테이프

◆ 진행

1.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넉넉한 장소를 제공한다.
2. 자신의 모습을 나무의 형태로 형상화해 그린다. 과거는 뿌리로 현재는 줄기로 미래는 잎과 열매로 표현한다.
3. 완성된 자신의 자화상을 벽에 붙인다.
4. 차례대로 나가 자신의 자화상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상과 그 의미를 설명한다.
5. 자화상을 그릴 때와 발표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5. 로봇(robot)되어 보기

- 관련 덕목 : 겸손, 관용, 역지사지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명령을 받는 부하의 심정을 이해한다.
2.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3. 리더로서 부하에게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한다.

◆ 유의점

1. 적극적이고 재미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 진행

1. 4명 한 팀으로 편성한다.

2. 팀별로 둥글게 앉는다.
3. 로봇이 되기를 자원한 사람을 원 중앙에 앉힌다.
4. 참가자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차례대로 명령을 한다.
 - 명령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너무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은 삼간다.
 - 되도록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을 한다.
5. 로봇이 되어본 심정과 주인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의미를 서로 이야기한다.

-
- “로봇이 된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 “로봇이 된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 “당신은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하겠습니까?”
 - “그러한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

6. 리더십 진단 및 개발

- 관련 덕목 : 성실, 겸손, 자율
- 소요 시간 : 4시간 30분

◆ 목표

1.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진단한다.
2. 리더십 진단 결과 장단점을 파악한다.
3.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4.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경찰 간부상을 확립한다.

◆ 유의점

1.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설문에 응하게 한다.
2.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준비

1. 리더십 진단 설문지(전문기관이 제작한 설문지 참조)

◆ 진행

1. 리더십 진단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2. 리더십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① 지시형

- 과업 수행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정해 가는 유형, 과업위주의 행동이 높음, 인간관계 위주의 행동은 낮음
- 능력이 없고 자발성도 없으나 기꺼이 해보겠다는 동기가 유발된 상태

② 설득형

- 과업 수행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세부적으로 감독하는 반면, 과업을 충분히 이해시켜 정서적 동기를 강화하는 유형, 가업위주 행동이 높음, 인간관계 위주 행동도 높음.
- 약간의 능력은 있으나 자신감의 결여로 자발성이 저조한 상태

③ 참여형

- 과업 수행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대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은 리더가 하는 유형, 정신적인 지원에 주안을 둠
- 능력은 있으나 자발성이 가변적인 상태, 대대로 과업에 대한 회의로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감독 유무에 따라서 자발성이 변화되는 상태

④ 위임형

- 과업 수행시 과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실상의 모든 것을 부대원에게 위임
- 능력도 우수하고 자발성도 강하며 책임감이 왕성하게 숙달된 상태

3. 자신의 리더십 유형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단점 보완책을 적어보도록 한다.
4. 검사결과에 대한 소감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5. 바람직한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리더십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게 한다.

7. 리더십 역할 놀이

- 관련 덕목 : 겸손, 성실, 협동 등
- 소요 시간 : 4시간

◆ 목표

1. 다양한 리더십 발휘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객관화시키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2.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언어·행동을 알게 한다.
3.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4. 스트레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하게 한다.
5.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함으로써 친근감을 갖게 한다.
6.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감을 증진한다.

◆ 유의점

1. 지나치게 특기자 위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한다.
2. 극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대안 모색시 흑백논리로 결론을 짓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준비

1. 필기도구
2. 무대

◆ 진행

1. 5명 한 팀으로 편성을 한다.

2. 참가자 각자가 리더 갈등 사건을 3가지씩 생각해 기록한다
3. 팀별 토론을 거쳐 리더 갈등사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3. 팀을 나누어 각 팀별로 발표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중복되는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한다.
4. 즉흥적으로 내용을 꾸미고 각자의 희망대로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
5. 5분 이내에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6. 각 팀별로 나와서 공연한다.
7. 다른 조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과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팀별로 토의하여 발표한다.
8. 2명씩 짝지어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소감을 나눈다.

8. 리더로서의 내 모습

- 관련 덕목 : 겸손, 성실, 협동 등
- 소요 시간 : 3시간 30분

◆ 목표

1. 자신감을 키우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유도한다.
2.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한다.
3.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게 한다.
4. 타인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 준비 사항

1. 카드 : 인원수× 15
2. 필기도구

◆ 유의점

1.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단점이 적힌 카드를 찢을 때 실감나게 한다.
3.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진행

1. 1인당 15장씩 카드를 나누어준다.
2. 자신의 특징을 카드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한다.(예 : 나는 하다.)
3. 카드에 적은 자신의 특징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놓고, 버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놓게 한다.
4. 어느 쪽의 카드가 많은지 세어보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5. 각자 오른쪽에 놓인 카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해준다.
6. 각자 왼쪽에 놓인 카드를 찢어버리게 하되, 왜 버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7. 카드의 주인공이 왼쪽에 놓인 카드를 정말 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버리게 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님의한 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분위기를 돋우어 준다.
8.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9. 눈을 뜬 후 찢어버리고 난 뒤의 기분과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9. 내가 나에게

- 관련 덕목 : 성찰, 타인의 이해, 겸손
- 소요 시간 : 3시간

◆ 목표

1. 참가자 각각의 개인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 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한다.

2. 자라온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16절지
2. 필기 도구

◆ 유의점

1. 편지는 무기명으로 쓰도록 한다.
2.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행

1. 용지를 나누어준다.
2.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한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을 기도하는 것처럼 쓴다.
 -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쓴다.
 - 장차 다가 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낸다.
3. 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섞는다.
4. 섞인 편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발표한다. 발표자는 편지의 주인공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준다.
5.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도록 한다.

10. 촛불 명상

VI. 결어 및 제언

국민은 물론 경찰조직 내에서도 경찰교육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해 보았다.

다음의 프로그램은 전(全) 교육기간을 통해 장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1.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2. 각종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4. 현장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5.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다음의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단기(2박 3일 또는 3박 4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1.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2. 자기 성장 프로그램
3.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
4.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5.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6. 예절 생활화 프로그램
7.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
8. 친절 서비스 프로그램
9. 리더십 개발훈련 프로그램

이 시안을 토대로,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작성’ → ‘진행지도자 지침서 제작’ → ‘프로그램 진행지도자 교육’ → ‘프로그램 실험 및 분석(1-4차)’ → ‘프로그램 확정’의 단계를 거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신입순경 과정, 간부후보생 과정, 특채 과정 등 각

과정의 특성에 어울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끝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실시 대상, 실시 기간,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질 등에 따라 그 효과가 같을 수 없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교육에서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병섭·하태권, 기성세대와 신세대 경찰의 의식구조 차이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96-18, 치안연구소.
- 김재훈 외, 경찰교육 프로그램 적정화 연구, 연구보고서 98-01, 치안연구소, 1998.
- 김정오 외, 지성·덕성·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김중술, 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김태훈, 덕 교육론, 양서원, 1999.
- 박경현, 리더의 화법, 삼영사, 2000.
- 배규한, 미래의 틀로 본 세기말의 한국 사회, 계간 사상, 1996년 봄호.
- 백형조, 경찰개혁에 대한 분석평가와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제12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치안연구소, 2000.6.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편, 대학생활과 학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과 자아개발, 1990.
- 양창삼, 인간관계론, 경문사, 1999.
- 유동수, 감수성 훈련, 학지사, 2000.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생도인성교육프로그램, 1999.
- 이돈희, 홍은숙, 인간활동의 내재적 가치의 인식을 통한 가치관 교육, 정보 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2000.
- ,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 , 법질서경제학, 대한문화사, 1997.

- 이수용, 인간관계심리학, 태일출판사, 1999.
- 이윤주 외, 집단상담기법, 학지사, 2000.
- 이재창,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한국가이던스, 1995.
- 이한검 · 이수광, 인간관계, 형설출판사, 2000.
- 전국 국 · 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편, 참된 삶의 길, 중앙적성출판사, 1995.
- 전영곤,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적 인간상,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5.
- 전용찬, 경찰윤리, 경찰대학, 2000.
- 정범모, 인간으로의 회귀를 호소한다, 교육 개발통권 95호, 한국교육개발원, 1995년 5월호.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제2의 건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 (주) 월드리서치,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관련 3차 여론조사, 2000,3.
- 한정호 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경찰이미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 16집, 치안연구소, 2000.
- 허만형 외, 신입순경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9-01, 치안연구소, 1999.
- 경찰청, 경찰대개혁, 1999.
- 경찰대학, 경찰교육개혁, 2000.
- 경찰교육개혁위원회, 경찰교육수준 -각급 교육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내용 -, 2000.
- A.Kohn, "The Trouble with Character Education", A.Molnar,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Charact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Gail E. Myers · Michele Tolela Myers, 임철성 옮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1995.
- Stephen Coby, 김경섭 · 김원석 옮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1989.
- Walter Pauk, 김종석 편역, 대학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원사, 1995.